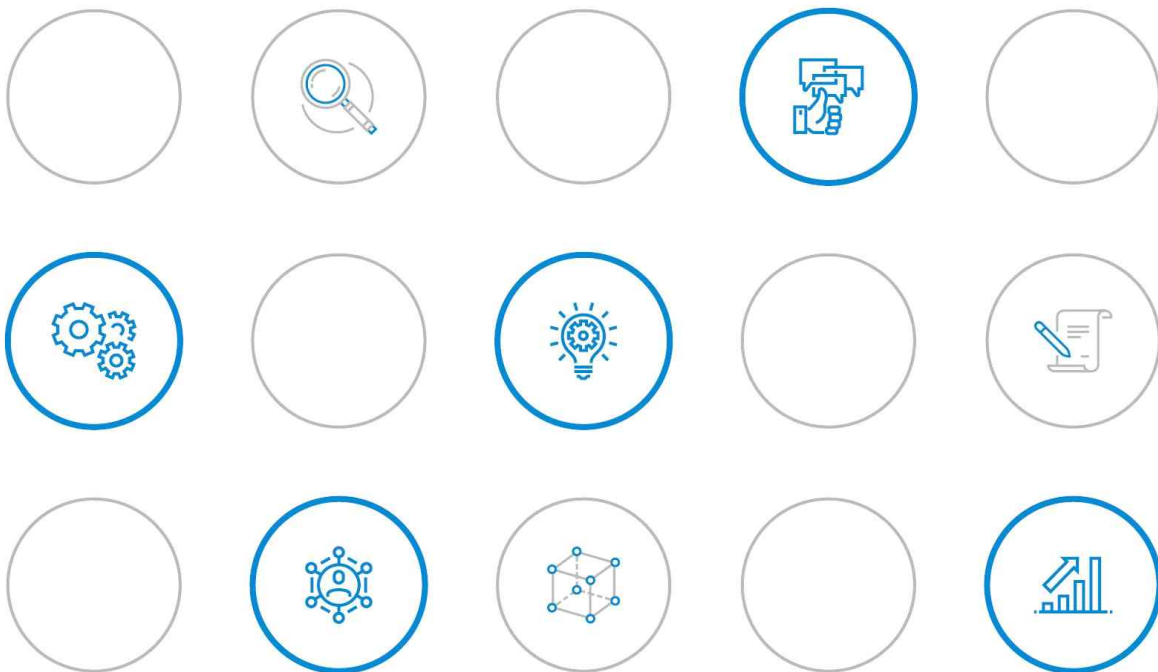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지표 적용 및 생산활동 강화 방안

Application of Production Indicators for Senior Citizens of Goyang Special City and Measures to Strengthen Production Activi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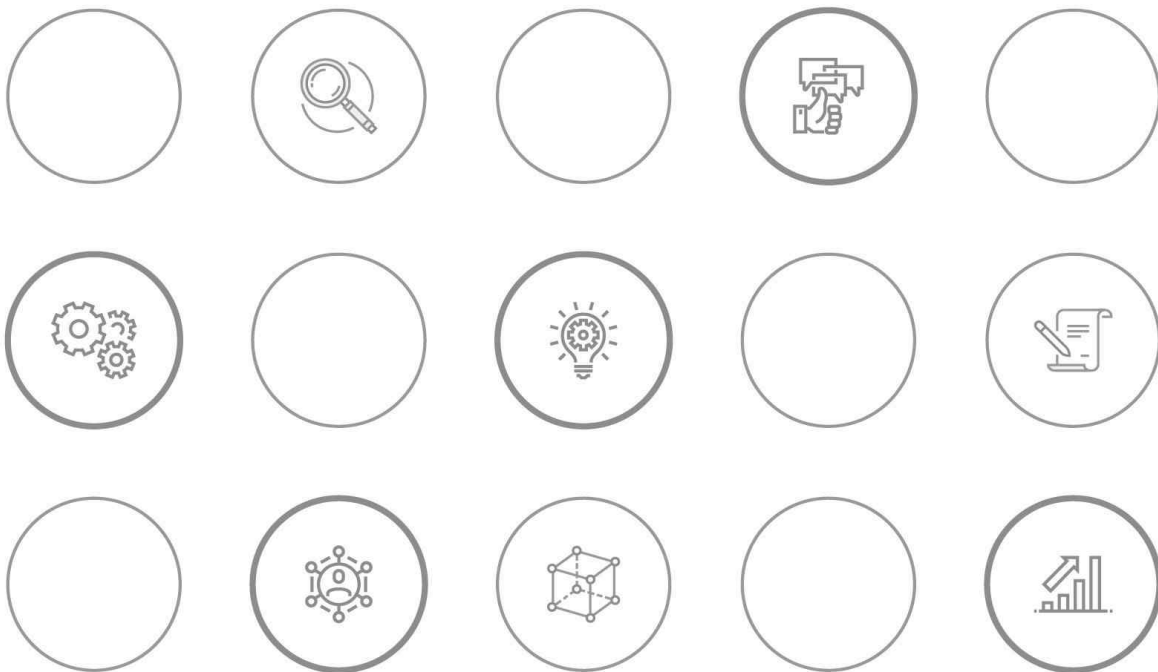
- 문정화, 황진수, 최봉은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지표 적용 및 생산활동 강화 방안

Application of Production Indicators for Senior Citizens of Goyang Special City and Measures to Strengthen Production Activities

- 문정화, 황진수, 최봉은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지표 적용 및 생산활동 강화 방안

Application of Production Indicators for Senior citizens of Goyang Special City and
Measures to Strengthen Production Activities

연구책임자

문정화 고양연구원, 행정사회연구실,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황진수 대한노인회 한국노인복지정책연구소, 소장

최봉은 고양연구원, 행정사회연구실, 연구원

자문위원

김창호 부소장 (대한노인회 한국노인복지정책연구소)

김가원·김문정·박경하·이주원 박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김수현·이정아·지은정 박사 (한국고용정보원)

김윤영 박사 (경기연구원)

변금선 박사 (서울연구원)

이승호 박사 (한국노동연구원)

이중섭 박사 (전북연구원)

김수린 박사 (한국농촌경제연구소)

김익기 소장 (동아시아 노인정책연구소)

임연옥 전 연구교수 (한림대학교 고령사회연구소)

김춘식 교수 (광주동신대학교)

박희원 교수 (성산호대학원대학교)

이은진 교수 (서울신학대학교)

신우철 관장 (고양시니어클럽)

요 약

1. 연구 개요

□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지표를 적용하여 고령자 생산활동 현황과 수준을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고양시 고령자 생산활동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 내용

- 고령자 생산활동 이론 및 정책 동향 분석
-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지표 체계 검토
-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지표 적용 및 분석
-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활동 강화 방안 도출

□ 연구 방법

- 문헌 연구
- 설문조사: 65세 이상 고양시 거주 고령자 500명, 고양시 소재 기업 150개 대상
- 행정자료 및 통계자료 분석
- 전문가 자문회의

2. 고령자 생산활동 이론 및 정책 동향

□ 고령자 생산활동의 중요성

-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주 4일제 근무제 추진 움직임이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노동력 부족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고령 인적자본 활용이 중요해지고 있음
- 고령자의 생산활동은 고령화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세대 간 부양 부담 및 사회보장

비용의 증가 문제를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이 됨

- 고령자 생산활동은 고령자 개인 측면에서 역할 수행, 경제적 자립, 건강 유지, 생활 만족도 향상 등 삶의 질 유지 및 향상에 매우 중요함
- 고령자의 생산활동은 고령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사회적 통합에 기여할 수 있음

□ 고령자 생산활동 이론검토

- 생산적 노화는 성공적 노화, 활동적 노화와 함께 고령화 대응을 위한 신노년 담론 중 하나로 고령화 위기론에 대한 비판으로 등장함
 - 생산적 노화는 버틀러(Butler)가 1982년에 열린 잘츠부르크 컨퍼런스에서 고령자가 의존성(dependency)과 사회 부담(social burden)으로 대표되는 인식에 맞서기 위하여 노인이 가지는 생산적 잠재성 이슈를 제기함으로써 사회 노년학의 어휘사전에 주요 용어로 자리 잡음
- 생산적 활동에 대한 통일된 정의는 없고 학자나 실천가, 국가, 문화, 인종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됨
 - 본 연구에서는 ‘고용’에 대한 고령자의 높은 욕구를 반영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해 목표 달성에 용이 하도록 생산적 활동을 노동시장 내 경제활동인 ‘고용’과 이를 위한 ‘역량 개발 활동’으로 정의함
- 고령자 역량 및 교육 관련 이론으로는 인적자본이론, 사회적 지지 이론, 역량 모델 이론이 있음

□ 고령자 고용정책

- 고용노동부에서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의 자발적 계속 고용 기반 마련, 전직·재취업 지원 서비스,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직업 훈련 등을 지원하고 있음
 -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장려금 지원 정책이 있음
 -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가 있으며 최저 임금 이상, 4대 보험 가입을 지원함
 - 근로자와 사업주를 지원하는 고용서비스로 중장년내일센터, 고령자인재은행이 있음
- 보건복지부 ‘제3차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 (2023-2027)
 - 2027년까지 노인인구의 10% 수준으로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되, 공익활동 비중을 현재 68% 수준에서 60%로 낮추고 사회 서비스형, 민간형 일자리 수준을 40% 이상으로 확대
 - 공익활동형 일자리 내실화: 소득 보장 기능 강화 및 물가 상승 수준 등을 반영하기 위해 적정 활동비 산출 및 지원 (2027년 월 31만 원)
 - 공공형 일자리(공익활동형, 사회 서비스형)를 적정 강도·근무 시간·전문성 등 재구성 대안의

필요에 따라 일자리 세부 유형 분류, 재배치 및 전환 등 검토

-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 확대: 전체 노인 일자리 중 사회 서비스형 비중을 2027년 15% 이상으로 확대하고 제도 개선 병행 추진
- 민간형 취·창업 지원강화: 노인 일자리 사업 이해도·전문성 향상과 업무 역량 증진을 위한 필수교육 체계 마련 및 채용 기준 개선(기존: 채용 후 개발원 필요 과정 이수/ 구축(안): 채용 전 필수담당자 기초교육 과정 이수, 채용 후 담당자 실습 보수교육 과정 이수)

3.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지표 체계

□ 지표 구성

- 2023년 개발된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지표를 적용하면서 지표 측정 및 이해에 용이하도록 지표명 등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수정했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음

구분(46)			고용(29)	역량과 교육(17)
결과지표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65~69세 고용률• 70~74세 고용률• 75세 이상 고용률• 월평균 임금액•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비율• 저임금근로자 비율•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 일자리 임금 만족도• 일자리 근로 시간 만족도• 일자리 근무 환경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력(고졸이상, 대졸이상 비율)• 가구 월소득• 주관적 신체건강 수준• 만성질환 수• 우울 유병률• 인지장애 경험률• 정보통신(ICT활용) 역량• 사회적(대인)관계 역량
배 경 지 표	개인 차원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자리 지속 의사율• 취업 의사율• 공공일자리 참여 희망률• 구직활동 경험률• 희망 근로 시간 형태(시간제 비율)• 희망 대비 실제 근무 시간 비율• 장래 근로 희망 연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업교육 희망률• 직업교육 참여율
	사회 차원 (19)	정책환경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자 고용서비스 기관 수• 고용서비스 이용률• 취업 정보 접근 용이성• 고령인구 대비 공공일자리 비율• 민간일자리 수• 민간기업의 고령자 고용의향률• 현 일자리 계속 근로 기대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업교육 기관 수• 직업교육 참여 용이성• 직업교육 후 취업률• 직업교육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양시 일자리 수준 평가 고양시 고령자 고용정책 만족도 	
		사회문화 특성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상 연령차별 인식 직장 내 연령차별 경험률 물리적 고령 친화 노동환경 구축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자 역량에 대한 사회 인식 고용주의 고령자 역량에 대한 인식 교통, 이동 편리성에 대한 인식

□ 지표 측정

- 행정자료: 지역별 고용 조사, 경기도 사회조사, 지역사회건강조사, 지역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자료, 직업능력 심사원 자료
- 설문조사: 고양시 거주 65세 이상 고령자 500명, 고양시 소재 기업 150개

4.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지표 적용 및 분석

□ 고용영역 결과지표 적용 결과

(단위: %, 개소, 점)

구분		고양시 고령자	성별		연령대별		
			남성	여성	연소	전기	후기
고용률	65~69세 고용률	45.5%	59.2	32.3	-	-	-
	70~74세 고용률	34.3%	41.5	27.7	-	-	-
	75세 이상 고용률	12.1%	21.0	6.7	-	-	-
	※ 전체 고령자 고용률	28.2%	40.3	18.8			
임금	월평균 임금액	219만 원	270	160	272	186	130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비율	22.8%	20.0	26.0	15.2	22.5	42.2
	저임금근로자 비율	43.3%	30.8	58.0	28.9	52.6	67.1
일자리 만족도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	3.14점	3.10	3.20	3.11	3.07	3.25
	임금 만족도	2.90점	2.81	3.03	2.89	2.80	3.02
	근로시간 만족도	3.15점	3.12	3.21	3.12	3.11	3.28
	근무환경 만족도	3.16점	3.15	3.18	3.16	3.07	3.25

□ 고용영역 배경지표 적용 결과

(단위: %, 개소, 점)

구분		고양시 고령자	성별		연령대별		
			남성	여성	연소	전기	후기
개인 차원	일자리 지속 의사율	74.7%	83.3	58.3	84.1	72.7	56.8
	취업 의사율	21.8%	27.5	17.6	38.8	16.2	13.0
	공공일자리 참여 희망률	23.8%	21.4	26.2	26.1	27.5	17.5
	구직활동 경험률	33.7%	28.5	50.0	33.4	50	0
	희망 근로 시간 형태(시간제) 비율	31.3%	24.1	45.6	20.6	38.6	51.4
	희망 대비 실제 근무 시간 비율	113.5%	115	109	109.3	109.5	135.4
	장래 근로 희망 연령	76.1세	76.5	75.3	74.1	77.3	80.2
사회 차원	정책	고령자 고용서비스 기관 수	19개	비고) 수원 26개, 성남 16개, 용인 13개			
		고용서비스 이용률	42.3%	47.4	32.4	43.9	40.4
		취업 정보 접근 용이성	2.75/5점	2.86	2.53	2.79	2.67
		고령인구 대비 공공일자리 비율	5.8%	노인일자리 9,971명 노인인구 172,166명			
		민간 일자리 수	294,346개	수원시 410,102, 성남시 477,451, 용인시 345,066			
		민간기업의 고령자 고용의향률	53.3%	-			
		현 일자리 계속 근로 기대 기간	4.0년	4.2	3.8	5.1	3.1
		고양시 일자리 수준 평가	2.66/5점	2.63	2.72	2.72	2.61
		고양시 고령자 고용정책 만족도	3.01/5점	3.01	3.03	3.08	2.96
	사회 문화 특성	고용상 연령차별 인식	3.49/5점	3.48	3.50	3.51	3.43
		직장 내 연령차별 경험	21.3%	24.6	15.0	20.7	21.8
		물리적 고령 친화 노동환경 구축 정도	2.79/5점	2.82	2.75	2.77	2.82

□ 역량과 교육영역 결과지표 적용 결과

(단위: %, 개소, 점)

구분		고양시 고령자	성별		연령대별		
			남성	여성	연소	전기	후기
학력(고졸 이상, 대졸 이상 비율)		고졸 이상 62.2% 대졸 이상 26.7%	76.6 42.0	51.0 14.9	80.4 37.5	64.2 22.1	46.9 42.0
가구 월 소득		291만 원	296	287	344	289	252
건강	주관적 신체 건강 수준	3.02/5점	3.16	2.92	3.27	2.96	2.86
	만성질환 수	1.45개	1.63	1.27	1.18	1.35	1.86
	우울 유병률	6.4%	5.8	6.8	5.6	5.3	7.6
	인지장애 경험률	33.85%	23.8	44.0	30	30.6	41.3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역량		2.49/5점	2.63	2.34	2.78	2.46	2.20
사회적 관계 역량		3.36/5점	3.40	3.31	3.44	3.37	3.25

□ 역량과 교육영역 배경지표 적용 결과

(단위: %, 개, 점)

구분			고양시 고령자	성별		연령대별		
				남성	여성	연소	전기	후기
개인 차원	직업 교육 희망률		20.9%	18.4	23.58	19.5	20.0	25.0
	직업 교육 참여율		9.5%	11.3	5.9	14.0	5.3	2.7
사회 차원	정책	직업 교육 기관 수	90개	수원시 134, 성남시 91, 용인시 59				
		직업 교육 참여 용이성	3.58/5점	3.47	4.00	3.60	3.33	4.00
		직업 교육 후 취업률	68.4%	60	100	66.7	100	0
		직업 교육 만족도	3.79/5점	3.73	4.00	3.8	4.00	3.00
	사회 문화 특성	고령자 역량에 대한 사회 인식	2.85/5점	2.86	2.85	2.84	2.84	2.89
		고용주의 고령자 역량에 대한 인식	3.31/5점					
		교통, 이동 편의에 대한 인식	3.45/5점	3.4	3.46	3.46	3.43	3.46

□ 고용영역 지표 타 지자체 비교

(단위: %, 만원, 점)

구분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
고용률	65~69세 고용률	45.4%	42.8	41.7	45.4
	70~74세 고용률	34.3%	30.1	31.9	26.9
	75세 이상 고용률	12.1%	11.1	13.5	11.7
	전체 고령자	28.2%	25.9	27.7	26.1
임금	월평균 임금액	219만 원	182	189	197
	최저 임금 미달 근로자 비율	22.8%	28.6	36.8	29.1
	저임금근로자 비율	43.3%	41.7	53.7	39.0
근로 만족도	전반적인 만족도	3.14/5점	3.08	3.24	3.24
	임금 만족도	2.90/5점	2.81	3.10	2.90
	근로 시간 만족도	3.15/5점	3.07	3.29	3.25
	근무 환경 만족도	3.16/5점	3.07	3.24	3.19

□ 역량과 교육영역 지표 타 지자체 비교

(단위: %, 만원, 점)

구분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
학력	고졸 이상 62.2 대졸 이상 26.7	고졸 이상 49.2 대졸 이상 16.6	고졸 이상 58.6 대졸 이상 28.4	고졸 이상 66.3 대졸 이상 36.4
가구 월 소득	291만 원	295만 원	356만 원	373 만 원
주관적 신체 건강	3.02점/5점	2.91	2.86	3.12
우울 증상 유병률	6.4	8.1	2.9	5.0

5.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활동 강화 방안

- 고령자 생산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고령자 욕구와 역량을 고려하여 그에 부합되는 생산활동 지원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고령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생산활동에 대한 인식 전환 정책도 필요함. 또한 고령자 생산활동의 중요한 장이 되는 민간기업에 대한 정책, 지역의 일자리 개발 및 직업훈련 등 공공 일자리 정책, 친 고령사회 구축을 위한 사회문화적 차원의 정책 등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함

○ 고령자 생산활동 강화 방안 체계(4대 영역 8대 과제)

목표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활동 강화”			
정책 과제	고령자	민간기업	지방자치단체	사회문화적 환경
	<o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자 욕구에 부합된 맞춤형 일자리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약고령자 일자리 지원 -가치 실현 일자리 개발 -고학력 고령자 일자리 지원 -고령자 일자리 유형 다변화 고령 당사자의 생산활동에 대한 인식 개선 고령자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통신기술 역량 강화 -고령자 적합직종 및 직업교육 개발 -정년 퇴직률 제고 및 전직·이직 지원 -고령취업자 건강관리 지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기업 고령자 고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체 고령자 직무 개발 및 컨설팅 지원 -기업 지원 인센티브 제도 마련 -민간기업 은퇴 베이비부머 활용 -지속근로를 위한 이/전직기회 제공 강화 -고령근로자 사회 보험료 지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단위 맞춤형 일자리 전달체계 구축 일자리정보 제공 및 서비스 접근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자 취업정보 접근용이성 강화 -고령자 공공서비스 강화 고령자 생산지표 체계적 관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 친화 고용 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자 역량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물리적 고령 친화 환경 조성



요약	i
제1장 연구개요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6
제3절 연구의 체계	8
제2장 고령자 생산활동 이론 및 정책 동향	9
제1절 고령자 생산활동의 중요성	11
제2절 고령자 생산활동 이론검토	13
제3절 고령자 생산활동 관련 정책 동향	43
제3장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지표 체계	53
제1절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지표 개념 및 구성	55
제2절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지표 측정 내용 및 활용자료	61
제4장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지표 적용 및 분석	69
제1절 고용영역 지표 적용 및 분석	71
제2절 역량과 교육영역 지표 적용 및 분석	78
제3절 고양특례시 생산지표 타 지자체와 비교분석	83
제4절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활동 실태조사 결과 분석	87
제5절 분석의 종합	143
제5장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활동 강화 방안	149
제1절 고령자 생산활동 강화 방안 체계	151
제2절 고령자 생산활동 강화 정책과제	153
제3절 연구 의의와 후속 연구	162

참고문헌	165
부록	175
Abstract	227

표 목차

[표 2-1] 활동적 노화와 성공적 노화 비교	15
[표 2-2] 생산적 활동에 대한 학자별 정의	16
[표 2-3] 생산적 노화 국외 연구	19
[표 2-4] 생산적 노화 국내 연구	24
[표 2-5]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이유: 60~64세 고령층(2013~2022)	29
[표 2-6] 일자리 시작 연령에 따른 고용 형태 분포(2019년)	31
[표 2-7] 업종별 고령자 고용률 현황	33
[표 2-8] 고령자 고용에 대한 선행연구	35
[표 2-9] 2016년 대비 2019년 노인 일자리 참여 노인의 주요 특성 변화	39
[표 2-10]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장려금 참여 사업장 현황	44
[표 2-11] 고용노동부 운영 장년 취업 지원 기관 비교	45
[표 2-12] 고용노동부 고령자 고용정책 정리	45
[표 2-1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48
[표 2-14]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 선발기준	48
[표 2-15] 사회 서비스형 선도모델 예시	50
[표 3-1] 지표 개발 과정	58
[표 3-2]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지표 초안	59
[표 3-3]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지표 수정안	59
[표 3-4]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지표 고용 영역 지표	62
[표 3-5] 지표 측정에 활용한 주요 행정자료	66
[표 3-6]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지표 측정자료	67
[표 4-1] 고용 영역 결과지표	73
[표 4-2] 고용 영역 배경지표	75
[표 4-3] 역량과 교육영역 결과지표	80
[표 4-4] 역량과 교육영역 배경지표	82
[표 4-5] 고용 영역 타 지자체 비교	84
[표 4-6] 역량과 교육 타 지자체 비교	86
[표 4-7] 고령자 조사 내용	87
[표 4-8] 기업체 조사 내용	88

[표 4-9] 고양시 고령자 취업 현황	89
[표 4-10] 고양시 고령자 조사 대상의 표본 배분 결과	89
[표 4-11] 취업 유무별 표본 배분 결과	90
[표 4-12] 고양시 고령 근로자가 근무하는 산업 분포	90
[표 4-13] 기업체 조사 표본 배분 결과	92
[표 4-14] 고령자 설문 응답자 특성	92
[표 4-15] 소득원(복수 응답)	93
[표 4-16] 혼인상태	93
[표 4-17] 고양시 거주기간	94
[표 4-18] 주관적 경제 수준	95
[표 4-19] 객관적 신체 건강 상태	96
[표 4-20] 인지장애 경험률	97
[표 4-21] 정보통신기술 활용 역량 수준	98
[표 4-22] 정보통신기술 활용_오피스프로그램을 활용해 자료 작성	99
[표 4-23] 정보통신기술 활용_정보검색, 이메일, 업무 전달/보고 또는 전자결재 ..	99
[표 4-24] 사회적 관계 역량	100
[표 4-25] 일을 하는 이유	101
[표 4-26] 일자리 유형	101
[표 4-27] 현재 직업	103
[표 4-28] 일자리 근무 시간_1주 평균 근로일수 및 근로 시간	103
[표 4-29] 종사자 지위	104
[표 4-30] 현재 일자리의 종사자 규모	104
[표 4-31] 생애 총 노동기간	105
[표 4-32] 현 일자리 계속 근로 기대 시간	105
[표 4-33] 직장 내 연령차별 경험	106
[표 4-34] 직장 내 차별 종류	106
[표 4-35] 물리적 친화 노동환경 구축	107
[표 4-36] 필요한 물리적 고령 친화 노동환경	107
[표 4-37] 취업 의사	108

[표 4-38] 구직방법(복수 응답)	108
[표 4-39] 구직사유	109
[표 4-40] 직업 선택 시 고려 사항	110
[표 4-41] 희망 일자리 형태	110
[표 4-42] 희망 일자리 직종	111
[표 4-43] 현재 일자리 직업 x 희망하는 일자리 직업	111
[표 4-44] 희망 근로 시간 형태_희망 월 소득	112
[표 4-45] 희망 근로 시간 형태_희망 1주 평균 근로일수, 근무 시간-	112
[표 4-46] 희망 근로 시간 형태_희망 근로 시간 형태	113
[표 4-47] 장래 근로 희망 연령	114
[표 4-48] 고용서비스 이용률(복수 응답)	114
[표 4-49] 취업 정보 접근 용이성	115
[표 4-50] 일자리의 충분성	116
[표 4-51] 역량을 펼칠 일자리의 충분성	116
[표 4-52] 고양시 고용정책 만족도	117
[표 4-53] 직업 교육 참여율	118
[표 4-54] 직업 교육 참여기관(복수 응답)	118
[표 4-55] 직업 교육 참여 이유	118
[표 4-56] 직업 교육 참여 용이성	119
[표 4-57] 직업 교육 만족도	119
[표 4-58] 직업 교육 개선점	119
[표 4-59] 직업 교육 후 취업한 비율	119
[표 4-60] 직업 교육 미참여 이유(복수 응답)	120
[표 4-61] 공공일자리 참여	121
[표 4-62] 향후 공공일자리 참여 의향	121
[표 4-63] 고용상 차별	122
[표 4-64] 고령자 역량에 대한 사회 인식 정도	122
[표 4-65] 교통, 이동 편의에 대한 인식 정도	123
[표 4-66] 여가 및 사회활동	124

[표 4-67] 삶의 만족도	125
[표 4-68] 행복도	125
[표 4-69] 2024년 응답 업체의 현재 기준 근로자 수 분포	126
[표 4-70] 응답 업체의 업력 분포	127
[표 4-71] 평균 정년 연령 현황	127
[표 4-72] 평균 퇴직 연령	128
[표 4-73] 전체 종사자 대비 연령대별 고용인력 현황	129
[표 4-74] 고용 형태, 급여, 근속기간 비교	129
[표 4-75] 고용 형태, 급여, 근속기간의 차이 비교	129
[표 4-76] 65세 이상 고령자의 역량 비교	130
[표 4-77] 고령자 특성을 고려한 물리적 노동환경 구축 정도	132
[표 4-78] 고령자 고용 경험	132
[표 4-79] 고령자 고용 이유_1+2순위	133
[표 4-80] 고령자의 종사상 지위 분포	134
[표 4-81] 고령자 근무 형태	135
[표 4-82] 고용 후 인식변화	135
[표 4-83] 정부 지원유무	136
[표 4-84] 고령자 미고용 이유	137
[표 4-85] 고령자 고용 의사	138
[표 4-86] 고령자 고용 연령 한계	138
[표 4-87] 고령자 종사상 지위	139
[표 4-88] 고령자 근무 형태	140
[표 4-89] 고령자 미고용 이유_1+2순위	141
[표 4-90] 정부 지원 시 채용 의향	141
[표 4-91] 65세 이상 고용 확대를 위해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	142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의 체계	8
[그림 2-1] 55~79세 중고령층의 연령별 장래 근로 희망	27
[그림 2-2] 주된 일자리 퇴직 후 재취업한 임금근로자의 직종 분포(2014-2022) ·	30
[그림 2-3] 고용 형태별 근로 실태조사	32
[그림 2-4] 고령자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49
[그림 3-1]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지표 10대 개발 방향	56
[그림 3-2]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지표 체계	57
[그림 4-1] 월평균 가구소득 x 주관적 경제 수준 비교	95
[그림 4-2] 연령별 취업 여부별 인지장애 경험 비율	97
[그림 4-3] 정보통신기술 활용 역량 수준	98
[그림 4-4] 취업 여부별 정보통신기술 활용 역량 수준	98
[그림 4-5] 일자리의 소속 산업-취업자	102
[그림 4-6] 삶의 만족도	124
[그림 4-7] 직업인으로서 고령자의 역량에 대한 중요도와 역량 인식 비교	131
[그림 4-8] 산업별 고령자의 고용 이유(1+2순위)	133
[그림 5-1] 고령자 생산활동 강화 방안 체계(4대 영역 8대 과제)	152

제1장 연구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제3절 연구의 체계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급속한 고령화 및 생산인구 감소

- 고양시는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 비율이 2023년 12월 현재 16.1%(173,057명)로 이미 고령사회에 속하며 2028년에는 고령인구 20.6%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됨
-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인구 비중이 감소하고 있음. 고양시 생산연령 인구(15~64세)는 2000년 68.4%, 2010년 73%, 2015년 74.7%였다가 2020년 74.5%에서 감소 추세로 전환되었음(통계청, 2023)
- 고령화는 전체 노동력의 감소를 초래하고 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 복지 지출을 증가시켜 젊은 세대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경제적으로는 소비와 투자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특히 올해부터 베이비부머 1차(1955년~1963년 출생)보다 규모가 더 큰 2차 베이비부머(1964년~1974년 출생)가 향후 11년에 걸쳐 법정 은퇴 연령인 60세에 진입할 예정으로 이들이 은퇴를 하기 시작함으로써 성장 잠재력이 크게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 고령자 생산활동의 필요성

-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이 예견되는 점, 아이슬란드, 스페인, 뉴질랜드 등 중심으로 주4일제 바람이 불고 있고 한국에서도 주4일제 근무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고려할 때 고령인구를 노동시장에서 노동력 부족을 충원시키는 인적 자원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기업의 대부분이 현재 60세 정년제를 선택하고 있는데 30세에 노동시장에 진입하였다고 가정하면 30년간을 노동시장에서 일을 하고 평균수명인 82세까지 20년 이상

퇴직 이후의 시간을 보내게 됨. 따라서 주된 일자리 퇴직 후 고령자의 생산활동은 긴 노후의 소득 보장, 여가, 건강생활에 큰 도움이 됨

- 고령자 생산활동은 고령자의 생산활동은 중요한 소득원이 되고 있으며 고령자는 생산활동을 통해 역할 수행, 경제적 자립, 건강 유지, 생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음

□ 고령화 대응 및 고령자 생산활동 지원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정책적 노력 필요

- 고령화로 인해 증가하는 고령자에 대한 부양과 생산인구 감소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완화하며 동시에 고령자가 고령기에도 삶의 질을 유지·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지금까지 고령자는 노화 과정에서 사회적 역할과 활동에서 점차 분리되어 가족이나 사회의 돌봄에 의지하는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존재로 인식되어 옴. 앞으로는 고령자의 활동에 대한 욕구와 역량을 존중하여 고령자가 적극적이고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고령자에 대한 패러다임을 생산적 노화로 전환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고령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여건을 마련해야 함
- 지금까지 고령자에 대한 고용정책은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2개 부처에서 분절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로 보건복지부의 노인 일자리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왔음
- 고령자 고용정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고령자 고용 관련 연구도 주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고용정보원 등 국책 연구기관이 담당했으며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고령자 특성, 일자리 자원 등 고용 환경이 상이하므로 지자체 중심의 정책이 마련이 되어야 함
- 지자체는 고령자가 적극적인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고령자의 생산활동과 관련된 욕구 및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따라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활동 지표 실제 적용 및 고도화

- 이에 고양시는 지난 2023년 고령자 생산활동 활성화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지표'를 개발하였음
- 고령자 생산지표는 고양특례시가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고, 고령자의 건강하고 활력 있는 생활 활동을 지원하고자 '고용'과 '역량 개발' 등 고령자 생산활동에 초점을 두어 개발한 지표임
- 고령자 생산지표는 고용영역(29개)과 역량·교육 영역(17개) 총 46개로 구성되었으며 지표를 통해 고령자의 생산활동과 역량에 대한 현황·욕구·정책·사회문화적 특성 등 종합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음

- 2023년 개발된 고령자 생산지표를 실제로 고양시에 적용하여 고양시 고령자의 생산활동 전반을 객관적으로 진단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개발된 지표 적용을 통하여 지표가 가지는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고도화 작업이 필요함

□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활동 강화 방안 마련

- 행정자료와 설문조사를 활용한 지표 분석을 통해 고양시 고령자 생산활동에 대해 진단하고 그 결과가 고양시의 고령자 생산활동 정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생산활동 강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2. 연구의 목적

□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지표를 적용하여 고령자 생산활동 현황과 수준을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고양시 고령자 생산활동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실태조사 및 행정자료 활용하여 고령자 생산지표 적용 및 분석
- 고령자 생산지표를 통한 고령자 생산활동 관련 현황 진단
- 고령자 생산활동 강화 방안 제시

□ 기 개발된 고령자 생산지표를 실제 적용하여 분석해 보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지표를 고도화함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 고령자 생산활동 이론 및 정책 동향

- 고령자 생산활동의 중요성
- 고령자 생산활동 이론검토
 - 생산적 노화와 생산활동: 생산적 노화 등장 배경, 생산적 활동의 정의, 국내외 생산적 노화 연구 경향, 생산적 노화에 대한 비판
 - 고령자 고용: 고령자 고용 현황, 고령자 고용 법제, 고령자 고용 특징, 고령자 고용에 대한 연구 동향
 - 고령자 역량 및 교육: 인적자본이론, 사회적 지지 이론, 역량 모델 이론
- 고령자 생산활동 관련 정책 동향
 - 고령자 고용정책 동향
 - 고령자 역량 및 교육 관련 정책 동향

□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지표 체계

-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지표 개념 및 구성
 - 지표상 주요 개념
 - 지표의 개발 방향 및 구성
-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지표 측정 내용 및 활용자료
 - 지표별 활용자료
 - 지표별 측정 방법

□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지표 적용 및 분석

- 고용영역 지표 적용 및 분석
- 역량과 교육영역 지표 적용 및 분석
- 고양특례시 생산지표 타 지자체와 비교분석
-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활동 실태조사 결과 분석

-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활동 강화 방안
 -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활동 강화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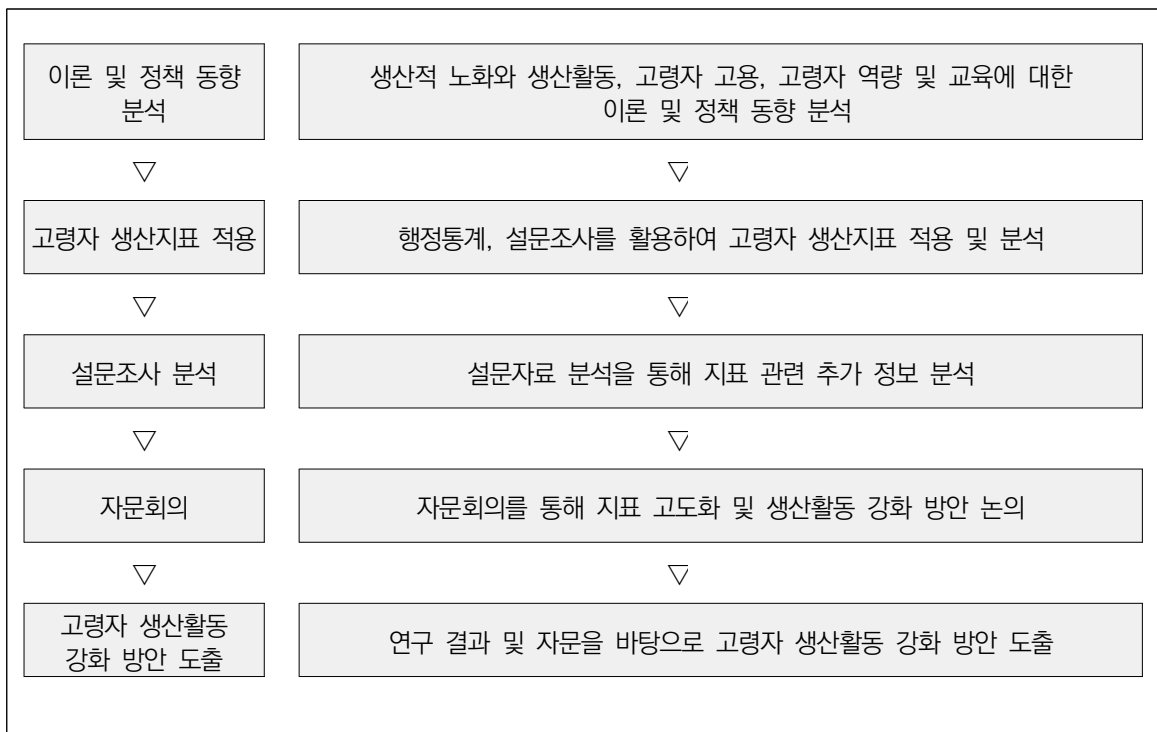
2. 연구 방법

- 문헌 연구
 - 고령자 생산활동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 고령자 생산활동 관련 정책 동향 분석
- 설문조사
 - 고령자 조사 대상 : 고양특례시 65세 이상 고령자 500여 명
 - 연령 구분 : 65-69세, 70-74세, 75-80세
 - 지역 구분 : 덕양북부, 덕양남부, 일산동구, 일산서구 4권역을 나누어 추출
 - 기업체 조사 대상 : 고양특례시 소재 기업 150개
 - 제조업, 도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 사업시설 관리/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 복지 서비스업의 5개 산업 사업체
- 행정자료 및 통계분석
 - 고령자 생산활동 현황 기술 분석
 - 고령자 생산활동 연령대별(연소고령자, 전기고령자, 후기고령자), 성별 비교분석
- 전문가 자문회의
 - 학계 전문가, 노인 일자리 기관 전문가, 담당 부서 공무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자문회의 실시

제3절 연구의 체계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방법 및 범위 등을 토대로 본 연구의 체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고령자 생산활동과 관련하여 생산적 노화, 생산활동, 고령자 고용, 고령자 역량 및 교육과 관련된 이론 및 연구 경향을 검토하였음
 - 행정자료와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고령자 생산지표를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함
 - 지표 외 추가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자료를 분석하여 생산활동과 관련된 추가 정보를 분석함
 - 지표 적용 결과와 자문회의를 통해 생산활동 강화 방안을 도출함

그림 1-1 | 연구의 체계



제2장 고령자 생산활동 이론 및 정책 동향

제1절 고령자 생산활동의 중요성

제2절 고령자 생산활동 이론검토

제3절 고령자 생산활동 관련 정책 동향

제1절 고령자 생산활동의 중요성

- 의학이 발달하고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인간의 평균수명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출산율 저하와 맞물리면서 사회는 급속하게 고령화되어 가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2022년 고령인구가 7%가 넘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2017년에는 14%가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내년인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청년층 비중은 낮아지고 장년층 비중이 높아질 전망이다
 - 생산가능인구: ('22) 3,667.5만 명, ('27) 3,486.7만 명, ('30) 3,331만 명으로 추산됨
이 중 청년층은 ('20) 19.9%, ('30) 14.7%, 50대 이상 장년층은 ('20) 45.8%, ('30) 55.0%로 추산됨
- 이에 노동시장에서 고령 인적자본에 대한 요구가 지속하여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전 세계적으로도 고령자의 경제 사회적 기여로 연간 1인당 GDP가 1~2.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UN 경제사회국(DESA), 2023)
- 또한 아이슬란드, 스페인, 뉴질랜드 등을 중심으로 주4일제 바람이 불고 있고 아이슬란드 정부는 4년간 진행된 주4일제 실험으로 노동자들이 스트레스와 번 아웃 방지, 일과 삶의 균형이 개선된 압도적인 성공을 거두었다고 보고되었으며(BBC NEWS 코리아, 2021년 7월 6일 자) 한국에서도 주4일제 근무를 추진하는 움직임이 늘고 있음
- 주4일제 근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만큼 취업을 희망하는 고령자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노력은 사회 전반적인 노동력 부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됨
- 고령자의 생산활동은 고령화로 인해 초래되고 있는 연금 급여와 의료비의 증가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덜어주어 세대 간 부양 부담 및 사회보장 비용의 증가 문제 등을 경감시키는 방안이 될 수 있음
- 활동이론(Activity Theory)은 고령자의 사회적 활동 참여가 생활 만족도와 심리적 만족

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회학적 노화 이론으로 고령자가 사회적 활동을 통해 사회적 역할을 유지하고 확장함으로써 생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이론임

- 고령자의 생산활동은 사회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고령자의 역할 수행, 경제적 자립, 건강 유지, 생활 만족도 등을 개인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함
 - 2022년 고령층 부가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령층의 근로 희망 사유는 생활비 보탬이 53.3%로 가장 많았고(통계청, 2022), 기대수명 연장으로 길어진 고령기, 그리고 고령자에 대한 가족 부양인식 약화, 국민연금의 낮은 소득대체율 등을 고려해 볼 때 고령자의 생산활동은 중요한 소득원이 될 수 있음
 - 또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발표된 “2020 노인 일자리 사업 정책 효과분석 연구” 결과 일자리 참여자의 건강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대기자보다 높았고 일자리 참여자는 우울 수준 0.32점 감소하는 등 심리·정서적인 요소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령자에게 일이란 단순히 소득 활동 측면을 넘어서 건강 유지, 심리안정, 자아실현 등에 도움이 되는 활동이라 할 수 있음
- 또한 고령자의 생산활동은 고령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게 하고 사회적 통합에 기여할 수 있음. 과거 고령자는 사회적 약자로서 사회 복지의 대상으로 간주되었으나 산업화와 그에 따른 가족구조의 변화 그리고 경기침체, 노인 부양 의식약화 등 고령자에게는 냉혹한 사회적 변화가 계속되고 있음. 고령자를 소극적이고 병약한 대상으로 보는 부정적인 편견을 독립적이고 활동적이며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고령자로 패러다임을 전환함으로써 세대 갈등 뿐 아니라 사회의 양극화 갈등을 해소하고 연대 의식을 고취 시킬 수 있음
- 65세 이상 고령자 고용률이 지속하여 상승하고 있으나 현재 고령자의 취업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하고 고령자 취업 직종은 소규모 사업장, 비정규직·임시직, 농림어업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 등이 대다수로 저임금 직종에 집중되어 있어 최저 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는 고령자도 많은 실정임
- 현재 고령자고용촉진법과 노인복지법 등은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자 고용보장 등이 생산활동을 위한 사회정책 입법으로서 일부 기능을 하고 있지만 고용시장의 한계와 국가의 재정적 사회보장 정책의 한계가 있음
- 고령사회를 향하여 치닫고 있는 시점에서 고령자의 고용 등 생산활동 활성화를 위해 생산활동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꼭 필요한 시점임

제2절 고령자 생산활동 이론검토

1. 생산적 노화와 생산활동

1) 생산적 노화의 등장 배경

(1) 인구 고령화

- 인구 고령화는 인구 전체에서 고령인구의 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을 의미하며 이는 출산율 감소와 기대수명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으로, 한국어 사전적 정의는 인구 중 고령인구(일반적으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을 뜻함
- 주요 원인으로는 출산율 감소와 기대수명 증가
 - ‘인구 고령화가 경제 위기와 사회 보장제도의 재정 및 정당성 위기를 초래한다’는 것을 핵심 논지로 하는 고령화 위기론은, 노년 인구에 대한 인구학적 접근의 전제, 즉 노년 인구의 비생산성과 경제적 의존성을 그 출발점으로 삼고 있음(김정석, 2017)
- 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과제의 무게가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구 고령화로 인한 복지재정을 둘러싼 세대 간 갈등이나 형평에 대한 뜨거운 사회적 이슈의 필연성이 설득력을 갖게 됨
- 인구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과 그 사회경제적 파장들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관심들은 대체로 인구 고령화가 갖는 부정적 함의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임
 - 현재 한국 사회에서 인구 고령화에 대한 주요 담론의 중심축은 크게 두 가지이며 한 축은 ‘고령화 위기론’으로 노년 인구의 비생산성을 전제로 과중한 사회적 부담이 초래되는 어두운 미래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음. 또 한 축은 ‘신노년’ 담론으로 ‘고령화 위기론’이 강조하고 있는 노년에 대한 대항적인 성격을 띠는 것으로, 노년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사회참여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고령화 속 노년의 새로운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 이러한 사회적 관심은 대체로 인구 고령화가 갖는 부정적 측면의 함의를 떠올림(김정석 외, 2017)
- 한편, 인구 고령화의 부정적 시나리오 속에서 그려지는 의존적인 존재로서의 노년 이미지에서 벗어나 능동적인 주체로서의 노년 이미지를 찾아내고 내세우려는 논의 또한 최근 들어 활기를 띠고 있음(김정석, 2017)

(2) 고령화 위기론에 대한 비판으로서 생산적 노화

- 생산적 노화 담론은 고령화 위기(ageing crisis)론에 대한 비판으로서의 성격과 함께, 그

것의 변형적 수용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띠고 등장함

- 생산적 노화는 버틀러(Butler, R. N)가 1982년 잘츠부르크 콘퍼런스에서 의존(dependency)과 사회의 부담(social burden)이라는 고령자에 대한 인식에 대항하기 위하여 노인의 생산적인 잠재성이라는 이슈를 제기함으로써 사회 노년학의 어휘사전에 주요 용어로 자리 잡음(박선권, 2013)
- 고령화 위기론은 인구 고령화가 경제 위기와 사회보장제도의 지정 및 정당성의 위기를 초래한다는 것을 핵심 논지로 함
- 한국의 고령화 정책은 제1차 ~ 제3차 기본계획 시기까지 노년 인구의 비생산성을 전제로 과중한 사회적 부담이 초래되는 암울함 미래 모습을 제시한 ‘고령화 위기론’ 담론에 의해 주도되었음(이삼식, 2016)
- 생산적 노화 담론은 시장의 자유를 옹호하며 그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확산과 함께 성장함. 즉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득세한 신자유주의적 분위기 속에서, 이에 따라 은퇴와 연금에 대한 공공 정책의 변화가 불가피한 것으로 귀결되는 상황에서 그 변화의 해법 가운데 하나로 등장한 것임(김정석, 2017)
- 특히, 미국의 경우 공공 정책 분야의 세대 간의 형평성 논쟁에 대한 반응으로, 노인들이 사회적 자원을 독식하고 있다는 사회적 편견에 대한 대응으로 등장하였고, 한국 사회의 경우는 2000년대 들어 인구 고령화 대응 방안으로 소개되면서 노인을 생산적 자원으로 활용하려는 정책에 반영되고 있음
- 생산적 노화 담론은 고령화 위기론에서 전제한 고령자의 역할과 이미지에 반대론적 입장을 취함. 고령자를 사회적 부양과 돌봄의 대상자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수동적인 역할을 강제하였던 의존적 노화 관점에서 벗어나 비생산성 대신에 생산성, 의존 대신에 자립, 사회의 부담 대신에 기여로 전화되어야 함을 강조함(김정석 외, 2017)

(3) 활동적 노화와 성공적 노화와 비교

- '활동적 노화'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활동적 노화를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건강과 참여 그리고 안전을 위한 자원들을 활용하는 노력이라 정의함(WHO, 2002). 즉, 고령자의 독립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적극적인 사회활동 참여를 장려하며, 안전한 생활을 기반으로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활동적 노화라 할 수 있음(박경아 외, 2023)
- 이는 노년 생활의 주체인 노인들을 보다 독립적이고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게 하고 건강을 오래 지킬 수 있는 개인의 노력, 사회적 정책적 배경을 만들어 안전한 생활을 유지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함. 또한 노년기에 들어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은퇴 이후 사회 구성원으로서 잃어버린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롭고 다양하며 지속적인

역할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음(최희경, 2010)

○ 성공적 노화의 배경은 1980년대 이후 의료기술과 의료 접근권의 발전, 건강증진 모델의 대두와 개인의 생활방식과 선택에 따라 노화와 질병을 예방하거나 지연할 수 있다는 낙관주의적 견해에서 찾을 수 있음(Estes, Mahakian, & Weitz, 2001)

- 성공적 노화는 정신적, 신체적 건강 등 모든 영역에서 성공적으로 노화하는 것을 의미하고(B.J. Fisher, 1995), 때로는 건강한 노화, 긍정적 노화, 효과적 노화(Angus & Reeve, 2006)라고 표현하기도 함. 성공적 노화는 기본적으로 인지적, 정서적, 신체적 건강 상태를 잘 유지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건강증진 행위를 수행하고, 다른 사람과의 친숙한 관계 유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다차원적인 영역과 연관이 있음(노준희, 2014)

- 로우와 칸(Rowe & Kahn, 1998)은 성공적 노화의 3가지 요소로 질병과 장애의 부재, 높은 신체적, 인지적 기능 유지, 삶에 대한 적극적 참여 등을 제시하였는데, 특히 마지막 요소가 가장 핵심적이라고 보았음. 이처럼 성공적 노화 담론은 성공의 요인과 선택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개인의 선택과 노력에 따라 성공적인 노년기를 보낼 수 있다고 주장함

표 2-1 | 활동적 노화와 성공적 노화 비교

구분	활동적 노화	성공적 노화
정의	노화에도 사회적·경제적으로 생산적인 생활을 하는 능력(OECD, 1998)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건강, 참여, 안전의 기회를 극대화하는 과정(WHO, 2002) 노인의 참여와 안녕을 최대화하는 포괄적인 전략(Walker, 2009)	질병과 장애가 없고, 높은 신체적·인지적 기능을 유지하며, 삶에 적극적인 참여하는 것(Rowe & Kahn, 1998)
특징	생애과정의 안녕을 강조하는 보다 포괄적인 관점	개인의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노화와 그에 따른 기능 및 능력 전반에 초점
의의	경제적·사회적·생산적 활동에 관여하는 노인의 능력과 욕구를 반영함	의학적, 사회적, 심리적 측면에서 성공적 노화의 기준을 제시함
한계	건강과 의존이라는 노화의 일부 측면만을 협의적으로 다룸 측정 문항에서 노인의 의도를 반영하지 못하며, 지표 개발이 전문가 중심적임 다양한 활동을 강조하지만 여전히 신체나 경제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음	성공적 노화의 개념에 따른 성공을 불가피하게 이룰 수 없는 집단이 있음 평가 기준이 좁아서 당사자 평가값과 전문가에 의한 조사값에 차이가 큼 경제 위기 타파를 위해 특정 정치적 이데올로기(보수주의)에 지나치게 영향을 받은 관점임

〈자료〉 김교성·김수연(2014). '활동적 노화'에 관한 다차원적 측정과 국가 간 비교. 사회복지정책, 41(1), 1-32.
임호·오재환. 「활동적 노화(Active Ageing)를 위한 정책 개선 방안」, 부산연구원. 2017. p. 127. ←재구성

- 1980년대 등장한 활동적 노화는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면 Rowe와 Kahn(1998)이 제시한 성공적 노화의 개념은 생물적, 심리적, 사회적 차원에 초점을 두고 각 기능 수준이 높으며 삶의 만족과 환경에 대한 적응 수준이 높은 상태로 규정되고 있음(권중돈, 2019)
- 노년기의 행복한 삶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사회구조적인 측면보다 개인 수준에서 탐색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 Rowe와 Kahn(1998)은 생물적, 심리적, 사회적 차원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생애주기를 통해 지속적으로 준비해야 하며, 이러한 상태를 노년기 동안 유지하는 것이 성공적 노화의 목표임
- 우리나라의 경우에 성공적 노화는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노년의 삶을 추구하는 과정 혹은 상태로 볼 수 있으며, 여기에는 자기 효능감, 자율적 삶, 적극적 인생 참여, 가족의 화합과 중용 등이 그 구성요소로 포함됨(박정호, 2012)

2) 생산적 활동의 정의

- 생산적 활동에 대한 통일된 정의는 없고 학자나 실천가 혹은 국가, 문화, 인종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함
- 생산의 사전적 정의는 인간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각종 물건을 만들어 내는 것임(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의 역할을 가치 있는 활동으로 인식하고자 하는 사회적 노력이 노인의 생산적 활동이라는 학문적 논의를 제기하여 노인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음

표 2-2 | 생산적 활동에 대한 학자별 정의

순번	학자	내용	비고
1	Herzog (1989)	생산적 활동은 지불이든 미지불이든, 가사, 육아, 자발적 노동, 가족과 친구에 대한 도움과 같은 활동을 포함해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모든 활동으로 미지불 노동을 포괄하여 활동을 확대 정의함	광의의 개념
2	Bass · Caro · Chen (1993)	생산적 활동은 지불, 미지불과 상관없이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에 기여하는 활동과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한 능력을 개발하는 활동으로 능력의 개발 활동 추가함. 그러나 개인적 건강, 성장, 풍요로움을 지향하는 등 개인적인 차원에서 의미 있는 활동은 제외함	광의의 개념
3	Simonsick (1995)	생산적 활동을 유급 노동으로 한정하여 화폐가치로 환산될 수 있는 노동시장 내 경제활동으로 정의	협의의 개념
4	Buttler · Schechter (1995)	생산적 활동을 지불노동, 자원적 활동, 가족 지원, 가능한 한 독립적으로 스스로를 유지하는 자조적 활동으로 정의하였으며 타인의 지원 필요성을 줄이는 자립을 강조함	광의의 개념

5	김형수 (2003)	생산적 활동을 경제적 대처방식을 위주로 하는 고용을 중심으로 한 근로를 중심으로 정의함	협회의 개념
6	남기민 · 최화강 (2009)	노년기의 일을 경제적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유급 노동에 한정	협회의 개념
7	김현정 외 4인 (2009)	생산적 활동을 무급의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재화나 용역의 산출 활동을 포함하는 활동으로 사회참여 활동, 돌봄 노동 활동 포괄하여 정의함	광의의 개념

〈자료〉 문정화·황진수·선승아. (2023).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지표 개발

- 생산적 활동은 노동시장 내 경제활동에서 교환적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적 개념화에 초점을 둔 협회의 개념과 이를 더욱 확장하여 무급 노동, 돌봄, 가족 지원 등 사회에 기여하는 여러 활동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음
- Simonsick(1995), 김형수 (2003), 남기민·최화강(2009) 등은 생산적 활동을 유급 노동으로 정의하였으며 Herzog(1989), Bass·Caro·Chen(1993), Buttler·Schechter(1995), 김현정 외 4인(2009) 등은 유급 노동 외에 다양한 활동을 포함하여 정의하였음
- 본 연구에서는 ‘고용’에 대한 고령자의 높은 욕구를 반영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해 목표 달성이 용이 할 수 있도록 많은 학자가 정의하는 다양한 생산적 활동 중 Simonsick (2001), 김형수(2003), 남기민·최화강(2009)의 생산적 활동에 대한 협회의 개념을 적용함. 그리고 많은 고령 지표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Bass·Caro·Chen (1993)가 강조하고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한 능력개발 활동을 포함하여 생산적 활동을 노동시장 내 경제활동인 ‘고용’과 이를 위한 ‘역량 개발 활동’으로 정의함(문정화 외, 2023)

3) 국내외 생산적 노화 연구

(1) 국외 연구

- 1995년부터 2024년까지 진행된 국외 생산적 노화에 관한 연구는 생산적 노화의 개념과 영역, 생산적 노화의 효과, 생산적 활동의 영향 요인, 생산적 노화 정책 방안, 생산적 활동을 위한 ICT 활용, 생산적 노화에 대한 비판 등을 주제로 하여 이루어져 왔음
- 생산적 노화의 개념과 영역에 관한 연구
 - Caro & Bass(1995) 연구는 생산적 노화 영역에 일, 자원봉사, 질환자 및 장애인 돕기 등의 다양한 생산적 기여 활동을 포함해야 함을 제시함
 - Peng & Fei(2013) 연구는 생산적 고령화의 개념적 틀에 노인의 사회적, 정치적 참여뿐만 아니라 가족 내에서의 기여를 포함하여야 함을 강조함
 - Karim 외(2018) 연구는 자원봉사, 돌봄, 자기개발 세 가지 생산적 노화 차원과 개인 상

답, 전문가 기여, 위원회 참여, 육아, 가사일, 영적 향상, 개인적 개선 및 자기 관리의 8개 하위 활동을 제시함

- Dommaraju & Wong(2021)은 생산적 노화란 사람들이 노년기에 참여하는 다양한 유형의 활동을 포괄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경제활동, 공식 및 비공식의 평생학습 및 자원 봉사, 다양한 유형의 돌봄을 포함함
- Irshad 외(2023)는 성공적 노화, 활동적 노화, 생산적 노화의 개념을 구분하여 정리하였으며 생산적 노화를 위해 신체 활동과 농촌 지역의 고용 기회 확대를 강조함
- Morrow-Howell & Gonzales(2024)는 생산적 노화 프레임워크에 연령차별 고려 정도를 포함해야 함을 강조함

○ 생산적 노화의 효과에 대한 연구

- Kaye, Butler & Webster(2003)는 노인의학 실무에 참고할 생산적 노화 프레임으로 고령자의 생산활동이 구체적 사회 기여뿐 아니라 고령자의 웰빙과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강조함
- Uesugi(2010)는 연령, 성별, 건강 및 장애 상태에 따라 일자리 기회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직업 관련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이웃과의 접촉 빈도, 사회에서의 자신의 역할 인식, 재정적 수단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음을 제시함
- Irshad 외(2023)는 생산적 활동을 하는 고령자의 경우 노화 유병률이 낮음을 제시하였고 고령자의 신체 활동 참여는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화를 달성하기 위해 촉진될 필요가 있으며 농촌 지역에서는 공식적인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마련해야함을 강조함
- Warburton & Peel(2008)의 연구에서 고령자 자원봉사활동은 사회적 및 신체적 활동, 사회적 지원 및 건강 상태와 무관하게 고관절 골절 위험을 상당히 보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생산적 활동의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 Van der Meer(2006)는 네덜란드의 고령자 생산성을 성별과 사회-공간적 맥락에 따라 고령자가 유급 노동, 자원봉사, 비공식적 돌봄, 가사 유지 등 다양한 생산적 활동에 어떻게 참여하는지 연구하고 고령자의 성별과 연령에 따라 생산적 활동의 유형과 참여 정도가 다름을 제시함
- Visaria, & Dommaraju(2019)는 고령자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인도의 사회적, 경제적 구조 변화가 노인의 생산적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함. 교육과 성별 차이가 어떻게 생산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줌

○ 생산적 노화 정책 방안 및 ICT 활용을 강조한 연구

- Ramely 외(2016) 연구에서는 말레이시아의 생산적 고령화를 구현하는데 참고할 만한 선진 모범 사례로 일본과 싱가포르의 생산적 노화 사례를 제시하고 건강한 고령자의 노동장벽으로 연령차별과 고정관념을 제시하고 말레이시아에서 생산적인 고령화를 증진하는데 실행 가능한 권장 사항을 제안함
- Karim 외(2018)의 연구와 Abd Karim & Haron(2022)의 연구에서는 생산적 노화에서 ICT의 활용이 필요함을 강조함

○ 생산적 노화에 대한 비판

- Mathews(2023)는 생산적 노화가 고령자를 돕기 위한 노력으로 등장했지만 '생산적 노화'라는 용어에 내재된 판단에 주목하여 어떤 형태의 노화가 다른 형태의 노화보다 더 나은가? 행복에 대한 경쟁 개념을 조사하고 이 조사를 바탕으로 '생산적 노화'라는 용어를 '행복한 노화'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함

□ 각 연구의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음

표 2-3 | 생산적 노화 국외 연구

학자	내용
Caro, F. G., & Bass, S. A. (1995)	지금까지 생산활동에 관한 연구가 각각의 생산활동 개별에 관한 연구로 특히 고용과 자원봉사가 연구의 초점이 되어 왔고 일부 연구에서만 조부모의 역할과 같은 노인의 비공식적 기여에 대해 조사가 실시되었고 활동이나 활동 간의 상호작용은 주목받지 못함을 지적함 이 연구에서는 고령자가 두 개 이상의 활동이나 부문에 기여하는 정도, 이러한 생산 활동에 투자하는 시간 범위, 그리고 고령자가 한 생산활동 부문에 참여하는 것과 다른 부문에 참여하는 것 사이의 관계를 살펴봄. 고령자의 42.1%가 자녀와 손주를 도왔고, 자녀가 있는 사람 중 49.5%가 자녀, 손주 또는 둘 다에게 도움을 제공하고 있으며 일, 자원 봉사, 병자 및 장애인 돕기 비율은 각각 27.3%, 26.1%, 28.8%로 활동 비율이 비슷함을 확인함 연구자는 고령자의 다양하고 많은 생산적 기여를 함께 고려할 때에만 고령자의 생산 활동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강조함
Kaye, L. W., Butler, S. S., & Webster, N. M. (2003)	생산적 노화의 개념을 중심으로 노인의학 실무에 대한 프레임을 제시함. 이 관점은 노화 경험에 대한 두 가지 별개이지만 양립 가능한 개념화를 강조함. 첫째는 외부적, 공리적 관점으로 노인이 개인, 가족, 그룹, 조직 또는 커뮤니티 등 다른 사람에게 한 구체적인 사회적 기여를 강조하는 것이며 둘째는 내부적, 정서적 관점으로 노인이 자신의 웰빙과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철학을 따르는 것을 강조하는 것임. 이 두 관점 모두 노인이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에 참여하는 것과 노인이 방향, 구조, 삶의 목적을 가지고 활동에 참여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문제, 결핍 및 필요성보다는 노인의 자산, 자원, 역량 및 기술을 강조함. 생산적인 노화 패러다임은 노인의 신체적 또는 기능적 상태를 초월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프레임은 전통적 및 비전통적 커뮤니티 서비스 설정에서 확장된 전문적 기능을 담당하는 건강 및 휴먼서비스 인력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을 강조함
Van der Meer, M. (2006)	네덜란드의 고령자 생산성을 성별과 사회-공간적 맥락에 따라 분석한 연구로, 고령자가 유급 노동, 자원봉사, 비공식적 돌봄, 가사 유지 등 다양한 생산적 활동에 어떻게 참여하는지 연구함. 남성과 여성의 활동 패턴이 다르게 나타나 여성은 가사 및

	<p>돌봄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는 반면, 남성은 유급 노동과 자원봉사에 더 많이 참여함. 고령자의 생산성이 도시와 농촌, 그리고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상태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 것도 분석하였는데 도시지역에서는 다양한 활동 기회가 더 많이 제공되는 반면, 농촌 지역에서는 비공식적 돌봄 활동이 더 두드러짐을 확인함. 고령자의 나이에 따라 생산적 활동의 유형과 참여 정도가 다르다는 점도 연구의 주요 발견 중 하나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활동 참여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건강 상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제시함</p> <p>고령자의 생산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성별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고 고령자의 생산성을 평가할 때 유급 노동뿐만 아니라 자원봉사, 돌봄 활동 등 다양한 비경제적 활동도 중요하게 다뤄져야 함을 시사함</p>
Warburton, J., & Peel, N. M. (2008)	<p>현대 노화의 두 가지 주요 이론적 개념인 생산적 노화와 건강한 노화의 관계에 관한 연구로 고령기에 생산적인 활동으로서의 자원봉사는 고령자에게 사회적 및 건강의 이점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줌. 이 연구는 387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사례 대조 연구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자원봉사가 고령기에 중요한 부정적 건강 결과인 낙상 관련 고관절 골절을 보호하는지 조사함. 결과에 따르면 노년기의 자원봉사활동은 사회적 및 신체적 활동, 사회적 지원 및 건강 상태와 무관하게 고관절 골절 위험을 상당히 보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생산적 노화와 건강한 노화의 개념 간의 관계에 대한 가설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노년기에 자원봉사활동의 건강상 이점이 이전 연구에서 보여준 것보다 더 광범위할 수 있음을 시사함</p>
Uesugi, L. M. C. (2010)	<p>일본의 고령자는 산업화 국가 중에서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은 편이기 때문에 '생산적 고령화'의 진정한 본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본에서 소득 유지, 노동, 교육, 장기 요양과 관련된 사회정책의 구조적 개혁이 필요함을 제시함. 이 논문은 고용, 자원봉사, 직업 관련 교육, 가족 간병을 포함해 고령자 정책과 프로그램을 검토하는 데 중점을 둠. 일본의 경우 노후준비를 하지 않는 사람이 많고 공적연금 제도의 부주의한 관리로 인한 공적 연금 제도에 대한 낮은 신뢰는 다른 사회보장 조치에 점점 더 의존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고령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것은 사회복지 시스템의 부담을 상쇄하는데 중요함을 강조함. 고용 및 노동 정책에서 연령차별을 강조하는 최근의 정부 개혁을 비판하고 다양한 고령자 그룹을 위해 타겟팅된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더 나은 고용 법률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함. 특히 이 연구의 결과는 연령, 성별, 건강 및 장애 상태에 따라 일자리 기회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직업 관련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함. 자원봉사를 한 사람은 자원봉사를 하지 않은 사람보다 인지(4.51배), 이웃과의 접촉 빈도(3.62배), 사회에서의 자신의 역할 인식(2.85배), 재정적 수단에 대한 만족도(2.83배)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음. 노인의 기술과 노인 자원봉사자의 고유한 요구사항에 대한 이해 부족, 훈련과 감독 기회 부족, 전반적으로 노인을 위한 자원봉사 기회의 부족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정책 필요성을 강조함</p>
Peng, D., & Fei, W. (2013)	<p>인구 고령화가 증가함에 따라 중국의 생산적 고령화는 새로운 사회적, 역사적 맥락에서 진화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 이 연구는 중국 역사에서 생산적 고령화 개념의 발전과 그 구성요소를 분석함. 고령자의 사회적 참여 및 활동적 고령화와 같은 다른 관련 개념을 언급함으로써 생산적 고령화의 개념적 틀을 보완함. 이 연구는 생산적 고령화의 개념적 틀에서 노인의 사회적, 정치적 참여뿐만 아니라 가족 내에서의 기여도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함. 또한 고령자는 개인 및 사회적 가치의 조화로운 발전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 하는데 있어 생산적 고령화의 중요성을 강조함</p>
Ramely, A., Ahmad, Y., & Harith, N. H. M. (2016)	<p>말레이시아에서는 사회 및 경제 발전, 공중 보건 및 현대 의학의 발전으로 2030년까지 고령화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하며, 전체 인구의 15%가 60세 이상일 것으로 추산하고 말레이시아의 철학인 '사람이 먼저, 지금 성과가 먼저'를 자각하여 노인의 웰빙을 최적화하는 것이 정부의 주요 목표 중 하나가 되었고 이에 정부 생산적 고령화 정책이 중요하게 됨. 이 연구는 정부가 고령자가 생산활동을 통해 말레이시아 노</p>

	<p>동력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기 위해 시행한 이니셔티브에 대한 관련 문헌을 검토하였고 노인을 위한 고용기회를 최적화하고 활용하는 것이 나라의 인적 자원을 활용하는 데 중요하며, 그들을 둘러싼 부담(예: 금전적 문제, 가족으로부터 고립, 외로움)을 줄이는 데도 중요하다고 강조함</p> <p>말레이시아의 생산적 고령화를 구현하는데 참고할 만한 생산적인 고령화를 증진하는 선진 모범 사례로 일본과 싱가포르의 사례를 제시함. 건강한 고령자가 노동에 참여하는 데 장벽이 되는 과제에 초점을 맞추고 연령차별과 고정관념을 제시하며 말레이시아에서 생산적인 고령화를 증진하는 데 여러 가지 실행가능한 권장 사항을 제안함</p>
Karim, N. A., Haron, H., Adnan, W. A. W., & Abdullah, N. (2018)	<p>이 연구는 생산적 노화를 위한 활동을 조사하는 것으로 도시 클랑벨리 지역의 13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생산적 노화 활동을 조사함. 이 연구에서는 자원봉사, 돌봄, 자기개발 세 가지 생산적 노화 차원과 관찰된 활동을 기반으로 개인 상담, 전문가 기여, 위원회 참여, 육아, 가사일, 영적 향상, 개인적 개선 및 자기 관리의 8개 하위 활동을 발견함. 이러한 생산적 노화 차원과 활동에 있어 고령자가 신체적 제약이 있더라도 생산적이 되도록 촉진하고 도울 수 있는 ICT 애플리케이션 활용을 제시함. 대부분 고령자는 허약함에 대한 외부적 가치로 지역사회 기여에 제약을 받을 수 있으나 고령자는 내재적 가치 측면에서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고 이에 ICT는 고령자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사회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을 강조함</p>
Visaria, A., & Dommaraju, P. (2019)	<p>인도의 생산적 노화 개념을 중심으로 고령자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인도의 사회적, 경제적 구조 변화가 노인의 생산적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함. 교육과 성별 차이가 어떻게 생산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줌. 나이 들면서도 사회적 기여를 지속하는 방법을 제안하여 생산적 노화가 개인의 심리적, 사회적 웰빙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탐구함으로써 생산적 노화로 고령자가 자존감을 유지하고 사회적 연결성을 높일 수 있음을 보여줌</p>
Dommaraju, P., & Wong, S. (2021)	<p>생산적 노화의 개념에 대한 연구로 생산적 노화란 사람들이 노년기에 참여하는 다양한 유형의 활동을 포괄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경제활동, 공식 및 비공식의 평생학습 및 자원봉사, 다양한 유형의 돌봄이 포함됨을 제시함.</p> <p>생산적 노화는 노년층을 위한 기회를 최적화하여 잘 노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 개념은 고용 기회를 촉진 및 최적화하고, 건강하고 활동적인 삶을 장려하고, 지역사회 참여 및 평생학습에 대한 장벽을 낮추고, 간병을 지원하는 데 유용함. 나이가 들어 생산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내재적 능력이 쇠퇴함에 따라 기능적 능력이 감소하는 것을 늦추기 위해 효과적인 방법이 됨. 노인이 생산적 활동에 참여하는 정도는 활동의 성격, 지배적인 문화적, 사회적 규범, 복지 제도, 구조적 제약, 이용가능한 기회 등에 따라 국가마다 다르고 기술은 고령자의 생산적 활동에 참여를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적인 새로운 방법을 열어줌을 제시함</p>
Abd Karim, N., & Haron, H. (2022)	<p>이 연구는 고령자 삶의 질을 향한 생산적 노화에 대한 개념적 모델을 살펴봄. 이 개념적 모델은 생산적 노화에서 내재적 가치 연구의 한계와 내재적 가치를 향한 촉진제로서의 ICT의 활용을 강조함. 이 연구는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가 생산적 노화에서 내재적 가치 활동을 어떻게 지원하는지 조사함. 생산적 노화, 내재적 가치 및 내재적 동기 이론에 근거하였으며 자기개발, 돌봄 제공 및 생산성을 위한 자원봉사에서 노인의 내재적 가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역량, 관련성, 자율성, 이타주의와 같은 내재적 동기(IM)의 특징을 가진 ICT 서비스의 활용을 강조함</p>
Irshad, C. V., Lekha, P. P. S., Azeez, E. A., & Rajan, S. I. (2023)	<p>이 연구에서는 인도에서 고령자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성공적인 노화의 다양한 영향 요인에 대한 통찰력이 매우 중요하지만, 성공적인 노화에 대한 문헌은 인도의 맥락에서 미미함을 제시하고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화의 관점에서 성공적인 노화 결정 요인을 분석함. 인도 종단 고령화 연구(LASI) 1차(2017-2018)를 활용하여 총 7837명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생산적 노화의 유형률과 결정요인을 분석함. 연구결과 노화 유형률은 비활동 고령인구(57.47%), 활동적 노화 인구(29.59%), 생산적 노화 고령인구(12.94%) 순으로 나타남. 신체 활동 참여는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화에</p>

	<p>영향을 미치며 농촌 고령인구는 활동적인 노화를 달성할 가능성이 더 높았으나 생산적인 노화를 달성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p> <p>결론은 고령자의 신체 활동 참여는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화를 달성하기 위해 촉진될 필요가 있으며 농촌 지역에서 보다 공식적인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필요성을 강조함. 이 연구에서는 성공적 노화는 생물 의학적 및 심리 사회적 요인에 내재된 다차원적 개념이며, 활동적 노화는 생산적 노화보다 광범위한 개념으로 경제적 활동과 비경제적 활동으로 구성하였고, 생산적 노화는 경제적 참여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p>
Mathews, G. (2023)	<p>이 연구는 '생산적 노화'라는 고령자를 돕기 위한 노력으로 등장했는데 이 개념이 규범적일 수 있고 잠재적으로 강압적일 수 있다는 비판적 고려를 주장함</p> <p>연구는 수십 년 동안 진행된 인터뷰를 분석하고, 20년 동안 일본 노인을 위한 조언을 하는 책을 분석하여 사회에 기여하는 것'에 대한 걱정 없이 자신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고령기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며 고령기에 대한 조언이 '생산적 노화'에서 '행복한 노화'로 노화 방법에 대한 지침으로 이동해 왔음을 보여줌. '생산적 노화'라는 용어에 내재된 판단에 주목하여 어떤 형태의 노화가 다른 형태의 노화보다 더 나은가? 행복에 대한 경쟁 개념을 조사하고 이 조사를 바탕으로 '생산적 노화'라는 용어를 '행복한 노화'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함</p>
Morrow-Howell, N., & Gonzales, E. (2024)	<p>이 연구에서는 생산적 노화 프레임워크와 연령차별에 관한 연구로 생산적 노화로 학문과 일, 자원봉사, 교육 및 돌봄과 관련하여 연령차별이 고려된 정도를 검토함. 생산적 노화 프레임워크에 연령차별이 적절하게 고려되지 않았다고 제안하고 생산적 노화 프레임워크를 수정하여 활동 참여와 달성된 결과에서 연령차별과 연령차별의 기능을 분석함. 연구 결과, 생산적 노화 프레임워크에 점점 더 다양해지는 고령인구에 대한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는 소수자 스트레스 이론과 비판적 인종 이론의 핵심 개념을 통합해야 함을 주장하며 사회적, 조직적, 개인적 수준에서 연령차별을 줄이기 위한 개입 방안의 필요성을 제시함</p>

(2) 국내 연구

- 생산적 노화에 대한 논의는 인구 고령화에 대한 위기의식과 직접적으로 맞물려서 전개되었는데, 활동이론의 연속선상에서 나이가 들어도 생산성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가정에 기초하여 노년의 개념을 긍정적으로 재구성하고, 궁극적으로는 노인의 역할을 재평가하여 노인 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음(김정석, 2017)
- 최근 국내의 연구들에서도 생산적 활동은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인 것으로 밝혀짐(김동배·박은영, 2007; 남기민·최화강, 2009; 박정호, 2012; 이미옥, 2013; 이정훈 외, 2014; 홍현방)
 - 노년층의 사회적 역할과 기여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며, 노화 과정에서 노인들이 단순히 부양의 대상이 아닌,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생산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논의함
- 최성재의 논문 "생산적 노화를 위한 복지정책 방향"(2002)에서는 생산적 노화는 노인들이 단순히 부양의 대상이 아닌,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생산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노인들이 경제활동, 자원봉사, 가사노동 등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삶의 만족도와 자아실현을 이루는 것을 포함하고 있음을 강조함

- 노인들이 생산적으로 노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과 사회적 인식 변화가 중요하며 노인을 부양의 대상이 아닌, 사회의 중요한 일원으로 인식하고, 그들의 기여를 인정하고 장려하는 인식변화를 통해 세대 간 연대와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음
- 노인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일자리 제공 및 직업 훈련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고령자 친화적인 고용 환경 조성, 고령자 맞춤형 직무 배치, 자영업 지원 등 체계적인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말함

○ "생산적 노화" 개념에 대한 비판적 고찰(박선권, 2013)을 통해 생산적 노화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는데 특히, 노인의 경제적 기여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기여를 강조하며, 개인의 건강 상태와 사회적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의 필요성을 제안함

- 강연 외(2011) "생산적 노화에 대한 세대 간 인식차 및 생산적 노화 척도의 타당성 분석"에서 노년층의 생산적 활동에 대한 세대 간의 다른 관점과, 이를 측정하는 척도의 유효성을 검토하였는데, 세대 간의 생산적 노화에 대한 인식 차이를 Caro, Bass, 그리고 Chen(1993)의 생산적 노화 정의에 따라 20문항으로 된 생산적 노화를 측정하는 문항을 개발하여 생산적 노화 척도의 타당성을 분석함
- 성공적 노화를 보내는데 네 가지 생산적 활동이 가지는 중요성에서 세대 간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한 결과 65세 이상 노인과 그 이전 세대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
- 노인들에 비해 젊은 세대들은 노후에도 목표지향적인 활동을 하는 것, 자기개발 활동을 하는 것,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것을 유의하고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남

○ 설문조사를 통해 1955년부터 1963년까지 출생한 베이비부머 318명을 대상으로 생산적 활동과 성공적 노화의 인과관계에서 이들 간의 성격특성과 행복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함(길태영 외, 2017) 생산적 활동이 성공적 노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베이비부머의 성공적 노화가 가능하도록 생산적 활동과 성격특성 및 행복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

- 성공적 노화에 대한 국내 연구들은 주로 노인층에 맞추어 진행되는 경향이 대부분인데 중년의 베이비부머가 노년기로 접어들면서 이들은 초기 성인이나 노인에 비해 더 외향적이고 활동적이며, 현재의 삶에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대처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예측할 수 있으며 이러한 베이비부머의 성공적 노화의 촉진을 돕는 프로그램 개발과 정책적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표 2-4 | 생산적 노화 국내 연구

학자	내용
강욱모 & 김지훈 (2014)	베이비부머의 성공적 노화 요인을 설명할 수 있는 주요 변인들을 한국사회의 실정에 맞게 재조명하고, 이들 변인들 간 구조적 인과관계를 밝히고자 함. 여성 베이비부머의 경우 잠재 변수 심리적 특성→생산적 활동의 경로만 유의한 것으로 확인된 반면, 남성 베이비부머의 경우 잠재 변수 생활 습관→신체인지적 기능→생산적 활동의 경로, 생활 습관→신체인지적 기능→심리적 특성→생산적 활동의 경로, 그리고 생활 습관→심리적 특성→생산적 활동의 경로 등 세 가지 모두에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됨
이주일, 강연옥, 김지현, & 유경 (2011)	생산적 노화에 대한 세대 차이와 이런 생산적 노화가 개인의 성공적 노화와 관련되는 정도를 분석하고자 하였음. Caro, Bass, 그리고 Chen(1993)의 생산적 노화 정의에 따라 20문항으로 된 생산적 노화를 측정하는 문항을 개발함
김경호 & 김지훈 (2009)	노인의 성공적인 노화 요인을 설명할 수 있는 주요 변인들 간의 구조적인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성공적인 노화에 미치는 관련 변인들 간의 구조적 인과관계를 밝히려는 연구임. 한국 사회에 맞는 노인의 성공적인 노화모델을 구축이 목적. 구조분석 결과, 건강수준이 높을수록 신체적·인지적 기능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서 높아지고, 심리사회적 특성은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아 좋아지며, 또한 신체적·인지적 기능 및 심리사회적 특성은 그 자체로 생산적 활동을 증가시키는 직접 효과가 있었음
김정석 & 조현연 (2017)	‘신노년’담론과 ‘고령화위기관’ 중 신노년 담론, 특히 생산적 노화 담론을 다루고 있음. 사회적, 정책적 대응방안에 집중함. 주류 담론이 강조 해온 경제적 효율성을 벗어나 노년기 삶의 질 향상이라는 준거를 통해 노년의 현황에 접근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김현정, 이정은 & 한성민 (2010)	고령화 연구 패널조사의 2008년 제2차 기본조사 학술대회용 베타자료를 활용하여 세대 간 지원교환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봄
박선권 (2013)	산업화 이전에는 개인의 생산성과 사회 진보의 결합이라는 미국의 독특한 사회적 합의하에 노인이 다른 연령집단과 마찬가지로 생산자로서의 역할을 부여받고 있었다면, 산업화 시기에는 노인의 비효율성이란 고정관념과 은퇴와 연금의 제도화로 인해 소비자로서의 역할에 국한되어 있음. 인구고령화가 경제에 파국을 초래할 것이라는 정의는 일관성이 없고 편파적이라는 점, 노인의 의존과 사회의 부담이라는 신연령주의를 극복하기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점, 노인 당사자의 견해에 대한 고려 없이 노년의 삶을 관료적으로 통제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점 등을 제시하고 있음
백정민 (2018)	노인의 신체적 여가 활동에서 생산적 노화 메커니즘을 분석한 연구. 연구 결과 노인의 노화 메커니즘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내 삶의 의미', '생산적 노화 생활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은석, 안찬우 & 조건상 (2017)	한국 신노년 층의 회복탄력성과 생산적 노화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구명하는데 목적이 있음. 한국 신노년들의 회복탄력성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침. 한국 신노년들의 회복탄력성은 생산적 노화에 영향을 미침. 한국 신노년들의 자아존중감은 생산적 노화에 영향을 미침.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신노년들의 회복탄력성과 생산적 노화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부분매개로서 매개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 얻음
이은석, 황희정, 심승구, 조건상 & 안찬우 (2017)	우리나라 신노인의 생산적 고령화를 위한 회복탄력성 여가프로그램에 대한 알고리즘의 검증에 고찰한 연구임. 회복탄력성 여가프로그램의 영향 요인은 주관적 건강 상태, 활동 욕구, 대인 교류, 가구소득이며, 알고리즘의 영향 요인은 대인관계, 자기조절, 긍정적임. 회복탄력성의 구조적 알고리즘은 자기조절과 관련된 긍정적, 높은 대인관계 집단과 관련된 낮은 대인관계 집단임
이향란 (2012)	60세 이상 노인의 생산적 활동, 자아존중감 및 주관적 안녕감이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파악함. 분석 결과 첫째, 모든 측정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났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소득이 월등히 많은 경우, 종교가 있는 경우 등 연령이 낮은 사람인 여성보다는 남성이 성공적 노화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둘째, 자아존중감이 높고 생산적 활동 수준이 높은 노인일수록 성공적 노화 수준이 높았음. 셋째, 무엇보다 사회적 자본이 성공적 노화 수준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신뢰, 관계망, 사회참여 여부에 따라 성공적 노화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생산적 활동에 대한 완전한 매개로서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안녕감이 성공적 노화에 기여하는 주요 변수임을 알 수 있었음
최성재 (2002)	노인인구의 수와 비율 증가는 다양한 문제와 욕구를 지닌 노인의 수와 비율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지난 20세기 중반 이후부터 선진국은 물론 우리나라와 같은 개발도상국에도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나타나는 노인 문제와 욕구에 사회적 관심이 점차 증가되었고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는 급기야 사회적 부담을 증가시켜 복지국가의 실현에 큰 걸림돌이 되었고 노인 문제와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비용이 복지국가의 과제가 됨

4) 생산적 노화에 대한 비판

- 버틀러(Butler, R. N.)가 1982년 잘츠부르크(Salzburg) 콘퍼런스에서 의존(dependency)과 사회의 부담(social burden)이라는 노인에 대한 당대의 지배적인 속견에 대항하기 위해 노인의 생산적인 잠재성이라는 이슈를 제기함으로써 노화와 노인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토론을 개시하고자 했던 이래, 생산적 노화(productive aging)라는 용어는 사회 노년학의 어휘사전에서 주요 용어로 자리 잡아 왔음(박선권, 2013)
- 현재 한국 사회에서 인구 고령화에 대한 주요 담론은 이상의 두 가지 논의가 그 중심축을 이루고 있음
 - 첫째는 ‘고령화 위기론’으로 노년 인구의 비생산성을 전제로 과중한 사회적 부담이 초래되는 암울한 미래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고, 둘째는 ‘신노년’ 담론으로 ‘고령화 위기론’에서 그려지는 노년에 대한 대항적인 성격을 띠는 것으로, 노년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사회참여의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고령화 속 노년의 새로운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최희경, 2010)
- 한국 사회에서도 최근 생산적 노화에 대한 논의가 크게 활성화되어 왔는데, 첫째는 인구노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적 자원으로 노인을 바라보는 측면과 둘째는 생산적 활동이 생활 만족도 혹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노인들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성공적 노화의 요소로 보는 것임
- 최근 노인복지정책의 지배적 담론은 노인복지를 침해하고 다양한 노인을 배제하는 경제주의적·규범적 사회공학이라는 비판과 함께 생산적 노화를, 그 연속과 단절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활동적 노화나 성공적 노화와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이야기함(최희경, 2010)
- 현재까지의 논의들이 생산적 노화의 특수성과 역사성을 진단하지 않은 채 그것의 필요를

전제하고 정의와 범주를 받아들여 성급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노화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 교차적인 접근 방식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Mathews, 2023)

- 생산적 노화에 대한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생산적 노화의 개념은 주로 고령자의 경제적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노인의 다양한 사회적 기여를 간과할 수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임
 - 고령자들이 경제적 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원봉사, 가사노동, 지역사회 활동 등 비경제적 활동 역시 중요한 기여로 인정받아야 하며, 경제적 관점에 치우친 생산적 노화는 고령자의 다양한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게 할 수 있음
 - 생산적 노화는 모든 고령자가 동일한 수준의 건강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는 경향이 있어 고령자의 건강 상태와 능력은 개인마다 크게 다를 수 있다는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함
 - 생산적 노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수적이며 노인을 단순히 부양의 대상이 아닌, 사회의 중요한 일원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함. 이러한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교육과 홍보가 필요함
- 중앙정부의 제4차 고령자 고용 촉진 기본계획(2023~2027)의 비전인 ‘연령에 상관없이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는 노동시장 구현’ 또한 생산적 노화가 개인의 성공적 노화에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도 소득 공백 해소와 숙련 인력 활용 등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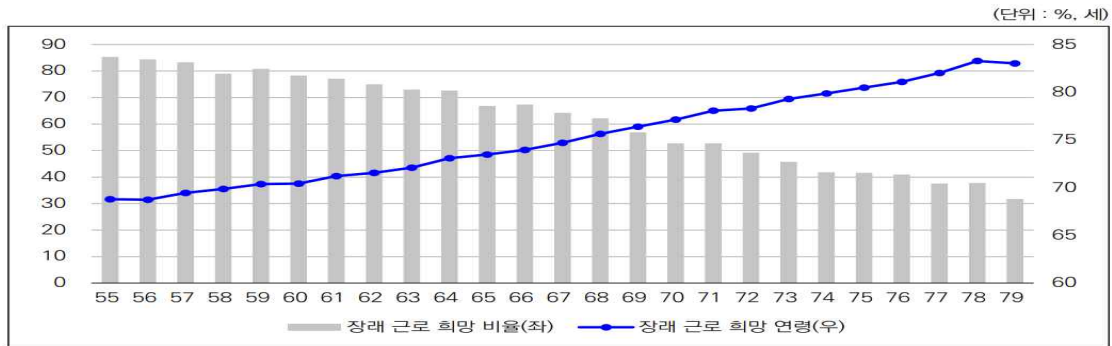
2. 고령자 고용 이론 검토

1) 고령자 고용의 특징

(1) 높은 고용 욕구

- 지난 10년 동안 55세 이상 중고령자의 고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000~2009년 동안은 정체 상태였지만, 2010~2020년 동안 5.8%p 증가함. 코로나 고용 위기가 발생한 2020년을 제외하고, 지난 10년 동안 중고령층 내 모든 세부 연령 계층에서 고용률이 증가하여 2020년 60~64세의 고용률은 60.4%를 기록하였고 2020년 5월 현재 55~79세 중고령층 가운데 장래에 일하기를 원하는 비율은 67.4%이며, 장래 근로 희망자 가운데 계속근로를 희망하는 연령은 평균 72.7세까지 이름

그림 2-1 | 55~79세 중고령층의 연령별 장래 근로 희망



〈자료〉 통계청. 경제 활동 인구조사 고령층 부가 조사 자료 (2020년 5월)

- 고령자가 근로 희망 사유로 '일하는 즐거움'을 꼽은 비중은 지난해 보다 소폭 증가한 반면, '생활비 보탬'을 꼽은 비중은 줄어 고령층의 고학력화, 건강수명 증가 등으로 일하려는 욕구가 강해지는 것으로 보임(KOSTAT)
- 공적연금 수급액의 증가 및 기초(노령)연금 등 소득 보장 제도의 개선 및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고, 국민의 58.6%가 노후에 취미활동을 하며 노후를 보내고 싶어 하는 등, 노후 준비의 관점이 '소득 보장'을 넘어 '노후 삶의 질 유지'로 변화함(송현주 외, 2019)
- 2018년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의 연구보고서의 중·고령자 근로 의향 및 근로 동기에 대한 실태분석 및 실증분석 결과 보고를 살펴보면
 - (실태분석) 향후 연령과 관계없이 근로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 신중년 67.6% > 전기 노인 45.4% > 후기 노인 24.4%
 - (인구 사회학적 특성) 연령집단 모두 연령이 낮을수록, 남성일수록, 신체적 건강 상태가 좋을수록, 취업자일수록 근로 의향이 높게 나타남. 학력의 경우 연령집단 별 차이를 보였는데, 신중년은 대졸 이상이, 전기 노인과 후기 노인은 고졸 집단이 가장 높은 근로 의향을 보임
 - (경제적 특성) 연령집단 모두 근로소득 있는 집단이 근로소득 없는 집단보다 근로 의향이 높았음. 또한 순자산이 있는 경우 근로 의향이 높게 나타남
 - (공적연금 특성) 신중년은 공적연금 가입자의 근로 의향이 가장 높았으며, 전기, 후기 노인의 경우 국민연금 수급자의 근로 의향이 가장 높게 나타나 65세 이상 연령층의 경우, 전기 노인은 공적연금만 수급받는 집단이, 후기 노인은 공적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수급받는 집단의 근로 의향이 가장 높았음
 - (실증분석) 근로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결과, 학력을 제외한 인구 사회학적 특성 변수는 모든 연령집단에서 대부분 근로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경제적 특성(근로소득, 개인 순자산)은 신중년과 전기 노인에서만 근로 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

- (신중년) 성별(여성-), 신체적 건강(+), 취업상태(취업+), 근로소득(+), 개인순자산(적자+)
 - (전기 노인) 연령(-), 성별(여성-), 신체적 건강(+), 취업상태(취업+), 근로소득(+), 개인순자산(적자+)
 - (후기 노인) 연령(-), 성별(여성-), 신체적 건강(+), 취업상태(취업+)
- 향후 근로 의향은 연령이 높을수록 감소하지만 신중년의 경우는 연령과 근로 의향이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주 또는 가장의 역할을 하는 중·고령 남성이 여성에 비해 근로 의향이 더 높게 나타남. 그 외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스스로 건강 상태가 좋다고 인식할수록 취업상태일수록 임금근로자 일수록 근로소득이 높을수록, 순자산이 적자일수록 높게 나타남

(2) 고령층의 학력 수준 변화

- 60세 이상 고령층의 인적 특성을 학력 수준에서 비교해 보면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23년 [노동환경변화에 따른 민간형 노인 일자리 발전 방안] 최종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70~74세 고령층의 지난 10여 년 동안의 학력 수준 변화 특징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던 초졸 이하 학력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를 대체해 중졸과 고졸 학력이 유사하게 증가하고 있고, 65~69세 연령층도 동일한 특징을 보임(김문정, 2024)
 - 60~64세 연령층에 있어서 학력 수준 변화의 가장 큰 특징은 초졸 이하 학력의 급격한 감소와 함께 고졸 학력의 급격히 증가함(김문정, 2024)
 - 머지않아 60대에 진입하는 55~59세 연령층의 학력 수준의 분포를 살펴보면 초졸 이하 학력의 비중이 매우 낮음으로 나타났고, 2022년에는 초졸 이하(5.4%)보다 초대졸(8.1%)과 중졸(11.8%) 학력의 비중이 더 높아서 이 연령대 학력 수준 변화의 특징은 초졸 이하와 중졸의 비중 감소를 대체해 고졸과 대졸 학력의 비중이 유사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임
- 주된 일자리 은퇴 이후 재취업한 임금근로자의 학력 현황을 살펴보면, 향후 10~15년 동안 60대에 새롭게 진입하는 임금근로자의 경우 고졸 이하 학력자의 비중은 급감하지만, 초대졸 및 대졸 학력자의 비중은 급증하게 됨(김문정, 2024)
- 특히, 약 15년 후 60대 초반이 되는 (현재의 40대 중반에 해당하는) 임금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졸 이하 학력 비중보다 초대졸 이상의 학력 비중이 더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따른 고령자에 적합한 일자리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다양하게 제시되어야 함

(3) 희망 근로 형태의 변화

- 최근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노동시장에 더 오래 남기를 원하는 고령자가 증가하고 있음.
고령자의 나이가 증가할수록 일자리를 선택할 때 임금의 중요도는 감소해 가는 반면, 일의 양과 근무 시간이 점차 더 중요한 선택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음. 또한, 나이가 많을수록 전일제보다는 시간제 근로를 선호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는 등 고령층이 선호하는 일의 형태가 변화하고 있음
- 60세 이상 고령층이 가지고 있는 장래 근로에 관한 생각 즉, 장래 근로에 관한 생각은 장래에 몇 세까지 일하고 싶은지, 일을 구한다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무엇인지, 희망하는 일의 형태나 임금 수준은 어떠한지 등에 대한 생각의 변화는 고령자의 일자리 선택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므로 정형화된 근로 방식의 변화가 필요함
 - 경제적 이유를 선택한 사람들의 비중은 60~64세와 65~69세 연령층에서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 반면, 일하는 즐거움 때문에 더 오래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비중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다만, 70~74세 연령층은 이들과는 조금 다른 패턴을 보이는데, 최근 들어 일하는 즐거움 때문에 장래 근로를 희망한다는 사람들의 비중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으며, 경제적 이유로 인해 일하기를 원한다는 사람의 비중은 줄어들고 있음
 -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60대 고령층이 노동시장에 더 오래 남아서 일하기를 원하는 것은 경제적인 요인과 일 자체에 대한 즐거움 모두 영향을 미치며 최근 들어서는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노동시장에 더 오래 남아서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표 2-5 |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이유: 60~64세 고령층(2013~2022)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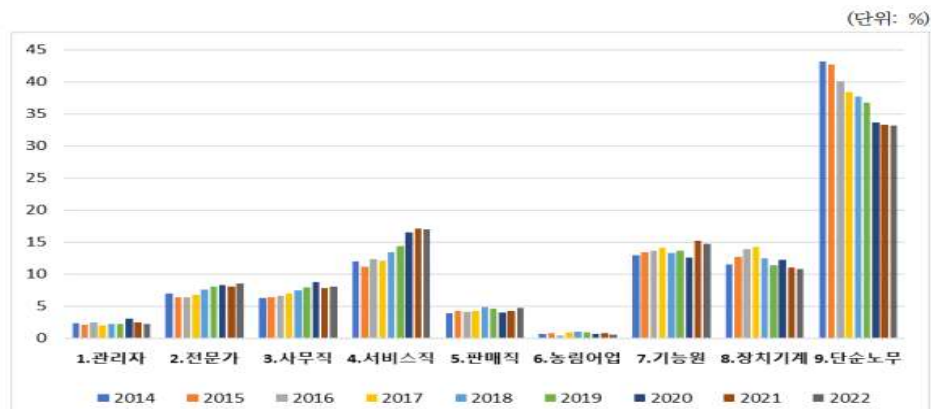
조사연도	일하는 즐거움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생활비 필요)	사회에서 나의 능력/기술 필요	건강 유지를 위해	무료하여
2013	38.2	53.7	2.0	1.4	4.4
2014	39.2	53.1	1.9	1.2	4.4
2015	36.6	56.1	1.9	1.1	4.2
2016	35.6	57.0	2.0	1.3	4.0
2017	35.1	58.0	2.2	1.2	3.3
2018	36.1	57.0	2.0	1.5	3.3
2019	34.1	58.9	2.1	1.9	3.1
2020	33.3	60.1	2.3	1.7	2.7
2021	32.4	60.3	2.1	1.9	3.3
2022	34.5	58.2	2.0	1.5	3.7

〈자료〉 통계청. 경제 활동 인구조사 고령층 부가 조사 자료 (2013~2022)

(4) 고용의 형태

- 2022년 기준 60~64세 경제활동인구의 31.8%는 자영업자이며 59.2%는 임금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60~64세 고령층은 이전보다 노동시장에 더 오래 남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의 고용 형태를 임금근로자로만 한정하여 종사상 지위에 따른 비중 변화를 보았을 때 60~64세 상용직 근로자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나 임시직과 일용직 근로자의 비중은 최근으로 올수록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60대 이상 고령층의 고용 형태 비중 변화의 특징은 자영업자보다는 임금근로자로 경제 활동을 하는 경우가 더 일반적이었으며 최근 들어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60대 초중반의 경우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 비중이 임시직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상용직 비중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확인할 수 있음. 60대 후반과 70대 초반 임금근로자로 넘어가면 상용직보다는 임시직으로 고용되는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주된 일자리에서 재취업 일자리로의 이동에 따른 직종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재취업 시 단순노무직으로 이동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음

그림 2-2 | 주된 일자리 퇴직 후 재취업한 임금근로자의 직종 분포(2014-2022)



〈자료〉 통계청, 경제 활동 인구 조사 고령층 추가 조사 자료 (2014-2022)

- 고용 형태별 근로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정규직의 비중은 일자리 시작 연령이 증가해 감에 따라 감소하고 있는데 특히, 55세 이후에 시작한 일자리에서는 정규직 비중이 급격히 줄어들어 50%로 나타남. 이는 50대 중후반 시기에 새롭게 가지게 되는 일자리의 절반은 비정규직임을 의미함

표 2-6 | 일자리 시작 연령에 따른 고용 형태 분포(2019년)

(단위: %)

고용 형태	일자리 시작 연령 (세)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69	70-74
특수형태	4.7	6.3	7.1	6.9	6.1	5.2	4.1	2.8	2.3
가내	0.1	0.1	0.1	0.0	0.1	0.1	0.0	0.1	0.0
파견	0.3	0.3	0.3	0.5	0.5	0.6	0.3	0.5	0.3
용역	0.7	0.8	1.2	1.6	2.5	4.5	8.9	16.3	20.4
일일	1.9	3.1	4.5	7.9	11.5	16.2	21.3	19.4	21.0
단시간	4.1	6.0	6.7	8.1	9.4	10.4	12.9	15.7	16.7
기간제	5.6	5.0	4.8	5.7	6.5	8.2	10.2	10.1	9.9
한시적	0.5	0.4	0.5	0.7	1.0	1.1	1.5	1.2	2.5
정규직	82.1	78.0	74.8	68.6	62.5	53.7	40.9	34.1	27.0
(비정규직)	(17.9)	(22.0)	(25.2)	31.4)	(37.5)	(46.3)	(59.1)	(65.9)	(73.0)
합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 형태별 근로 실태조사 자료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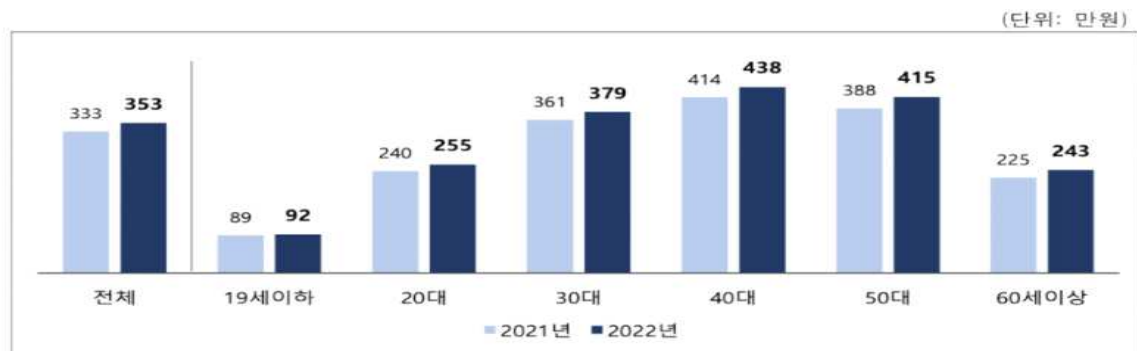
- 비정규직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고용 형태는 일일 근로, 단시간근로, 기간제로 나타나 60대에 시작하는 일자리에서는 단기 근로계약에 기반한 근로 형태가 다수를 차지함
- 비정규직 일자리 중 용역, 일일, 단시간, 기간제 근로의 고용 형태는 대략 50대 시기부터 급격하게 증가하는 패턴을 보여 용역 근로의 경우에는 60대 중반부터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수형태의 고용은 일자리 시작 연령이 50대 중반을 넘어가면서 점차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 국내의 특수형태 일자리는 중고령자들이 수행하기에 쉽지 않은 직무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5) 낮은 임금

- 취업자의 연령대별 임금을 보면, 취업자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임금이 높아지다가 일정 연령 이후 다시 감소함
- 가장 임금이 높은 연령대는 40~44세로 월 263.4만 원이고 이 임금 수준이 54세까지 유지됨. 그러나 55세 이후 임금이 낮아지기 시작해서 60~64세는 171.3만 원, 65~69세 월평균 임금은 122.1만 원, 70세 이상은 70.7만 원임
- 55세 이후 임금이 감소하는 것은 평균 퇴직 연령이 53세이기 때문에 생애 주된 일자리를 떠나는 고령자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중위 임금으로 보면, 40~44세는 월 230만 원으로 가장 높고 그 이후 감소하여 60~64세는 130만 원, 65~69세는 100만 원으로 감소함
 - 특히, 70세 이상이 되면 취업상태라고 해도 월 38만 원에 불과함. 연령이 높아질수록 임금이 감소하며 특히 70세 이후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평균 임금과 중위 임금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볼 때, 고소득자의 소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이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임금 불평등이 심해짐을 의미함. 같은 고령 취업자라고 해도 고소득자와 저소득자로 양극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그림 2-3 | 연령대별 평균 소득



〈자료〉 통계청. 임금 근로 일자리 소득(보수) 평균 소득 (2022)

(6) 성별 차이

- 2023년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자의 성별 고용 현황은 남성의 경우, 60세 이상의 고용률은 2022년에 비해 상승하여 약 36.9%를 기록하였고, 여성의 고용률 또한 증가하여 약 26.7%를 기록했음(통계청 KOSTAT)
- 고용률 상승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나타났으며, 이는 고령층의 건강수명 증가, 고학력화 및 경제적 필요 등 여러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2년 기준 고용노동부_고령자고용률 현황(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 수 및 55세 이상 남녀고령자 수)

표 2-7 | 업종별 고령자고용률 현황

구분	사업장(개)	전체 근로자(명)	55세 이상 근로자(명)	55세 이상 남성 근로자(명)	55세 이상 여성 근로자(명)
농업, 임업 및 어업	3	1188	775	294	481
광업	2	1267	563	551	12
제조업	932	1160503	110302	98982	11320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61	59401	6509	6086	423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20	20802	3974	3126	848
건설업	94	107657	12158	11585	573
도매 및 소매업	246	337734	29155	4391	24764
운수 및 창고업	200	252897	52406	41268	11138
숙박 및 음식점업	66	116786	11795	2093	9702
정보통신업	256	280509	17516	14978	2538
금융 및 보험업	197	312972	22140	17628	4512
부동산업	54	49285	26497	16749	974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95	230171	37858	34387	347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619	631011	261079	137433	123646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305	291152	99910	57510	42400
교육 서비스업	124	78561	14410	8400	6010
보건업 및 사회 복지 서비스업	324	208451	30824	8972	21852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51	37295	6291	3582	270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34	28202	3982	2235	1747
가구 내 고용 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0	0	0	0	0
국제 및 외국기관	4	11358	4234	3336	898

〈자료〉 고용노동부. 고령자고용률 현황 (2022)

- 만 50세 이상 남녀의 고용률은 2021년 기준 남성 70.9%, 여성의 경우 그보다 약 21.2%p 낮은 49.7%로 나타났으며, 저숙련 직종 종사자 중 여성의 비중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종사상 지위 및 근로 형태에 있어서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임시근로자 및 계약직, 초단기 근로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노동시장에서 성별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됨(김복태, 2022)
- 2022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남녀고령자 고용 실태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만 50세 이상 중 60%가 여전히 경제활동에 참여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1·2차 베이비붐 세대에 해당하는 50~60대 전반 여성 중 절반 이상이 여전히 경제활동에 참여 중으로 우리나라 노동 시장에서 베이비붐 세대 여성의 역할이 큼을 알 수 있음

- 고령층 전반의 경제활동 참여율 및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극적 고령 정책 전반에 고령자 특화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적합 업종을 발굴함으로써 프로그램 참여율 및 정책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함
- 전통적으로 생계부양자로서의 역할을 해온 남성 고령자는 은퇴 후 경제적 노후 준비 또는 생계유지를 위한 경제활동을 희망하며, 여성 고령자의 경우는 가사노동과 돌봄 노동이 줄어드는 시기에 사회참여 욕구에 기반하여 일자리 참여를 선택 할 수 있음
- 특히 현재 정책 전반에서 여성 고령자의 참여율이 매우 낮음을 고려할 때,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여성 참여율이 낮은 원인에 대하여 접근성 및 선발 과정의 형평성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함

2) 고령자 고용에 대한 연구

- 고령자 고용정책에 관한 선행연구는 고령자 고용정책의 추진체계를 위한 것으로 연구자들의 연구 방법과 쟁점, 추진체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성과 요인에 관한 연구임
- 일반적으로 고령자 고용정책은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고령자 고용정책을 접근하다가 외국 제도를 소개하였고, 최근에는 고령자 고용정책의 평가와 효율성, 효과성 분석을 진행하면서 중앙부처 간의 사업의 중첩성과 유사성, 경합성 등 추진체계 연구가 많이 인용되고 있는 실정임(이영선, 2012)
- 고령자 고용정책에 관하여 최근에 많은 논문이 나오고 있지만, 행정의 중앙집권 체제로 인한 권한과 재정 배분의 불합리성이나 지역 주도성 부족을 논의하는 논문은 부재함
- 고령자 고용 등에 대한 분석연구는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서 연구과제로 수행되었으며, 1998년부터 많은 논문 및 보고서가 발표됨
 - 대다수 연구들이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대응책과 대안을 제시, 고령자의 특성과 생산적 활동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생산적 활동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분석, 고령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고령자 등으로 고용정책, 사회적 관계 개선, 신체적 건강증진, 심리 정서적 건강 등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짐
 - 일부 연구에서는 고령자의 재취업 형태를 개선하여 다양한 직종에 재취업할 수 있는 정책 모델을 개발·제시(라진구, 2009)하는 등 방법론적 연구도 있었으나 고령자의 직접적인 생산활동 현황과 활성화를 위한 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임

표 2-8 | 고령자 고용에 대한 선행연구

연구자	접근방법	쟁점	성과와 영향 요인	기타
강은나 외(2022)	정책분석과 실증연구	고령자 사회활동 정책의 미비점	고령자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진단	인터뷰, 포커스 그룹
강혜규 (1998)	체제이론 제도분석	복지 욕구와 인식 부족 전달 체계발달	체제의 획일성, 환경적이며 법적 제도적 요인, 전통적 가족주의, 수직적인 전달체계	-
고재욱 (2007)	정책의 실증효과분석 빈도분석, 교차분석	참여 노인의 주관적 인식 조사	정책 유형별 효과성 검증 고학력과 공익형 사업효과가 제일 낮음	노인 일자리 사업
권구영 외(2007)	정책효과 정책에 대한 인식 조사 노인의 생산적 활동이론	사업 자체에 대한 효과성에 국한	세부 하부 유형별 효과성 분석 시장형 사업 확대 제한/정책 유형이 정책 이행 요인	-
권용식 (2009)	내용 분석 중심 질적연구방법 사례 비교분석	추진 과정 및 현황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시스템 프로그램모니터링 및 성과 평가	고용지원프로그램 유무 자율성 네트워크 구축	한국, 미국 정책 비교
김대빈 (2004)	활동이론 현대화 이론 정치 경제학적 접근	고용 활성화를 위한 중앙 총괄 기구 공적인 전달체계 역할 제고	법과 제도, 기술적 문제, 실효성 민간 부문 역할 비중	전담기구, 프로그램
김대희 (2007)	문헌연구 설문조사	제도개선	제약요인, 활성화 영향 요인	-
김미곤 (2006)	평가 및 효과성 분석	노인 일자리 사업의 긍정적인 효과	소득 증가와 건강증진	노인 일자리 사업
김미혜 (2001)	노인 고용정책 특성·유형 비교	생산적 복지로서 통합적인 노인 고용정책	정책 및 법과 제도적 요인	실태조사
김수영 (2009)	문헌분석 실태분석 평가분석	노인 일자리 사업 실태조사	실태, 예산, 평가, 발전 방안	부산
김옥암 (2009)	체계분석	Lazar 모델 임금과 고용	고용 체제, 연령차별금지법	일본제도 분석
김용탁 (2007)	Gilbert와 Sprcht 차원분석 문헌분석	법규, 정책	법적, 제도적 요인	-
김용원 (2008)	국제 사례 비교 양적연구	정책의 실효성 담당 기관의 연계성 지역 정책 부재	제도 비교	설문지조사
김주현 외(2012)	법률문서, 규정의 고연령자 용어 정의와 분석	특정 용어가 고연령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 문제	법 규정에서 고연령자 지칭 용어의 문제점을 비판, 고찰	-
김환일	체제이론	인적자원관리, 인사,	일본 기업의 고령자고용제도	일본제도

(2009)	문헌 연구	임금		
남기철 외(2008)	사업 내용 분석	중장기 발전 전략	시장형 일자리의 소득취약성, 수행 인프라의 취약성, 규관사업과의 통합성, 과도한 사업목표 후속관리의 취약성 대상노인의 욕구와 사업내용, 공공분야 일자리사업	노인일자 리사업
라규원 외(2017)	가계 동향 조사, 건강보험공단 데이터 분석	전기 노인과 후기 노인의 의료비 지출 차이 유발요인을 분석	전기노인과 후기노인의 의료비 등 연령대별로 맞춤형 정책필요	연령대별 특성
류장수 (2009)	국제 사례 비교	지역노동시장의 특성	분권화, 파트너십, 지역 노동시장 특성에 기반한 노동시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구상하고 실행	지역 고용정책 및 분석
류장수 외(2009)	제도, 사례	지역문제, 지역 특성	산술적인 평균적인 관점	-
박병길 (2002)	체제이론	기술적 문제, 취업제도 도입의 필요성	환경적 제요소, 정책(법제도), 관리 기술(주체, 객체, 재정)	-
박삼옥 외 (2008)	문헌분석	지역적 특성	정책적, 제도적 지원 및 개선	구, 군별 비교분석
박선권 (2013)	설문조사, 인터뷰 사례연구	'생산적 노화' 개념이 가진 이론적, 실천적 문제점	'생산적 노화' 개념에 대한 다양한 정의와 해석을 정리	정책분석
박종희 (2009)	체제이론	고령자고용촉진법 규정	입법정책	-
박진희 (2023)	고령 근로자 수 증가 영향 요인 분석	65세 이상 고령자 노동시장 현황 고찰하여 증가 원인 살펴봄	기대여명이 높아지면서 건강한 고령층 증가, 노후 소득 불충분	-
변재관 (2003)	문헌분석	전반적인 노인 고용 현황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방안	제도적 요인, 지역 단위의 연구기관 부재 인력 수급의 불균형이 지역적 불균형 일자리 부족	다양한 고용 형태 제시
송기민 외(2022)	비교연구, 설문조사, 통계분석, 문헌검토	한국과 미국 노인의 물리적 고령 친화 거주환경의 영향을 비교	문화와 각국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책 개발의 필요성 강조	문화적 고려
심의경 (2010)	사회적 일자리	활동이론, 교환이론, 사회적 일자리	노인 고용률 확대 정책	EU와 비교연구
심인선 (2002)	실태분석	훈련, 재취업, 제도보완	정책, 제도개선의 필요성	노인직업 훈련
안주엽 외(2005)	제도	지역 특성 무시, 획일적 적용	지역의 자발성	-

윤희숙 외(2006)	성과평가연구	성과에 대한 목표치 대비 달성치 강조 평가 방식 문제 사업유형별 목적 불분명	사업유형별 목적, 목표집단, 현행 평가 방식, 수행기관의 역할, 기능의 성격 차이 및 연계 체제 구축	노인 일자리 사업
윤희호 외(2007)	체제론 구조기능주의 비교연구	복지 시스템 미비	고령자 고용 개발 체계 권한 이관, 지역네트워크 연계/성과(효과성)분석	서울시/동 경도
이병준 (2003)	-	장기적 비전 결여	주민자체센터 활성화와 주민 참여 컨셉	공공근로
이석원 외(2009)	사회경제적 효과분석	노후 소득 보장	부가가치적 효과 측정	노인 일자리
이원섭 (2007)	문헌분석	지역 단위의 고용정책 수립	인력 공급의 불균형은 지역적 불균형으로 인함	-
이재홍 (2010)	제도평가	제도 정착	노후 소득 보장 제도 연령차별금지법	-
이진 (2009)	제도평가 체제이론	전담 기구 설치	이원적 구조 분산 체제	구,군별 비교
전명숙 외(2009, 2010)	체제이론 구조기능적 접근	지역 고용 거버넌스와 노사정 통합시스템	지역 주체 참여와 분권의 정도, 조정장치 부족	중앙집권 중심
전혜정 (2004)	평가 및 효과분석 실태조사	일자리 참여자 욕구와 만족	사회참여에 만족도 건강증진 효과 긍정적인 의지 경제적 자립 욕구 강화	노인 일자리 사업
최성재 (1999)	-	노인 취업 업무 관련 기구 총괄기관 필요	노인 재취업 훈련 기구와 취업 업무 기구 분산	-
허준수 (2010)	실태 내용 분석	정책 방향	연계성, 전달체계의 유무	일자리 활성화
하태종 (2007)	노동공급이론 노동수요이론	문헌분석 실증분석	고령자 고용 대책과 효과성	서울시 프로그램
황진수 (2001)	체제이론	체제개선, 총괄 기구 필요	부처 간 이기주의를 조장, 행정체계 분산, 사무의 다원화 체계. 이중적 감독, 통제로 자율적인 결정과 집행을 저해	자율성
한국인력개 발원 (2007)	조사연구	노인 일자리 사업 효과성 분석	참여자 만족도 노동조건 만족도 조사	-

○ 고령자 고용에 대한 최근 연구들은 인구 고령화와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주로 고령자의 경제적 안정성, 노동시장에서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고용주의 인식변화 등을 다루고 있음

○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비용 편익 분석을 비참여자(정부 또는 납세자 입장), 참여자, 사

회 전체 입장에서 실시하고 이를 통해 노인 일자리 사업의 경제적 효과성을 분석한 연구에서 분석 결과를 보면, 공공분야 하위사업 모두 비참여자, 참여자, 사회 전체 입장에서 순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정책적 제언과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함(고호태, 2012)

○ 최근 연구들은 고령 근로자의 경험과 지식이 조직의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특히 고령 근로자들의 멘토링 제공으로 조직 내 빠르고 원활한 지식 전수를 예로 들 수 있음

- 중장년 근로자가 긴 재직기간 동안 축적한 전문성과 노하우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세대 간 대인관계 맥락에서 조직의 성과에 기여하는 정보공유를 향상시키는 현상을 탐구하는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중장년 근로자는 다른 세대와의 상호작용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됐을 때, 발달과업에 대한 완수 가능성을 지각하여 자발적으로 자신이 가진 노하우와 정보 등을 나누려 함. 이러한 결과와 더불어 조직에서 지위가 높고, 직무와 조직 환경에 대한 암묵적 지식(tacit knowledge)을 많이 가진 중장년 근로자 일수록 자신이 가진 지식과 정보를 더 나누려 한다고 보고함(한태영, 2021)

○ 고령 근로자의 임금과 고용 안정성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경력과 숙련도에 따른 고용 안정성이 높은 반면 임금이 그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인상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함(Papadopoulos, M., Patria, M., & Triest, R.K, 2017)

○ 2016년 대비 2019년 노인 일자리 참여 노인의 주요 특성 변화를 통해 참여 노인의 개인적인 소득 증가나 건강개선, 사회적 관계 개선을 넘어 사회경제적인 편익을 검증하여 평가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남녀 성비는 약 3:7 비율로 여전히 여성의 참여 비중이 높음. 참여 노인 평균연령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 기준 75.8세로 나타났으며, 85세 이상의 후기고령자의 참여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2016년 2.9%, 2020년 5.8%)

- 참여 노인의 학력 수준은 여전히 '초졸 이하'의 비율이 60%를 상회하고 있음. 다만, '무학' 비율 감소(-5.8%)와 초·대졸 이상 비중 소폭 상승(+0.7%)의 변화가 나타남. 사회 서비스형의 경우, 타 사업에 비해 초·대졸 비중이 5.3%p 높아 비교적 참여 노인의 교육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됨

- (건강 상태 변화) 주관적 건강 상태에 대한 인식이 2016년 대비 2019년 다소 긍정적으로 변화함. 특히 스스로 건강 상태에 대해 매우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2016년 대비 약 5%p 상승함. 보건 의료비 지출 비용(외래, 약국 이용에 해당하는 보건 의료비)도 2016년 대비 2019년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사회적 관계 변화) 직계가족, 친인척, 친구, 지인과의 관계에 따라 사회적 관계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살펴본 결과, 2016년 대비 2019년 가족 및 친인척 관계는 다소 낮아졌지만, 친구 및 이웃과의 관계는 호전된 것으로 나타남

- (경제적 수준 변화) 2016년 대비 2019년 월평균 소득은 약 7만 5천 원 더 높게 나타났으며,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어려움을 경험한 비율도 2016년 대비 8.7%p 감소함(빈곤 경험 비율 : 2016년 22.9%→2019년 14.1%)

표 2-9 | 2016년 대비 2019년 노인 일자리 참여 노인의 주요 특성 변화

(단위: %)

구분	주요 변화	결과값	
		2016	2019
건강 상태	주관적 건강 상태 평가 상승(+0.2점)	3.7점	3.9점
	보건 의료비(외래의료비) (-3.6만 원)	7.7만 원	4.1만 원
	보건 의료비(약국 이용비) (-2.1만 원)	6.5만 원	4.4만 원
경제 상태	월평균 소득(가구소득) (+7.4만 원)	107.4	114.8
	경제적 빈곤 유경험자 감소(-8.7%p)	22.9%	14.1%
	경제적 이유로 의료 이용이 어려운 비중 감소(-1.9%)	4.3%	2.4%
	식비, 외식비 지출 비중 증가(+16.3%p)	46.1%	62.4%
사회관계	사회(봉사)참여자 비중 증가(+6.9%p)	12.1%	19.0%
	평생교육 참여자 비중 증가(+6.0%p)	8.7%	14.7%
삶의 만족도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증가(+0.3점)	3.4점	3.7점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 증가(+0.2점)	3.9점	4.1점

〈자료〉 보건복지부, 2017년 노인 보건 복지 사업 안내(II), pp.4-5

- 전체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를 앞둔 만큼 예비 노인을 포함하여 노년기의 생산활동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며 노인을 '돌봄 대상', '생산성 하락' 등의 부정적인 인식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한 때임
 - 선행연구에서도 생산적인 활동의 영역 중 가족 활동을 제외한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이 성공적인 노화와 의미 있는 정적인 상관성을 나타냄(홍혜영, 2005)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노년기 생산적 활동의 경제적 가치는 2014년 기준 300조 1,700억 원으로 이는 GDP 대비 20.2%를 차지함. 최근으로 올수록 생산적 활동에 투입하는 시간이 소폭 감소하고 있지만, 55세 이상 고령인구 규모의 증가 등으로 생산적 활동의 경제적 가치는 증가하는 추세임(황남희 외, 2018)
 - 생산적 활동 중 일의 경제적 가치는 177조 1,510억 원(GDP 대비 11.9%)이며, 무급 가사일은 123조 190억 원(8.3%)임. 무급 가사일을 세부 활동별로 살펴보면 가사 활동 100조 9,190억 원(6.8%), 가족 돌봄 활동 9조 970억 원(0.6%), 자원봉사활동 2조 4,430억 원(0.2%), 이동 10조 5,590억 원(0.7%)임
- 고령자 생산활동을 위한 노동환경과 관련해선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에 대한 논의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지만 정년 연장이 노인복지 대상자 선정 기준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현실에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함

- 미국과 영국은 정년을 두지 않고, 일본과 독일은 정년 연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은 이미 2021년부터 기업에 70세 정년을 권고하고 있음. 일본 기업에서 65세를 넘어 일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음. 또한 일본은 2013년 ‘고연령자 고용안정법’을 개정하여 근로자가 희망할 경우 65세까지 고용하도록 기업들에 의무를 지우는 등 적극적인 고령자 고용 연장 정책을 추진함

3. 고령자 역량 및 교육 이론검토

1) 인적자본이론

- 인적자본이론에 따르면 근로자는 직무훈련을 받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과 받지 않음으로써 입게 되는 비용을 비교해서 전자가 상대적으로 더 클 경우에만 직무훈련에 참여하게 됨(Becker, 1964; Strobe, 1990)
- 인적자본이론(Human Capital Theory)은 경제학 및 사회학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교육, 훈련, 경험 등을 통해 개인이 습득한 지식, 기술, 능력이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노동시장에서의 개인의 생산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사회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함. 따라서 기업은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하지 않고,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종업원의 능력과 역량을 개발해 나가야 함
- 인적자본이론은 현대 기업 경영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기업 경영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점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됨
 - 따라서 기업은 인적 자원 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며, 그들이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야 함(Osterman, 1987, Shaw et al., 2005)
- 고령층의 경우 기대 근로 연수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직무훈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의 현재 가치가 적기 때문에 직무훈련이 더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직무훈련을 받을 유인이 적음
 - 기업 입장에서도 근로자에게 직무훈련을 제공할 유인은 전자의 경우가 더 클 경우에만 발생할 것인데 고령층을 대상으로 직무훈련을 제공했을 때에 비해 젊은 층을 대상으로 직무훈련을 제공할 때 더 얻는 이득의 현재 가치가 더 높기 때문에 고령층에 대한 직무훈련을 제공할 가능성이 매우 낮음
- 고령층에 대한 직무교육 시스템이 긍정적인 외부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지만,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시장 원리에 맡기게 되면 위에서 제시한 여러 이유로 인해 과소공급이 될 확률이 높음

- 나이에 대한 편견 등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으로 고용주는 고령층에 대한 직무훈련을 제공할 확률이 낮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고령층은 젊은 층에 비해 잠재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는 경향이 있음. 마찬가지로 고령의 근로자는 근거 없이 자신의 잠재성에 대해서도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직무훈련을 적극적으로 받으려는 시도를 하지 않기도 함
- 대개 직무훈련 시스템은 젊은 층에 적합하게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로는 젊은 층을 대상으로 주로 직무훈련이 제공되었기 때문임. 따라서 기존의 직무훈련 시스템이 고령층에게는 적합하게 설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더욱 고령층에 대한 직무훈련이 제공될 유인이 적어지게 됨
- 고령자는 오랜 기간의 경험과 축적된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잘 활용한다면 경제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음
- 그러나 많은 경우, 고령자는 새로운 기술이나 변화하는 노동시장의 요구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고령자에게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여 이들의 인적자본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함

2) 사회적 지지 이론

- 사회적 지지이론은 노인들의 학습 참여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관계와 환경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노인들은 가족, 친구, 동료 등으로부터 교육 참여에 대한 지지와 격려를 받으면 학습 동기가 증가하고, 교육기관에서 친근하고 존중받는 분위기를 제공하면 학습 만족도가 증가함(김춘기, 2012)
- 사회적 지지이론(Social Support Theory)은 개인이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정서적, 도구적, 정보적, 그리고 평가적 지원을 받음으로써 스트레스와 도전적인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된다는 이론임. 특히 고령자 고용 교육에 있어 적절한 사회적 지지와 교육이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이들이 노동시장에 성공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노인 인력교육은 노인들의 자기 능력감과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노인들은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하고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게 되어 정신적으로 안정감을 얻음
 - 노인들의 사회적 지지망을 확대하고, 노인들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노인들이나 강사들과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게 되어 친밀감과 소속감을 느낌. 사회적 지지망은 노인들의 건강과 복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줌
 -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능동적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고 노인들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사회적 가치와 의미를 창출하고 공익에 기여함
- 노화 학습 이론에 따르면 노인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생물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에서

점진적이고 정상적인 변화를 겪으며 주로 기능이 약화 되지만, 노인들은 직업 교육을 통해 인지 스타일, 동기부여, 자기개념 등의 요소를 개선하고 학습 전략을 습득할 수 있음(천후섭, 2014)

- 노인 직업 교육은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노인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소득을 확보할 수 있음. 이는 노령화 사회에서의 경제성장과 재정안정에 기여하며 가계부채와 저소득 문제를 완화할 수 있으며 노인들은 직업 교육을 통해 자신의 전문성과 경험을 후세대에 전달하고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 할 수 있음

3) 역량 모델

- 역량은 학자마다 다양하게 정의되지만 역량의 개념에 따라 다름. McLagan(1997)은 특정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성과를 창출하는데 기여하는 가장 핵심적인 지식·가치 및 행동을 기술하여 체계화해 놓은 것이라고 역량 모델을 정의하였고, 역량을 특정한 상황이나 직무에서의 구체적인 준거나 기준에 비추어 평가했을 때 효과적이고 우수한 성과의 원인이 되는 개인의 내적 특성(Spencer & Spencer, 1993)으로 정의함. 또한 역량을 ‘내적 특질(underlying characteristics)’, ‘성과의 원인(casually related)’, ‘준거 기준(criterion related)’이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구체화함
- 역량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행동이며, 다양한 환경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달라질 수 있으며,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 수행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2018)
 - 또한 역량은 성과향상과 연계된 행동이며, 관찰할 수 있고 측정과 개발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Gebelein(1996)은 역량모델을 "조직 목적 달성을 위해 구성원들의 기능, 지식, 태도를 정의하는 과정"으로 정의하였고, Harris(1998)는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해 특정 직무나 직무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체계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으로 설명하였음
 - 역량 모델은 조직의 목표, 비전, 성과 창출을 위해 필요한 역량의 종류를 횡적 차원으로, 역량의 수준을 종적 차원으로 개발하는 것임. 이를 통해 구성원들의 기능, 지식, 태도를 정의하고,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해 특정 직무나 직무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체계적으로 결정함
- 역량 모델에서는 역량을 핵심역량, 리더십 역량, 직무역량으로 구분함. 핵심역량 개발을 위해 내부환경 분석을 통한 핵심역량 Pool 구성하고 리더십 역량 개발을 위해서 내부환경 분석, 직급별 역할분석 및 리더십 역량 Pool 구성을 시행함. 직무역량 개발의 경우 내부환경 분석, 직무분석, 직무분류의 과정을 거쳐 직무역량을 도출함

- 핵심역량, 리더십 역량, 직무역량을 증진 시킬 수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함

○ 역량 모델 채용에 활용

- 채용 상에 평가 기준으로 활용되어 신입 채용의 경우는 기관의 핵심역량에, 직무 중심의 채용에는 직무역량에 초점을 둘 수 있음
- 직무의 필요 지식을 제시함으로써 업무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도와줌으로써 직무역량을 충분히 갖춘 인재를 선발하는데 도움을 줌

○ 역량 모델을 교육훈련과 자기개발에 활용

- 현재 모습으로 역량의 발휘 정도를 확인하고 부족한 역량 수준을 높이기 위해 자기 스스로 자신의 역량을 진단하거나 타인(동료, 상급자 등)들이 참여해서 진단할 수 있음

○ 역량 모델을 경력 개발 시스템 마련에 활용

- 성과 평가 및 승진 시 핵심역량, 리더십 역량, 직무역량으로 세분화하여 경력 개발 시 활용

제3절 고령자 생산활동 관련 정책 동향

1. 고령자 고용정책

- 고용노동부에서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의 자발적 계속 고용 기반 마련, 전직·재취업 지원 서비스,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직업 훈련 등을 지원하고 있음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계속 고용장려금 지원(‘22)3 → (‘23)8.2천 명) • 고용센터 방문 고령층에게 ‘심층 상담-진단-맞춤형 프로그램’ 패키지 지원 • 폴리텍 신중년 특화 과정(‘23년 2,500명 지원 예정/4,798백만 원) 등
-------	---

- 고령층의 일자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노인 일자리 규모를 시장형 중심으로 3.8만 개(+977억원) 추가하였으며, 향후에도 적정수준의 노인 일자리 공급을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함

- 공공형: 60.8만 개 / 시장형(민간·사회서비스형)(+3.8만 개): 23.7 → 27.5만 개

- 한편, 고령층의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편이 필요한바, 범정부 상시 협의체인 ‘인구정책기획단’을 구축하여 고령자 고용 촉진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들을 논의

- 2023년 6월에 출범한 이 조직은 정부의 주요 부처인 국무조정실(저고위), 기획재정부,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고령자와 여성의 고용, 노인 주거와 같은 특정

주제를 다루기 위해 구성됨

○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내에 ‘초고령사회 계속 고용 연구회’는 우리 사회가 고령화됨에 따라 고령층의 지속적인 고용 문제를 깊이 있게 논의함

- 특히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하여 고령층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 나이가 들어도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고령 근로자들에게 적합한 임금 구조 마련 등이 주요 주제로써 이를 통해 고령자들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돕고, 동시에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자 함

○ 정책내용 및 현황

-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로써, 고령 근로자가 퇴직 연령 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안정적으로 고용을 유지할 수 있게 함. 재고용 제도는 정년에 도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이루어지며 선별적 재고용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고용 연장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계속 고용에 적용되는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 원 씩 최대 2년을 지원하므로, 기업은 1인당 최대 720만 원의 인건비 보조를 2년 동안 받을 수 있음)
- 고령자 고용지원금: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60세 이상 고령자를 이전보다 더 많이 고용한 사업체에게 인건비를 보조하는 지원금 정책으로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과 같이 그 대상이 되기 위해 취업 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계속 고용에 준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함과 달리, ①사업 운영 기간이 1년 이상이고 ②월평균 고령자 수가 이전 3년간 월평균 고령자 수 보다 증가할 경우 신청이 가능하므로 고령자 고용을 늘리는 사업체라면 그 대상이 될 수 있음(계속 고용장려금과 동일하게 지원 대상이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으로 제한)
-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장려금: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장려금은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적합한 직무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지원 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 중에서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 지원 사업에 참여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은 사업주임. 적합 직무와 요건에 맞게 신규 고용한 근로자 1인당 최대 1년 동안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 원, 중견기업 월 40만 원을 지원받으며, 지원금은 6개월 단위로 지급됨(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1인당 연간 960만 원을, 중견기업은 480만 원을 최대로 지원받음)

표 2-10 |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장려금 참여 사업장 현황

구분	전체	규모별		산업별		
		300인 미만	300인 이상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1,315 (100.0)	1,303 (99.1)	12 (0.9)	651 (49.5)	21 (1.6)	638 (48.5)

〈자료〉 고용노동부,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성과 평가 보고서 (2023)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는 만 50세 이상 신중년의 경력을 활용하여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민간 일자리로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임.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중장년을 대상으로 재취업 전 일 경험적인 성격을 가진 일자리 사업이라 할 수 있음. 일자리 참여 이후 재취업 지원을 위해 중장년 내일센터와 연계하여 생애 경력설계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함(지원 대상은 만 50세 이상 만 70세 미만의 구직자로, 3년 이상의 경력 또는 산업기사 이상에 준하는 자격 보유자 등 전문인력 대상)
- 중장년내일센터, 고령자인재은행: 중장년내일센터와 고령자인재은행은 고용노동부에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고용서비스 정책으로. 모든 취업희망자가 이용할 수 있는 고용센터까지 포함하면 고령자는 세 가지 취업 지원 기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표 2-11 | 고용노동부 운영 장년 취업 지원 기관 비교

구분	고용센터	중장년내일센터	고령자인재은행
목적	구직자 대상 취업알선, 직업정보 제공, 직업훈련 실시, 기업의 고용 촉진 등 고용정책 전반의 집행 업무 수행	중장년 재직자(퇴직예정자 포함) 및 구직자에게 생애경력설계, 재취업·창업 등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중장년 구직자 대상 취업 알선 및 취업 능력 향상프로그램 실시
주 이용 대상	모든 취업희망자	40세 이상 중장년	고용센터에 접근하기 어려운 50세 이상 중장년 구직자
주 알선 직종	주로 상용직	주로 상용직	가사도우미, 간병인 등 단기·시간제 일자리 위주

〈자료〉 고용노동부. 고령자인재은행 사업계획 및 운영 지침 보도자료 (2022)

표 2-12 | 고용노동부 고령자 고용정책 정리

정책	형태	지원 대상	주요 내용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	고용 장려금	사업주	(개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를 지원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4) 및 중견기업 (지원요건) 취업 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①정년 연장, ②정년 폐지, ③정년에 도달한 자를 6개월 이내 재고용하는 제도 중 하나를 도입 (지원수준)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 원씩 최대 2년 지원, 지원금 상한액은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수 30%×90만 원(단,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0% 대신 3명분을 적용하여 270만 원)
고령자 고용 지원금			(개요) 고령자 고용을 늘리는 사업주를 지원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지원요건) 두 요건을 모두 만족: ①1년이상 사업체를 운영, ②신청한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만 60세 이상) 수가 이전 3년간 월평균 고령자 수 보다 증가 (지원수준) 분기별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30만 원씩 최대 2년 지원, 지원 한도는 min(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수 30%, 30명) 혹은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 장려금			(개요)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적합한 직무에 고용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지원요건) 네 요건을 모두 만족: ①적합직무에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규 고용, ②6개월간 고용유지, ③고용이후 6개월 평균 만 50세 이상 피보험자수가 이전 6개월 평균을 초과, ④무기계약 체결 (지원수준)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최대 1년동안 월 80만원 지원(중견 기업은 월 40만원), 지원한도는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 30%이 내 혹은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직접 일자리	근로자	(개요) 신중년의 경력을 활용하는 지역서비스 일자리 제공 (지원대상) 만 50세 이상 만 70세 미만 구직자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기관을 선정하여 경력형 일자리를 운영, 대상자는 장년워크넷을 통해 지원 (예시) 마케팅·회계 등 분야별 신중년 경력자를 통해 지역 내 사회적기업의 경영개선 지원 (지원수준) 최저임금 이상, 4대 보험 가입
중장년 내일센터	고용 서비스	근로자 와 사업주	(개요) 중장년 및 사업주에게 종합 고용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만 40세 이상의 중장년 및 고용(예정) 사업주 (지원내용) ①근로자를 위한 생애경력설계, 전직 및 재취업지원, 중장년 청춘문화공간 운영, ②사업주를 위한 맞춤형 인재추천, 사업주지원패키지
고령자 인재은행			(개요) 만 50세 이상 고령자에게 다양한 직종(일용, 상용직)에 대한 취업 알선 및 취업능력 향상프로그램 제공 (지원대상) 만 50세 이상 고령자, 구인 희망 기업체 (지원내용) 구인·구직 등록,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

〈자료〉 고용노동부, 중장년 고용정책 (2023)

□ 보건복지부는 ‘제3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종합계획 발표 중심으로(2023~2027)’를 통해 노인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익활동, 일자리, 재능나눔 등의 사회활동 지원 정책 추진함

○ 제3차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2023~2027)에는 2027년까지 노인인구의 10% 수준으로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되, 공익활동 비중을 현재 68% 수준에서 60%로 낮추고 사회 서비스형, 민간형 일자리 수준을 4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중기계획임

○ 추진 배경

- 천만 노인 시대를 맞아 베이비붐 세대의 노년기 진입 등 환경변화에 맞는 향후 5년간의 노인 일자리 정책 추진 방향 수립 필요
- 정부 국정과제에 제시된 ‘다양한 수용 대응을 위한 사회 서비스형, 민간형 일자리 확대’ 등의 중장기 추진 전략 마련

○ 정책환경

- 노인 일자리 수 : 2004년 2.5만 명 → 2017년 47만 명 → 2023년 88.3만 명
- 노인 일자리 예산 : 2004년 212억 원 → 2017년 5,231억 원 → 2023년 1조 5,400억 원

(국비) - 전달체계 : 지자체보조(서울 30%, 지방 50%), 민간경상보조
(국비 100%) - 수행기관 : 전국 1,300개 수행기관이 평균 585개 일
자리 담당(2022년 기준)

-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노동시장에서 노인 인적자본에 대한 요구는 노동력 공급과 국가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임. 65세 이상 노인의 취업률은 지속 상승(2014년 28.9%→2017년 30.9%→2020년 36.9%) 하고 있으며,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의사가 있는 노인은 전체의 22.4% (2020년 노인실태 조사)임

○ 노인 일자리 기본 추진 방향

-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노인 일자리 단계적 확충함
- 2027년 노인인구의 10% 수준으로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여 초고령사회와 지속적인 노인 인구 증가에 대응(65세 이상 인구: 2023년 950만 명 → 2027년 1,167만 명 예상)
- 경험·역량 높은 신노년 세대 수요에 맞춘 사회서비스형·민간형 일자리 확충(2023년 31% → 2027년 40%), 공익활동의 경우 소득 보장 기능 및 농어촌 등 민간 일자리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적정 수준 유지
- 연령대(전기-후기고령층), 역량 등 세대 특성(베이비붐 세대-현 노년층), 지역 여건(도시-농어촌) 등을 고려해 참여자 특성에 맞춘 일자리 유형의 스펙트럼 확장함
-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노인 일자리 배치 및 확대(식사 지원, 경로당 지원, 아동 돌봄, 노인 돌봄, 소규모 취약 시설 안전 점검 등)

○ 주요 세부 내용 및 과제

- 공익활동형 일자리 내실화: 소득 보장 기능 강화 및 물가 상승 수준 등을 반영하기 위해 적정 활동비 산출 및 지원 (2027년 월 31만 원)
- 공공형 일자리(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를 적정 강도·근무 시간·전문성 등으로 재구성 대안이 필요하다는 요구로 일자리 세부 유형의 분류 및 재배치 및 전환 등 검토
-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확대: 전체 노인 일자리 중 사회서비스형 비중을 2027년 15%이상 으로 확대하고 제도개선 병행 추진
- 민간형 취·창업 지원강화: 노인 일자리 사업 이해도·전문성 향상과 업무 역량 증진을 위한 필수교육 체계 마련 및 채용 기준 개선(기존: 채용 후 개발원 필요 과정 이수 / 구축(안): 채용 전 필수담당자 기초 교육 과정 이수, 채용 후 담당자 실습 보수교육 과정 이수)

표 2-13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유형		정의	예시
공공형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 활동	노노케어(취약 노인 안부 확인) 취약계층 지원, 보육시설 봉사 등 공익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사회 서비스형		노인의 경력과 활동 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지역사회 돌봄, 안전 관련 등)에 서비스를 제공	가정 및 세대 간 서비스, 취약계층 전문서비스, 공공 전문서비스 (공공행정업무지원) 등
사회 서비스형 선도모델		지역사회가 보유한 자원과 기업 등의 외부 자원을 활용하여 신규 노인 일자리 아이템 개발, 창출	돌봄, 안전, 환경문제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현안을 해소하는 일자리 등
시장형	시장형 사업단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	식품 제조 및 판매, 매장 운영(실버카페), 운송(실버택배) 등
	취업 알선형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 업무능력 있는 자를 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 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일자리	시험감독 보조, 경비원 시설관리자, 가사도우미 등
	시니어 인턴십	노인에게 기업 인턴 연계 후 인건비 지원 계속 고용 시 기업에 인건비 추가 지원	한식 조리, 매장관리원, 영화관 보조원, 자동차 검사대행원 등
	고령자 친화 기업	노인의 경륜을 활용하여 경쟁력을 갖추고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의 설립 및 운영지원	공모 심사에 따른 기업 모집

〈자료〉 보건복지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표 2-14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 선발기준

유형		선발 공통 기준
공공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해 연도 만 65세 이상(일부 유형 만60세 이상)• 건강 상태 : 일할 수 있는 건강 정도면 모두 가능• 세대주 형태 : 노인독신가구 및 경제무능력자와 동거하는 노인 가구 우선
사회 서비스형		
사회 서비스형 선도모델		
시장형	시장형 사업단	
	취업 알선형	
	시니어 인턴십	
	고령자 친화 기업	

〈자료〉 보건복지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2. 고령자 고용 역량 및 교육지원 정책

□ 고용복지+센터 중심으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고용복지+센터 중심의 고용-복지 융합서비스를 제공함

- 고용센터를 방문한 고령층에게 ‘심층 상담-진단-맞춤형 취업 지원프로그램’을 패키지로 지원
- 전담 상담사가 참여자의 참여목적, 기대 수준 등 요구사항을 진단한 뒤 중장년센터와 연계하여 고용센터 내 「중장년전담창구」를 설치하고, 다양한 취업 지원프로그램을 심층 상담(상담을 통해 돌봄·간병·주거 등 취업 외 어려움이 파악되면 지자체 연계 복지서비스도 제공)
- 중장년센터의 특화프로그램을 재구조화하여 중장년 유형에 따라 맞춤형 프로그램을 단계별로 제공

그림 2-4 | 고령자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자료〉 고용노동부. 제4차 고령자 고용 촉진 기본계획 (2023~2027)

□ 자치단체, 중장년센터를 통해 고령자 특성에 맞는 교육훈련 프로그램 지원 확대

○ 중장년내일센터

- 자치단체 중장년 취업 지원 기관, 중장년센터를 통해 중장년 특성에 맞는 교육·훈련 프로그램 지원 확대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훈련프로그램을 중장년워크넷을 통해 안내하는 역할을 함
- 울산: 40대 이상 중장년을 대상으로 지역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직업 훈련 실시(스마트 공정제어, 동력 설비 공사 실무, 미래모빌리티 부품 제작 등)
- 서울: 미래사회 대응을 위한 디지털 역량 강화 및 전문 특화 기술 일자리 연계시스템 구축을 통한 중장년 세대의 직업 능력 개발지원(40대 특화 직업전환 전문 교육, 장노년 디지털 전환교육 등 미래 사회 대응 기술교육 등)

- 대구: 실직, 조기퇴직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층(만40세~59세) 취업 및 전직·전환 지원(리스타트 4050 채용 연계 일자리 지원 사업)
- 부산: 해운·항만 분야 직업탐색 교육 및 직무훈련, (제주, 충북) 트레블 헬퍼·보건 인력 등 지역 특화 직업 훈련
-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적절한 직업 훈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상담 지원 및 취업 연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함(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 실시 현황('22, 만 명): (전체) 94.0 (50대) 18.0 (60대) 10.4)
- 디지털 기초역량 부족으로 노동시장 적응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K-디지털 기초역량 훈련을 고령자까지 확대함. 직업 훈련에 참여하는 중장년층에게 기본적인 디지털-리터러시 과정을 제공하는 방안 검토
- 부양 경감을 위해 직업 훈련 참여자 생계비 대부 활성화, 재직자 훈련 참여 독려를 위한 장기 유급휴가 훈련 확대 검토함(생계비 대부 지원조건: 국가훈련 등 장기훈련 과정 참여 시 (現) 중위소득 80% 이하 →(改) 100% 이하 재직자 장기 유급휴가 조건: (現) 고용 위기 업종 → (改) 전 업종

□ 노령층(65세 이상) 사회활동 지원강화

- 공익활동형: 환경정화 등 단순 일자리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사회적 가치 있는 프로그램(돌봄, 안전 등) 중심으로 전환('23년 60.8만 개)
- 활동처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이나 취업이 힘든 고령자들을 공익활동형 대상으로 우선 고려하여 사각지대를 방지
- 사회 서비스형: 신노년 세대의 경험·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의 일자리 지속 발굴('23년 8.5만 개)
- 돌봄 시설 등 사회복지시설과 연계 및 공공기관 협업* 등을 통해 사회 서비스 영역 발굴·확대
- 기업 사회공헌기금 등 외부 재원을 활용하여 노인에게는 인건비를 지역사회에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도모델 사업을 추진

표 2-15 |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예시

구분	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민원 상담, 취약계층 건강 모니터링 등 업무 수행 * (외부 자원 규모) 73억, (임금 수준) 월 200만 원(11개월), 344명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등 지역 문화 관광산업 활성화 * (외부 자원 규모) 8.5억, (임금 수준) 월 190만 원(9개월), 50명

- 민간형: 일자리를 희망하는 노인의 민간기업 취업 지원 및 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민간형 일자리 비중 확대(2023년 19만 개)
 - 노인의 근로 능력·근로 희망 시간 등을 고려한 노인 적합 직종 발굴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방안 검토(노인 취업이 저조하나 노인이 근무하기 적합한 직종/직무 개발 및 선정)
 - 노인생산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지표 반영, 오픈마켓 판매 채널 활성화 등 판로개척 지원을 통한 시장형 사업단 지원강화
 - 기업 사회공헌 등 연계 및 민간 영역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강화

3. 시사점

- 저출생 고령화 현상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주4일제 근무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자의 생산활동은 사회적 측면에서 노동력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고 고령자 개인적 측면에서는 경제적 자립, 건강 유지, 생활 만족도 등을 향상하며 고령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를 통해 사회적 통합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음
- 생산적 노화는 활동적 노화, 성공적 노화와 함께 인구 고령화 대응을 위한 신노년 담론으로 등장하였고, 생산적 노화에서 생산활동은 학자나 나라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므로 생산적 노화와 관련된 정책을 마련할 때는 그 개념을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필요함
- 생산적 노화에 관한 연구는 생산적 노화의 개념과 영역, 생산적 노화의 효과, 생산적 활동의 영향 요인, 생산적 노화 정책 방안, 생산적 노화, 성공적 노화, 활동적 노화와와의 관계, 생산적 노화 프로그램 개발, 생산적 노화에 대한 비판 등을 주제로 이루어져 왔음
 - 다수 연구에서 생산적 활동은 고용과 같은 경제적 활동을 핵심으로 하지만 자원봉사, 돌봄, 사회적 정치적 참여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는 생산적 활동 관련 정책을 마련할 때 고령자의 고용 등 경제활동을 핵심으로 하여 점차 생산활동의 범위를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생산적 노화는 고령자를 '생산적인 사람'과 '비생산적인 사람'을 구별하여 규범적이고 잠재적으로 강압적이 될 수 있다는 점, 특수성과 역사성을 진단하지 않은 채 그것의 필요를 전제하고 사회에 성급하게 적용되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음. 이는 생산적 노화를 정책에 적용함에 있어 생산활동을 희망하는 고령자가 정책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고령자 생산활동 활성화 정책의 목표가 사회의 부양부담감 경감과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보다는 생산활동을 통한 고령자의 삶의 질 또는 행복감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을 시사함

- 고령자 고용의 특징은 높은 고용 욕구, 학력 수준의 상승, 희망 근로 형태에서 시간제 선호도 증가, 전기고령자의 일을 하는 이유에서 일하는 즐거움의 비율 증가, 낮은 임금과 임금 불평등 심화, 성별 격차 등으로 나타났으며 정책 마련 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고령자 고용 특징과 함께 고양시 고령자의 고용 특징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 고령자 고용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주로 대학이나 국책연구소 등의 연구과제로 수행되었고 보건복지부 재정 일자리인 노인 일자리 중심으로 진행됨. 최근 연구들은 고령 근로자의 경험과 지식이 조직의 생산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 지금까지 고령자 고용정책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부 재정 일자리인 노인 일자리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지자체 연구가 거의 없는데 앞으로는 지자체 중심의 고령자 고용, 지역 주도적 고용에 관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음
 - 고령자의 생산성을 계량화하여 그 가치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고령자 생산활동을 위한 고용 환경에 관한 연구도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 고령자 역량 및 교육과 관련하여 인적 자본이론, 사회적 지지 이론, 역량 모델 이론이 있으며 고령자 고용정책 마련 시 이 이론들에 근거할 필요가 있음
 - 고령자의 오랜 기간의 경험과 축적된 지식을 활용하고 새로운 기술이나 변화하는 노동시장의 요구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여 인적자본을 지속하여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사회적 지지이론을 바탕으로 고령자의 사회적 지지망을 확대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고령자와 강사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고령자가 성과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적인 역량을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함
- 중앙정부의 제4차 고령자 고용 촉진 기본계획(2023~2027)의 비전은 '연령에 상관없이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는 노동시장 구현'이며 보건복지부는 '제3차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종합계획(2023~2027)'를 통해 노인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익활동, 일자리, 재능 나눔 등의 사회활동 지원 정책을 추진함
 - 고령층이 노동시장 내 핵심 인력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사회 전반 영역에서의 지원강화가 필요함
 - 고령자 고용정책은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누어져 분절적으로 추진되었고 지자체에서는 주로 보건복지부의 노인 일자리 중심으로 정책을 펼쳐왔으나 앞으로는 공공 일자리뿐 아니라 민간 일자리까지 통합하여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고령자 고용에서 역량과 교육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다양한 경력 활용 일자리 제공을 통한 전문인력의 기술·경험 전수의 활성화 방안과 함께 수요 맞춤형 고령자 교육 훈련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령층의 핵심 노동 인력으로서의 변화를 꾀할 필요가 있음

제3장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지표 체계

제1절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지표 개념 및 구성

제2절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지표 측정 내용 및 활용자료

제1절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지표 개념 및 구성¹⁾

1. 지표상 주요 개념

1) 고령자 정의

- 지표에서는 고연령자를 지칭하는 용어 중 ‘고령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고령자는 「노인복지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령자 통계, 주민등록인구 현황 등에서 고령인구의 기준으로 적용하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정의함
- 우리나라에 고연령자를 지칭하는 용어는 다양하나 ‘고령’은 나이 들에 대한 가치판단 없이 중립적으로 표현하는 기능을 가지며 노동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하려는 욕구가 크고 권리의 주체임을 강조한 용어라 할 수 있음
- 고령자를 연소고령자(65세~69세), 전기고령자(70세~74세) 후기고령자(75세 이상)로 구분하여 지표 분석의 기준으로 삼음

2) 생산활동 정의

- 생산활동에 대해서는 통일된 정의가 없고 학자나 실천가 혹은 국가, 문화, 인종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됨
- 생산활동은 노동시장 내 경제활동에서 교환적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적 개념화에 초점을 둔 협의의 개념과 이를 더욱 확장하여 무급 노동, 돌봄, 가족 지원 등 사회에 기여하는 여러 활동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이 지표에서는 광범위한 생산활동 중 고령자의 높은 고용 욕구를 반영하고 정책에 대한 개입 목표 설정 및 달성에 용이하도록 생산활동을 노동시장 내 경제활동인 고용과 이를 위한 역량 개발 활동으로 정의함

1) 2023년 발간된 고양연구원의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지표 개발」 연구보고서 주요 내용을 정리함

3) 고령자 생산지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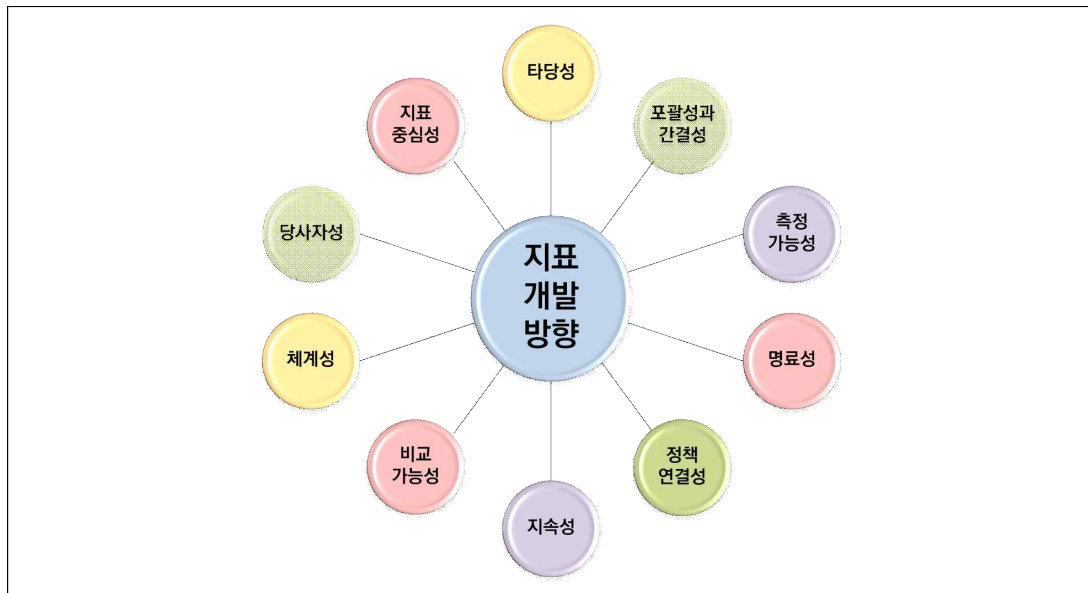
-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지표는 고양특례시가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고 고령자의 건강하고 활력있는 생산활동을 지원하고자 고령자의 ‘고용’과 ‘역량 개발’에 초점을 두어 개발한 지표로, 지표는 고령자의 생산활동과 역량에 대한 현황, 욕구, 정책, 사회문화적 특성 등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함

2. 지표 개발 방향 및 과정

1) 지표 개발 10대 방향

-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지표는 타당성, 포괄성과 간결성, 측정 가능성, 명료성, 정책 연결성, 지속성, 비교 가능성, 체계성, 당사자성, 지표 중심성 등 10대 방향을 가지고 개발되었음

그림 3-1 |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지표 10대 개발 방향



2) 지표 개발 과정

- 지표 개발 과정에서 고령 당사자들의 생각 및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려고 노력하였으며 개발된 고령자 관련 지표를 참고하고 고령자 고용, 사회참여, 복지 전문가 대상으로 3차례 델파이 조사를 통하여 지표를 개발함

표 3-1 | 지표 개발 과정



2. 지표 체계

-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지표의 체계는 크게 배경지표(선행요건), 결과지표, 기대효과로 구성됨
- 배경지표는 고용 및 역량과 교육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는 각각 개인 차원과 사회 차원으로 구분되며, 배경지표의 결과가 고용의 양과 질, 역량의 수준으로 나타나고, 역량의 수준은 또한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역량의 향상, 고용의 활성화는 고령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이로써 고양시는 건강하고 활력있는 도시로 나아갈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고령자 부양 부담을 감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그림 3-2 |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지표 체계



3. 지표 구성

1) 지표 초안

- 지표는 총 46개로 고용영역 29개 지표와 역량 및 교육영역 17개 지표로 구성되며 고령자의 현재 고용과 고용 역량 현황을 나타내는 결과지표와 결과의 선행요건이 되는 고령자의 욕구, 정책환경과 사회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배경지표로 구성됨

표 3-2 |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지표 초안

구분(46)		고용 (29)	역량과 교육(17)
결과지표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65~69세 고용률 •70~74세 고용률 •75세 이상 고용률 •월평균 임금액 •최저 임금 미달 근로자 비율 •저임금근로자 비율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 •일자리 임금 만족도 •일자리 근로 시간 만족도 •일자리 근무 환경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력 수준 •월 소득 수준 •주관적 신체 건강 수준 •객관적 신체 건강 상태 (만성질환 수) •정신 건강 (우울 정도) •정신 건강(인지장애 경험률) •정보통신(ICT 활용) 역량 •사회적(대인) 관계 역량
배 경 지 표	개인차원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일자리 지속 의사 •취업 의사(미취업자 대상) •공공일자리(노인 일자리) 참여 희망률 •구직활동 경험률 •희망 근로 시간 형태(전일제, 시간제 비율) •희망 대비 실제 근무 시간 차이 •장래 근로 희망 연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업 교육 희망률 •직업 교육 참여율
	사회차원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자 고용서비스 기관 또는 시설 수 •고용서비스 이용률 •취업 정보 접근 용이성 •공공 일자리 비율 •민간 일자리 비율 •민간기업의 고령자 고용의향률 •현 일자리 계속 근로 기대 기간 •고양시 일자리 수준 평가 •고양시 고령자 고용정책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업 교육 기관 수 •직업 교육 참여 용이성 •직업 교육 후 취업률 •직업 교육 만족도
	사회문화 특성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상 연령차별 인식 •직장 내 연령차별 경험률 •물리적 고령 친화 노동환경 구축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자 역량에 대한 사회 인식 •고용주의 고령자 역량에 대한 인식 •교통, 이동 편리성에 대한 인식

2) 지표 수정안

- 지표 수정안은 지표 초안과 지표 구성은 동일하나 지표 측정 및 지표 이해에 용이하도록 지표명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수정함
 - 고용영역에서 취업자의 현재 일자리 지속 의사는 측정 내용이 취업 고령자 중 현재 일자리와 새로운 일자리에서 계속 일하고 싶어 하는 고령자 비율로서 '현재'라는 용어 삭제
 - 희망 근로 시간 형태(전일제, 시간제 비율)은 시간제 비율만 있어도 전일제 비율을 알 수 있으므로 시간제 비율만 측정하고 희망 근로 시간 형태(시간제 비율)로 지표명 수정함
 - 희망 대비 실제 근무 시간 차이는 지표 측정값 제시에 용이하게 희망 대비 실제 근무 시간 비율로 수정함
 - 고령자 고용서비스 기관 또는 시설 수는 고령자만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전담하는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수로 수정함
 - 공공일자리 비율도 보다 명확하게 고령인구 대비 노인 일자리 비율로 수정함
 - 민간 일자리 비율은 민간 일자리 수로 간명하게 수정함
 - 학력 수준은 고용과 관련된 학력 역량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고졸 이상, 대졸 이상 비율로 수정함
 - 월 소득은 수준은 가구의 경제적 상황 파악에 용이하게 가구 월 소득으로 수정함
 - 객관적 신체 건강 상태는 간명하게 만성질환 수로 수정함
 - 정신 건강(우울 정도)은 우울 유병률로 지표를 보다 명확하게 수정함. 우울 유병률은 지역사회건강조사의 PHQ-9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에 응답한 고령자 중 점수가 10점 이상인 자의 비율로 측정함
 - 정신 건강(인지장애 경험률)도 간명하게 인지장애 경험률로 수정함

표 3-3 |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지표 수정안

구분(46)	고용(29)	역량과 교육(17)
결과지표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65~69세 고용률 •70~74세 고용률 •75세 이상 고용률 •월평균 임금액 •최저 임금 미달 근로자 비율 •저임금근로자 비율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 •일자리 임금 만족도 •일자리 근로 시간 만족도 •일자리 근무 환경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력(고졸 이상, 대졸 이상 비율) •가구 월소득 •주관적 신체 건강 수준 •만성질환 수 •우울 유병률 •인지장애 경험률 •정보통신(ICT 활용) 역량 •사회적(대인) 관계 역량

배 경 지 표	개인차원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자리 지속 의사율 •취업 의사율 •공공일자리 참여 희망률 •구직활동 경험률 •희망 근로 시간 형태(시간제 비율) •희망 대비 실제 근무 시간 비율 •장래 근로 희망 연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업 교육 희망률 •직업 교육 참여율
	사회 차원 (19)	정책환경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자 고용서비스 기관 수 •고용서비스 이용률 •취업 정보 접근 용이성 •고령인구 대비 공공일자리 비율 •민간 일자리 수 •민간기업의 고령자 고용의향률 •현 일자리 계속 근로 기대 기간 •고양시 일자리 수준 평가 •고양시 고령자 고용정책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업 교육 기관 수 •직업 교육 참여 용이성 •직업 교육 후 취업률 •직업 교육 만족도
		사회문화 특성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상 연령차별 인식 •직장 내 연령차별 경험률 •물리적 고령 친화 노동환경 구축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자 역량에 대한 사회 인식 •고용주의 고령자 역량에 대한 인식 •교통, 이동 편리성에 대한 인식

제2절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지표 측정 내용 및 활용자료

1.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지표 측정 내용

-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지표를 구성하고 있는 각 지표별 측정 내용과 측정 대상은 [표 3-4]와 같음
- 고용영역에서 결과지표는 고용률, 임금, 일자리 만족도를 측정하며 각 지표별 측정 대상 및 측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고용률은 연소고령자, 전기고령자, 후기고령자로 구분하여 해당 연령대의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측정함
 - 임금 중 월평균 임금액은 취업 고령자의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임금액으로 측정하며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비율은 전체 취업한 고령자 중 조사 시기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 미달인 근로자의 비율로 측정하고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고령 취업자의 월평균 임금이 조사 시기 중위 임금의 2/3에 미달인 근로자의 비율로 측정함
 - 일자리 만족도는 4개 지표로 측정되며 취업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현재 일자리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 정도를 1점 매우 불만족한다 ~ 5점 매우 만족한다로 측정함. 임금 만족도, 근로 시간 만족도, 근무 환경 만족도 역시 취업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1점 매우 불만족한다 ~ 5점 매우 만족한다로 측정함
- 고용영역에서 배경지표는 개인 차원과 사회 차원으로 구분되고 각 지표별 측정 대상 및 측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개인 차원의 지표는 일자리 지속 의사, 취업 의사, 공공일자리 참여 희망률, 구직활동 경험률, 희망 근로 시간 형태 비율, 희망 대비 실제 근무 시간 차이, 장래 근로 희망 연령으로 측정함
 - 일자리 지속 의사는 취업 고령자를 대상으로 현재 일자리 또는 새로운 일자리에서 계속 일을 하고 싶어하는 고령자 비율을 측정함

표 3-4 |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지표 고용영역 지표

구분				지표명		대상	측정 내용		
고용 영역	결과 지표 (10)			고용률	65~69세 고용률	해당 연령 고령자	65~69세 고령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70~74세 고용률	해당 연령 고령자	70~74세 고령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75세 이상 고용률	해당 연령 고령자	75세 이상 고령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임금	월평균 임금액	취업 고령자	취업한 고령자의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임금액		
					최저 임금 미달 근로자 비율	고령 임금근로자	고령 취업자 중 최저시급 미만의 급여를 받는 고령자 비율		
					저임금근로자 비율	고령 임금근로자	고령 취업자 중 월평균 임금이 중위 임금의 2/3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비율		
				일자리 만족도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	취업 고령자	취업 고령자의 현재 일자리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 정도		
					임금 만족도	취업 고령자	취업 고령자의 현재 일자리 임금에 대한 만족 정도		
					근로 시간 만족도	취업 고령자	취업 고령자의 현재 일자리 근로 시간에 대한 만족 정도		
					근무 환경 만족도	취업 고령자	취업 고령자의 현재 일자리 근무 환경에 대한 만족 정도		
	배경 지표 (19)			개인 차원 (7)		일자리 지속 의사율		취업 고령자	취업 고령자 중 현재 일자리와 새로운 일자리에서 계속 일하고 싶어 하는 고령자 비율
						취업 의사율		미취업 고령자	미취업 고령자 중 앞으로 취업하기를 원하는 고령자 비율
						공공 일자리(노인 일자리) 참여 희망률		고령자	고령자 중 공공일자리 참여 희망자 비율
						구직활동 경험률		미취업 고령자	미취업 고령자 중 지난 1년간 실제 구직활동을 한 고령자 비율
						희망 근로 시간 형태(시간제 비율)		취업 고령자, 취업 희망 고령자	취업자이거나 일하기를 희망하는 고령자의 희망하는 근로 시간 형태(시간제)의 비율
						희망 대비 실제 근무 시간 비율		취업 고령자	취업 고령자 중 희망하는 근무 시간 대비 실제 근무 시간의 비율
						장래 근로 희망 연령		취업 · 취업 희망 고령자	취업 중이거나 앞으로 일하기를 희망하는 고령자가 일하고 싶은 최대연령
	사회 차원 (12)	정책	고령자 고용서비스 기관 수		-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수			

역량과 교육 영역	결과 지표 (8)		사회 문화 특성	고용서비스 이용률	취업 고령자, 취업 희망 고령자	취업 중이거나 일하기를 희망하는 고령자 중 지난 1년간 고용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고령자 비율 (구직 상담, 취업 정보 제공, 직업능력평가, 직업탐색, 진로지도, 취업 알선, 취업 후 사후관리, 직업 훈련 등)
				취업 정보 접근 용이성	취업 고령자, 취업 희망 고령자	취업 중이거나 일하기를 희망하는 고령자가 취업에 관한 정보를 얻기에 편하다고 인식하는 정도
				고령인구 대비 공공일자리 비율	-	고령인구 대비 노인 일자리 수 비율
				민간 일자리 수	전체 인구	고양시 사업체 종사자 수
				민간기업의 고령자 고용의향률	민간기업	민간기업 중 고령자를 고용할 의향이 있는 민간기업 비율
				현 일자리 계속 근로 기대 기간	취업 고령자	취업 고령자 중 현재 일자리에서 앞으로 본인이 원하면 계속 근로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기간
				고양시 일자리 수준 평가	취업 고령자, 취업 희망 고령자	구직자의 역량(지식, 기술 등)에 부합하는 일자리가 고양시에 얼마나 많은지에 대한 평가 정도
				고양시 고령자 고용정책 만족도	취업 고령자, 취업 희망 고령자	고양시 고령자 고용정책에 대한 만족도 (설문에서 지난 한 해 고양시 고령자 고용정책 안내)
				고용상 연령차별 인식	고령자	고령자 고용에 있어 우리 사회가 연령으로 인한 차별이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
				직장 내 연령차별 경험	취업 고령자	취업 고령자 중 직장에서 연령을 이유로 차별받은 경험이 있는 고령자 비율
				물리적 고령친화 노동환경 구축 정도	취업 고령자	취업 고령자가 일터에 고령자 특성을 고려한 물리적 노동환경이 구축되었다고 인식하는 정도 (편리한 화장실, 고령 친화성 시청각적 정보 제공, 휴식 공간 확보, 작업장의 안정성 등)
				학력(고졸 이상, 대졸 이상 비율)	고령자	고령자의 학력 고졸 이상 비율, 대졸 이상 비율
				가구 월 소득	고령자	최근 3개월 평균 고령자 가구소득
				건강	고령자	고령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신체 건강 상태 5점 척도
				만성질환 수	고령자	고령자가 가지고 있는 만성질환 수

배경 지표 (9)				우울 유병률	고령자	고령자의 우울 유병률 PHQ-9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10점 이상
				인지장애 경험률	고령자	고령자 중 지난 한 해 인지장애를 경험한 비율
			역량	정보통신기술(IC T) 활용 역량	고령자	고령자가 일상이나 직무에서 ICT를 활용할 수 있는 정도
				사회적 관계 역량	고령자	업무나 단체 활동에서 필요한 의사소통, 감정 및 행동 조절 등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역량 정도
			개인 차원 (2)	직업 교육 희망률		취업 고령자, 취업 희망 고령자
	직업 교육 참여율			취업 고령자, 취업 희망 고령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희망하는 고령자 중 지난 1년간 직업 교육에 참여했던 고령자 비율	
	사 회 차 원 (7)	정책		직업 교육 기관 수	-	고양시 내 직업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 수
				직업 교육 참여 용이성	직업 교육 참여 고령자	직업 교육 기관 및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얻거나 참여하기에 편하다고 인식하는 정도
				직업 교육 후 취업률	직업 교육 참여 고령자	직업 교육을 받은 고령자 대비 취업 고령자 비율
				직업 교육 만족도	직업 교육 참여 고령자	직업 교육에 대한 만족 정도
	사회 문화 특성	고령자 역량에 대한 사회 인식		고령자	고령자가 생각하는 고령자 역량 수준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정도	
		고용주의 고령자 역량에 대한 인식		민간기업	민간기업 고용주의 고령자 역량 수준에 대한 인식 정도	
		교통, 이동 편리에 대한 인식		고령자	고령자의 대중교통 및 이동 편리성에 대한 인식 정도	

2.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지표 측정자료

-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지표는 공공 데이터, 시청 내부 자료 등 행정자료와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측정됨
- 행정자료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획득이 어려운 지표와 설문조사 없이도 고양시 고령자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지표를 측정하기 위해 이용되었음. 그 외 행정자료를 활용할 수 없는 지표의 경우 고양시 고령자 및 고양시 지역 내 사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측정되었음
- 설문 분량이 많을 경우 정확한 응답을 얻기에 어려움이 있고 조사 비용이 증가하여 행정자료로 측정 가능한 지표는 행정자료를 이용하였음. 또한 행정자료의 경우 고양시 뿐 아니라 타 지자체와 비교 가능하다는 점에서 활용의 이점이 있음
- 대부분의 행정 데이터는 광역시 단위로 구축되어 있으므로 기초지자체인 고양시의 경우 활용 가능한 행정 데이터는 매우 제한적이라 할 수 있음
- 본 지표 측정을 위해서 활용된 행정자료는 기초지자체도 활용 가능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는 지역별 고용조사, 사회조사, 지역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지역사회건강조사, 한국노인 인력개발 자료, 직업 능력 심사평가원 자료 등임
- 행정자료에 따라 격년으로 조사 항목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음. 예를 들어 인지장애 경험률은 지역사회건강조사 짝수년에 조사되는 항목인데 금번 지표 측정에서는 2023년 기준 행정자료를 활용하였으므로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측정하게 됨
- 주요 행정자료와 자료를 활용한 측정 지표는 아래 표와 같음
 - 지역별 고용조사는 반기로 공표되는 행정자료로 지역 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시군구 단위의 고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본통계를 생산하여 제공하며 만 15세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됨. 이 자료는 고용률, 월평균 임금액, 최저 임금 미달 근로자 비율, 저임금 근로자 비율, 구직활동 경험률을 측정하는데 활용됨
 - 경기도 사회조사는 1년 주기로 공표되는 행정자료로 경기도민의 평소 생활과 만족도를 집중조사하여 도민 생활의 양적·질적 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고 균형적 지역개발을 위한 장·단기적 정책 입안의 합리적 기초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만 15세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됨. 이 자료는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 임금 만족도, 근로 시간 만족도, 근무 환경 만족도, 학력지표를 측정하는데 활용됨
 - 지역사회건강조사는 매년 공표되며 시·군·구 단위 주민 건강 수준 및 관련 요인 현황을 파악하여 지역 보건 의료 계획 수립 및 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됨. 이 자료는 가구 월 소득, 주관적 신체 건강 수준, 우울 유병률 지표를 측정하는데 활용됨

- 지역별 사업체 노동력조사는 반기 주기로 공표되며 지역 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시군구 단위의 고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본통계로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됨. 이 자료는 민간 일자리 수 지표를 측정하는데 활용됨

표 3-5 | 지표 측정에 활용한 주요 행정자료

구분	행정자료 설명	활용자료	측정 지표
지역별 고용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 목적: 지역 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시군구 단위의 고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본통계 생산제공 조사 대상: 전국 11,556개 조사구의 231,120 가구 내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 가구원 공표 주기: 반기 공표 범위: 시군구 자료수집방법: 면접조사 최초 작성년도: 2006년 조사 항목: 인적 사항, 일에 관한 사항, 구직에 관한 사항, 기타 활동에 관한 사항, 이전 직장에 관한 사항 	2023년 하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65~69세 고용률 70~74세 고용률 75세 이상 고용률 월평균 임금액 최저 임금 미달 근로자 비율 저임금근로자 비율 구직활동 경험률
경기도 사회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 목적: 경기도민의 평소 생활과 만족도를 집중조사하여 도민 생활의 양적·질적 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고 균형적 지역개발을 위한 장·단기적 정책 입안의 합리적 기초자료로 제공 조사 대상: 31,740가구의 만 15세 이상 상주 가구원 공표 주기: 1년 공표 범위: 시군 자료수집방법: 면접조사 최초 작성년도: 1997년 - 조사 항목: 가구주용(6개 부분 42개 항목): 복지, 주거교통, 문화 여가, 교육, 소득 소비, 일자리 노동, 가구원용(6개 부분 35개 항목) 복지, 주거교통, 문화 여가, 교육, 소득 소비 - 홀수년: 6개 부문(복지, 주거교통, 문화 여가, 교육, 소득 소비, 일자리 노동) - 짝수년: 5개 부문(가족 가구, 환경, 보건, 사회통합공동체, 안전) 	202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 임금 만족도 근로 시간 만족도 근무 환경 만족도 학력
지역사회건강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 목적: 시·군·구 단위 주민 건강수준 및 관련 요인 현황을 파악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 조사 대상: 19세 이상 성인, 보건소당 평균 900명(전국 약23만 명) 공표 주기: 1년 공표 범위: 시군구 자료수집방법: 면접조사 최초작성년도: 2008년 조사 항목: 기본정보, 신체 계측, 건강 형태, 의료이용, 이환, 예방접종 및 검진, 이환, 사고 	202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구 월 소득 주관적 신체 건강 수준 우울 유병률

	및 중독, 활동제한 및 삶의 질, 보건기관 이용, 사회물리적 환경, 혈압측정, 교육 및 경제활동, 여성 건강, 개인위생		
지역별사업체 노동력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 목적: 시군구 단위로 사업체 종사자 수, 노동 이입, 빈 일자리 수 등을 조사하여 지역 단위 고용정책 참고 자료 제공 조사 대상: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200천 개) 공표 주기: 1년 2회(4월 11월) 공표 범위: 시군구 자료수집방법: 기타 최초 작성년도: 1968년 조사 항목: 시/군/구별 사업체의 전체종사자, 빈 일자리 수, 빈 일자리를, 입직자, 입직률, 이직자, 이직률 등에 관한 사항을 제공 	2023년 하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 일자리 수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지표를 측정하기 위해 활용되는 자료는 행정통계와 설문조사이며 각 지표별 측정자료는 다음과 같음

표 3-6 |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지표 측정자료

구분				지표명		측정자료		
고용 영역	결과 지표 (10)			고용률	65~69세 고용률	지역별고용조사		
					70~74세 고용률	지역별고용조사		
					75세 이상 고용률	지역별고용조사		
				임금	월평균 임금액	지역별고용조사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비율	지역별고용조사		
					저임금근로자 비율	지역별고용조사		
				일자리 만족도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	경기도 사회조사		
					임금 만족도	경기도 사회조사		
					근로시간 만족도	경기도 사회조사		
					근무 환경 만족도	경기도 사회조사		
	배경 지표 (19)			개인 차원 (7)			일자리 지속 의사율	설문조사
							취업 의사율	설문조사
							공공일자리 참여 희망률	설문조사
							구직활동 경험율	지역별 고용조사
							희망 근로 시간 형태(시간제) 비율	설문조사
							희망 대비 실제 근무 시간 비율	설문조사
							장래 근로 희망 연령	설문조사
	사회 차원 (12)	정책		고령자 고용서비스 기관 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내부 자료		
				고용서비스 이용률		설문조사		

				취업정보 접근 용이성		설문조사
				고령인구 대비 공공일자리 비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내부 자료
				민간 일자리 수		지역별 사업체노동력 조사
				민간기업의 고령자 고용의향률		설문조사
				현 일자리 계속 근로 기대 기간		설문조사
				고양시 일자리 수준 평가		설문조사
				고양시 고령자 고용정책 만족도		설문조사
			사회문화 특성	고용상 연령차별 인식		설문조사
				직장 내 연령차별 경험		설문조사
				물리적 고령 친화 노동환경 구축 정도		설문조사
역량과 교육 영역		결과 지표 (8)	건강	학력(고졸 이상, 대졸 이상 비율)		경기도 사회조사
				가구 월 소득		지역사회건강조사
				주관적 신체 건강 수준		지역사회건강조사
				만성질환 수		설문조사
				우울 유병률		지역사회건강조사
				인지장애 경험률		설문조사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역량		설문조사	
			사회적 관계 역량		설문조사	
	배경 지표 (9)	개인차원 (2)		직업 교육 희망률		설문조사
				직업 교육 참여율		설문조사
		사회 차원 (7)	정책	직업 교육 기관 수		직업 능력 심사원
				직업 교육 참여 용이성		설문조사
				직업 교육 후 취업률		설문조사
				직업 교육 만족도		설문조사
			사회문화 특성	고령자 역량에 대한 사회 인식		설문조사
				고용주의 고령자 역량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
		교통, 이동 편리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		

제4장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지표 적용 및 분석

제1절 고용영역 지표 적용 및 분석

제2절 역량과 교육영역 지표 적용 및 분석

제3절 고령자 생산지표 타 지자체와 비교분석

제4절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활동 실태조사 결과 분석

제5절 분석의 종합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지표 적용 및 분석

제1절 고용영역 지표 적용 및 분석

1. 고용영역 결과지표

-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지표는 고용영역, 역량과 교육영역으로 구성되며 각 영역은 결과 지표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지표로 구성이 됨
- 각 지표는 행정자료와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되었으며 행정자료는 2023년, 설문조사는 2024년 기준으로 조사된 자료가 활용됨
- 행정자료는 시군 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각 지표는 성별, 연령대별로 분석됨
- 고용영역에서 현재 상황을 제시해 주는 결과지표는 고용률, 임금, 일자리 만족도로 구성이 됨
- 고용률은 연소고령자(65~79세) 고용률은 45.5%, 전기고령자(70~74세) 고용률은 34.3%, 후기고령자(75세 이상)고용률은 12.1%임
 - 남성 연소고령자 고용률은 59.2%, 여성 연소고령자 고용률은 32.3%임. 남성 전기고령자 고용률은 41.5%, 여성 전기고령자 고용률은 27.7%임. 남성 후기고령자 고용률은 21.0%, 여성 후기고령자 고용률은 6.7%임
 - 고령자 전체 고용률은 28.2%, 남성 40.3%, 여성 18.8%임
 - 고용률은 연소고령자가 가장 높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급감함
 - 성별 고용률 차이가 매우 크고, 특히 후기고령자의 성별 차가 가장 큼
- 월평균 임금액은 219만 원이며 성별, 연령대별 차이가 매우 큼
 - 여성 고령자의 월평균 임금액은 160만 원으로 남성 고령자 임금 270만 원의 59% 수준임
 - 연소고령자의 월평균 임금액은 292만 원, 전기고령자의 임금액은 186만 원, 후기고령자의 임금액은 130만 원으로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임금액 급감함

- 고령 취업자 중 최저시급(2023년 기준 시간당 최저 임금 9,620원) 미만의 급여를 받는 고령자 비율인 최저 임금 미달 근로자 비율은 22.8%로 성별, 연령대별 차이가 큼
 - 남성 고령자 중 최저 임금 미달 근로자 비율이 20%인 반면, 여성 고령자의 비율은 26%로 남성 고령자에 비해 6%가 높음
 - 연령대별로는 연소고령자가 15.2%, 전기고령자는 22.5%인데 후기고령자는 42.2%로 최저 임금을 받지 못하는 후기고령자의 비율이 매우 높음
- 고령 취업자 중 중위 임금의 2/3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취업자 비율인 저임금근로자의 비율은 43.3%로 매우 높고 성별, 연령대별 격차가 큼
 - 남성 고령 취업자 중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30.8%이고 여성 고령자 중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58%로 여성 고령자 비율이 남성 고령자의 2배 가까이 됨
 - 연령대별로는 연소고령자가 28.9%, 전기고령자는 52.6%인데 후기고령자는 67.1%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저임금근로자의 비율이 증가하는데 특히 전기고령자와 후기고령자의 비율 차이보다 연소고령자와 전기고령자의 차이가 큼
 - 전기고령자에서 후기고령자로 넘어가면서 최저 임금 미달 금액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연소고령자에서 전기고령자로 넘어가면서 저임금근로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음
- 일자리 만족도는 중간 수준이며 만족도와 관련된 항목 중 근무 환경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고 임금 만족도가 가장 낮고 일자리 만족도에서는 남성 고령자보다 여성 고령자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후기고령자의 만족도가 가장 높고 전기고령자의 만족도가 가장 낮음
 -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는 3.14점으로 보통 수준이며 여성 고령자의 만족도가 3.20점으로 남성 고령자 3.10점에 비해 높고 후기고령자가 3.25점으로 가장 높음
 - 임금 만족도는 2.90점으로 보통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며 여성 고령자의 만족도가 3.03점으로 남성 고령자 2.90점 보다 높고 후기고령자가 3.02점으로 가장 높음
 - 근로 시간 만족도는 3.15점으로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며 여성 고령자의 만족도가 3.21점으로 남성 고령자 3.12점 보다 높고 전기고령자가 3.11점으로 가장 낮음
 - 근로환경 만족도는 3.16점으로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며 이 역시 여성 고령자의 만족도가 3.19점으로 남성 고령자 3.15점 보다 높고 전기고령자가 3.07점으로 가장 낮음

표 4-1 | 고용영역 결과지표

(단위: %, 만원, 점)

구분		고양시 고령자	성별		연령대별		
			남성	여성	연소	전기	후기
고용률	65~69세 고용률	45.5%	59.2	32.3	-	-	-
	70~74세 고용률	34.3%	41.5	27.7	-	-	-
	75세 이상 고용률	12.1%	21.0	6.7	-	-	-
	※전체 고령자 고용률	28.2%	40.3	18.8			
임금	월평균 임금액	219만 원	270	160	272	186	130
	최저 임금 미달 근로자 비율	22.8%	20.0	26.0	15.2	22.5	42.2
	저임금근로자 비율	43.3%	30.8	58.0	28.9	52.6	67.1
일자리 만족도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	3.14점	3.10	3.20	3.11	3.07	3.25
	임금 만족도	2.90점	2.81	3.03	2.89	2.80	3.02
	근로 시간 만족도	3.15점	3.12	3.21	3.12	3.11	3.28
	근무 환경 만족도	3.16점	3.15	3.18	3.16	3.07	3.25

2. 배경지표

- 고용영역에서 결과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지표는 고과 관련된 개인의 욕구를 측정하는 개인 차원의 지표와 정책과 사회문화적 특성을 측정하는 사회적 차원의 지표로 구성됨

1) 개인 차원

- 고용에 대한 개인의 욕구를 측정하는 개인 차원의 지표는 취업자의 일자리 지속 의사율, 미취업자의 취업 의사율, 공공일자리 참여 희망률, 구직활동 경험률, 희망 근로 시간 형태 비율(시간제 희망 비율), 희망 대비 실제 근무 시간 차이, 장래 근로 희망 연령으로 구성되고 지표 적용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고령 취업자 중 일자리 지속 의사율은 74.7%로 매우 높고 특히 남성 고령자와 연소고령자의 80% 이상이 일자리 지속 의사가 있음
 - 남성 고령 취업자 중 앞으로 일자리 지속 의사율은 83.3%로 매우 높은 반면, 여성 고령자 중 일자리 지속 의사율은 58.3%로 성별 차이가 매우 큼
 - 연령대별로는 연소고령자가 84.1%, 전기고령자 72.7%, 후기고령자는 56.8%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지속 의사가 낮아짐
- 고령 미취업자 중 취업 의사율은 21.8%로 이며 취업 의사에 있어서도 성별, 연령대별 차

이가 큼

- 미취업 남성 고령자의 27.5%가 취업을 희망하고 있으며 미취업 여성 고령자의 17.6%가 취업을 희망함

- 연령대별로는 연소고령자가 38.8%, 전기고령자 16.2%, 후기고령자는 13%가 취업을 희망하며 미취업 연소고령자의 취업 희망 비율이 매우 높음

○ 공공일자리 희망률은 전체 고령자의 23.8%이며 다른 일자리와는 다르게 여성 고령자의 희망률이 높고 연령대별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음

- 공공일자리 희망률은 남성 고령자 21.4%와 여성 고령자 26.2%로 여성 고령자의 희망률이 더 높음

- 연령대별로는 연소고령자가 26.1%, 전기고령자 27.5%, 후기고령자는 17.5%로 전기고령자의 희망률이 가장 높으며 연령에 따라 큰 차이는 없음

○ 취업희망자 중 구직활동 경험률은 33.7%이며 남성보다는 여성이 그리고 전기 노인이 적극적임

- 남성 고령자의 구직활동 경험률은 28.5%, 여성 고령자의 구직활동 경험률은 50%로 여성이 적극적임

- 연령대별로는 연소고령자가 33.4%, 전기고령자 50.0%, 후기고령자는 0%로 전기고령자가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고 있음

○ 취업 고령자와 취업 희망 고령자 중 희망 근로 시간 형태 중 시간제 비율은 31.3%이며 여성과 후기고령자가 시간제를 더 선호함

- 남성 고령자의 시간제 선호 비율은 24.1%, 여성 고령자의 시간제 선호율 45.6%로 여성이 2배 가까이 시간제를 선호하는 비율이 높음

- 연령대별로는 연소고령자가 20.6%, 전기고령자 38.6%, 후기고령자는 51.4%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시간제를 선호함

○ 취업한 고령자의 희망 대비 실제 근무 시간 비율은 113.5%로 성별, 연령대 상관없이 실제 근무 시간은 희망하는 근무 시간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남성 고령자의 희망 대비 실제 근무 시간 비율은 115% 여성은 109%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희망 대비 실제 근무 시간이 많음

- 연령대별로는 연소고령자가 109.3%, 전기고령자 109.5%, 후기고령자는 135.4%로 후기고령자는 희망 대비 실제 근무 시간이 많음

○ 장래 근로 희망 연령은 76.1세이며 성별 연령대별 모두 74세 이상임

- 남성 고령자는 76.5세, 여성 고령자는 75.3세로 남성이 1.2세 희망 연령이 높음

- 연령대별로는 연소고령자가 74.1세, 전기고령자 77.3세, 후기고령자는 80.2세임

표 4-2 | 고용영역 배경지표

(단위: %, 개소, 점)

구분			고양시 고령자	성별		연령대별		
				남성	여성	연소	전기	후기
지표 (19)	개인 차원 (7)	일자리 지속 의사율	74.7%	83.3	58.3	84.1	72.7	56.8
		취업 의사율	21.8%	27.5	17.6	38.8	16.2	13.0
		공공일자리 참여 희망률	23.8%	21.4	26.2	26.1	27.5	17.5
		구직활동 경험율	33.7%	28.5	50.0	33.4	50	0
		희망 근로 시간 형태(시간제) 비율	31.3%	24.1	45.6	20.6	38.6	51.4
		희망 대비 실제 근무 시간 비율	113.5%	115	109	109.3	109.5	135.4
		장래 근로 희망 연령	76.1세	76.5	75.3	74.1	77.3	80.2
	사회 차원 (12)	정책	고령자 고용서비스 기관 수	19개	비고) 수원 26개, 성남 16개, 용인 13개			
			고용서비스 이용률	42.3%	47.4	32.4	43.9	40.4
			취업 정보 접근 용이성	2.75점/5점	2.86	2.53	2.79	2.67
			고령인구 대비 공공일 자리 비율	5.8%	노인 일자리 9,971명 노인인구 172,166명 (2023년 12월 기준)			
			민간 일자리 수	294,346개	수원 410,102, 성남 477,451, 용인시 345,066			
			민간기업의 고령자 고용의향률	53.3%	-			
			현 일자리 계속 근로 기대 기간	4.0년	4.2	3.8	5.1	3.1
			고양시 일자리 수준 평가	2.66/5점	2.63	2.72	2.72	2.61
			고양시 고령자 고용정책 만족도	3.01/5점	3.01	3.03	3.08	2.96
		사회 문화 특성	고용상 연령차별 인식	3.49/5점	3.48	3.50	3.51	3.43
			직장 내 연령차별 경험	21.3%	24.6	15.0	20.7	21.8
			물리적 고령 친화 노동환경 구축 정도	2.79/5점	2.82	2.75	2.77	2.82

2) 사회 차원

- 고용영역에서 결과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지표로 고용과 관련된 사회적 차원 지표는 정책 지표와 사회문화적 특성 지표로 구성됨

(1) 정책 지표

- 고용영역 사회적 차원 정책 지표로 고령자 고용서비스 기관으로 고령자 고용서비스 기관 수, 고용서비스 이용률, 취업 정보 접근 용이성, 고령자 대비 공공일자리 비율, 민간 일자리 수, 민간기업의 고령자 고용의향률, 현 일자리 계속 근로 기대 시간, 고양시 일자리 수준 평가, 고양시 고령자 고용정책 만족도가 있으며 지표 적용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고령자 고용서비스 기관으로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은 고양시의 경우 19개소 임
 - 수원시는 26개소, 성남시는 16개소, 용인시는 13개소로 고양시는 수원시보다는 기관 수가 적지만 성남시, 용인시에 비해서는 많은 편임
- 취업한 고령자와 취업 희망 고령자의 고용서비스 이용률은 42.3%로 남성 고령자와 연소 고령자의 이용률이 높음
 - 고용서비스 중 세부 사업별 이용률은 취업 상담 10.9%, 취업 정보 제공 12.9%, 취업 알선은 14.9%, 직업탐색 6%, 직무교육 프로그램 3%, 취·창업프로그램 1.5%, 직업능력 평가 0.5%로 취업 알선 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음
 - 남성 고령자 이용률은 47.4%, 여성 고령자 이용률은 32.4%로 남성 고령자의 이용률이 높음
 - 연령대별로는 연소고령자 43.9%, 전기고령자 40.4%, 후기고령자 40.5%로 다른 지표에 비해 연령대별 차이는 크지 않음
- 취업 정보 접근 용이성은 5점 만점 중 2.75점으로 중간보다는 낮음
 - 남성 고령자의 취업 정보 접근 용이성은 2.86점, 여성은 2.53점으로 남성이 더 용이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 연령대별로는 연소고령자 2.79점, 전기고령자 2.67점, 후기고령자 2.73점으로 다 중간보다 낮게 평가함
- 고령자 인구 대비 노인 일자리 비율인 공공일자리 비율은 5.8%임
 - 2023년 12월 기준 고령자 인구는 172,166명이며 노인 일자리는 9,971명으로 공공일자리 비율은 5.8%라 할 수 있음
 -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전국 고령자 인구는 930명이며 노인 일자리 개수가 1,030만 개(한국노인인력개발원 내부 자료)로 약 10.8%임을 고려할 때 고양시 고령자 인구 대비 공공일자리 비율은 높은 편은 아니라 할 수 있음

- 고양시 민간 일자리 수(사업체 종사자 수)는 2023년 기준 294,346개임
 - 같은 시기 수원시 민간 일자리 수는 410,102개, 성남 477,451개, 용인시 345,066개로 고양시의 민간 일자리 수는 인구 규모 유사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임
- 민간기업의 고령자 고용의향률은 53.3%임
 - 민간기업의 고령자 고용의향률을 53.3%로 다소 높게 나타남
- 취업한 고령자 중 현재 일자리 계속 근로 기대 기간은 향후 4년임
 - 남성 고령자는 4.2년, 여성 고령자는 3.8년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다소 길게 기대함
 - 연소고령자는 5.1년, 전기고령자는 3.1년, 후기고령자는 3년으로 연소고령자와 전기고령자의 기대 기간의 차이가 2년임
- 취업한 고령자와 취업 희망 고령자가 평가하는 고양시 일자리 수준 (즉, 구직자의 지식, 기술 등 역량에 부합하는 일자리가 고양시에 얼마나 많은지) 평가에 있어서는 5점 만점에 2.66점으로 고양시 고령자는 고양시 일자리 수준에 대해 다소 낮게 평가하고 있음
 - 남성 고령자는 2.63점, 여성 고령자는 2.72점으로 남성 고령자가 여성 고령자에 비해 고양시 일자리 수준을 다소 낮게 평가함
 - 연소고령자는 2.72점, 전기고령자는 2.61점, 후기고령자는 2.57점으로 연령대가 높아질 수록 고양시 일자리 수준에 대한 평가점수는 낮음
- 고양시 고령자의 고용정책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01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함
 - 성별, 연령대별 큰 차이는 없음

(2) 사회문화적 특성 지표

- 고용영역 사회적 차원 정책 지표 중 사회문화 특성 지표로는 고용상 연령차별 인식, 직장 내 연령차별 경험률, 물리적 고령 친화 노동환경 구축 정도가 있으며 지표 적용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고령자 고용에 있어 우리 사회가 연령으로 인한 차별이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고용상 연령차별 인식은 5점 만점 중 3.49점으로 중간보다 높게 우리 사회가 차별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
 - 세부 집단별 평균 점수는 3.5점 내외로 성별, 연령별 인식 정도에 큰 차이는 없음
- 취업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연령차별 경험률을 측정하는 지표인 직장 내 연령차별 경험률은 21.3%로 5명 중 1명을 직장 내 연령차별을 경험하고 있으며 남성 고령자가 여성 고령자에 비해 경험률이 큼
 - 남성 고령자의 경험률은 24.6%로 여성 고령자의 경험률 15%에 비해 큰 격차로 높음

- 연령대별로는 큰 차이가 없음
- 취업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연령차별 경험률을 측정하는 지표인 직장 내 연령차별 경험률은 21.3%로 5명 중 1명이 직장 내 연령차별을 경험하고 있으며 남성 고령자가 여성 고령자에 비해 경험률이 큼
 - 남성 고령자의 경험률은 24.6%로 여성 고령자의 경험률 15%에 비해 큰 격차로 높음
 - 연령대별로는 큰 차이가 없음
- 물리적 고령 친화 노동환경 구축 정도는 5점 만점 중 2.79점으로 중간 이하로 평가됨

제2절 역량과 교육영역 지표 적용 및 분석

1. 역량과 교육영역 결과지표

- 역량과 교육영역에서 현재 상황을 제시해 주는 결과지표는 학력, 가구 월 소득, 주관적 신체 건강 수준, 만성질환 수, 우울 증상 유병률, 인지장애 경험률, 정보통신(ICT) 활용 역량, 사회적 관계 역량 지표로 구성되며, 지표 적용 결과는 아래와 같음
- 학력은 고졸 이상과 대졸 이상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고졸 이상은 62.2%, 대졸 이상은 26.7%이며 성별, 연령대별 차이가 매우 큼
 - 고졸 이상 비율은 남성 고령자 76.6%, 여성 고령자 51.0%로 차이가 매우 크고 연소고령자는 80.4%, 전기고령자는 64.2%, 후기고령자는 46.9%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고졸 이상 학력 비율은 낮아짐
 - 대졸 이상 비율은 남성 고령자 42.5%, 여성 고령자 14.9%로 성별 차가 고졸 이상 학력의 차이보다 더 큼
- 가구 월 소득은 291만 원으로 성별 차는 크지 않고 연령대별로는 차이가 큼
 - 남성 고령자는 296만 원 여성 고령자는 287만 원으로 남성 고령자의 가구소득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남
 - 연소고령자의 가구 월 소득은 344만 원 전기고령자 289만 원, 후기고령자 252만 원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가구 월 소득은 크게 줄어듦
- 주관적 신체 건강 수준은 5점 만점 중 3.02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이 여성보다 건강이 좋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건강 수준을 낮게 평가함
 - 남성 고령자의 신체 건강 수준은 3.16점, 여성 고령자는 2.92점으로 남성 고령자가 본인의 건강 수준을 높게 평가함

- 연소고령자는 3.27점, 전기고령자는 2.96점, 후기고령자는 2.86점으로 연소고령자에서 전기고령자로 넘어가면서 건강 수준에 대한 평가가 많이 낮아지고 있음
- 만성질환 수는 평균 1.45개이며 남성과 후기고령자의 만성질환 수가 더 많음
 - 남성 고령자의 만성질환 수는 1.63개, 여성 고령자 만성질환 수는 1.27개로 남성 고령자의 만성질환 수가 더 많음
 - 연소고령자는 1.18개, 전기고령자는 1.35개, 후기고령자는 1.86개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만성질환 수가 높아짐
- 우울 증상 유병률(PHQ 10점 이상)은 6.4%로 여성, 후기고령자의 유병률이 높음
 - 남성 고령자의 우울 증상 유병률은 5.8%인 반면, 여성 고령자 우울 증상 유병률은 6.8%로 여성 고령자가 남성 고령자에 비해 유병률이 1%가 더 높음
 - 연소고령자는 우울 증상 유병률은 5.6%, 전기고령자는 5.3%, 후기 고령자 7.6%로 후기 고령자의 우울 증상 유병률이 급격하게 증가함
- 고령자 중 지난 한 해 인지장애를 경험한 비율을 측정하는 인지장애 경험률은 33.85%이며 여성, 후기고령자의 인지장애 경험 비율이 높음
 - 남성 고령자의 인지장애 경험률은 23.8%인 반면 여성 고령자 인지장애 경험률은 44%로 남성에 비해 여성이 큰 비율로 인지장애를 경험함
 - 연소고령자 30%, 전기고령자 30.6%로 비슷하지만 후기고령자는 41.3%로 인지장애를 경험함
 - 고령자의 우울 증상 유병률이 급격하게 증가함
-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역량은 5점 만점 중 2.49점으로 중간 수준에 못 미치며 특히 여성과 후기고령자의 활용 역량이 떨어짐
 - 남성 고령자의 정보통신기술 활용 역량은 2.63점, 여성 고령자는 2.34점으로 여성 고령자의 정보통신기술은 많이 약한 편임
 - 연소고령자 2.78점, 전기고령자 2.56점, 후기 2.20점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정보통신기술 활용 역량은 떨어지며 전기고령자도 3점에 못 미쳐 전반적으로 정보통신기술 활용 역량이 낮다고 할 수 있음
- 사회적 관계 역량은 5점 만점 중 3.36점으로 중간 수준을 상회 함
 - 남성 고령자 사회적 관계 역량은 3.40점, 여성 고령자 3.31점으로 남성 고령자의 사회적 관계 역량이 조금 높음
 - 연소고령자 3.44점, 전기고령자 3.37점, 후기 3.25점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사회적 관계 역량은 조금씩 낮아짐

표 4-3 | 역량과 교육영역 결과지표

(단위: %, 개소, 점)

구분		고양시 고령자	성별		연령대별		
			남성	여성	연소	전기	후기
학력(고졸 이상, 대졸 이상 비율)		고졸 이상 62.2% 대졸 이상 26.7%	76.6 42.0	51.0 14.9	80.4 37.5	64.2 22.1	46.9 42.0
가구 월 소득		291만 원	296	287	344	289	252
건강	주관적 신체 건강 수준	3.02점/5점	3.16	2.92	3.27	2.96	2.86
	만성질환 수	1.45개	1.63	1.27	1.18	1.35	1.86
	우울 유병률	6.4%	5.8	6.8	5.6	5.3	7.6
	인지장애 경험률	33.85%	23.8	44.0	30	30.6	41.3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역량		2.49점/5점	2.63	2.34	2.78	2.46	2.20
사회적 관계 역량		3.36점/5점	3.40	3.31	3.44	3.37	3.25

2. 배경지표

- 역량과 교육영역에서 결과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지표는 개인의 욕구를 측정하는 개인 차원의 지표와 정책과 사회문화적 특성을 측정하는 사회적 차원의 지표로 구성됨

1) 개인 차원

- 역량과 교육에 대한 개인의 욕구를 측정하는 개인 차원의 지표는 직업 교육 희망률과 직업 교육 참여율이 있으며 지표 적용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취업자 및 취업희망자를 대상으로 직업 교육 희망률을 측정한 결과 20.9%가 직업 교육을 희망하며 여성과 후기고령자의 직업 교육에 대한 욕구가 높음
 - 남성 고령자의 18.4%, 여성 고령자의 23.6%가 직업 교육을 희망하며 여성 고령자의 직업 교육 희망률의 남성에 비해 크게 높게 나타남
 - 연소고령자 19.5%, 전기고령자 20%, 후기고령자 25%가 직업 교육을 희망하고 있으며 특히 후기고령자는 전기고령자에 비해 직업 교육을 희망하는 비율이 크게 높아짐
- 직업 교육 참여율은 9.5%로 남성이 여성보다 후기고령자에 비해 연소고령자가 참여율이 높음

2) 사회 차원

- 역량과 교육영역에서 결과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지표로 사회적 차원 지표는 정책 지표와 사회문화적 특성 지표로 구성되며 아래와 같음

(1) 정책 지표

- 역량과 교육영역 사회적 차원 정책 지표로 직업 교육 기관 수, 직업 교육 참여 용이성, 직업 교육 후 취업률, 직업 교육 만족도가 있으며 지표 적용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직업 교육 기관 수는 고양 시내 직업 교육 기관 수는 90개가 있음
 - 인구 규모 유사 도시와 비교하면 수원시는 134개, 성남시는 91개, 용인시는 59개로 고양시는 중간 정도는 수준임
- 직업 교육 참여 용이성은 5점 만점에서 3.58점으로 중간보다 다소 높으며 여성과 고령자가 용이성을 높게 평가함
 - 남성 고령자는 3.47점, 여성은 4점으로 직업 교육 기관 및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얻거나 참여하기에 편하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남
 - 연소고령자 3.60점, 전기고령자 3.33점, 후기고령자 4점으로 후기고령자의 용이성 평가가 가장 높음
- 직업 교육 후 취업률은 68.4%이며 여성과 전기 노인은 직업 교육 후 100%로 취업을 함
 - 직업 교육은 받은 남성 고령자는 60% 취업에 성공한 반면, 여성은 100% 전부 취업에 성공함
 - 그러나 직업 교육을 받은 사례 수가 전체 19 케이스, 고령자의 경우 1 케이스로 사례 수가 매우 적어 이 결과를 일반화할 수 없음
- 직업 교육 만족도는 3.79점으로 높은 편이며 여성 및 전기 고령자의 만족도가 높음
 - 직업 교육은 받은 남성 고령자의 만족도는 3.47점인 반면, 여성 고령자의 만족도는 4점을 매우 높음
 - 연소고령자 만족도는 3.8점, 전기고령자 4점, 후기고령자 3점으로 전기고령자 '만족한다'가 가장 높고 연소고령자, 후기고령자 순임

표 4-4 | 역량과 교육영역 배경지표

(단위: %, 점)

구분		고양시 고령자	성별		연령대별			
			남성	여성	연소	전기	후기	
개인 차원	직업 교육 희망률	20.9%	18.4	23.58	19.5	20.0	25.0	
	직업 교육 참여율	9.5%	11.3	5.9	14.0	5.3	2.7	
사회 차원	정책	직업 교육 기관 수	90개	수원시 134개 성남시 91개 용인시 59개				
		직업 교육 참여 용이성	3.58점/5점	3.47	4.00	3.60	3.33	4.00
		직업 교육 후 취업률	68.4%	60	100	66.7	100	0
		직업 교육 만족도	3.79점/5점	3.73	4.00	3.8	4.00	3.00
	사회문화 특성	고령자 역량에 대한 사회 인식	2.85점/5점	2.86	2.85	2.84	2.84	2.89
		고용주의 고령자 역량에 대한 인식	3.31점/5점	-				
		교통, 이동 편리에 대한 인식	3.45점/5점	3.4	3.46	3.46	3.43	3.46

(2) 사회문화적 특성 지표

- 역량과 교육영역 사회적 차원 정책 지표 중 사회문화 특성 지표로 고령자 역량에 대한 사회의 인식, 고용주의 고령자 역량에 대한 인식, 교통, 이동 편리에 대한 인식이 있으며 적용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고령자가 생각하는 고령자 역량 수준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정도는 5점 만점 중 2.85점으로 다소 낮게 나타났고 성별, 연령대별 차이는 거의 없음
- 민간기업의 고용주가 생각하는 고령자의 역량에 대한 인식은 5점 만점 중 3.31점으로 중간 수준보다 높게 나타나 고령자와 고용주의 인식 차이를 보여줌
- 고용 및 역량을 위해 중요한 조건으로 교통, 이동 편리에 대한 인식은 5점 만점 중 3.45점으로 다소 높게 나타났고 이 역시 성별, 연령대별 차이는 거의 없음

제3절 고령자 생산지표 타 지자체와 비교분석

- 고령자 생산지표를 적용하여 고양시의 현황을 파악하는 연구는 처음 이루어져 비교할 수 있는 과거 데이터가 없어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고양시 고령자의 생산활동 변화 및 수준을 가늠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추후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지표를 지속하여 관리하면서 지표의 변화를 추적할 필요가 있으며 타 지자체와의 비교를 통해 고양시의 현재 위치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고령자 생산지표를 구성할 때 현재 고용과 역량 및 교육과 관련된 현황 파악하는 결과지표는 가능한 타 지자체와 비교 가능하도록 대부분 공개된 행정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지표로 구성하였음
- 본 절에서는 고령자 생산지표 중 결과지표 중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경기도 내 인구 규모 유사지역인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와 비교하여 고양시의 수준을 파악하고자 함

1. 고용 영역 타 지자체 비교분석

- 고용영역 중 결과지표인 고용률과 임금은 2023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고 일자리 만족도는 2023년 경기도 사회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전체 고령자 고용률과 연소고령자, 전기고령자 고용률은 고양시가 가장 높고, 후기고령자 고용률은 성남시가 가장 높음
 - 전체 고령자 고용률은 고양시가 28.2%로 가장 높고 성남시 27.7%, 용인시 26.1%, 수원시 25.9% 순임
 - 연소고령자 고용률은 고양시와 용인시가 45.4%로 가장 높고, 수원시 42.8%, 성남시 41.7%임
 - 전기고령자 고용률에서도 고양시가 34.3%로 가장 높고 성남시 31.9%, 수원시 30.1%, 용인시 26.9% 수준임
 - 후기고령자는 성남시가 13.5%로 가장 높고 고양시 12.1%, 용인시 11.7%, 수원시 11.1% 순임
 - 4개 지역 모두 전체 고용률, 연소고령자, 전기고령자, 후기고령자 고용률은 비슷하지만 용인시는 타 지자체에 비해 전기고령자의 고용률이 낮은 편임
- 월평균 임금액은 고양시가 219만 원으로 가장 높고 타 지자체와 20만 원 이상 차이가 남

- 고양시 월평균 임금액은 219만 원, 용인시 197만 원, 성남시 189만 원, 수원시 182만 원 순임
- 연소고령자의 월평균 임금액은 고양시가 272만 원으로 가장 높고, 전기고령자는 수원시가 196만 원으로 가장 높으며 후기고령자는 고양시가 130만 원으로 가장 높음
- 최저 임금 미달 근로자 비율은 고양시가 22.8%로 가장 낮고 성남시가 36.8%로 가장 높음
 - 최저 임금 미달 근로자 비율은 고양시 22.8%, 수원시 28.6%, 용인시 29.1%, 성남시 36.8%로 고양시 고령자 근로자 중 최저 임금 미달 근로자 비율이 가장 낮음
 - 고양시 후기고령자 중 42.2%가 최저 임금 미달 근로자로 거의 절반 가까운 고령자가 최저 임금 미만을 받고 있지만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는 그 비율이 낮은 편임
-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성남시가 53.7%로 가장 높고 용인시가 39%로 가장 낮음
 -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고양시 전체 고령자의 43.3%로 성남시 53.7%보다는 낮지만 수원시 41.7%, 용인시 39%보다는 높은 편임
 - 고양시 후기고령자의 67.1%가 저임금근로자로 그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지만 타 지자체와 비교하면 후기고령자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낮은 편이라 할 수 있음
- 고양시 취업한 고령자의 전반적인 근로 만족도, 임금 만족도, 근로 시간 만족도, 근무 환경 만족도 모두 4개 지자체 중 중간보다 조금 낮은 편임
 - 전체적인 만족도는 고양시는 3.14점으로 성남시, 용인시 3.24점 보다 낮으며 수원시 3.08점 보다 높음
 - 임금 만족도는 만족도 지표 중 점수가 가장 낮으며 고양시는 2.90점으로 성남시 3.10점 보다 낮고 용인시와는 같으며, 수원시는 2.81점 보다 높음
 - 근로 시간 만족도는 고양시가 3.15점으로 성남시 3.29점, 용인시 3.25점 보다 낮으며 수원 3.07점 보다 높음
 - 근무 환경 만족도에 있어서는 고양시는 3.16점으로 성남시 3.24점, 용인시 3.19점보다 낮고 수원시 3.07점보다 높음

표 4-5 | 고용영역 타 지자체 비교

(단위: %, 만원)

구분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
고용률	연소고령자 (65~69세) 고용률	45.4	42.8	41.7	45.4
	전기고령자 (70~74세) 고용률	34.3	30.1	31.9	26.9
	후기고령자 (75세 이상) 고용률	12.1	11.1	13.5	11.7

	전체 고령자	28.2	25.9	27.7	26.1
임금	월평균 임금액	219만 원 연소: 272 전기: 186 후기: 130	182 연소: 206 전기: 196 후기: 111	189 연소: 232 전기: 192 후기: 98	197 연소: 244 전기: 158 후기: 122
	최저 임금 미달 근로자 비율	22.85% 연소: 15.2 전기: 22.5 후기: 42.2	28.6 연소: 22.3 전기: 24.1 후기: 50.2	36.8 연소: 19.7 전기: 41.1 후기: 66.7	29.1 연소: 18.1 전기: 37.6 후기: 47.2
	저임금 근로자 비율	43.3% 연소: 28.9 전기: 52.6 후기: 67.1	41.7 연소: 33.2 전기: 30.1 후기: 79.9	53.7 연소: 41.7 전기: 55.8 후기: 75.7	39.0 연소: 22.7 전기: 49.1 후기: 68.5
근로 만족도	전반적인 만족도	3.14/5점 연소: 3.11 전기: 3.07 후기: 3.25 남성: 3.10 여성: 3.20	3.08 연소: 3.12 전기: 2.94 후기: 3.09 남성: 3.09 여성: 3.05	3.24 연소: 3.23 전기: 3.25 후기: 3.26 남성: 3.22 여성: 3.30	3.24 연소: 3.21 전기: 3.15 후기: 3.44 남성: 3.22 여성: 3.27
	임금 만족도	2.90/5점 연소: 2.89 전기: 2.80 후기: 3.02 남성: 2.81 여성: 3.03	2.81 연소: 2.79 전기: 2.77 후기: 2.96 남성: 2.83 여성: 2.67	3.10 연소: 3.23 전기: 3.25 후기: 3.26 남성: 3.15 여성: 3.03	2.90 연소: 2.92 전기: 2.86 후기: 2.93 남성: 2.88 여성: 2.95
	근로 시간 만족도	3.15/5점 연소: 3.12 전기: 3.11 후기: 3.28 남성: 3.12 여성: 3.21	3.07 연소: 3.05 전기: 3.12 후기: 3.12 남성: 3.08 여성: 3.06	3.29 연소: 3.32 전기: 3.20 후기: 3.26 남성: 3.27 여성: 3.33	3.25 연소: 3.18 전기: 3.21 후기: 3.56 남성: 3.19 여성: 3.38
	근무 환경 만족도	3.16/5점 연소: 3.16 전기: 3.07 후기: 3.25 남성: 3.15 여성: 3.18	3.07 연소: 3.07 전기: 3.05 후기: 3.06 남성: 3.12 여성: 2.95	3.24 연소: 3.23 전기: 3.20 후기: 3.28 남성: 3.19 여성: 3.31	3.19 연소: 3.14 전기: 3.08 후기: 3.52 남성: 3.12 여성: 3.32

2. 역량과 교육영역 타 지자체 비교분석

- 역량과 교육지표 중 결과지표 중 행정자료를 활용한 지표는 학력, 가구 월 소득, 주관적 신체 건강, 우울 증상 유병률 지표임. 학력은 2023년 경기도 사회조사, 가구 월 소득과 주관적 신체 건강, 우울 증상 유병률은 2023년 지역사회건강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

하였음

- 학력은 고졸 이상과 대졸 이상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고 고양시는 고졸 이상 비율이 용인시 다음으로 많음
 - 고령자의 학력이 고졸 이상인 비율은 고양시는 62.2%로 용인시 66.3% 다음으로 높으며 성남시는 58.6%, 수원시는 49.2%임
 - 대졸 이상 비율은 용인시 36.4%, 성남시 28.4%, 고양시 26.7%, 수원시 16.6% 순임
 - 전반적으로 용인시가 고졸 이상, 대졸 이상 비율이 가장 높아 타 지자체에 비해 고령자의 학력 수준이 높았고 상대적으로 수원시 고령자의 학력이 낮게 나타남
- 고령자 가구 월 소득은 고양시 291만 원으로 4개 지자체 중에서는 가장 낮음
 - 가구 월 소득은 용인시가 373만 원으로 가장 높고 성남시 356만 원, 수원시 295만 원 순이며 고양시가 291만 원으로 가장 낮음
- 고양시 고령자의 주관적 신체 건강은 3.02점으로 타 지자체와 비교 시 양호한 편
 - 주관적 신체 건강 점수는 용인시가 3.12점으로 가장 높고 고양시 3.02점, 수원시 2.91점, 성남시 2.86점 순임
- 우울 증상 유병률(PHQ 점수 10점 이상)은 고양시 6.4%, 수원시 8.1% 성남시 2.9%, 용인시 5.0%로 고양시 고령자의 우울 증상 유병률이 다소 높은 편임
 - 주관적 신체 건강 점수는 용인시가 3.12점으로 가장 높고 고양시 3.02점, 수원시 2.91점, 성남시 2.86점 순임

표 4-6 | 역량과 교육 타 지자체 비교

(단위: %, 만원, 점)

구분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
학력	고졸 이상 62.2% 대졸 이상 26.7%	고졸 이상 49.2 대졸 이상 16.6	고졸 이상 58.6 대졸 이상 28.4	고졸 이상 66.3 대졸 이상 36.4
가구 월 소득	291만 원 연소: 344 전기: 289 후기: 252	295 연소: 339 전기: 303 후기: 254	356 연소: 408 전기: 382 후기: 294	373 연소: 486 전기: 381 후기: 292
주관적 신체 건강	3.02점/5점 연소: 3.27 전기: 2.96 후기: 2.86	2.91 연소: 3.12 전기: 2.84 후기: 2.77	2.86 연소: 3.07 전기: 2.98 후기: 2.62	3.12 연소: 3.34 전기: 3.20 후기: 2.90
우울 증상 유병률	6.4% 연소 5.6 전기 5.3 후기 7.6	8.1 연소 7.9 전기 8.1 후기 8.4	2.9 연소 1.6 전기 2.4 후기 4.4	5.0 연소 3.0 전기 1.7 후기 8.2

제4절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활동 실태조사 결과 분석

1. 조사 개요

1) 조사 대상

- 고령자 조사 대상 : 고양특례시 65세 이상 고령자 500여 명
 - 연령 구분 : 65-69세, 70-74세, 75-80세
 - 지역 구분 : 덕양북부, 덕양남부, 일산동구, 일산서구 4권역을 나누어 추출
- 기업체 조사 대상 : 고양특례시 소재 기업 150개
 - 제조업, 도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 사업시설 관리/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 복지 서비스업의 5개 산업 사업체

2) 조사 항목 구성

표 4-7 | 고령자 조사 내용

구분	세부 내용	
일반사항	- 응답자 일반사항	
역량	- 평소 건강 수준 - 최근 진단받은 만성질환 개수 - 정신건강-우울 유병률,	- 인지장애 경험률 - 정보통신기술 활용 수준 - 사회적 관계 역량
고용	- 근로 상태, 일자리 유형 - 근무 이유, 직장정보, 현재 직업, 근무 시간 - 종사상 지위, 월평균 임금액 - 생애 총 노동기간 - 일자리 종사자 수, 만족도, 근로 기대 기간 - 직장 내 연령차별 경험	- 물리적 고령 친화 노동환경 - 취업 의사, 구직활동, 구직방법, 구직사유 - 희망 일자리 형태, 직종, 희망 근로 시간 - 장래 근로 희망 연령 - 고용서비스 이용률, 취업 정보 접근성 - 일자리 수준 평가, 고용정책 만족도
직업 교육	- 직업 교육 참여율, 참여 기간, 참여 이유 - 직업 교육 참여 용이성 - 직업 교육 만족도	- 직업 교육 개선점 - 직업 교육 취업률 - 직업 교육 미참여 이유
공공일자리 및 사회문화 특성	- 공공일자리 참여 의향, 참여율 - 고령자 역량에 대한 사회 인식 정도,	- 교통 - 이동 편의에 대한 인식 정도
여가 및 사회활동	-여가 및 사회활동	
	- 삶의 만족도, 행복도	

표 4-8 | 기업체 조사 내용

구분	세부 내용	
기업체 일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 특성 - 근로 여건 - 고령자 역량 - 물리적 노동환경 구축 - 고령자 고용 여부 및 경험 - 고령자 고용 이유 - 고령자의 근로 형태 & 근무 형태, - 고령자 고용 후 인식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자 고용 시 정부 지원 - 고령자를 고용하지 않는 이유 - 고령자 고용 의사 - 고용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고령자 나이 - 향후 고용 시 근로 형태 & 근무 형태 - 고용 의향이 없는 주된 이유 -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시 고용할 의사 - 정책지원

3) 조사 방법

- 고령자 조사 대상 : 전문조사원에 의한 1:1 면접조사
- 기업체 조사 대상 : 팩스/이메일/전화 조사 병행 실시

2. 표본설계

1) 고령자 조사

(1) 조사 모집단 및 조사 대상 구분

- 본 과업에서 고령자는 만 나이로 고령자 인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음
- 2023년에 개발된 고령자 생산지표를 활용하여 고령자의 생산활동 전반을 진단해야 하므로 성별, 연령별 구분 뿐만 아니라 취업 유무를 고려하여 연령별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필요
- 2023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 고양시의 65-80세 인구 중 취업자는 48,344명이며, 남성 인구의 47.5%, 여성 인구의 26.0%가 취업자인 것으로 확인됨
 -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취업자의 비율이 감소하여, 특히 여성에서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남

표 4-9 | 고양시 고령자 인구의 취업 현황(2023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

(단위:명)

구분	계	남성			여성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 인구	취업자 비율 (%)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 인구	취업자 비율 (%)
전체	134,818	29,432	32,575	47.5	18,912	53,899	26.0
65-69세	57,317	16,573	11,430	59.2	9,771	19,542	33.3
70-74세	39,062	7,715	10,858	41.5	6,619	13,869	32.3
75-80세	38,440	5,143	10,287	33.3	2,522	20,488	11.0

(2) 표본 배분 및 추출

- 본 과업을 통해 고령자의 연령대별, 성별, 취업 유무별 차이를 분석해야 하므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균등 배분하였음
- 다만, 성별 x 연령별로 취업 비율에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취업자에 대한 표본 배분은 성별 x 연령별 취업 비율을 기준으로 비례배분 하였음

표 4-10 | 고양시 고령자 조사 대상의 표본 배분 결과

(단위:명)

구분	계	남성				여성			
		65-69세	70-74세	75-80세	합계	65-69세	70-74세	75-80세	합계
전체	500	92	80	80	252	88	80	80	248
덕양북부	125	23	20	20	63	22	20	20	62
덕양남부	125	23	20	20	63	22	20	20	62
일산동구	125	23	20	20	63	22	20	20	62
일산서구	125	23	20	20	63	22	20	20	62

표 4-11 | 취업 유무별 표본 배분 결과

(단위:명)

구분	계	남성				여성			
		65-69세	70-74세	75-80세	합계	65-69세	70-74세	75-80세	합계
전체	500	92	80	80	252	88	80	80	248
취업자	174	54	33	27	114	28	22	10	60
미취업자	326	38	47	53	138	60	58	70	188

- 각 권역별로 조사 대상 지역은 인구수를 기준으로 정렬한 후 등 간격 형태로 각각 3~4개 동 지역을 추출하였으며, 해당 동 지역에서 5명 내외가 조사가 되도록 추출함
 - 최종 응답 대상자는 해당 지역 거주민 중 성별 x 연령별, 연령별 x 취업유무별 배분 조건을 고려하여 임의 추출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음
- 고양시 고령자 인구 대상 조사 결과의 허용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 4.4\%$ p 수준임

2) 기업체 조사

(1) 조사 모집단 및 조사 대상 구분

- 2023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 고령자 근로자가 근무하는 산업 중 근로자가 가장 많은 산업은 ‘보건업 및 사회 복지 서비스업(8,531명)’,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7,753명)’, ‘도매 및 소매업(6,610명)’, ‘운수 및 창고업(4,887명)’, ‘제조업(4,660명)’ 순으로 분포
- 사업체의 고령 근로자 채용 정책에 대한 부분이 조사가 되어야 하므로, 5인 미만의 소상공 업체는 제외하고, 5인 이상 기업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

표 4-12 | 고양시 고령 근로자가 근무하는 산업 분포(2023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

(단위:명)

구분	계	1~4명	5~9명	10~29명	30~99명	100~299명	300명 이상
전체	48,344	20,965	9,329	9,754	6,837	887	571
농업, 임업 및 어업(01~03)	2,089	2,089	-	-	-	-	-
제조업(10~34)	4,660	1,458	1,172	857	1,172	-	-
건설업(41~42)	2,572	1,429	286	571	286	-	-
도매 및 소매업(45~47)	6,610	4,778	887	315	315	315	-

운수 및 창고업(49~52)	4,887	3,429	-	315	857	286	-
숙박 및 음식점업(55~56)	1,547	1,261	-	286	-	-	-
금융 및 보험업(64~66)	916	-	315	601	-	-	-
부동산업(68)	2,315	1,744	286	286	-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	1,458	315	-	857	-	-	286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74~76)	7,753	1,202	2,748	2,631	1,172	-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84)	286	-	-	286	-	-	-
교육 서비스업(85)	1,458	286	286	315	-	286	286
보건업 및 사회 복지 서비스업(86~87)	8,531	601	3,034	2,147	2,748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90~91)	1,744	857	315	286	286	-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94~96)	571	571	-	-	-	-	-
가구 내 고용 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97~98)	946	946	-	-	-	-	-

(2) 표본 규모 및 배분

- 조사 예산을 고려하여 고양시 소재 사업체 111,401개(2022 전국 사업체 조사 결과 고양시 소재 사업체 수) 중 150개 업체를 대상으로 선정
- 2023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고령자 근무자가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5개 업종 중 5인 이상 기업을 조사 대상 산업으로 선정하였으며, 산업별 비교분석을 위해 산업별 표본수는 제곱근 비례배분을 통해 산출하였고, 고령자 채용 여부별 비교를 위해 가급적 채용기업과 미채용 기업이 균등하게 조사되도록 배분하였음
 - 다만 도매 및 소매업은 전체 업체 중 5인 이상 기업의 비중이 매우 작고, 이 중 고령자 채용기업을 확인하는 것이 어려워 다른 산업보다 고령자 미채용 기업을 좀 더 할당하였음

표 4-13 | 기업체 조사 표본 배분 결과

(단위:개)

업종	계	고령자 미채용 기업	고령자 채용기업
계	150	75	75
제조업	24	12	12
도매 및 소매업	30	20	10
운수 및 창고업	21	9	12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35	17	18
보건업 및 사회 복지 서비스업	40	17	23

3. 고양시 고령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1) 고양시 고령인구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 응답자 표본수는 전체 500명 중 남성이 50.4%, 여성이 49.6% 비율로, 연령은 65-69세가 36.0%, 70-74세가 32.0%, 75-80세가 32.0%임. 취업유무는 미취업자가 65.2%임

표 4-14 | 고령자 설문 응답자 특성

(단위:%)

구분		표본수(명)	구성비(%)
전체		500	100.0
성별	남성	252	50.4
	여성	248	49.6
연령대	65-69세	180	36.0
	70-74세	160	32.0
	75-80세	160	32.0
취업 유무	취업자	174	34.8
	미취업자	326	65.2

○ 응답자 중 79.0%는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있으며, 60.4%는 연금(국민, 공무원, 사학, 군인,

개인)이 소득에 포함되고 있음

-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기초연금, 사적 이전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 수령 비율은 늘어나는 반면, 연금이나 근로소득/사업소득이 소득원인 비율은 감소함
- 미취업자는 취업자에 비해 기초연금과 연금, 사적 이전소득을 소득원으로 활용하는 비율이 높았음

표 4-15 | 소득원(복수 응답)

(단위:%)

구분		표본수 (명)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	사적이전 소득	재산소득	기초연금	국민기초 생활보장
전체		500	41.6	60.4	35.2	6.4	79.0	5.4
성별	남성	252	46.8	69.0	29.4	8.7	75.0	6.0
	여성	248	36.3	51.6	41.1	4.0	83.1	4.8
연령대	65-69세	180	55.0	62.8	25.6	3.3	70.6	2.8
	70-74세	160	39.4	61.3	31.3	10.0	83.1	6.3
	75-80세	160	28.8	56.9	50.0	6.3	84.4	7.5
취업 유무	취업자	174	100.0	58.6	12.6	2.3	64.9	-
	미취업자	326	10.4	61.3	47.2	8.6	86.5	8.3

- 응답자의 74.8%는 배우자가 있으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배우자가 있는 비율이 감소하여 75-80세 응답자 중에서는 59.4%만 배우자가 있고, 38.8%는 사별한 것으로 나타남

표 4-16 | 혼인상태

(단위:%)

구분		표본수 (명)	미혼	유배우	이혼	별거	사별
전체		500	0.2	74.8	4.0	1.0	20.0
성별	남성	252	-	81.3	5.6	1.6	11.5
	여성	248	0.4	68.1	2.4	0.4	28.6
연령대	65-69세	180	0.6	84.4	5.6	2.2	7.2
	70-74세	160	-	79.4	5.0	-	15.6
	75-80세	160	-	59.4	1.3	0.6	38.8
취업 유무	취업자	174	0.6	82.8	4.0	-	12.6
	미취업자	326	-	70.6	4.0	1.5	23.9

- 응답자 중 58.4%가 고졸이며, 75-80세 응답자의 55.1%는 최종학력이 중졸 이하인 것으로 조사됨

- 취업자 중에서는 70.1%가 고졸 이상의 학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미취업자 중에서는 59.8%만 고졸 이상 학력자임

○ 응답자들은 평균 32.6년을 고양시에 거주하였음

표 4-17 | 고양시 거주기간

(단위:%, 년)

구분		표본수 (명)	5년 미만	5-9년	10-14년	15-19년	20년 이상	평균(년)
전체		500	2.6	2.0	5.2	11.2	79.0	32.6
성별	남성	252	2.8	0.8	5.6	10.3	80.6	33.4
	여성	248	2.4	3.2	4.8	12.1	77.4	31.9
연령대	65-69세	180	3.3	2.2	5.6	13.9	75.0	29.6
	70-74세	160	1.9	2.5	6.9	11.9	76.9	31.3
	75-80세	160	2.5	1.3	3.1	7.5	85.6	37.4
취업 유무	취업자	174	2.3	1.1	4.0	10.9	81.6	34.6
	미취업자	326	2.8	2.5	5.8	11.3	77.6	31.6

- 응답자 스스로 경제적인 생활 수준을 판단하도록 한 결과, 500명 중 73.8%가 본인의 경제적인 생활 수준이 중하 이하(하 28.8%+중하 45.0%)인 것으로 응답함

- 생활 수준을 중하 이하로 응답한 비율은 65~69세의 경우 61.7% 수준이나, 75-80세 중에서는 84.4%가 생활 수준을 중하 이하 수준으로 응답하여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생활 수준을 낮게 평가하였음

- 월평균 가구소득은 263.9만 원이며, 65~69세 응답자의 가구소득은 320.7만 원 반면, 75~80세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204.1만 원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가구소득이 감소함

표 4-18 | 주관적 경제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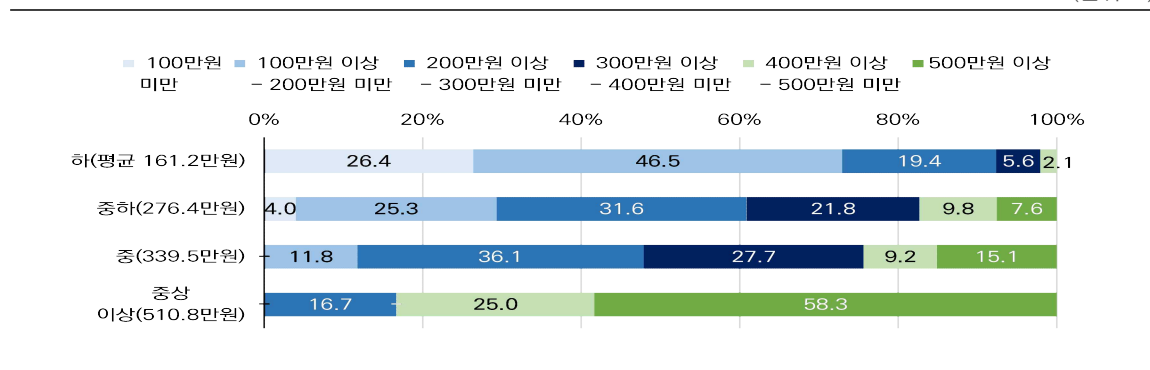
(단위:%, 만원)

구분		표본수 (명)	하	중하	중	중상	상	월평균 가구소득 (세전)
전체		500	28.8	45.0	23.8	2.2	0.2	263.86
성별	남성	252	29.8	37.3	29.4	3.2	0.4	271.59
	여성	248	27.8	52.8	18.1	1.2	-	256.00
연령대	65-69세	180	17.8	43.9	35.0	3.3	-	320.66
	70-74세	160	27.5	49.4	21.3	1.3	0.6	259.69
	75-80세	160	42.5	41.9	13.8	1.9	-	204.11
취업 유무	취업자	174	17.8	50.0	28.7	2.9	0.6	325.06
	미취업자	326	34.7	42.3	21.2	1.8	-	231.19

- 응답자의 가구소득과 주관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경제 수준을 비교한 결과, 주관적인 경제 수준을 ‘하’로 응답한 응답자의 72.9%가 월평균 소득이 200만 원 미만 수준이며, ‘중상’ 이상으로 응답한 응답자는 58.3%가 월평균 가구소득이 500만 원 이상임
- 생활 수준을 ‘하’로 응답한 응답자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약 161.2만 원, ‘중하’ 응답자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276.4만 원, ‘중’으로 응답한 응답자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339.5만 원 임

그림 4-1 | 월평균 가구소득 x 주관적 경제 수준 비교

(단위:%)



3) 역량 지표 조사 결과

(1) 신체 건강에 대한 조사 결과

- 응답자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본인의 건강 상태가 어떠한지를 평가하도록 한 결과,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본인의 건강이 나쁘다(매우 나쁨+나쁨)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 65-69세 응답자 중 13.9%가 본인의 건강 상태가 나쁘다(매우 나쁨 0.6%+나쁨 13.3%)고 평가한 반면, 75-80세 응답자 중에서는 30.6%가 나쁘다(매우 나쁨 4.4%+나쁨 26.3%)고 응답함

표 4-19 | 객관적 신체 건강 상태

(단위:%, 개)

구분		표본수 (명)	질환 없음	1개	2개	3개	4개	11개	12개	평균 (개)
전체		500	23.2	34.8	31.0	8.6	0.6	1.4	0.4	1.5
성별	남성	252	20.6	33.7	31.3	10.7	0.8	2.0	0.8	1.6
	여성	248	25.8	35.9	30.6	6.5	0.4	0.8	-	1.3
연령대	65-69세	180	30.0	40.6	20.6	7.8	-	-	1.1	1.2
	70-74세	160	24.4	32.5	36.9	5.0	-	1.3	-	1.4
	75-80세	160	14.4	30.6	36.9	13.1	1.9	3.1	-	1.9
취업 유무	취업자	174	26.4	43.1	27.0	2.3	-	1.1	-	1.2
	미취업자	326	21.5	30.4	33.1	12.0	0.9	1.5	0.6	1.6
주관적 건강 상태	나쁨+매우 나쁨	101	2.0	9.9	52.5	32.7	2.0	-	1.0	2.3
	보통	207	9.7	43.0	43.0	2.4	0.5	1.4	-	1.5
	좋음+매우 좋음	192	49.0	39.1	6.8	2.6	-	2.1	0.5	0.9

(2) 인지장애 경험

- 응답자 중 33.8%가 최근 1년 동안 점점 더 자주 또는 더 심하게 정신이 혼란스럽거나 기억력이 떨어지는 인지장애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됨
- 인지장애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경험 비율도 높아지는데, 특히 75-80세 응답자 중 41.3%가 인지장애를 경험
- 취업자보다 미취업자가 인지장애를 경험한 비율이 2배 이상 많았음

그림 4-2 | 연령별 취업 여부별 인지장애 경험 비율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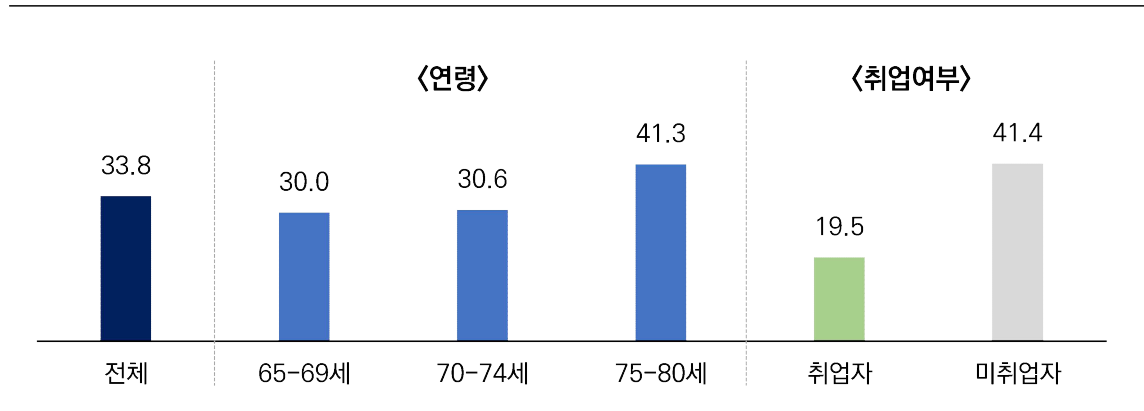


표 4-20 | 인지장애 경험률

(단위:%)

구분		표본수 (명)	경험	미 경험
전체		500	33.8	66.2
성별	남성	252	23.8	76.2
	여성	248	44.0	56.0
연령대	65-69세	180	30.0	70.0
	70-74세	160	30.6	69.4
	75-80세	160	41.3	58.8
취업 유무	취업자	174	19.5	80.5
	미취업자	326	41.4	58.6

(3) 정보통신기술 활용 역량 수준

- 65-80세 응답자들은 일상이나 직무에서 컴퓨터, 태블릿, 휴대폰 등을 ‘잘 활용하는 비율’은 8.2%이며, 인터넷 검색 관련 활동(12.0%)보다 오피스 프로그램을 활용한 자료 작성(2.6%)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됨
 - 65-69세 중 13.9%, 70-74세 중 20.6%가 정보통신기술을 ‘잘 활용하는 편’으로 응답한 반면, 75-80세 응답자 중에서는 2.8%만 정보통신기술을 ‘잘 활용한다’고 응답하여 큰 차이를 보임
- 취업자가 미취업자에 비해 정보통신기술을 ‘잘 활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지만, 오피스 프로그램을 활용한 자료 작성 부분에서는 큰 차이는 없었음. 즉 인터넷 검색과 관련한 업무나 활용은 취업자가 미취업자보다 조금 더 잘한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프로그램을 활용한 자료 작성에서는 두 집단 간 차이가 없음

그림 4-3 | 정보통신기술 활용 역량 수준(잘하는 편+매우 활용 잘함)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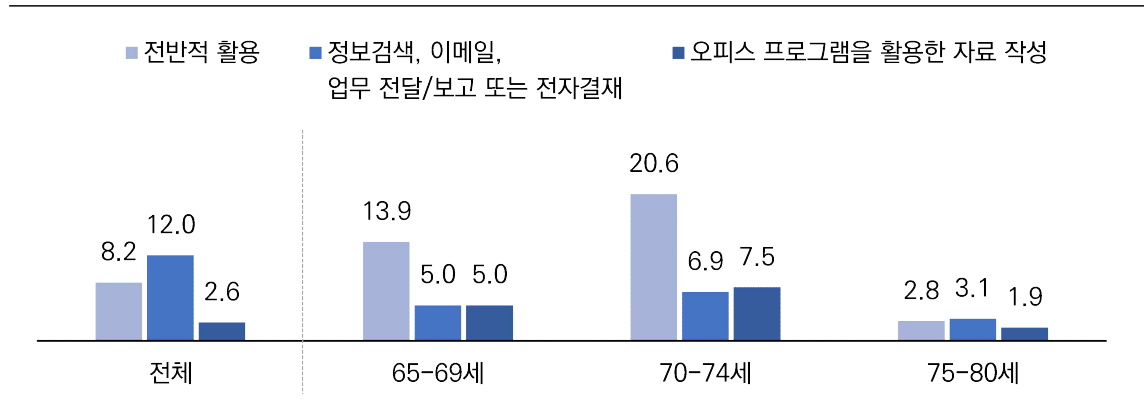


그림 4-4 | 취업 여부별 정보통신기술 활용 역량 수준(잘하는 편+매우 활용 잘함)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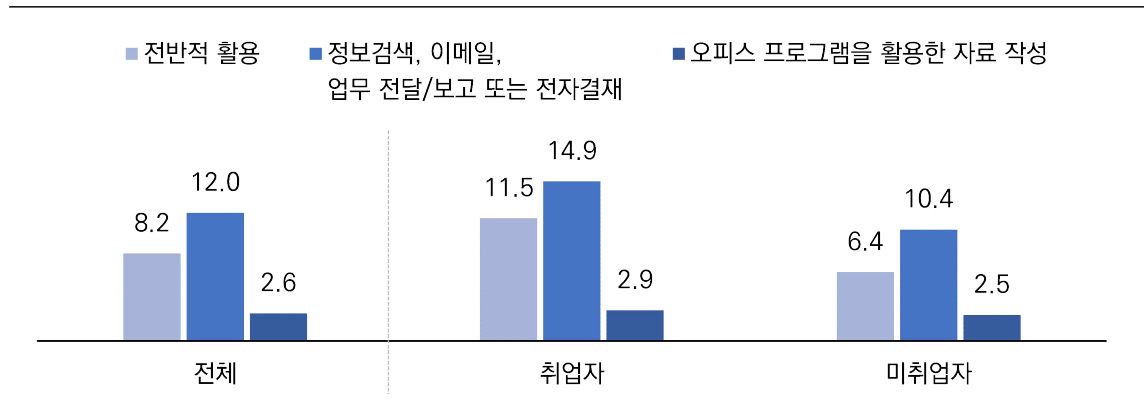


표 4-21 | 정보통신기술 활용 역량 수준

(단위:%, 점)

구분		표본수 (명)	전혀 활용 못 함	활용 못 하는 편	보통	활용을 잘하는 편	매우 활용 잘함	평균(점)
전체		500	10.4	38.4	43.0	8.2	-	2.49
성별	남성	252	6.3	35.3	46.8	11.5	-	2.63
	여성	248	14.5	41.5	39.1	4.8	-	2.34
연령대	65-69세	180	2.8	30.6	52.8	13.9	-	2.78
	70-74세	160	8.8	41.9	44.4	5.0	-	2.46
	75-80세	160	20.6	43.8	30.6	5.0	-	2.20
취업 유무	취업자	174	3.4	37.9	47.1	11.5	-	2.67
	미취업자	326	14.1	38.7	40.8	6.4	-	2.40

표 4-22 | 정보통신기술 활용_정보검색, 이메일, 업무 전달/보고 또는 전자결재

(단위:%, 점)

구분		표본수 (명)	전혀 못 함	잘 못하는 편	보통	잘하는 편	매우 잘하는 편	평균(점)
전체		500	13.8	41.4	32.8	12.0	-	2.43
성별	남성	252	9.5	38.9	36.1	15.5	-	2.58
	여성	248	18.1	44.0	29.4	8.5	-	2.28
연령대	65-69세	180	1.7	36.1	41.7	20.6	-	2.81
	70-74세	160	11.9	46.3	35.0	6.9	-	2.37
	75-80세	160	29.4	42.5	20.6	7.5	-	2.06
취업 유무	취업자	174	6.3	36.8	42.0	14.9	-	2.66
	미취업자	326	17.8	43.9	27.9	10.4	-	2.31

표 4-23 | 정보통신기술 활용_오피스 프로그램을 활용한 자료 작성

(단위:%, 점)

구분		표본수 (명)	전혀 못 함	잘 못하는 편	보통	잘하는 편	매우 잘하는 편	평균(점)
전체		500	52.4	27.4	17.6	2.6	-	1.70
성별	남성	252	51.2	21.4	23.8	3.6	-	1.80
	여성	248	53.6	33.5	11.3	1.6	-	1.61
연령대	65-69세	180	47.8	27.8	21.7	2.8	-	1.79
	70-74세	160	53.8	28.1	15.0	3.1	-	1.68
	75-80세	160	56.3	26.3	15.6	1.9	-	1.63
취업 유무	취업자	174	48.3	27.6	21.3	2.9	-	1.79
	미취업자	326	54.6	27.3	15.6	2.5	-	1.66

(4) 사회적 관계 역량 조사 결과

- 업무나 단체 활동에서 필요한 의사소통, 감정 및 행동 조절 등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역량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취업자보다 미취업자가 잘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 65-69세 응답자 중 56.7%가 대인관계 유지를 잘한다(잘하는 편+매우 잘하는 편)고 평가한 반면, 75-80세 응답자 중에서는 43.8%만 잘한다고 평가함

표 4-24 | 사회적 관계 역량

(단위:%, 점)

구분		표본수 (명)	전혀 못 함	잘 못하는 편	보통	잘하는 편	매우 잘하는 편	평균(점)
전체		500	4.2	10.6	33.4	49.0	2.8	3.36
성별	남성	252	3.6	10.7	29.8	54.0	2.0	3.40
	여성	248	4.8	10.5	37.1	44.0	3.6	3.31
연령대	65-69세	180	3.3	10.0	30.0	52.8	3.9	3.44
	70-74세	160	4.4	12.5	28.8	50.6	3.8	3.37
	75-80세	160	5.0	9.4	41.9	43.1	0.6	3.25
취업 유무	취업자	174	2.3	9.8	20.7	62.1	5.2	3.58
	미취업자	326	5.2	11.0	40.2	42.0	1.5	3.24

4) 현재 근로 상태 조사 결과

(1) 일을 하는 이유

- 현재 일을 하고있는 응답자 중 69.0%가 '생계비 마련'을 위해, 20.7%는 생계비 외 '용돈 마련'을 위해, 5.7%는 '건강 유지'를 위해 일을 하고 있음
- 연령대가 높을수록 생계비 마련을 위해 일하는 비율이 높고, 연령대가 낮을수록 용돈 마련의 목적으로 일을 하는 비율이 높았음

표 4-25 | 일을 하는 이유-취업자

(단위:%)

구분		표본수 (명)	생계비 마련	생계비 외 용돈 마련	건강 유지	사람들과 사귀기	시간 보내기	능력(경력) 발휘
전체		174	69.0	20.7	5.7	1.1	2.3	1.1
성별	남성	114	77.2	16.7	4.4	0.9	0.9	-
	여성	60	53.3	28.3	8.3	1.7	5.0	3.3
연령대	65-69세	82	65.9	24.4	4.9	1.2	2.4	1.2
	70-74세	55	69.1	20.0	7.3	1.8	-	1.8
	75-80세	37	75.7	13.5	5.4	-	5.4	-

(2) 일자리 유형

- 취업자 중 94.3%는 민간 일자리에서 근로하고 있으나 연령대가 높을수록 공공일자리에서 근로하는 비율이 높음
- 65-69세 취업자 중 1.2%만 공공일자리에서 근무하고 있으나, 75-80세 취업자 중 18.9%가 공공일자리에서 근로하고 있음

표 4-26 | 일자리 유형-취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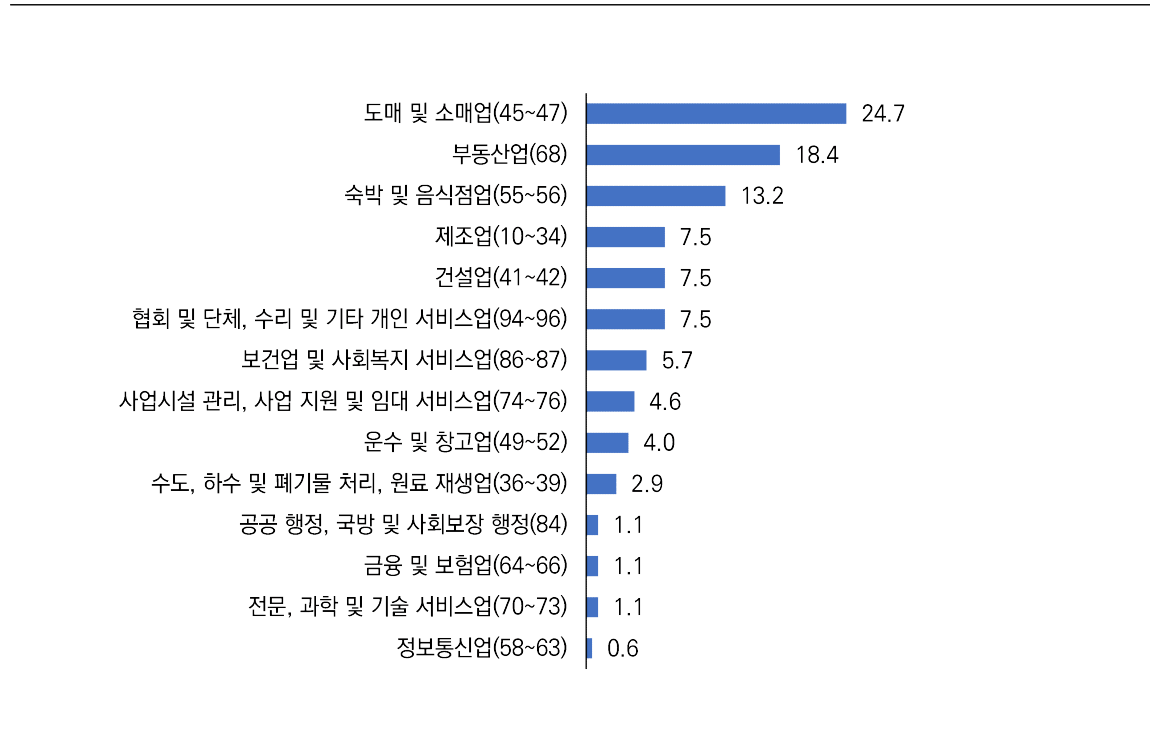
(단위:%)

구분		표본수 (명)	공공일자리 (공공근로, 노인 일자리)	민간 일자리 (공공일자리 외 민간업체)
전체		174	5.7	94.3
성별	남성	114	5.3	94.7
	여성	60	6.7	93.3
연령대	65-69세	82	1.2	98.8
	70-74세	55	3.6	96.4
	75-80세	37	18.9	81.1

- 취업자들이 주로 근로하고 있는 일자리는 24.7%가 도매 및 소매업에 해당되고, 부동산업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는 18.4%, 숙박 및 음식점업에 근무하고 있는 비율은 13.2%로 조사됨

그림 4-5 | 일자리의 소속 산업-취업자

(단위:%)



(3) 현재 직업

- 취업자의 36.2%는 단순 노무 종사자, 29.3%는 판매 종사자, 19.0%는 서비스 종사자 순으로 나타남
- 남성의 경우 단순 노무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로 근무하는 비율이 여성에 비해 높았고 여성은 판매 종사자와 서비스 종사자의 비율이 남성에 비해 높음
- 연령대가 높을수록 단순 노무 종사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75-80세 취업자의 51.4%가 단순 노무 종사자로 근로하고 있음

표 4-27 | 현재 직업-취업자

(단위:%)

구분		표본수 (명)	단순 노무 종사자	판매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사무 종사자
전체		174	36.2	29.3	19.0	12.6	2.3	0.6
성별	남성	114	41.2	25.4	13.2	15.8	3.5	0.9
	여성	60	26.7	36.7	30.0	6.7	-	-
연령대	65-69세	82	25.6	31.7	24.4	14.6	3.7	-
	70-74세	55	41.8	25.5	14.5	14.5	1.8	1.8
	75-80세	37	51.4	29.7	13.5	5.4	-	-

(4) 일자리 근무 기간 및 근로 시간과 일수

- 현재 일자리에서 근무한 기간은 평균 11.0년이며, 1주 평균 5.2일 일하고 있고, 1주 평균 38.3시간을 근로하고 있음

표 4-28 | 일자리 근무 시간_ 1주 평균 근로일수 및 근로 시간-취업자

구분		표본 수 (명)	평균 근무 기간 평균(년)	1주 평균 근로일수(일)	1주 평균 근로 시간(시간)
전체		174	11.0	5.2	38.3
성별	남성	114	9.7	5.2	38.6
	여성	60	13.5	5.3	37.7
연령대	65-69세	82	10.8	5.3	40.1
	70-74세	55	11.2	5.2	38.0
	75-80세	37	11.3	5.1	34.7

(5) 현재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

- 취업자 중 35.6%는 자영업자로 일을 하고 있으며, 29.9%는 임시직 근로자, 20.1%는 상용직, 8.6%는 일용직으로 근로하고 있음
- 남성이 여성과 비교하여 상용직, 임시직으로 근로하는 경우가 많았고, 여성은 자영업자로 근로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음

표 4-29 | 종사자 지위-취업자

(단위:%)

구분		표본수 (명)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전체		174	20.1	29.9	8.6	4.6	35.6	1.1
성별	남성	114	23.7	31.6	8.8	4.4	31.6	-
	여성	60	13.3	26.7	8.3	5.0	43.3	3.3
연령대	65-69세	82	15.9	28.0	11.0	7.3	36.6	1.2
	70-74세	55	23.6	32.7	7.3	-	34.5	1.8
	75-80세	37	24.3	29.7	5.4	5.4	35.1	-

(6) 일자리 종사자 수

- 현재 일하고 있는 직장의 종사자 규모로 1-4인 이하 업체에 종사하는 비율이 60.9%로 가장 많았고, 5-9인 규모 사업체에 근무하는 비율인 37.9%임

표 4-30 | 현재 일자리의 종사자규모-취업자

(단위:%)

구분		표본수 (명)	1-4명	5-49명	50-99명
전체		174	60.9	37.9	1.1
성별	남성	114	54.4	43.9	1.8
	여성	60	73.3	26.7	-
연령대	65-69세	82	69.5	29.3	1.2
	70-74세	55	50.9	47.3	1.8
	75-80세	37	56.8	43.2	-

(7) 생애 총 노동시간

- 취업자들의 평균 총 노동기간은 38.6년이며, 남성(42.5년)이 여성 (31.4년)보다 약 11.1년 정도 더 근로한 것으로 조사됨

표 4-31 | 생애 총 노동기간-취업자

(단위:%, 년)

구분		표본수 (명)	10년 미만	10-19년	20-29년	30-39년	40년 이상	평균(년)
전체		174	1.1	2.9	9.8	28.7	57.5	38.64
성별	남성	114	1.8	-	2.6	21.9	73.7	42.46
	여성	60	-	8.3	23.3	41.7	26.7	31.37
연령대	65-69세	82	1.2	3.7	12.2	36.6	46.3	35.13
	70-74세	55	-	3.6	7.3	25.5	63.6	40.45
	75-80세	37	2.7	-	8.1	16.2	73.0	43.70

(8) 현 일자리의 근로 유지가 가능한 기간

- 현재 일자리에서 본인이 원하는 경우 얼마나 계속 근로가 가능하다고 기대하는지 질문한 결과, 평균 4년 정도 계속 근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음
- 65-69세 응답자들은 평균 5.1년 정도 계속 근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75-80세 근로자는 3.1년 정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

표 4-32 | 현 일자리 계속 근로 기대 시간-취업자

(단위:%, 년)

구분		표본수 (명)	5년 미만	5-9년	10-14년	15-19년	20년 이상	평균(년)
전체		174	58.6	35.1	5.2	0.6	0.6	4.0
성별	남성	114	55.3	37.7	6.1	-	0.9	4.2
	여성	60	65.0	30.0	3.3	1.7	-	3.8
연령대	65-69세	82	37.8	50.0	9.8	1.2	1.2	5.1
	70-74세	55	80.0	18.2	1.8	-	-	3.1
	75-80세	37	73.0	27.0	-	-	-	3.0

(9) 직장 내 연령차별 경험

- 연령 때문에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21.3%가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차별 경험이 있는 취업자 중 51.4%가 일하기에 너무 나이가 많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조사 되었으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나이로 인해 특정 업무에서 배제된 경험도 높았음

표 4-33 | 직장 내 연령차별 경험-취업자

(단위:%)

구분		표본수 (명)	네, 있습니다	아니오, 없습니다
전체		174	21.3	78.7
성별	남성	114	24.6	75.4
	여성	60	15.0	85.0
연령대	65-69세	82	20.7	79.3
	70-74세	55	21.8	78.2
	75-80세	37	21.6	78.4

표 4-34 | 직장 내 차별 종류-차별 경험 있는 취업자

(단위:%)

구분		표본수 (명)	일하기에 너무 나이가 많다는 말을 들은 적 있음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리는 기회에서 제외된 적 있음	나이로 인한 특정 업무 배제	나이로 인한 업무능력 평가 절하 및 업무배제
전체		37	51.4	16.2	10.8	21.6
성별	남성	28	64.3	7.1	7.1	21.4
	여성	9	11.1	44.4	22.2	22.2
연령대	65-69세	17	64.7	11.8	5.9	17.6
	70-74세	12	33.3	25.0	8.3	33.3
	75-80세	8	50.0	12.5	25.0	12.5

(10) 물리적 고령 친화 노동환경 구축 여부 및 필요한 노동환경

- 취업자 중 16.7%만 현재 일터가 고령자의 특징을 고려한 물리적 노동환경을 구축하고 있다고 평가함
- 이러한 편익은 공공일자리에서 근무하는 취업자가 민간 일자리에서 일하는 취업자보다 높게 평가하였음

표 4-35 | 물리적 친화 노동환경 구축-취업자

(단위:%, 점)

구분		표본수 (명)	전혀 구축 되지 않음	구축되지 않음	보통	어느 정도 구축됨	매우 잘 구축됨	평균(점)
전체		174	2.3	32.8	48.3	16.7	-	2.79
성별	남성	114	1.8	28.9	55.3	14.0	-	2.82
	여성	60	3.3	40.0	35.0	21.7	-	2.75
연령대	65-69세	82	3.7	32.9	46.3	17.1	-	2.77
	70-74세	55	1.8	30.9	50.9	16.4	-	2.82
	75-80세	37	-	35.1	48.6	16.2	-	2.81

- 향후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31.6%가 안전한 작업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30.5%는 쾌적한 휴게공간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표 4-36 | 필요한 물리적 고령 친화 노동환경-취업자

(단위:%)

구분		표본수 (명)	편리한 화장실	쾌적한 휴식 공간	안전한 작업장	장애물 없는 평평한 복도	고령 친화적인 시청각적 정보 제공	저소음, 저진동, 쾌적한 공기	채광 및 온도 (냉난방)
전체		174	6.9	30.5	31.6	6.9	9.8	7.5	6.9
성별	남성	114	7.0	27.2	34.2	5.3	10.5	9.6	6.1
	여성	60	6.7	36.7	26.7	10.0	8.3	3.3	8.3
연령대	65-69세	82	9.8	30.5	30.5	7.3	8.5	7.3	6.1
	70-74세	55	5.5	21.8	41.8	7.3	5.5	10.9	7.3
	75-80세	37	2.7	43.2	18.9	5.4	18.9	2.7	8.1

(11) 취업 의사

- 향후 일을 하고 싶은지 질문한 결과, 취업자 중에서는 74.7%가 현재 직종 또는 다른 직종에서 일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현재 취업하지 않은 응답자 중에서는 21.8%만 일하기를 희망하고 있음
- 특히, 연령대가 높을수록 일하지 않기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아, 75-80세 응답자 중에서는 76.9%가 일하기를 희망하지 않았음

표 4-37 | 취업 의사

(단위:%)

구분		표본수 (명)	하고 싶지 않음	현재 직종의 일을 계속하고 싶음	현재 직종과 다른 일을 하고 싶음	지금은 일하지 않지만 앞으로 하고 싶음
전체		500	59.8	22.0	4.0	14.2
성별	남성	252	47.2	31.7	6.0	15.1
	여성	248	72.6	12.1	2.0	13.3
연령대	65-69세	180	40.6	32.8	5.6	21.1
	70-74세	160	64.4	21.3	3.8	10.6
	75-80세	160	76.9	10.6	2.5	10.0
취업 유무	취업자	174	25.3	63.2	11.5	-
	미취업자	326	78.2	-	-	21.8

5) 구직활동 현황

(1) 구직방법

- 구직은 주로 친구, 친지 소개 및 부탁 형태(59.3%)로 진행되었으며, 공공 취업 알선기관을 활용(33.3%)하거나, 복지관, 행정동 주민센터 직원 소개(11.1%) 등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적게 나타남

표 4-38 | 구직방법(복수응답)-미취업자 중 구직경험 있는 취업희망자

(단위:%)

구분		표본수 (명)	공공 취업 알선기관	친구, 친지 소개 및 부탁	복지관, 행정동 주민센터 직원의 소개
전체		27	33.3	59.3	11.1
성별	남성	15	53.3	46.7	-
	여성	12	8.3	75.0	25.0
연령대	65-69세	19	36.8	63.2	-
	70-74세	6	33.3	66.7	16.7
	75-80세	2	-	-	100.0

(2) 구직사유

- 현재 취업상태이거나 구직경험이 있는 취업희망자들은 주로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구직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됨
 - 다만 연령대가 높을수록 건강을 유지하거나, 시간을 보내는 용으로 구직을 희망하는 비율도 일부 있었음
- 현재 취업자의 경우는 73.1%가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구직을 희망하는 반면, 현재 취업을 하지 않았지만, 취업을 희망하는 응답자 중에서는 22.5%가 용돈 마련이나 건강 유지(15.5%), 능력(경력) 발휘(4.2%)의 목적으로 구직을 희망하는 경우도 있었음

표 4-39 | 구직사유-향후 일을 계속하고 싶은 취업자, 미취업자 중 구직경험 있는 취업희망자

(단위:%)

구분		표본수 (명)	생계비 마련	용돈 마련	건강 유지	사람들과 사귀기	시간 보내기	능력(경력) 발휘
전체		201	65.2	13.9	10.9	3.0	5.0	2.0
성별	남성	133	71.4	10.5	9.0	2.3	3.8	3.0
	여성	68	52.9	20.6	14.7	4.4	7.4	-
연령대	65-69세	107	68.2	13.1	9.3	2.8	3.7	2.8
	70-74세	57	64.9	12.3	10.5	5.3	5.3	1.8
	75-80세	37	56.8	18.9	16.2	-	8.1	-
취업 유무	취업자	130	73.1	9.2	8.5	2.3	6.2	0.8
	미취업자	71	50.7	22.5	15.5	4.2	2.8	4.2

(3) 직업 선택 시 고려 사항

- 직업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수입(38.3%)이며, 그 외에는 주로 안전성(34.3%)을 고려하고 있음
 - 다만, 현재 취업한 취업자는 안정성(40.0%)을 좀 더 고려하고 있으며, 미취업자의 경우는 안정성보다는 수입(39.4%)과 보람/자아 성취(25.4%)를 더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40 | 직업 선택 시 고려 사항-향후 일을 계속하고 싶은 취업자, 미취업자 중 구직경험 있는 취업희망자

(단위:%)

구분		표본수 (명)	수입	안정성	장래성, 발전성	보람, 자아 성취	적성, 흥미
전체		201	38.3	34.3	1.5	15.9	10.0
성별	남성	133	38.3	38.3	2.3	15.8	5.3
	여성	68	38.2	26.5	-	16.2	19.1
연령대	65-69세	107	38.3	34.6	2.8	13.1	11.2
	70-74세	57	42.1	33.3	-	21.1	3.5
	75-80세	37	32.4	35.1	-	16.2	16.2
취업 유무	취업자	130	37.7	40.0	1.5	10.8	10.0
	미취업자	71	39.4	23.9	1.4	25.4	9.9

(4) 일자리 형태

- 향후 일하고 싶은 일자리로 52.2%가 임시 또는 일용근로자를 희망하고 있으며, 상용근로자를 희망하는 비율은 24.4%에 불과함
- 연령대가 높을수록 임시, 일용근로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현재 취업을 하지 않았지만 향후 취업을 희망하는 응답자 중에서는 76.1%가 임시 또는 일용근로 형태로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됨

표 4-41 | 희망 일자리 형태-향후 일을 계속하고 싶은 취업자, 미취업자 중 구직경험 있는 취업희망자

(단위:%)

구분		표본수 (명)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자영업자
전체		201	24.4	52.2	23.4
성별	남성	133	32.3	45.1	22.6
	여성	68	8.8	66.2	25.0
연령대	65-69세	107	26.2	46.7	27.1
	70-74세	57	21.1	56.1	22.8
	75-80세	37	24.3	62.2	13.5
취업 유무	취업자	130	25.4	39.2	35.4
	미취업자	71	22.5	76.1	1.4

(5) 희망하는 직업

- 향후 희망하는 직업으로 36.3%는 단순노무자를, 22.9%는 판매 종사자, 20.9%는 서비스 종사자를 희망하고 있음

표 4-42 | 희망 일자리 직종-향후 일을 계속하고 싶은 취업자, 미취업자 중 구직경험 있는 취업희망자

(단위:%)

구분		표본수 (명)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
전체		201	1.0	20.9	22.9	15.4	3.5	36.3
성별	남성	133	1.5	12.8	19.5	21.1	5.3	39.8
	여성	68	-	36.8	29.4	4.4	-	29.4
연령대	65-69세	107	0.9	24.3	27.1	21.5	4.7	21.5
	70-74세	57	1.8	19.3	17.5	14.0	3.5	43.9
	75-80세	37	-	13.5	18.9	-	-	67.6
취업 유무	취업자	130	0.8	21.5	24.6	17.7	2.3	33.1
	미취업자	71	1.4	19.7	19.7	11.3	5.6	42.3

- 취업자의 경우 현재 직업이 향후에도 유지되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표 4-43 | 현재 일자리 직업 x 희망하는 일자리 직업-취업자 중 취업희망자

(단위:%)

구분		향후 희망 직업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현재 직업	서비스 종사자	-	88.9	7.4	3.7	-	-
	판매 종사자	-	8.6	82.9	2.9	-	5.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5.9	-	94.1	-	-
	단순 노무 종사자	-	-	2.1	10.6	-	87.2

(6) 희망하는 임금 수준 및 근로 형태

- 향후 희망하는 월평균 임금 또는 보수는 평균 194.9만 원이며, 200만 원 이상을 희망하는 비율이 57.7%임
- 현재 취업자의 경우 평균 219.4만 원, 현재 취업하지 않았지만 향후 취업을 희망하는 응답자는 월평균 150만 원 정도의 소득을 희망

표 4-44 | 희망 근로 시간 형태_희망 월 소득-향후 일을 계속하고 싶은 취업자, 미취업자 중 구직경험 있는 취업희망자

(단위:%, 만원)

구분		표본수 (명)	50 만 원 미만	50-99 만 원	100-154 만 원	155-199 만 원	200 만 원 이상	평균(만원)
전체		201	3.5	6.5	22.9	9.5	57.7	194.9
성별	남성	133	1.5	6.8	18.8	9.0	63.9	209.4
	여성	68	7.4	5.9	30.9	10.3	45.6	166.5
연령대	65-69세	107	0.9	-	15.9	10.3	72.9	222.3
	70-74세	57	8.8	12.3	21.1	7.0	50.9	177.0
	75-80세	37	2.7	16.2	45.9	10.8	24.3	143.1
취업 유무	취업자	130	3.1	3.1	15.4	7.7	70.8	219.4
	미취업자	71	4.2	12.7	36.6	12.7	33.8	150.0

- 1주 평균 희망하는 근로일수는 약 4.7일, 평균 32.5시간 근로하기를 희망

표 4-45 | 희망 근로 시간 형태_희망 1주 평균 근로일수, 근무 시간-향후 일을 계속하고 싶은 취업자, 미취업자 중 구직경험 있는 취업희망자

(단위:일, 시간)

구분		표본수 (명)	1주 평균 근로일수	1주 평균 근로 시간
전체		201	4.7	32.5
성별	남성	133	4.7	34.0
	여성	68	4.6	29.6
연령대	65-69세	107	4.8	35.1
	70-74세	57	4.6	30.6
	75-80세	37	4.5	27.9
취업 유무	취업자	130	4.8	34.7
	미취업자	71	4.5	28.4

○ 전일제로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은 68.7%, 시간제로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은 31.3%임

- 전일제를 희망하는 비율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높는데, 65-69세 응답자 중 79.4%가 전일제로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반면, 75-80세 응답자 중에서는 48.6%만 전일제 근무를 희망

표 4-46 | 희망 근로 시간 형태_희망 근로 시간 형태-향후 일을 계속하고 싶은 취업자, 미취업자 중 구직경험 있는 취업희망자

(단위:%)

구분		표본수 (명)	전일제	시간제
전체		201	68.7	31.3
성별	남성	133	75.9	24.1
	여성	68	54.4	45.6
연령대	65-69세	107	79.4	20.6
	70-74세	57	61.4	38.6
	75-80세	37	48.6	51.4
취업 유무	취업자	130	79.2	20.8
	미취업자	71	49.3	50.7

(7) 장래 근로 희망 연령

○ 여건이 된다면 최대 일하고 싶은 나이는 76.1세임

- 현재 65-69세 응답자들은 최대 74.1세까지 일하고 싶다고 응답한 반면, 75-80세 응답자들은 평균 80.2세까지 근로하기를 희망. 즉 65-69세 응답자는 최대 10년 가까이 일하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75-80세에 해당하는 응답자들은 최대 5년 정도만 더 일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됨

표 4- 47 | 장래 근로 희망 연령-향후 일을 계속하고 싶은 취업자, 미취업자 중 구직경험 있는 취업희망자

(단위:%, 세)

구분		표본수 (명)	70-74세	75-79세	80-84세	85세 이상	평균(세)
전체		201	24.4	47.3	25.9	2.5	76.1
성별	남성	133	21.1	47.4	27.8	3.8	76.5
	여성	68	30.9	47.1	22.1	-	75.3
연령대	65-69세	107	43.9	45.8	10.3	-	74.1
	70-74세	57	3.5	66.7	26.3	3.5	77.3
	75-80세	37	-	21.6	70.3	8.1	80.2
취업 유무	취업자	130	27.7	46.2	23.1	3.1	75.8
	미취업자	71	18.3	49.3	31.0	1.4	76.6

(8) 고용서비스 이용률 및 정보 접근 용이성

- 지난 1년간 고용서비스를 이용한 비율은 42.3%이며, 취업 알선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가 14.9%, 취업 정보 제공서비스를 이용한 비율은 12.9%, 취업 상담 서비스를 이용한 비율은 10.9%임

표 4-48 | 고용서비스 이용률(복수응답)-향후 일을 계속하고 싶은 취업자, 미취업자 중 구직경험 있는 취업희망자

(단위:%)

구분		표본수 (명)	취업 상담	취업 정보 제공	취업 알선	직업 탐색	직업 능력 평가	직무 교육 프로그램	취·창업 프로그램	없음
전체		201	10.9	12.9	14.9	6.0	0.5	3.0	1.5	57.7
성별	남성	133	11.3	16.5	16.5	7.5	0.8	3.0	1.5	52.6
	여성	68	10.3	5.9	11.8	2.9	-	2.9	1.5	67.6
연령대	65-69세	107	9.3	17.8	15.9	7.5	0.9	2.8	1.9	56.1
	70-74세	57	14.0	5.3	14.0	5.3	-	5.3	-	59.6
	75-80세	37	10.8	10.8	13.5	2.7	-	-	2.7	59.5
취업 유무	취업자	130	10.8	10.0	16.9	0.8	0.8	4.6	0.8	58.5
	미취업자	71	11.3	18.3	11.3	15.5	-	-	2.8	56.3

- 취업에 관한 정보를 얻고자 할 때 얻기가 쉬웠다는 비율은 13.4%에 불과하였음
- 고용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자도 22.4%만 취업에 관한 정보를 얻기가 쉬웠다고 응답

표 4-49 | 취업 정보 접근 용이성-향후 일을 계속하고 싶은 취업자, 미취업자 중 구직경험 있는 취업희망자

(단위:%, 점)

구분		표본수 (명)	전혀 얻기 힘듦	약간 힘들	보통	약간 쉽게 얻을 수 있음	매우 쉽게 얻을 수 있음	평균(점)
전체		201	2.5	33.8	50.2	13.4	-	2.75
성별	남성	133	1.5	26.3	57.1	15.0	-	2.86
	여성	68	4.4	48.5	36.8	10.3	-	2.53
연령대	65-69세	107	0.9	31.8	54.2	13.1	-	2.79
	70-74세	57	3.5	38.6	45.6	12.3	-	2.67
	75-80세	37	5.4	32.4	45.9	16.2	-	2.73
취업 유무	취업자	130	2.3	23.8	60.0	13.8	-	2.85
	미취업자	71	2.8	52.1	32.4	12.7	-	2.55
고용 서비스	이용경험자	85	-	25.9	51.8	22.4	-	2.96
	미이용자	116	4.3	39.7	49.1	6.9	-	2.59

6) 고양시 일자리 수준 평가

(1) 일자리의 충분성

- 고양시에 다양한 고령 구직자의 역량 수준(지식, 기술 등)에 부합하는 일자리가 충분히 있는지 조사한 결과, 18.4%만 일자리가 충분하다고 응답함
- 남성보다 여성이 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지만, 그 비율도 23.5% 수준으로, 대부분의 응답자가 고령자의 수준을 고려한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하였음

표 4-50 | 일자리의 충분성-취업자, 미취업자 중 구직경험 있는 취업희망자

(단위:%, 점)

구분		표본수 (명)	전혀 그렇지 않음	조금 그렇지 않음	보통	약간 그러함	매우 그러함	평균(점)
전체		201	7.0	38.3	36.3	18.4	-	2.66
성별	남성	133	7.5	37.6	39.1	15.8	-	2.63
	여성	68	5.9	39.7	30.9	23.5	-	2.72
연령대	65-69세	107	7.5	34.6	36.4	21.5	-	2.72
	70-74세	57	5.3	42.1	38.6	14.0	-	2.61
	75-80세	37	8.1	43.2	32.4	16.2	-	2.57
취업 유무	취업자	130	3.8	36.9	41.5	17.7	-	2.73
	미취업자	71	12.7	40.8	26.8	19.7	-	2.54

○ 응답자의 역량에 부합하는 일자리가 충분한지를 질문한 결과, 17.9%만 일자리가 충분하다
(약간 그러함 16.4%+매우 그러함 1.5%)고 평가

- 취업자가 미취업자보다 응답자의 역량에 부합하는 일자리가 많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5배
가까이 많았음

표 4-51 | 역량을 펼칠 일자리의 충분성-취업자, 미취업자 중 구직경험 있는 취업희망자

(단위:%, 점)

구분		표본수 (명)	전혀 그렇지 않음	조금 그렇지 않음	보통	약간 그러함	매우 그러함	평균(점)
전체		201	6.5	35.3	40.3	16.4	1.5	2.71
성별	남성	133	7.5	31.6	38.3	20.3	2.3	2.78
	여성	68	4.4	42.6	44.1	8.8	-	2.57
연령대	65-69세	107	8.4	28.0	43.9	17.8	1.9	2.77
	70-74세	57	1.8	42.1	42.1	12.3	1.8	2.70
	75-80세	37	8.1	45.9	27.0	18.9	-	2.57
취업 유무	취업자	130	3.8	31.5	40.0	22.3	2.3	2.88
	미취업자	71	11.3	42.3	40.8	5.6	-	2.41

(2) 고양시 고용정책 만족도

○ 고양시의 고용정책에 대해 25.9%만 만족하고 있음

- 연령대가 높을수록 고용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편으로 65-69세 응답자 중 28.9%가 고양시의 고용정책에 대해 만족(조금 만족함+매우 만족함)하고 있지만, 75-80세 응답자 중에서는 21.6%만 만족
- 취업자가 미취업자보다 고용정책에 대해 만족하는 비율이 2배 이상 높았음

표 4-52 | 고양시 고용정책 만족도-향후 일을 계속하고 싶은 취업자, 미취업자 중 구직경험 있는 취업희망자

(단위:%, 점)

구분		표본수 (명)	전혀 만족하지 않음	조금 만족하지 않음	보통	조금 만족함	매우 만족함	평균(점)
전체		201	1.0	23.4	49.8	24.9	1.0	3.01
성별	남성	133	1.5	24.8	46.6	25.6	1.5	3.01
	여성	68	-	20.6	55.9	23.5	-	3.03
연령대	65-69세	107	0.9	19.6	50.5	28.0	0.9	3.08
	70-74세	57	-	28.1	49.1	21.1	1.8	2.96
	75-80세	37	2.7	27.0	48.6	21.6	-	2.89
취업 유무	취업자	130	1.5	18.5	46.9	31.5	1.5	3.13
	미취업자	71	-	32.4	54.9	12.7	-	2.80

7) 직업 교육 지표 조사 결과

(1) 직업 교육 참여 경험 및 교육 참여기관

○ 직업 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9.5%임

- 남성(11.3%)이 여성(5.9%)보다 직업 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더 많았음
- 65-69세 응답자 중 14.0%가 직업 교육을 경험하였으나, 75-80세 중에서는 2.7%만 참여함

표 4-53 | 직업 교육 참여율-향후 일을 계속하고 싶은 취업자, 미취업자 중 구직경험 있는 취업희망자

(단위:%)

구분		표본수 (명)	예	아니오
전체		201	9.5	90.5
성별	남성	133	11.3	88.7
	여성	68	5.9	94.1
연령대	65-69세	107	14.0	86.0
	70-74세	57	5.3	94.7
	75-80세	37	2.7	97.3
취업 유무	취업자	130	8.5	91.5
	미취업자	71	11.3	88.7

○ 직업 교육 훈련은 주로 민간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에 참여함

표 4-54 | 직업 교육 참여기관(복수 응답)-직업 교육 경험한 취업자, 미취업자 중 취업희망자

(단위:%)

구분		표본수 (명)	공공훈련기관 (산업인력공단,상공회의소 등)	민간 직업훈련기관	직장 내 교육 프로그램
전체		19	21.1	68.4	15.8
성별	남성	15	20.0	73.3	13.3
	여성	4	25.0	50.0	25.0

○ 주로 취업이나 창업 준비를 위한 직무능력 습득을 위해(52.6%) 직업 교육에 참여함

표 4-55 | 직업 교육 참여 이유-직업 교육 경험한 취업자, 미취업자 중 취업희망자

(단위:%)

구분	표본수 (명)	취업이나 창업 준비를 위한 직무능력 습득 훈련을 위해	직무 수행 능력을 향상 시키기 위해	새로운 직업을 준비하기 위한 직무능력 습득을 위해	자격증 취득 훈련
전체	19	52.6	15.8	26.3	5.3

- 직업 교육 참여자들 중 57.9%는 비교적 편안하게 교육에 참여하였으며, 교육에 대한 만족도도 높은 편임

표 4-56 | 직업 교육 참여 용이성-직업 교육 경험한 취업자, 미취업자 중 취업희망자

(단위:%, 점)

구분	표본수 (명)	매우 힘들	약간 힘들	보통	다소 편함	매우 편함	평균(점)
전체	19	-	-	42.1	57.9	-	3.58

표 4-57 | 직업교육 만족도-직업교육 경험한 취업자, 미취업자 중 취업희망자

(단위:%, 점)

구분	표본수 (명)	전혀 만족하지 않음	조금 만족하지 않음	보통	조금 만족함	매우 만족함	평균(점)
전체	19	-	-	26.3	68.4	5.3	3.79

- 다만 직업교육 시간이 다양하지 못하다는 점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응답되었으며, 직업 교육 후 68.4%가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조사됨

표 4-58 | 직업교육 개선점-직업교육 경험한 취업자, 미취업자 중 취업희망자

(단위:%)

구분	표본수 (명)	직업 교육에 대한 정보 활성화	직업 교육 내용의 현실화	직업 교육 시간의 다양화	직업 교육 훈련비 지원	직업 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전체	19	21.1	5.3	42.1	21.1	10.5

표 4-59 | 직업 교육 후 취업한 비율-직업 교육 경험한 취업자, 미취업자 중 취업희망자

(단위:%)

구분	표본수 (명)	예	아니오
전체	19	68.4	31.6

(2) 직업 교육 미참여 이유

- 직업 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주로 현재 직업이 있어서 해당 교육이 필요 없거나 (33.5%), 직업 교육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28.6%)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됨

표 4-60 | 직업 교육 미참여 이유(복수 응답)-직업 교육 경험 없는 취업자, 미취업자 중 취업희망자

(단위:%)

구분		표본수 (명)	직업 교육에 대한 정보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직업 교육 기간이 너무 길어서	직업 교육을 받으려 할 시간이 없어서	직업 교육에 참여할 자신감, 동기가 없어서
전체		182	28.6	7.1	3.8	2.7	6.0
성별	남성	118	25.4	5.9	3.4	4.2	2.5
	여성	64	34.4	9.4	4.7	-	12.5
연령대	65-69세	92	26.1	7.6	5.4	3.3	4.3
	70-74세	54	27.8	7.4	1.9	3.7	1.9
	75-80세	36	36.1	5.6	2.8	-	16.7
취업 유무	취업자	119	21.0	2.5	2.5	4.2	2.5
	미취업자	63	42.9	15.9	6.3	-	12.7

구분		표본수 (명)	국비 무료 직업교육 기관으로 부터 참여를 거절당해서	가족 부양 때문에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없어서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지 정하지 못해서	현재 직업이 있어서
전체		182	1.6	0.5	13.7	7.7	33.5
성별	남성	118	-	-	13.6	6.8	38.1
	여성	64	4.7	1.6	14.1	9.4	25.0
연령대	65-69세	92	3.3	1.1	14.1	8.7	34.8
	70-74세	54	-	-	16.7	11.1	31.5
	75-80세	36	-	-	8.3	-	33.3
취업 유무	취업자	119	-	0.8	11.8	5.0	50.4
	미취업자	63	4.8	-	17.5	12.7	1.6

8) 공공일자리 및 사회문화 특성

(1) 공공일자리 참여 경험

- 전체 응답자 중 84.6%는 공공일자리에 신청한 경험이 없으며, 7.0%는 신청했으나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됨

표 4-61 | 공공일자리 참여

(단위:%)

구분		표본수 (명)	현재 참여 중	참여한 적 있음	신청했으나 참여 못 함	신청한 적 없음
전체		500	1.4	7.0	7.0	84.6
성별	남성	252	1.2	6.0	6.7	86.1
	여성	248	1.6	8.1	7.3	83.1
연령대	65-69세	180	-	5.6	3.9	90.6
	70-74세	160	1.3	6.9	8.1	83.8
	75-80세	160	3.1	8.8	9.4	78.8
취업 유무	취업자	174	4.0	4.0	4.0	87.9
	미취업자	326	-	8.6	8.6	82.8

- 향후 공공일자리에 참여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23.8%로, 65-74세 응답자 중 26% 이상, 75-80세 응답자 중에서는 17.5%가 참여 의향이 있었음

표 4-62 | 향후 공공일자리 참여 의향

(단위:%)

구분		표본수 (명)	네, 의향이 있습니다.	아니오,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전체		500	23.8	76.2
성별	남성	252	21.4	78.6
	여성	248	26.2	73.8
연령대	65-69세	180	26.1	73.9
	70-74세	160	27.5	72.5
	75-80세	160	17.5	82.5
취업 유무	취업자	174	27.0	73.0
	미취업자	326	22.1	77.9

(2) 고용상 차별

- 고용상 연령으로 인한 차별이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58.0% (약간 그러함 53.4%+매우 그러함 4.6%)가 차별이 있다고 응답
 - 이러한 차별은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다고 응답

표 4-63 | 고용상 차별

(단위:%, 점)

구분		표본수 (명)	전혀 그렇지 않음	조금 그렇지 않음	보통	약간 그러함	매우 그러함	평균(점)
전체		500	0.2	13.2	28.6	53.4	4.6	3.49
성별	남성	252	0.4	12.3	32.1	49.2	6.0	3.48
	여성	248	-	14.1	25.0	57.7	3.2	3.50
연령대	65-69세	180	0.6	12.2	28.9	52.8	5.6	3.51
	70-74세	160	-	16.9	28.1	50.6	4.4	3.43
	75-80세	160	-	10.6	28.8	56.9	3.8	3.54
취업 유무	취업자	174	-	12.1	29.9	55.7	2.3	3.48
	미취업자	326	0.3	13.8	27.9	52.1	5.8	3.49

(3) 고령자 역량에 대한 사회 인식 정도

- 고령자의 취업 역량 수준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를 질문한 결과, 19.0%(높게 평가함 17.6%+매우 높게 평가 1.4%)만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됨

표 4-64 | 고령자 역량에 대한 사회 인식 정도

(단위:%, 점)

구분		표본수 (명)	매우 낮게 평가함	조금 낮게 평가함	보통	높게 평가함	매우 높게 평가함	평균(점)
전체		500	2.8	29.4	48.8	17.6	1.4	2.85
성별	남성	252	2.0	32.5	44.8	19.0	1.6	2.86
	여성	248	3.6	26.2	52.8	16.1	1.2	2.85
연령대	65-69세	180	2.8	31.7	45.6	18.9	1.1	2.84
	70-74세	160	3.1	30.6	48.8	14.4	3.1	2.84
	75-80세	160	2.5	25.6	52.5	19.4	-	2.89
취업 유무	취업자	174	2.9	33.3	44.8	16.1	2.9	2.83
	미취업자	326	2.8	27.3	50.9	18.4	0.6	2.87

(4) 교통, 이동 편리에 대한 인식 정도

- 경기도 및 고양시의 교통수단에 대해 51.4%(높게 평가함 46.8%+매우 높게 평가함 4.6%)가 만족하고 있음
- 교통수단에 대해 연령대가 높을수록, 취업자가 미취업자보다 좀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65 | 교통, 이동 편리에 대한 인식 정도

(단위:%, 점)

구분		표본수 (명)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높게 평가함	매우 높게 평가함	평균(점)
전체		500	-	11.2	37.4	46.8	4.6	3.45
성별	남성	252	-	13.5	32.9	49.6	4.0	3.44
	여성	248	-	8.9	41.9	44.0	5.2	3.46
연령대	65~69세	180	-	11.7	37.8	43.9	6.7	3.46
	70~74세	160	-	11.3	37.5	48.1	3.1	3.43
	75~80세	160	-	10.6	36.9	48.8	3.8	3.46
취업 유무	취업자	174	-	13.8	32.8	47.1	6.3	3.46
	미취업자	326	-	9.8	39.9	46.6	3.7	3.44

9) 여가 및 사회활동

(1) 여가 및 사회활동 현황

- 최근 1년간 활동 한 적이 있는 여가 및 사회활동으로 모든 응답자가 TV나 스마트폰 등의 매체를 이용하거나 유흥, 장기, 옷 등의 오락 활동을 하였으며, 94.4%는 친구·지인과의 만남 등의 사회관계 활동을 77.2%는 국내외 여행, 영화, 전시 등 문화예술 관람, 운동 경기 관람과 같은 관광·관람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남
- 연령대가 낮을수록 관광·관람 활동과 스포츠 활동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4-66 | 여가 및 사회활동

(단위:%)

구분	활동 여부		향후 활동 희망 여부	
	활동함	활동 안 함	있음	없음
매체, 오락 활동	100.0	-	99.8	0.2
취미활동	45.4	54.6	68.4	31.6
관광, 관람 활동	77.2	22.8	94.2	5.8
사회관계 활동	94.4	5.6	97.2	2.8
스포츠 활동	25.8	74.2	52.2	47.8
학습활동	1.8	98.2	13.4	86.6
자원봉사활동	1.8	98.2	15.0	85.0
정치활동	0.2	99.8	1.8	98.2

(2) 삶의 만족도

- 본인의 삶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 평가하도록 한 결과, 자녀와의 관계에서 만족하는 비율이 81.6%로 가장 높은 반면, 자신의 경제 상태에 대해 만족하는 비율은 25.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27.0%만 만족하고 있으며, 사회, 여가, 문화 활동에 대해 만족하는 비율도 31.0%로 낮았음

그림 4-6 | 삶의 만족도(약간 만족+매우 만족)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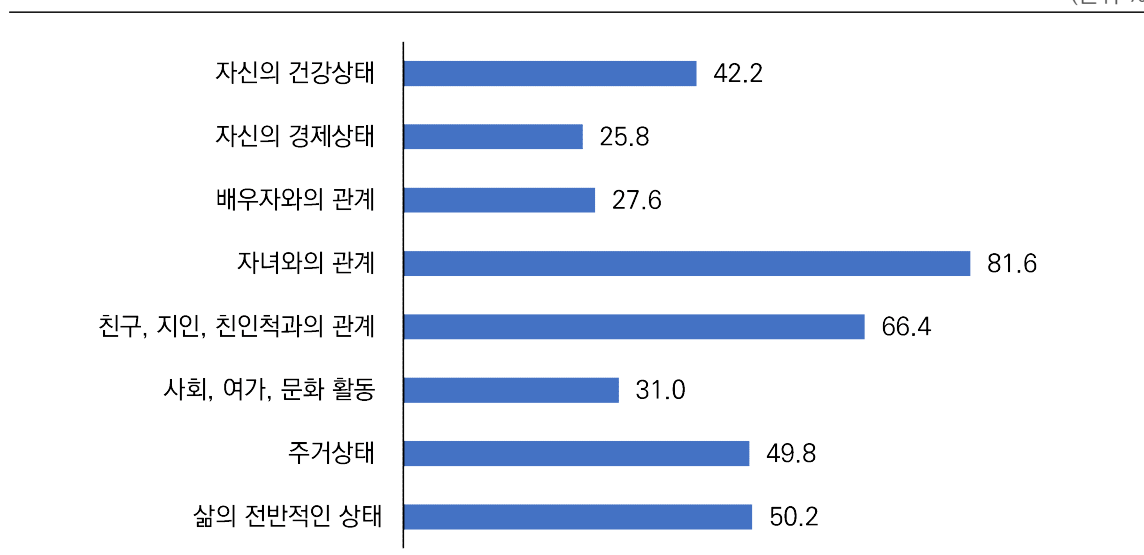


표 4-67 | 삶의 만족도

(단위:%, 점)

구분	취업자	비취업자	평균(점)
자신의 건강 상태	3.52	3.05	3.21
자신의 경제 상태	3.22	2.77	2.93
배우자와의 관계	3.83	3.84	3.84
자녀와의 관계	3.93	3.90	3.91
친구, 지인, 친인척과의 관계	3.68	3.65	3.66
사회, 여가, 문화 활동	3.18	3.14	3.16
주거상태	3.54	3.41	3.46
삶의 전반적인 상태	3.57	3.39	3.45

- 삶의 만족도 각 영역을 취업자와 비취업자와 비교했을 때 삶의 전반적인 상태는 물론 대부분의 영역에서 취업자의 생활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3) 행복도

- 본인의 행복도를 0~10점으로 평가하도록 한 결과, 10점 만점 중 6.06점으로 평가함
- 행복 수준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낮게 평가하고 있는데, 65-69세 응답자는 행복 수준을 10점 기준 6.31점으로 응답한 반면, 75-80세 응답자들은 5.70점으로 응답하여 차이를 보임
- 취업자가 미취업자보다 행복 수준이 높게 조사됨

표 4-68 | 행복도

(단위:%, 점)

구분		표본수 (명)	⑨ 가장 나쁜 상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꼭대 기	평균 (점)
전체		500	0.2	1.0	2.0	8.0	6.6	9.0	23.2	34.8	14.2	1.0	-	6.06
성별	남성	252	-	0.4	2.8	7.1	5.6	11.1	23.0	37.3	11.1	1.6	-	6.08
	여성	248	0.4	1.6	1.2	8.9	7.7	6.9	23.4	32.3	17.3	0.4	-	6.04
연령대	65-69세	180	-	0.6	-	6.1	5.6	8.9	26.1	36.7	13.3	2.8	-	6.31
	70-74세	160	0.6	1.3	1.3	5.6	8.8	6.3	23.1	36.9	16.3	-	-	6.14
	75-80세	160	-	1.3	5.0	12.5	5.6	11.9	20.0	30.6	13.1	-	-	5.70
취업 유무	취업자	174	-	-	0.6	6.9	5.7	6.9	22.4	40.2	16.1	1.1	-	6.34
	미취업자	326	0.3	1.5	2.8	8.6	7.1	10.1	23.6	31.9	13.2	0.9	-	5.90

4. 고양특례시 기업체 설문조사 결과 분석

1) 고양특례시 기업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기본 현황

(1) 응답 업체 종사자규모

- 본 조사의 응답 기업은 5인 이상 사업체가 조사 대상이며 평균 종사자 수는 32.0명임
 -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평균 51.1명, 운수 및 창고업 응답 기업의 평균 종사자 수는 46.2명, 보건업 및 사회 복지 서비스업 26.2명, 도매 및 소매업 22.7명, 제조업 13.3명이 근무하고 있음
- 65세 이상 고령자를 채용하고 있는 기업은 평균 46.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고령자를 채용하지 않은 기업은 평균 17.9명이 근무하고 있음

표 4-69 | 2024년 응답 업체의 현재 기준 근로자 수 분포

(단위:%)

구분		표본수 (개)	5-9인	10-19인	20-49인	50인 이상	평균
전체		150	31.3	33.3	23.3	12.0	32.0
업종	제조업	24	37.5	54.2	4.2	4.2	13.3
	도매 및 소매업	30	43.3	33.3	16.7	6.7	22.7
	운수 및 창고업	21	19.0	33.3	19.0	28.6	46.2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35	34.3	25.7	28.6	11.4	51.1
	보건업 및 사회 복지 서비스업	40	22.5	27.5	37.5	12.5	26.2
채용 여부	고령자 채용기업	75	18.7	30.7	30.7	20.0	46.1
	고령자 미채용 기업	75	44.0	36.0	16.0	4.0	17.9

(2) 응답 업체의 업력 분포

- 응답 기업의 평균 업력은 16.7년임
 - 운수 및 창고업 응답 기업의 평균 업력은 19.0년,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평균 18.3년, 제조업 17.2년,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6.0년, 도매 및 소매업 13.6년으로 응답 되었음
- 65세 이상 고령자를 채용하고 있는 기업의 평균 업력은 17.0년, 고령자 미채용 기업의 업력은 평균 16.3년으로 큰 차이는 없었음

표 4-70 | 응답 업체의 업력 분포

(단위:%, 년)

구분		표본수 (개)	5년 미만	5-9년	10-14년	15-19년	20년 이상	평균
전체		150	5.3	16.0	26.0	17.3	35.3	16.7
업종	제조업	24	-	20.8	29.2	25.0	25.0	17.2
	도매 및 소매업	30	13.3	30.0	13.3	13.3	30.0	13.6
	운수 및 창고업	21	-	9.5	28.6	14.3	47.6	19.0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35	-	5.7	34.3	20.0	40.0	18.3
	보건업 및 사회 복지 서비스업	40	10.0	15.0	25.0	15.0	35.0	16.0
채용 여부	고령자 채용기업	75	2.7	14.7	28.0	20.0	34.7	17.0
	고령자 미채용 기업	75	8.0	17.3	24.0	14.7	36.0	16.3

(3) 평균 정년 연령 현황

- 응답 업체 중 33.3%가 정년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평균 정년 연령은 62.5세임
- 보건업 및 사회 복지 서비스업 응답 기업의 정년 연령은 평균 63.6세,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평균 63.5세, 제조업 62.0세, 도매 및 소매업 61.2세, 운수 및 창고업
60.5세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 65세 이상 고령자를 채용하고 있는 기업의 정년 연령은 평균 62.6세인 것으로 응답 되었으며,
고령자를 채용하지 않은 기업은 평균 62.4세로 조사됨

표 4-71 | 평균 정년 연령 현황

(단위:%, 세)

구분		표본수 (개)	60세 이하	61-64세	65-69세	70세 이상	정년연령 없음	평균
전체		150	17.3	4.0	9.3	2.7	66.7	62.5
업종	제조업	24	12.5	4.2	8.3	-	75.0	62.0
	도매 및 소매업	30	23.3	3.3	-	3.3	70.0	61.2
	운수 및 창고업	21	33.3	-	4.8	-	61.9	60.5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35	11.4	5.7	8.6	2.9	71.4	63.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40	12.5	5.0	20.0	5.0	57.5	63.6
채용 여부	고령자 채용 기업	75	20.0	1.3	9.3	4.0	65.3	62.6
	고령자 미채용 기업	75	14.7	6.7	9.3	1.3	68.0	62.4

(4) 평균 퇴직 연령

- 응답 기업의 주로 퇴직 연령은 평균 55.6세임
 -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응답 기업의 퇴직 연령은 평균 60.8세, 운수 및 창고업 평균 56.6세, 제조업 55.0세, 보건업 및 사회 복지 서비스업 53.5세, 도매 및 소매업은 평균 퇴직 연령이 52.4세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 65세 이상 고령자를 채용하고 있는 기업의 퇴직 연령은 평균 58.1세인 것으로 응답 되었으며, 고령자를 채용하지 않은 기업은 평균 53.2세에 퇴직하는 것으로 조사됨

표 4-72 | 평균 퇴직 연령

(단위:%, 세)

구분		표본수 (개)	50세 미만	50-59세	60-64세	65-69세	70세 이상	평균
전체		150	21.3	29.3	31.3	6.7	11.3	55.6
업종	제조업	24	25.0	37.5	16.7	8.3	12.5	55.0
	도매 및 소매업	30	26.7	36.7	33.3	3.3	-	52.4
	운수 및 창고업	21	14.3	28.6	38.1	-	19.0	56.6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35	11.4	14.3	37.1	14.3	22.9	60.8
	보건업 및 사회 복지 서비스업	40	27.5	32.5	30.0	5.0	5.0	53.5
채용 여부	고령자 채용기업	75	16.0	29.3	25.3	6.7	22.7	58.1
	고령자 미채용 기업	75	26.7	29.3	37.3	6.7	-	53.2

2) 응답 업체의 고용 현황

- 응답 업체의 총 종사자수는 4,803명이고, 이 중 65세 이상 근로자는 1,638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34.1%에 해당
 - 전체 종사자 중 65세 이상 근로자의 비율이 가장 적은 업종은 도매 및 소매업으로 전체 종사자 중 2.9%만 65세 이상 근로자임
 - 반면,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의 경우 총 종사자 중 66.5%가 65세 이상 근로자로 구성됨
- 65세 이상 고령자를 채용한 기업은 전체 종사자 중 47.3%가 65세 이상 근로자로 구성됨

표 4-73 | 전체 종사자 대비 연령대별 고용인력 현황

(단위:명)

구분		표본수 (개)	총 종사자수 (A)	60세 미만	60~64세	65세 이상 (B)	총 종사자 중 65세 이상 근로자의 비율 (B/A, %)
전체		150	4,803	2,548	617	1,638	34.1
업종	제조업	24	318	253	30	35	11.0
	도매 및 소매업	30	680	635	25	20	2.9
	운수 및 창고업	21	970	494	212	264	27.2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35	1,788	394	205	1,189	66.5
	보건업 및 사회 복지 서비스업	40	1,047	772	145	130	12.4
채용 여부	고령자 채용기업	75	3,460	1,290	532	1,638	47.3
	고령자 미채용 기업	75	1,343	1,258	85	-	-

- 종사자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정규직의 비중이 감소
 - 60세 미만 근로자는 94.2%가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반면, 65세 이상 근로자 중에서는 54.9%만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음
- 정규직으로 고용되어 있어도 연령대가 높을수록 급여 수준이 낮음

표 4-74 | 고용 형태, 급여, 근속기간 비교

구분	총 인원(명)			평균 급여(만원)		평균 근속기간(년)	
	정규직	비정규직	합계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60세 미만	2,401	147	2,548	273.9	168.3	6.1	2.3
60세~64세	538	79	617	283.1	158.3	6.2	2.6
65세 이상	900	738	1,638	262.0	158.7	6.8	3.3

표 4-75 | 고용 형태, 급여, 근속기간의 차이 비교

구분	고용 형태 비중(%)			정규직과 비정규직 급여 차이(만원)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속기간 차이(년)
	정규직	비정규직	합계		
60세 미만	94.2	5.8	100.0	105.6	3.8
60세~64세	87.2	12.8	100.0	124.8	3.6
65세 이상	54.9	45.1	100.0	103.3	3.5

3) 고령자의 역량에 대한 평가

- 65세 이상 고령자의 역량을 다른 세대와 비교했을 때, 50% 이상이 ‘고령자의 기술 및 경험(52.0%)’, ‘고령자의 성실성과 책임감(64.7%)’이 다른 세대와 비교했을 때 더 높다고 인식
- 반면 ‘건강과 체력(17.3%)’, ‘생산성(20.7%)’, ‘업무 신속성(22.7%)’, ‘적응력(26.0%)’은 다른 세대와 비교 시 비교적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표 4-76 | 65세 이상 고령자의 역량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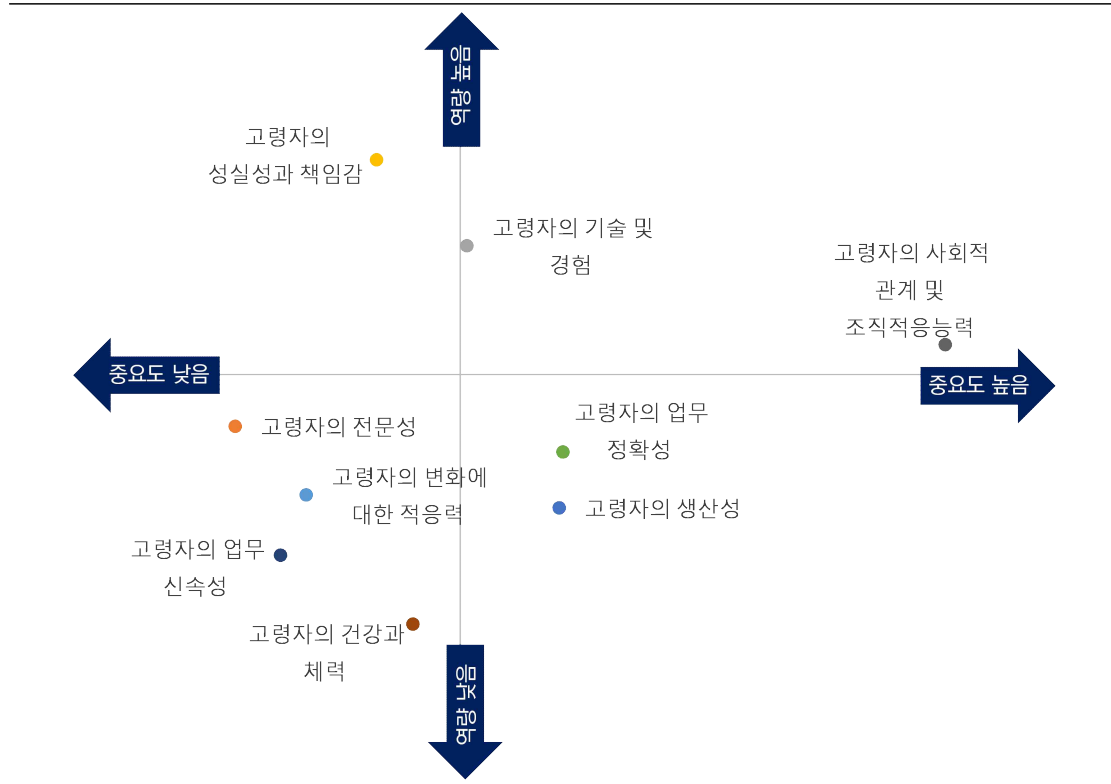
(단위:%)

구분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높음+매우 높음의 비율
고령자의 생산성	2.7	23.3	53.3	12.7	8.0	20.7
고령자의 전문성	1.3	24.7	39.3	23.3	11.3	34.6
고령자의 기술 및 경험	-	10.0	38.0	33.3	18.7	52.0
고령자의 성실성과 책임감	0.7	4.7	30.0	42.0	22.7	64.7
고령자의 변화에 대한 적응력	2.0	29.3	42.7	16.0	10.0	26.0
고령자의 업무 정확성	2.7	26.7	38.7	19.3	12.7	32.0
고령자의 업무 신속성	4.0	36.0	37.3	12.0	10.7	22.7
고령자의 건강과 체력	1.3	48.0	33.3	11.3	6.0	17.3
고령자 사회적 관계 및 조직 적응 능력	1.3	12.0	48.7	23.3	14.7	38.0
직업인으로서의 전반적인 능력	0.7	14.0	50.7	23.3	11.3	34.6

- 65세 이상 고령자들이 다른 세대와 비교했을 때 항목별로 어떠한지를 응답한 항목들이, 직업인으로서 전반적인 능력을 평가하는데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음. 베타계수를 중요도(X축), 5점 척도의 평균 점수를 상대적인 수준(Y축)으로 놓고 비교함
- 4사분면의 가운데 점 중 X축은 11.1(100/9개 항목), 직업인으로서의 전반적인 능력 항목에 대한 평균 점수(3.31점)임
- 고령자의 직업인으로서의 전반적인 능력을 평가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은 ‘고령자의 사회적 관계 및 조직적 능력’과 ‘고령자의 기술 및 경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부분은 다른 세대 대비 고령자의 역량 역시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고령자의 성실성과 책임감’은 다른 세대와 비교했을 때 가장 우수하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해당 요인이 직업인으로서의 능력을 평가하는 요인으로서 중요도가 높지 않았음
- 반면, ‘고령자의 업무 정확성’과 ‘고령자의 생산성’은 직업인으로서 중요한 요인이지만 다른 세대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역량이 낮다고 인식하는 것으로도 분석할 수 있음

그림 4-7 | 직업인으로서 고령자 역량에 대한 중요도와 역량 인식 비교

(단위: 점, %)



※ 종속변수 : 직업인으로서의 전반적인 능력

※ 독립변수 : 생산성, 전문성, 기술 및 경험, 성실성과 책임감, 변화에 대한 적응력, 정확성, 신속성, 건강과 체력, 사회적 관계 및 조직 적응 능력

4) 물리적 고령 친화 노동환경 구축 현황

- 응답 기업의 34.7%(구축됨+잘 구축됨)는 고령자를 고려하여 노동환경이 잘 구축된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특히 보건업 및 사회 복지 서비스업에서 그 비율이 높았음
- 65세 이상 고령자를 채용하고 있는 기업의 46.7%는 고령자를 위한 노동환경을 잘 구축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고령자를 채용하지 않은 기업은 22.7%만 고령자를 위한 물리적 환경이 잘 구축되었다고 응답함

표 4-77 | 고령자 특성을 고려한 물리적 노동환경 구축 정도

(단위:%)

구분		표본수 (개)	전혀 구축되지 않음	구축되지 않음	보통	어느 정도 구축됨	매우 잘 구축됨	어느 정도 구축됨+ 매우 잘 구축됨의 비율
전체		150	3.3	22.0	40.0	26.7	8.0	34.7
업종	제조업	24	-	37.5	45.8	8.3	8.3	16.6
	도매 및 소매업	30	3.3	33.3	33.3	23.3	6.7	30.0
	운수 및 창고업	21	4.8	19.0	38.1	28.6	9.5	38.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35	8.6	17.1	40.0	25.7	8.6	34.3
	보건업 및 사회 복지 서비스업	40	-	10.0	42.5	40.0	7.5	47.5
채용 여부	고령자 채용기업	75	2.7	10.7	40.0	38.7	8.0	46.7
	고령자 미채용 기업	75	4.0	33.3	40.0	14.7	8.0	22.7

5) 고령자 고용 경험

(1) 65세 이상 고령자 고용 경험

- 응답 기업의 50.0%는 현재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40.7% 고령자를 고용해 본 경험이 없으며, 9.3% 과거에 고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현재 또는 과거에 고령자를 고용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4-78 | 고령자 고용 경험

(단위:%)

구분		표본수 (개)	현재 고용하고 있음	과거에 고용한 경험이 있음	고용한 적이 없음
전체		150	50.0	9.3	40.7
종사자	5-9인	47	29.8	17.0	53.2
	10-19인	50	46.0	12.0	42.0
	20-49인	35	65.7	-	34.3
	50-99인	9	77.8	-	22.2
	100인 이상	9	88.9	-	11.1

(2) 고령자의 고용 이유

- 현재 6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과거에 고용했던 업체들의 고용 이유는 산업별로 차이를 보이는 것이 확인됨
- 제조업의 경우 '우수한 업무태도'가 고용의 주된 이유이지만, 운수 및 창고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고용하고 있으며, 도매 및 소매업은 '고령자에게 적합한 직종'이어서 고용한 것으로 조사됨

그림 4-8 | 산업별 고령자의 고용 이유(1+2순위)-고령자 고용 경험 기업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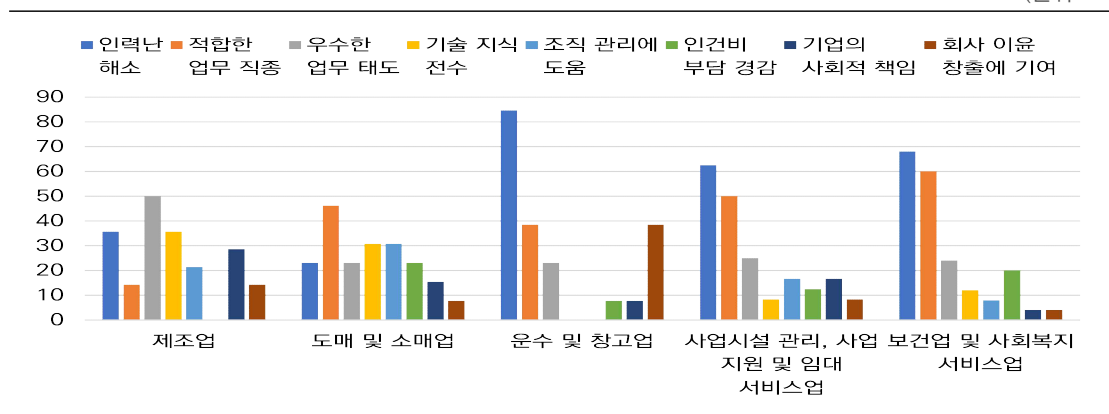


표 4-79 | 고령자 고용 이유_1+2순위-고령자 고용 경험 기업

(단위: %)

구분		표본수 (개)	인력난 해소	고령자 적합한 업무 직종	고령자 우수한 업무 태도	고령자 기술 지식 전수	조직 관리에 도움	인건비 부담 경감	기업의 사회적 책임	회사 이윤 창출에 기여
전체		89	57.3	44.9	28.1	15.7	14.6	13.5	13.5	12.4
업종	제조업	14	35.7	14.3	50.0	35.7	21.4	-	28.6	14.3
	도매 및 소매업	13	23.1	46.2	23.1	30.8	30.8	23.1	15.4	7.7
	운수 및 창고업	13	84.6	38.5	23.1	-	-	7.7	7.7	38.5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24	62.5	50.0	25.0	8.3	16.7	12.5	16.7	8.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5	68.0	60.0	24.0	12.0	8.0	20.0	4.0	4.0
종사자	5-9인	22	31.8	45.5	27.3	27.3	18.2	18.2	27.3	4.5
	10-19인	29	48.3	34.5	34.5	17.2	24.1	13.8	6.9	20.7
	20-49인	23	73.9	52.2	30.4	8.7	4.3	13.0	13.0	4.3
	50-99인	7	71.4	42.9	28.6	14.3	14.3	14.3	14.3	-
	100인 이상	8	100.0	62.5	-	-	-	-	-	37.5

(3) 고령자의 종사상 지위 분포

- 현재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령자를 고용한 경험이 있는 업체들은 91.0%가 '상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임시직'으로 근로하고 있는 경우는 2.2%, '일용직' 형태로 근무하는 경우는 3.4%, '혼합 형태(전일제+시간제+혼합형태)'로 근무하는 경우는 3.4%로 조사됨
 - 제조업은 대부분을 상용직으로 고용한 반면, 전체 종사자 대비 고령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은 임시직 또는 일용직 형태로도 고용하였음
- 현재 고령자를 채용하고 있는 기업은 93.3%의 기업이 '상용직'으로 고령자를 채용하고 있는 반면, 과거에는 고령자를 고용하였으나 현재 고령자를 고용하지 않은 기업은 78.6%만 상용직으로 채용하고, 나머지는 임시직(7.1%), 일용직(14.3%) 형태로 고용하였음

표 4-80 | 고령자의 종사상 지위 분포-고령자 고용 경험 기업

(단위:%)

구분		표본수 (개)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상용직+임시 직+일용직 혼합형태
전체		89	91.0	2.2	3.4	3.4
업종	제조업	14	100.0	-	-	-
	도매 및 소매업	13	84.6	-	-	15.4
	운수 및 창고업	13	92.3	7.7	-	-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24	91.7	4.2	4.2	-
	보건업 및 사회 복지 서비스업	25	88.0	-	8.0	4.0
채용 여부	현재 채용기업	75	93.3	1.3	1.3	4.0
	과거 채용 경험 기업(현재는 미채용)	14	78.6	7.1	14.3	-

(4) 고령자의 근무 형태

- 현재 또는 과거에 고령자를 채용한 경험이 있는 기업 중 73.0%는 '전일제' 형태로 고용하였으며, 20.2%는 '시간제'로 고용
- 현재 고령자를 채용하고 있는 기업은 74.7%가 '전일제'로 고용하고 있는 반면, 임시직이나 일용직 형태로 고령자를 채용하는 비중이 높았던 현재는 미채용 기업은 35.7%가 시간제 형태로 고용했던 것으로 조사됨

표 4-81 | 고령자 근무 형태-고령자 고용 경험 기업

(단위:%)

구분		표본수 (개)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시간제 혼합형태
전체		89	73.0	20.2	6.7
채용 여부	고령자 채용기업	75	74.7	17.3	8.0
	과거 채용 경험 기업(현재는 미채용)	14	64.3	35.7	-
종사자	5-9인	22	59.1	40.9	-
	10-19인	29	89.7	6.9	3.4
	20-49인	23	73.9	13.0	13.0
	50-99인	7	57.1	14.3	28.6
	100인 이상	8	62.5	37.5	-

(5) 고령자 고용 후 인식변화

- 고령자를 고용한 이후 인식변화를 평가했을 때 매우 부정적으로 바뀐 경우는 없었으며, 31.4%(약간 긍정적+매우 긍정적)가 고령자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뀐 것으로 조사됨
 - 제조업과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의 경우 고령자 고용 후 긍정적으로 바뀐 경우가 다른 산업에 비해 많았음
- 고령자의 기술 지식 전수, 고령자의 우수한 업무태도 때문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 때문에 고령자를 채용한 기업 중 30% 이상이 고령자를 고용한 이후 고령 근로자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뀐 반면, 인력난 해소의 목적으로 채용하였거나, 인건비 부담으로 고령자를 채용한 경우는 부정적으로 인식이 변화된 경우도 일부 있었음

표 4-82 | 고용 후 인식변화-고령자 고용 경험 기업

(단위:%)

구분		표본 수 (개)	매우 부정적 으로 바뀜	약간 부정적 으로 바뀜	거의 바뀌지 않음	약간 긍정적 으로 바뀜	매우 긍정적 으로 바뀜	약간 긍정적+ 매우 긍정적인 비율
전체		89	-	6.7	61.8	24.7	6.7	31.4
업종	제조업	14	-	7.1	57.1	21.4	14.3	35.7
	도매 및 소매업	13	-	-	76.9	23.1	-	23.1
	운수 및 창고업	13	-	-	84.6	15.4	-	15.4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24	-	8.3	45.8	37.5	8.3	45.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5	-	12.0	60.0	20.0	8.0	28.0
채용 여부	고령자 채용기업	75	-	5.3	62.7	26.7	5.3	32.0
	과거 채용 경험 기업(현재는 미채용)	14	-	14.3	57.1	14.3	14.3	28.6
고령자 고용 이유 (1순위)	인력난 해소	32	-	9.4	68.8	15.6	6.3	21.9
	고령자에 적합한 업무 직종	23	-	-	69.6	30.4	-	30.4
	고령자의 기술 지식 전수	9	-	-	66.7	22.2	11.1	33.3
	고령자의 우수한 업무태도	8	-	12.5	37.5	25.0	25.0	50.0
	인건비 부담 경감	5	-	40.0	60.0	-	-	-
	기업의 사회적 책임	5	-	-	20.0	60.0	20.0	80.0

(6) 고령자 고용 시 정부 지원 유무

○ 고령자 고용 시 정부 지원을 받은 경우는 14.6%임

- 제조업 28.6%, 운수 및 창고업 23.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16.7%가 고령자 고용 시 정부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었음

○ 정부의 지원은 주로 ‘고령자 고용지원금’ ‘인건비 지원’ 형태임

표 4-83 | 정부 지원 유무-고령자 고용 경험 기업

(단위:%)

구분		표본수 (개)	예	아니오
전체		89	14.6	85.4
업종	제조업	14	28.6	71.4
	도매 및 소매업	13	-	100.0
	운수 및 창고업	13	23.1	76.9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24	16.7	83.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5	8.0	92.0
채용 여부	고령자 채용기업	75	14.7	85.3
	과거 채용 경험 기업(현재는 미채용)	14	14.3	85.7
종사자	5-9인	22	9.1	90.9
	10-19인	29	13.8	86.2
	20-49인	23	13.0	87.0
	50-99인	7	-	100.0
	100인 이상	8	50.0	50.0

6) 고령자 미고용 이유

- 고령자를 고용하지 않은 주 이유로 ‘고령자에 적합한 직무나 직종이 부족하기 때문’이 가장 많았으며, ‘추가 인력 채용 계획이 없어서’ 채용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도 55.7%였음
- ‘고령자의 역량이나 자질이 부족해서 채용하지 않거나(19.7%)’, ‘고령 인력 확보가 어려워서(14.8%)’, ‘조직원 간의 관계 갈등, 분위기 저하(1.6%)’로 채용하지 않은 기업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었음

표 4-84 | 고령자 미고용 이유_1+2순위-고령자 고용 경험이 없는 기업

(단위:%)

구분		표본수 (개)	고령자 적합 직무 직종 부족	추가 인력 채용 계획이 없어서	높은 산재 위험 등 고령 근로자 관리 어려움	고령자의 역량 자질 부족	기업의 정년 규정	고령 인력 확보의 어려움	조직원 간의 관계 갈등, 분위기 저하
전체		61	62.3	55.7	27.9	19.7	18.0	14.8	1.6
업종	제조업	10	80.0	60.0	30.0	20.0	-	10.0	-
	도매 및 소매업	17	47.1	58.8	29.4	17.6	17.6	29.4	-
	운수 및 창고업	8	87.5	12.5	62.5	25.0	-	-	12.5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1	54.5	54.5	18.2	45.5	-	27.3	-
	보건업 및 사회 복지 서비스업	15	60.0	73.3	13.3	-	53.3	-	-

7) 향후 고령자 고용 의향 및 고용 형태

(1) 향후 고령자 고용 의향

- 향후 53.3%의 업체가 고령자를 고용할 것으로 조사됨
- 현재 고령자를 채용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는 88.0%가 향후에도 고령자를 채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현재 채용하지 않는 기업은 향후에도 채용할 의향이 18.7%로 매우 적었음
- 다만, 종사자 규모가 클수록 고령자를 향후에 고용하겠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4-85 | 고령자 고용 의사

(단위:%)

구분		표본수 (개)	예	아니오
전체		150	53.3	46.7
업종	제조업	24	50.0	50.0
	도매 및 소매업	30	50.0	50.0
	운수 및 창고업	21	57.1	42.9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35	48.6	51.4
	보건업 및 사회 복지 서비스업	40	60.0	40.0
채용 여부	고령자 채용기업	75	88.0	12.0
	고령자 미채용 기업	75	18.7	81.3
종사자	5-9인	47	36.2	63.8
	10-19인	50	54.0	46.0
	20-49인	35	57.1	42.9
	50-99인	9	77.8	22.2
	100인 이상	9	100.0	-

(2) 고령자 고용 연령 한계

- 향후 고령자를 고용하겠다는 기업은 주로 65~70세의 고령자를 고용할 것으로 조사됨
- 85.1%의 기업이 고령자의 고용 상한 연령으로 '70세 이상'을 응답
- 전체 종사자 대비 고령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기업은 고용하기 어려운 상한 연령이 72.2세로 다른 산업에 비해 상한 연령이 높은 편임

표 4-86 | 고령자 고용 연령 한계-고령자 고용 의향이 있는 기업

(단위:%, 세)

구분		표본수 (개)	70세 미만	70-74세	75-80세	81세 이상	평균
전체		80	15.0	66.3	17.5	1.3	71.0
업종	제조업	12	41.7	41.7	16.7	-	70.6
	도매 및 소매업	15	13.3	80.0	6.7	-	70.0
	운수 및 창고업	12	16.7	75.0	8.3	-	70.4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7	-	70.6	23.5	5.9	72.2
	보건업 및 사회 복지 서비스업	24	12.5	62.5	25.0	-	71.3

(3) 고령자 종사상 지위

- 향후 고령자 채용 의향이 있는 기업 중 73.8%는 ‘상용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함
- 고령자를 채용 중인 기업은 77.3%가 ‘상용직’으로 고용할 의향이 있는 반면, 현재 고령자를 채용하지 않은 기업은 57.1%만 ‘상용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여 차이를 보임

표 4-87 | 고령자 종사상 지위-고령자 고용 의향이 있는 기업

(단위:%)

구분		표본수 (개)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상용직+임시 직+일용직 혼합형태
전체		80	73.8	8.8	8.8	8.8
업종	제조업	12	83.3	16.7	-	-
	도매 및 소매업	15	60.0	6.7	20.0	13.3
	운수 및 창고업	12	91.7	-	-	8.3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7	76.5	17.6	5.9	-
	보건업 및 사회 복지 서비스업	24	66.7	4.2	12.5	16.7
채용 여부	고령자 채용기업	66	77.3	7.6	6.1	9.1
	고령자 미채용 기업	14	57.1	14.3	21.4	7.1

(4) 고령자 근무 형태

- 고령자를 고용할 의향이 있는 업체의 65.0%가 고령자의 근무 형태로 ‘전일제’ 형태를 가장 많이 선호함
- 고령자를 채용하지 않은 기업이 고령자를 채용 중인 기업보다 ‘시간제’와 ‘혼합형태(전일제+시간제)’를 더 선호함

표 4-88 | 고령자 근무 형태-고령자 고용 의향이 있는 기업

(단위:%)

구분		표본수 (개)	전일제	시간제	전일제+시간제 혼합형태
전체		80	65.0	22.5	12.5
업종	제조업	12	91.7	8.3	-
	도매 및 소매업	15	46.7	33.3	20.0
	운수 및 창고업	12	75.0	8.3	16.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7	70.6	23.5	5.9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4	54.2	29.2	16.7
채용 여부	고령자 채용 기업	66	69.7	19.7	10.6
	고령자 미채용 기업	14	42.9	35.7	21.4

8) 고령자 미고용 이유 및 정부 지원 시 채용 의향

(1) 고령자 미고용 이유

- 1+2순위 기준, 고령자 고용 경험이 있으나 향후 고용계획이 없는 기업의 58.6%가 고령자를 고용하지 않는 이유로 ‘고령자 적합 직무 직종 부족’을 가장 높게 응답하였음
 - ‘추가 인력 채용 계획이 없어서’ 55.7%, ‘고령자의 역량 자질 부족’ 27.1%, ‘높은 산재 위험 등 고령 근로자 관리 어려움’ 25.7%, ‘기업의 정년 규정’ 18.6%, ‘고령 인력 확보의 어려움’ 11.4%, ‘조직원 간의 관계 갈등, 분위기 저하’ 2.9% 순으로 응답됨
- 제조업과 도매 및 소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경우 고령자를 고용하지 않는 이유로 ‘고령자 적합 직무 직종 부족’을 높게 응답한 반면, 운수 및 창고업은 ‘높은 산재 위험 등 고령 근로자 관리 어려움’,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은 ‘고령자의 역량 자질 부족’을 높게 응답함
- 고령자를 채용 중인 기업이 고령자를 채용하지 않은 기업보다 ‘높은 산재 위험 등 고령 근로자 관리 어려움’과 ‘고령자의 역량 자질 부족’을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음

표 4-89 | 고령자 미고용 이유_1+2순위-고령자 고용 경험 있으나 향후 고용계획이 없는 기업

(단위:%)

구분		표본수 (개)	고령자 적합 직종 부족	높은 사재 위험 등 고령 근로자 관리 어려움	고령자 역량 의 자질 부족	조직원 간의 관계 갈등, 분위기 저하	기업의 정년 규정	추가 인력 채용 계획이 없어서	고령 인력 확보의 어려움
전체		70	58.6	25.7	27.1	2.9	18.6	55.7	11.4
업종	제조업	12	75.0	25.0	33.3	-	-	58.3	8.3
	도매 및 소매업	15	60.0	13.3	6.7	-	26.7	66.7	26.7
	운수 및 창고업	9	66.7	77.8	33.3	11.1	-	11.1	-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8	44.4	16.7	55.6	5.6	5.6	55.6	16.7
	보건업 및 사회 복지 서비스업	16	56.3	18.8	6.3	-	50.0	68.8	-
채용 여부	고령자 채용기업	9	44.4	44.4	55.6	-	-	44.4	11.1
	고령자 미채용 기업	61	60.7	23.0	23.0	3.3	21.3	57.4	11.5

(2) 정부 지원 시 채용 의향

- 고령자 고용 경험은 있으나 향후 고용계획이 없는 기업 중 88.6%는 정부 지원을 받아도 고령자를 고용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하였음
- 65세 고령자를 채용하고 있는 기업의 22.2%는 향후 정부에서 지원 시 고령자를 채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현재 고령자를 채용하고 있지 않은 기업의 90.2%는 향후 정부 지원을 받아도 고령자를 채용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하였음

표 4-90 | 정부 지원 시 채용 의향-고령자 고용 경험 있으나 향후 고용계획이 없는 기업

(단위:%)

구분		표본수	예	아니오
전체		70	11.4	88.6
업종	제조업	12	8.3	91.7
	도매 및 소매업	15	6.7	93.3
	운수 및 창고업	9	-	100.0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8	11.1	88.9
	보건업 및 사회 복지 서비스업	16	25.0	75.0

채용 여부	고령자 채용기업	9	22.2	77.8
	고령자 미채용 기업	61	9.8	90.2

9) 65세 이상 고용 확대를 위해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

- 고령자를 고용할 의향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65세 이상 고령자 고용을 위해 필요한 정책 지원을 조사한 결과, 70% 이상이 인건비나 세제 지원 등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
 - ‘인건비 지원(75.1%)’, ‘고용지원금 확대(77.6%)’, ‘세제감면(75.0%)’, ‘사회보험료 지원(73.8%)’ 등에 대해 70% 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 그 외 ‘직업 훈련 확대 강화(60.0%)’, ‘건강증진 프로그램 제공(57.5%)’, ‘시간제 일자리 지원 확대(55.0%)’, ‘고령자 전문 취업 알선·연계 기능 강화(55.0%)’ 등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 반면 ‘고령자 적합 직무 개발(46.3%)’, ‘사업장 안전시설 지원 강화(48.8%)’와 같은 간접 지원에 대한 수요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임

표 4-91 | 65세 이상 고용 확대를 위해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고령자 고용 의향이 있는 기업

(단위:%)

구분	매우 필요 하지 않음	필요 하지 않음	←	—	→	필요함	매우 필요함	필요함 +매우 필요함 의 비율
고령자 인건비 지원	-	-	1.3	15.0	8.8	21.3	53.8	75.1
고령자 고용지원금 확대	-	1.3	-	12.5	8.8	16.3	61.3	77.6
고령자 적합 직무 개발	12.5	2.5	2.5	18.8	17.5	18.8	27.5	46.3
시간제 일자리 지원 확대	16.3	8.8	-	11.3	8.8	27.5	27.5	55.0
사업장 안전시설 지원강화	5.0	6.3	2.5	17.5	20.0	28.8	20.0	48.8
세제감면	1.3	1.3	-	6.3	16.3	17.5	57.5	75.0
사회보험료 지원	3.8	2.5	-	2.5	17.5	22.5	51.3	73.8
고령자 직업 훈련 확대 강화	2.5	6.3	3.8	16.3	11.3	32.5	27.5	60.0
고령자 건강증진 프로그램 제공	2.5	8.8	6.3	10.0	15.0	27.5	30.0	57.5
고령자 전문 취업 알선·연계 기능 강화	8.8	5.0	6.3	12.5	12.5	27.5	27.5	55.0

제5절 분석의 종합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지표와 지표 적용 결과와 세부 사항들을 조사하기 위해 실시 된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지표영역을 기준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1. 고령자 생산지표 고용영역 지표 분석 종합

1) 고용영역 결과지표 분석 종합

- 고양시 고령자 고용 현황을 고용영역 결과지표 분석 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유사 인구 도시와 비교해 볼 때 고양시 고령자 고용률(28.2%)과 임금(219만 원)은 높고 최저 임금 미달 근로자 비율(22.8%)은 낮은 편이라 긍정적임. 그러나 최저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고령자가 5명 중 1명이고 후기고령자의 경우는 거의 2명 중 1명이 최저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부분임
- 반면, 저임금근로자 비율(43.3%)이 다소 높고, 일자리 만족도가 높지 않으며, 성별, 연령대 차이가 크게 나타나 이 부분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연소고령자의 경우 월평균 임금액이 타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고 최저 임금, 저임금근로자가 타 지자체에 비해 낮은 편인 반면, 전기고령자의 임금액 및 최저 임금 저임금근로자 비율이 높아 연소고령자와 전기고령자의 고용 현황의 차이가 큼을 알 수 있음
- 고용률이 여성(18.8%)은 남성(40.3%)에 절반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낮고 특히 75세 이상의 경우는 그 차가 매우 큼. 월평균 임금액 여성의 임금액이 남성의 59%로 매우 낮은 편이고 여성과 후기고령자의 최저 임금 미달 근로자, 저임금근로자 비율이 매우 높은 편으로 여성과 후기고령자의 일자리가 취약함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임금과 같은 근로조건이 좋지 않은 여성의 일자리 만족도가 남성보다 높아 일자리 만족도는 객관적인 사항을 반영하는 것보다 주관적인 부분이 크고 여성의 경우에는 남성보다 임금과 일자리에 대한 기대가 낮아 임금 등 일자리 환경에 대한 수용도가 높은 결과로 유추할 수 있음. 근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근로조건과 함께 기대치와 현황과의 차이의 조율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1) 고용영역 배경지표 분석 종합

- 고령자 고용 결과지표에 영향을 주는 배경지표는 개인의 욕구를 측정하는 개인 차원 지표와 사회의 정책과 사회문화적 특성을 측정하는 사회 차원 지표로 구성됨

(1) 개인 차원

- 고령자들은 일자리 지속 의사가 크고 미취업 고령자 중에서도 일을 하고 싶어하는 고령자가 많음. 또한 기업이 생각하는 한계 연령보다 고령 당사자가 일을 하기를 희망하는 연령이 높아 고령자의 취업 욕구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음
- 특히 여성 고령자는 취업 지속 의사와 미취업자의 취업 의사가 남성 고령자에 비해 많이 낮지만 노인 일자리에 있어서는 남성 노인보다 참여 욕구가 높아 일자리 마련에 있어 성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함
- 고령자들의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욕구가 높고 실제 일하는 시간(평균 일주일 38시간)보다 희망하는 시간은 더 적다는 결과를 고려하면 고령자에겐 정형화된 일자리보다는 비정형 일자리, 유연 근무에 대한 정책 마련이 필요함

(2) 사회적 차원

- 고령자 고용 결과지표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차원의 지표 중 정책 지표로 고용서비스 기관으로 고령자를 전담하는 고용서비스 기관으로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수는 19개소로 수원 26개보다는 적은데 고양시가 4개 지자체 중 노인 일자리 실적이 제일 높은 점과 수행기관의 업무 부담 정도를 고려해 볼 때 수행기관 추가 확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고용서비스 이용률은 42.3%로 상당히 많은 고령자가 고용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취업 알선 서비스, 취업 정보 제공, 취업 상담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음. 그러나 취업 정보 접근 용이성은 중간보다 낮고 특히 여성 고령자의 접근성이 낮아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고령자 인구 대비 노인 일자리 비율은 5.8%로 전국 인구 대비 노인 일자리 비율이 10.8%라는 점과 노인 일자리에 대한 고령자의 욕구를 고려해 볼 때 공공일자리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고양시의 민간 일자리 수는 인구 규모 유사 도시에 비해 상당히 적은 편으로 고양시의 자족 기능과 고령자 취업 기회와 선택의 폭을 확장하기 위해 고양시 민간 일자리 확대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민간기업의 고령자 고용의향률은 53.3%로 현재 고령자를 채용하고 있는 기업은 88%가 채용할 의사가 있고 채용하지 않는 기업도 18.7%가 채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으며 종사자 규모가 클수록 고령자를 향후 고용하겠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므로 규모가 큰 기업을 중심으로 고령자 고용에 대한 홍보 및 취업 연계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일자리 근로 기대 기간이 향후 4년으로 현재 취업 노인의 평균연령이 70.5세임을 고려해 볼 때 74세까지는 일이 가능한 상황으로 볼 수도 있음

- 고양시 일자리 수준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중간보다 낮게 나와(2.66점) 취업에 관심이 있는 고령자들이 고양시의 일자리에 대해서 역량에 부합하는 일자리가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 수준 있는 일자리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함. 고양시 고용정책 만족도는 중간 수준으로 지금보다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고용과 관련된 사회문화적 특성을 나타내는 지표 중, 고령자 고용에 있어 우리 사회가 연령으로 인한 차별을 한다고 인식하는 고용상 연령차별 인식 지표값이 중간보다 높고(3.49점) 직장 내 연령차별 경험률도 21.3%로 5명 중 1명은 연령차별을 경험하는 등 지표가 양호하다 할 수 없음. 직장 내 차별 내용으로 일하기에 너무 나이가 많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 경우가 51.4%라 가장 많고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리는 기회에서 제외, 나이로 인한 특정 업무 배제, 나이로 인한 업무능력 평가 절하 등을 경험하고 있음. 이는 사업체, 고령자,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고용상 연령차별 관련 인식개선 프로그램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물리적 고령 친화 노동환경 구축 정도는 보통 수준 이하로 평가하였고 취업자의 16.7%만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다고 평가하였으며 향후 구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31.6%가 안전한 작업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30.5%는 쾌적한 휴게공간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고령자 고용 사업체를 우선으로 물리적 고령 친화 노동환경 구축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하고 전 사업체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더불어 고령 친화 환경에 대한 인식 개선 등 고령 친화 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

2. 고령자 생산지표 역량과 교육영역 지표 분석 종합

1) 역량과 교육영역 결과지표 분석 종합

- 고양시 고령자의 고용 관련 역량 정도를 평가한 역량과 교육영역의 결과지표 분석 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고양시 고령자는 고졸 이상과 대졸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고령자의 비율이 높은 편으로 교육 관련 역량을 높다고 할 수 있음. 학력에 있어서 연령별, 성별 차이가 분명하므로 교육 수준을 고려하여 성별 연령대별 일자리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고학력자를 위한 고령자 일자리 마련이 필요함
- 고양시 취업 고령자의 임금 수준이 타 지자체에 비해 높은 반면, 가구 월 소득은 다소 낮은 편임. 취업 유무에 따라 가구 월 소득액이 차이가 많고 고령자의 73.8%가 경제적 수준이 중하, 또는 하라고 응답하였으며 일을 하는 이유도 70% 가까이 생계비 마련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고령자의 고용정책과 더불어 소득지원 정책도 필요함을 시사함

- 주관적 신체 건강 수준은 중간 수준으로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양호한 편이며 우울 증상 유병률은 다소 높은 편으로 생산적인 노화를 위해서는 우울에 대한 예방 및 개입 정책도 강화될 필요가 있음
-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역량은 중간 수준 이하로 낮은 편이며 특히, 여성과 후기고령자의 활용 역량이 떨어짐. 특히 취업자가 미취업자에 비해 정보통신기술을 잘 활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높지만 오피스 프로그램 부분에서는 취업유무와 상관없이 역량이 매우 낮음. 앞으로 업무 양식의 변화, 세대 간 교류 등을 고려하면 정보통신기술은 고령자 고용에 있어 필수 역량이므로 역량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사회적 관계 역량은 중간 이상의 역량을 가지고 있으나 업무나 단체 활동에서 필요한 의사소통, 감정 및 행동 조절 등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사회적 관계 역량은 역시 중요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교육 및 인식 증진이 필요함

2) 역량과 교육영역 배경지표 분석 종합

(1) 개인 차원

- 취업자 및 취업 희망자의 직업 교육 참여율은 9%로 남성 고령자와 연소고령자가 높으나 직업 교육 희망률에 있어서는 20.9%가 직업 교육을 희망하며 여성 고령자와 후기고령자가 직업 교육 희망률이 높은 것을 고려할 때 여성 고령자와 후기고령자에게 직업 교육의 기회를 보다 많이 제공할 필요가 있음

(2) 사회적 차원

- 고령자 역량과 교육 결과지표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차원의 지표 중 정책 지표로 직업 교육 기관 수는 고양시는 90개로 중간 수준이며 직업 교육을 참여한 고령자가 평가한 직업 교육 참여 용이성과 만족도가 다소 높게 평가되고 있고 직업 교육 후 취업률도 68.4%로 높은 편이지만 직업 교육을 받은 표본 수가 적어 이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역량과 교육영역 관련된 사회문화적 특성을 나타내는 지표 중 고령자가 생각하는 사회 전반의 고령자 역량 수준에 대한 인식 평가 정도는 중간 수준보다 다소 낮고, 고령자의 19%만 사회에서 고령자 역량을 높이 평가한다고 생각하고 있음
- 반면 민간기업의 고용주는 고령자 고령자의 역량을 중간 이상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고령자 고용기업과 미고용 기업의 ‘고령자의 직업인으로서의 전반적인 능력’에 대한 평가를 비교하면 고령자 고용기업이 고령자 미고용기업에 비해 훨씬 높은 평가를 하고 있음. 고령자의 역량에 대한 기업들의 평가에 대해 고령자와 주위 기업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도 있음

- 고령자의 역량과 교육과 관련된 사회문화적 특성으로 교통, 이동 편리성에 대한 인식은 중간 이상으로 높게 평가하지만 덕양구가 교통, 이동 편리성을 가장 높게 평가하고 일산동구, 일산서구 순으로 교통 편리성을 다르게 평가하고 있으므로 만족도가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고령자가 직업 훈련, 일자리 등의 이동 시 불편하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3. 기타

1) 행복도

- 본인의 행복도를 0~10점으로 평가하도록 한 결과, 10점 만점 중 6.06점으로 평가함
- 행복 수준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낮게 평가하고 있는데, 65~9세 응답자는 행복 수준을 10점 기준 6.31점으로 응답한 반면, 75~80세 응답자들은 5.70점으로 응답하여 차이를 보임
- 취업자가 미취업자보다 행복 수준이 높게 조사되어 생산활동이 고령자의 행복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요소임이 확인됨

2) 삶의 만족도

- 삶의 만족도 각 영역을 취업 고령자와 미취업 고령자와 비교했을 때 삶의 전반적인 상태에 대한 만족도는 물론, 대부분의 영역에서 취업 고령자의 생활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되어 행복도와 마찬가지로 생산활동이 고령자 삶의 전반 뿐 아니라 각 영역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이 확인됨

제5장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활동 강화 방안

제1절 고령자 생산활동 강화 방안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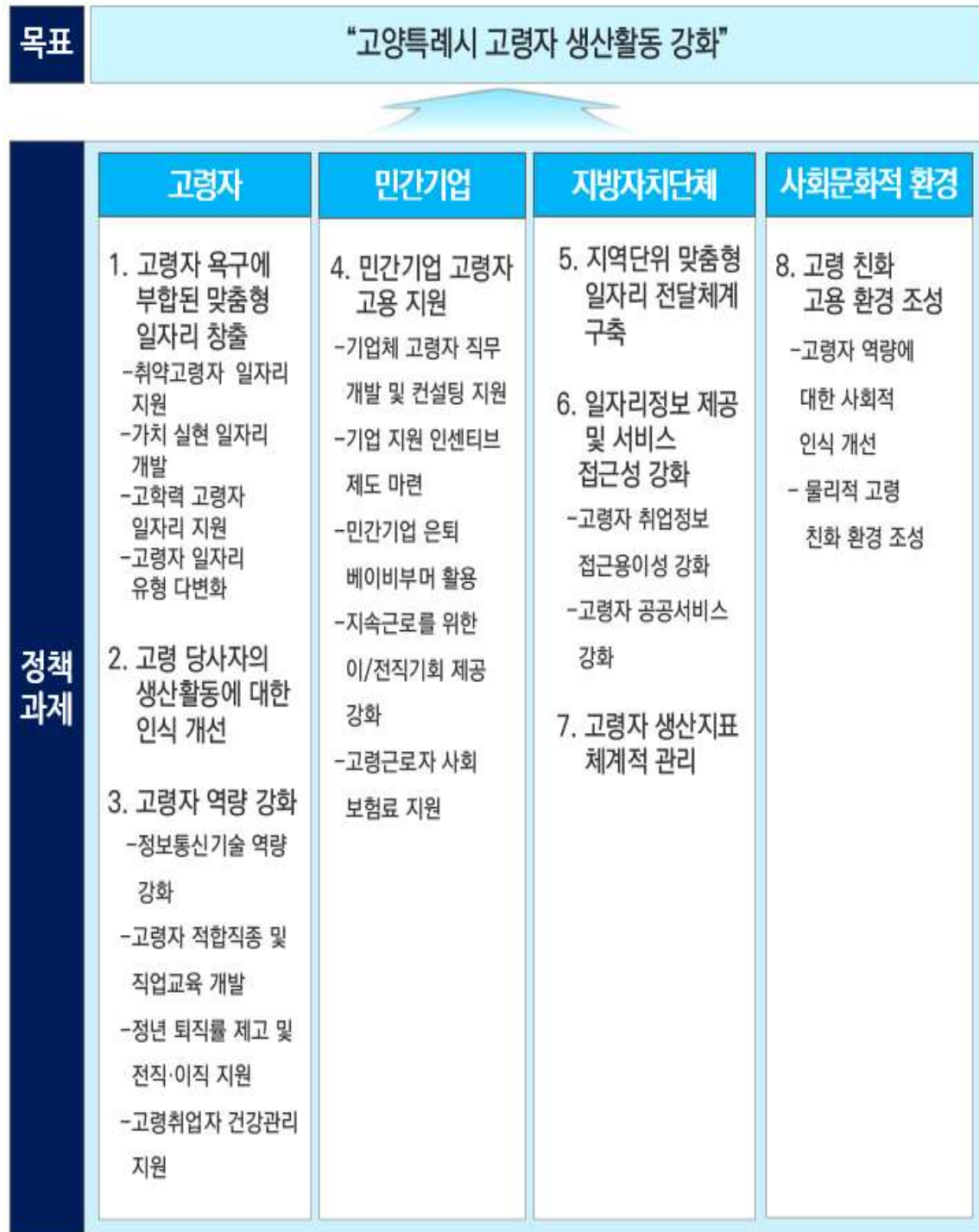
제2절 고령자 생산활동 강화 정책과제

제3절 연구 의의와 후속 연구

제1절 고령자 생산활동 강화 방안 체계

- 고령자 생산활동은 고령자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며 사회 전반의 발전에 기여하는 활동으로 중요한 정책과제의 대상이 됨
- 고령자 생산활동은 고령자 개인 차원에서도 단순한 소득 활동을 넘어서 고령자 개인의 심리·정서적인 요소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건강 유지, 심리안정, 자아실현 등에 도움이 되는 활동이라 할 수 있음. 본 연구에서도 생산활동을 하는 취업 고령자와 그렇지 못한 미취업 고령자의 행복도와 생활 전 영역에 걸친 만족도가 큰 차이를 보여 생산활동이 고령자 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본 연구는 고령자 생산지표를 적용하여 현재 고양시 고령자 생산활동을 진단하였고 본 장에서는 그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고양시의 고령자 생산활동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고령자 생산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고령자 욕구와 역량을 고려하여 그에 부합되는 생산활동 지원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고령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생산활동에 대한 인식 전환 정책을 마련할 필요도 있음. 또한 고령자의 생산활동의 중요한 장이 되는 민간기업에 대한 정책, 지역의 일자리 개발 및 직업 훈련 등 공공 일자리 정책, 친고령 사회 구축을 위한 사회문화적 차원의 정책 등 다차원인 접근이 필요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령자 생산활동 강화 방안 체계를 고령자, 민간기업, 지방자치단체, 사회문화적 환경 4대 영역에 따른 8대 정책과제로 제시함

그림 5-1 | 고령자 생산활동 강화 방안 체계(4대 영역 8대 과제)



제2절 고령자 생산활동 강화 정책과제

정책과제 1. 고령자 욕구에 부합된 맞춤형 일자리 창출

고령자 생산지표 적용 결과 고용과 관련하여 성별, 연령대별로 매우 다른 결과가 도출됨. 즉 고령자 집단 내에 이질적인 특성이 포착되고 있으며, 이는 다양한 역량, 욕구(생산 동기)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줌. 고령자 집단을 보다 세분화하여, 정책집단을 설정하고 집단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고령층 일자리의 수요·공급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1) 취약 고령자 일자리 지원

- 고령자의 고용률과 월평균 임금은 연령과 성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임. 따라서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취업이 취약한 고령자에 집중해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고용주들이 고령자의 역량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고령자의 연령대별 고용률에서 후기고령자의 고용률이 낮고 여성 고령자의 고용률은 남성의 절반도 되지 않으므로 후기고령자와 여성 고령자와 같은 취업이 취약한 고령자를 우선 대상으로 일자리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1) 노인 일자리 확대 및 내실화

- 정부 재정 지원 일자리인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대부분 75세 이상 후기고령자보다는 전기고령자의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후기고령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통한 안정적 소득 창출이 필요함
- 정부의 재정 지원 일자리 배정량 협의 과정에서 75세 이상 후기고령자를 노인 일자리 사업에 우선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재정 지원 일자리에 후기고령자에게 적합한 고양시 차원의 지역 일자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 고양시는 유사 인구 도시에 비해 노인 일자리 사업이 활성화되어 있으나 고령자의 공공일자리 욕구에 비하면 일자리 수와 수행기관이 부족하므로 노인 일자리 사업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취업이 취약한 고령자를 위해 노동강도가 높지 않은 공익형 일자리 확대와 더불어 사회적 수요가 높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 서비스 신규 영역을 발굴하고 민관 협력형 사회 서비스 선도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사회 서비스형이 활성화될 수 있는 수행기관

의 사업개발 능력을 위한 지원도 필요함

(2) 사회참여 일자리 마련

- 75세 이상 고령자의 76.9%는 일하지 않기를 원함. 고령에 따른 건강 약화 등으로 일을 중단하고 싶지만, 생계, 부양 등을 위해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후기고령자를 위한 생계지원 혹은 기초적인 활동을 통해 소득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참여 활동 지원 필요함
- 최저 임금 일자리라도 근로 부담이 낮은 일자리를 마련하여 고령자 중에서도 고용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은 고령, 여성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 고령자의 건강 관리 등 돌봄에 대한 예방적 차원에서 정부의 노인 공공일자리 방식 외에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할 경우 참여 수당을 지원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고령자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 요양보호사와 같은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고령자들이 자신의 연령대에 맞는 일을 하면서 동시에 사회적 기여도 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이 필요함

2) 가치 실현 일자리 개발

- 취업 희망 응답자 중 주로 생계비 마련이 목적인 반면, 전체 고령자의 22.5%는 용돈 마련과 건강 유지, 능력 발휘 목적의 일을 희망함
- 노년의 경력과 역량을 활용하여 다양한 문화 활동 및 사회 기여 활동은 고령자의 인생을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줄 수 있음
- 예로 희망자의 문화적 소양과 지적 소양 등을 활용한 다양한 활동을 (예: 자서전, 공동시집, 예술공연 및 기록물, 공동 수예 작품, 그림)을 생산활동으로 전환하는 교육 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으며 고령자 협동조합 설립으로 공동의 경제활동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공유하고 고령자들의 전문성을 살려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고령자 자발 모임을 지원할 수 있음

3) 고학력 고령자 일자리 지원

- 고학력 고령자 인구가 늘어나면서 고령자의 생산성도 변화될 가능성이 높음. 특히 학력이 높은 고령자의 경우 취업에 대한 욕구도 높게 나타났으므로 현재 단순 노무, 저임금 위주의 고령자 일자리에서 벗어나 파워시니어(power seniors)들을 활용한 일자리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고학력자들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한 컨설팅, 멘토링, 강의 등 일자리를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고학력 고령자를 위한 전문직 일자리 창출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고학력 고령자들이 기술 분야에 적응할 수 있도록 IT기술 및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해야 함
- 창업 자문 서비스, 금융 지원, 네트워킹 기회 등을 제공하는 창업 지원 프로그램 강화, 제3섹터 영역에서 고령자의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창업모델 개발 지원(사회적 경제조직 진출 지원)도 필요함

4) 고령자 일자리 유형 다변화

- 고령자 가운데 시간제 형태의 근로를 희망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고 상용근로자보다는 임시 또는 일용근로자를 희망하는 비율이 훨씬 많은 점을 고려할 때 고령자에게는 기존의 정형화된 일자리, 편찮은 일자리 기준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고령자 희망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일자리 유형 다변화가 필요함
- 여성·후기고령자의 생산활동 참여 제고를 위한 정책으로 고령 근로자 맞춤형 시간제 일자리 확대가 필요하며 시간제 근로를 촉진할 수 있는 일자리 수요 개발이 필요함
- 근로 시간이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짧은 초단시간 근로 형태인 미니잡(mini job) 형태의 일자리를 확대 보급하는 정책과제와 전략과제 수립도 필요함. 이 외, 체력에 따라서 중노동에서 경 작업으로 바꾸는 직무순환(Job Rotation), 노동시간의 자유 선택, 작업 시간의 단축제도 실시할 수 있음
- 취업자의 희망 대비 실제 근무 시간이 성별, 연령대별 모든 집단에서 100%를 초과하고 있음. 장시간 고용은 현재 취업한 고령자 뿐 아니라 구직을 고려하는 고령자에게 진입 장벽으로 작동할 수 있음. 약 70%의 고령자는 전일제 근무 형태를 희망하고 시간제 일자리가 정규직 일자리에 대해 비례적으로 좋은 일자리가 아니라는 현실을 고려할 때, 노동시간이 짧은 전일제 일자리 마련도 필요함

정책과제 2. 고령자의 생산활동에 대한 인식개선

- 지금까지 고령자 취업이 저소득층 고령자의 노후 소득지원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고령자 취업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이라 할 수 있음. 고령자의 일은 생계유지를 위해 일하는 빈곤한 노인의 이미지와 연결되어 있고 실제로 고령자의 70%가량이 생계비 마련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음
- 특히, 여성 고령자의 경우 남성 고령자와 비교하여 취업률과 취업 의사가 현저히 낮고 노인 일자리 사업 공익사업과 같이 보호를 받는 일자리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통적으로 여성보다는 남성이 일을 하여 생계를 책임지는 가부장제 문화의 영

향이라고 볼 수도 있음

- 생산활동은 소득을 위한 수단일 뿐 아니라 고령자가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며 여가 활용과 자기 효능감 향상 등의 다양한 효과가 있으므로 고령자 고용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함
- 정년퇴직 또는 조기퇴직 이후, 평균 기대수명까지는 긴 시간이 있으므로 이 시간적 여유를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고 보람된 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생산적 노화 및 활동에 대한 인식 증진 프로그램이 필요함
- 이를 위해 취업사례를 공유하거나, 고령자가 취업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심리 지원, 멘토링 프로그램, 생산활동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등을 할 수 있음

정책과제 3. 고령자 역량 강화

- 고양시는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고령자의 평균 학력 수준 및 고용률과 월평균 임금액은 높고 이는 고양시 고령자의 인적 자원 수준과 활용률이 비교적 높은 상태임을 의미함. 그러나 시대의 변화와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했을 때 장기적으로 더 많은 고령자가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령자의 취업 역량 강화 정책이 필요함

1) 정보통신기술 역량 강화

- 선행연구에 따르면 디지털 역량은 생산적 노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로 강조되고 있음. 디지털 기술의 발전 상황을 고려하여 정보통신기술 활용 역량을 높일 수 있는 훈련을 마련해야 함
- 이번 실태조사 결과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역량은 중간 수준 이하로 낮은 편이며 특히 여성과 후기고령자의 활용 역량이 떨어짐. 특히 취업자가 미취업자에 비해 정보통신기술을 잘 활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높지만 오피스 프로그램 부분에서는 취업 유무와 상관없이 역량이 매우 낮게 나왔음
- AI시대에 정보기술의 활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고령자의 디지털 기술 활용 역량 강화 프로그램 마련(디지털 기초 교육 제공 및 온라인 일자리 플랫폼 연계 교육 등) 등에 관한 정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사업체 수요가 높은 연소고령자를 대상으로, 사업체에서 요구되는 컴퓨터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적합한 교육 과정 개발과 함께 실습 및 체험교육이 가능한 교육 공간 확보 등을 통해서 취업 전 직무역량 강화가 필요함

- 고양시 관내 노인복지관과 연계하여 구직 희망 노인을 대상으로 정보통신 역량에 맞는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민간 및 공공분야 취업 연계 추진할 수도 있음
- 정보통신 교육 과정 이수자에게는 고양시에서 이수증을 발급하여 교육과 취업이 상호 연계될 수 있는 제도적 체계 구축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2) 고령자 적합 직종 및 직업 교육 개발

- 직업 교육 희망률은 20.9%이지만 참여율은 9.5%에 불과하여 직업 교육의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 발굴이 필요함
- 노인은 신체적 특성과 전직 경험 등에서 있어서 다른 연령대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전문 맞춤형 직업 교육 과정 개발을 통해서 직업 교육 수료 후 바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먼저 취업한 고령자와 구직을 준비 중인 고령자 간의 1:1 멘토링 등을 통해 고령자의 고용 역량 강화 및 실전 직무역량 강화 지원이 필요함

3) 정년퇴직률 제고 및 전직·이직 지원

- 고령자 고용촉진법상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정년 연령이 60세인 사업체가 많은데 고양시의 평균 정년 연령은 62.5세로 법정 정년보다 높음. 그러나 퇴직 연령은 평균 55.6세로 약 6세 낮게 나타나 정년이 되기 전에 퇴직하는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고령자의 질 좋은 일자리 대안은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근로하는 것임. 따라서 고령시 조기 퇴직하는 이유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 등을 통해 정년이 보장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고양시 고령자 일자리 유지 우수기업 선정, 포상 등 인센티브 등을 제공할 수 있음
- 더불어 고양시는 50대 중반에 퇴직하지만 70세가 넘어서 일하고 있고 이는 퇴직 후에도 근로 의사가 있는 고령자가 많음을 의미함. 따라서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통해 좋은 일자리로 전직 혹은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정부가 2020년 5월 1,000인 이상 기업에 의무화한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활성화하거나 노사발전재단 중장년내일센터의 생애 경력설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고용 시 만의 전직·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할 수도 있음
- 고령자는 변화 적응력 낮은 점을 고려하여 직무 전환 대비한 재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새로운 환경 적응 지원 방안 필요함

4) 고령 취업자 건강 관리 지원

- 고령자의 건강은 고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량 중의 하나임
- 고양시 고령자의 우울 유병률이 타 지자체 비해 다소 높게 나왔으므로 우울증 완화 및 신체적, 정신적 건강 예방 활동 등이 필요함
- 고양시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고령 근로자의 건강 관리를 위해 혈압기 제공, 간단한 운동기구 지원 등도 검토해 볼 수 있음

정책과제 4. 민간기업 고령자 고용 지원

1) 기업체의 고령자 직무 개발 및 컨설팅 지원

- 고령자를 고용하지 않는 사업체의 주된 이유는 고령자에게 적합한 직무가 없기 때문으로 나타난 만큼, 고령자 적합 일자리 조성 등(특정 직무의 단계별 분업을 통한 일자리 생성 등)을 위한 컨설팅 서비스 등을 통해 일자리 발굴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고령자 측면에서는 과거 주된 일자리 경험에 연계하여 자신이 보유한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고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전략 직종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
- 기업 측면에서는 고숙련 고령자를 위한 직무 개발 및 모델 표준화가 필요함. 이를 위해 기업체의 고령자 고용 유인을 강화하기 위한 직무 개발, 컨설팅 등 지원이 필요함

2) 민간기업 지원 인센티브 제도 마련

- 민간 일자리의 경우, 다양한 정부 지원 중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원하는 경향이 있어 고령 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기업은 고령 근로자의 계속 고용으로 숙련된 노동력을 사용할 수 있고, 근로자는 임금이 단절되는 위험을 피할 수 있음. 고령 근로자의 특성, 선호 변화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근로 시간을 줄이면서, 생산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3) 민간기업 은퇴 베이비부머 활용

- 민간기업에서 은퇴한 베이비부머들이 그들의 전문적 역량을 활용하여 벤처, 스타트업, 또는 청년창업 회사 등을 대상으로 멘토링 또는 마케팅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은퇴자들이 벤처기업이나 처음 창업한 회사를 대상으로 회계와

세무 관리, 투자유치, 특허권 관리, 조직개편, 조직문화 등과 같은 부분에 대한 멘토링이 가능할 것임. 그리고 이들 간에 상호 연계가 가능하도록 중개하는 플랫폼 마련이 필요함

4) 지속 근로를 위한 이/전직 기회 제공 강화

- 취업자 중 74.7%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였고, 일부는 다른 직종으로 이직을 원함. 미취업자 중 21.8% 일하기를 원함.
- 초기 노년층의 이직/전직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 필요. 다른 직종으로 이직을 원하거나, 일하고 싶지만 일하지 못하는 고령자를 위한 일자리 연계 필요
- 원하는 일자리에 맞는 직무역량을 강화하거나(훈련),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안내,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직업정보 제공과 취업연계)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초기 노년층의 직무역량을 고령자 고용을 원하는 일자리의 직무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고령자 채용기업 맞춤형 고령자 직업 훈련 프로그램 개발하고 고령자를 위한 구직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온라인 직업정보 취합, 연결을 위한 AI 등을 활용한 직업상담과 연계 프로그램 추진 등 필요
-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에 따라 이직(취업 기회 제공 등)과 전직(역량 교육 등)으로 나누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취업 능력이 떨어지는 고령자들이 한시적 참여 조건으로 공공일자리에서 다양한 일과 훈련 경험을 쌓고, 반대로 민간 일자리에서 실업을 당하면 공공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해야 함

5) 고령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 사업체에서 사회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3.8%로 인건비 지원만큼 높게 나타남. 그런데 65세 이상은 국민연금은 의무 가입 대상도, 임의가입 대상도 아님. 고용보험의 경우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적용 제외 대상임
- 결국 사회보험 중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이 남는데 이 가운데 사업체에서 어떤 보험료 지원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고양시만의 정책(고양시 형 사회보험 지원 사업)으로 설계할 수도 있을 것임

정책과제 5. 지역 단위 맞춤형 일자리 전달체계 구축

- 고령자 고용 행정체계가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로 분리되어 있어 고령자 고용 행정체계

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일본의 경우, 고령자 취업에 있어서 노동성과 후생성으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2002년 후생노동성으로 통합시켜서 이러한 조직체계 간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였음

- 이런 맥락에서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지역 단위에서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하는 종합적 지원전달체계로 고령자 일자리 거점기관(가칭 고양시 노인일자리지원센터)를 구축함으로써, 고령자 인력풀 확보, 고령자를 위한 구직 상담, 직업 능력 평가, 직업탐색, 교육훈련 제공, 취업 알선 등 다양한 고용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거점기관에서는 고령자 적합 일자리의 개발과 관리, 고령자 일자리 수행기관의 전문성 강화, 고령자 적합 직종 개발, 고령자 전직 경험에 기반한 DB구축, 종합정보 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기업과 구직 고령자 간 매칭도 전담하여 고령자를 중심으로 한 일자리 종합서비스를 제공함
- 거점기관에서는 고양시 고령자 생산지표를 관리하고 고령자 생산지표의 결과지표로서 고용률과 임금 수준 그리고 일자리 만족도, 고령자 역량이 향상될 수 있도록 배경지표를 향상하기 위해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음

정책과제 6. 일자리 정보 제공 및 고용서비스 접근성 강화

1) 고령자 취업 정보 접근 용이성 강화

- 실태조사에 따르면 구직의 50.3%가 친구, 친지 소개 및 부탁 형태로 개인의 사회적 관계망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령자 고용서비스 부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고령 친화적 고용서비스 제공, 고령자의 취업 정보 접근 용이성을 개선해 더 많은 고령자가 고용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고령자에 적합한 고용서비스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 방안을 수립해야 함

2) 고령자 고용을 위한 직업 교육, 취업 지원 등 공공서비스 강화

- 직업 교육 참여 희망률은 20.9%인데, 참여율은 9.5%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 고령자의 경우 교육훈련이 일자리의 양적/질적 성과를 담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고양시는 경제수준이 높은 시민이 많고 고령자 중에서도 고학력, 전문직의 고령자들이 있으므로 우선 정책 대상으로 선정하고 교육훈련을 통해 취업으로 연계하면 성과가 있을 가능성이 높음
- 폴리텍대학 신중년 특화프로그램 등과 연계하거나 노사발전재단 중장년내일센터 등과 연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방법 등을 고민할 수 있음

정책과제 7. 고령자 생산지표 체계적 관리

- 고령자 생산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고령자 생산지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표에 근거하여 정책을 추진해야 함
- 고령자 생산지표는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측정 결과에 대한 DB를 구축하여 고양시 고령자 생산활동 수준이 어떠한 추세로 변화하는지, 지표의 변화 추세가 사회의 변화와 시정의 흐름과 어떻게 부합하는지에 대해 다각적인 평가 필요
- 고양시 고령자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안정적 제도로써 ‘(가칭)’ 고양시 고령자 생산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고령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산활동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생산활동을 위한 기본원칙, 시장의 책무 등을 명시하고 지속적인 지표 관리 및 실태조사 실시, 이에 근거한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된 사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 고령자 생산활동 활성화를 위해 고령자 생산활동의 중요성과 고령 당사자,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에 대해 고령자, 기업체, 공무원,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인식 확산 운동이 필요함

정책과제 8. 고령 친화 고용 환경 조성

1) 고령자 역량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부정적인 인식개선

- 취업 경험이 있는 고령자 가운데 고령자에 대한 편견을 경험한 비율이 높고, 고령자를 고용한 경험이 없는 사업체의 고령자 역량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고령자 취업을 저해해 생산성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고령자 역량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확산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요구됨
- 기업에서 고령자를 고용한 이후 고령자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령자를 아직 고용해 보지 않았던 기업에 고용자를 고용하는 효과성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2) 물리적 고령 친화 환경 조성

- 소수 응답자만 고령자를 고려한 물리적 노동환경 구축되었다고 응답한 결과를 볼 때 고령자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 필요함
- 작업 공간의 물리적 환경 개선 사항으로는 고령자의 신체 능력 감소를 고려하여, 작업 공

- 간의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책상, 인체공학적 의자, 미끄럽지 않은 바닥재와 같은 안전한 작업 도구를 제공하고, 자동화 보조기구 지원, 휴게공간 및 편의 시설 제공 등이 있음
- 사업체를 대상으로 고령 근로자에게도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일의 중요성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인증제도 도입 등 유인책이 마련되어야 함

제3절 연구 의의와 후속 연구

1. 연구 의의

1) 고령자 생산활동과 관련된 첫 종합지표로서 의미가 큼

- 본 연구는 고령자 생산성을 크게 고용, 교육 및 역량 영역으로 정의하고, 이를 측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하고자 하였음.
- 고령자 생산활동에 대한 연구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으나 고령자 고용을 중심으로 한 종합지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음
-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유사한 연구로 활동적 노화 지표 연구 등이 있으나 활동적 노화 지표는 사회참여, 건강, 안전 등 세 영역을 포괄적으로 다루어 고용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지 못했음
- 그 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한국 어르신의 일과 삶의 패널'과 같은 조사는 노인 일자리 및 활동적 노화에 관한 종단 데이터 구축을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고령자의 생산활동 수준을 나타내는 바로미터 지표는 아니기 때문에 본 연구와 상이하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못한 고령자 생산활동 수준을 파악하고 이를 활용하여 달성해야 할 목표치를 산출할 수 있는 종합지표 개발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이러한 시도는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기 진입과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는 천만 노인 시대를 맞이한 현시점에서 시의적절함

2) 고령자 생산활동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정책 방향성을 제시함

- 지금까지 고양시 고령자의 고용과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지 못했는데 본 연구에서 고령자 생산지표를 적용하여 고령자 생산활동 현황과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고양시 고령자 생산활동 실태와 정책 방향성을 제시함

3) 지자체 단위의 고령자 고용정책을 추진하는 유인 기제가 될 수 있음

- 지역 중심의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사회문화적 특성, 경제적 현황, 지리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일자리 개발이 중요함
- 적합 일자리 개발은 자칫 미시적 관점에서 지역 상품을 개발하고, 일자리를 연계하는 등의 일자리 아이템 개발로 이해할 수 있으나, 좀 더 거시적 관점에서 고양특례시의 경제적, 사회문화적 자원을 활용하여 확대 가능한 일자리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포함함.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고령자 생산활동 지표를 통해 지역 내 고령자가 생산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수요 공급적 특성, 환경적 특성을 파악하고, 이러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적합 일자리를 개발, 확대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안하였음
- 본 연구가 고령자들의 사회참여 권리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특히 지자체 단위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유인 기제가 될 수 있음
- 고령자 생산지표는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활동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이기도 하지만, 시도 단위의 지역별 고령자 생산활동 현황(실태)을 비교 분석해 볼 수 있는 지표로 의의가 있음

4) 고령자 고용에 있어 공공일자리, 민간기업을 정책 대상으로 통합적 접근을 시도함

- 지금까지 고령자 생산활동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생산활동의 핵심이 되는 고령자 고용에 대한 지방정부 차원의 연구는 거의 없었음. 뿐만 아니라 고령자 고용은 주로 공공분야인 노인 일자리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본 연구는 민간기업을 정책 대상으로 포함하여 고령자 고용을 통합적 관점에서 다루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음

2. 후속 연구

1) 실태조사 시 충분한 표본 수 확보

- 지표 측정에 있어 공개된 행정자료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표를 측정하였으나 본 연구에서의 고령자 표본 수가 500명으로 표본오차는 크지 않지만 지표에 따라 표본 수가 부족한 경우가 발생함. 직업 교육을 받은 고령자 샘플 수가 19명으로 직업 교육 후 취업률은 본 결과를 통해 일반화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향후 설문조사에서 고령자 샘플 수를 확대하거나 지표 중 직업 교육 후 취업률은 실태조사와 별도의 측정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사업체 실태조사도 산업 중 고령 근로자가 많은 5개 업종, 5인 이상 기업을 조사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나 보다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하여 샘플 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지속적 지표 측정 및 관리를 통한 종단연구 진행

- 본 연구는 고령자 생산지표를 처음 적용한 연구로 횡단 분석만 가능했고 지표의 변화 및 추이 등을 가늠할 수 없었음
- 앞으로 정기적으로 고령자의 생산활동을 측정하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과거를 분석하고 현재를 측정하며 이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종단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3) 고용 의사 없는 기업 대상 심층 조사

- 고령자 고용 경험은 있으나 향후 고용계획이 없는 기업의 88.6%가 정부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고령자 고용 의사가 없다고 응답하였는데 이 기업들을 대상으로 추후 심층 조사를 실시하여 이유 등 정확한 실태 파악 및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4) 고령자 생산활동의 가치, 효과에 대한 논의 필요

- 고령자 고용 등 생산활동 가치와 기업체가 고령자를 고용함으로써 유발되는 비용 절감 효과 등을 화폐적 가치로 환산하여 산출하는 등 논의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5) 고령자 범위 확대 검토

- 본 연구에서 고령자는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정의하였으나 은퇴 전부터 전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고려할 때 고령자 범위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상 고령자 기준인 55세 이상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6) 생산활동 범위 확장 검토

- 본 연구에서는 고령자 고용 활성화 정책을 목적으로 생산활동의 범위를 생산활동에 대한 협의적 개념을 적용하여 고용과 역량 및 교육 중심으로 진행되었음. 고용을 중심으로 한 생산활동에 대한 정책이 활성화되면 추후에는 돌봄, 자원봉사활동 등 사회 기여 활동을 포괄할 수 있도록 생산활동에 대한 범위 확장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국내문헌]

- 강경호, & 김지훈. (2009). 한국 노인의 성공적인 노화요인의 구조분석. 한국노년학, 29(1), 71-87.
- 이주일, 강연욱, 김지현, & 유경. (2011). 생산적 노화에 대한 세대간 인식차 및 생산적 노화 척도의 타당성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24(1), 1-27.
- 강욱모, & 김지훈. (2014). 베이비부머의 성공적 노화 주요변인 간의 인과관계 연구. 노인복지연구, 65, 341-360.
- 강은나, 최경덕, 이상우, 최유정, 김명일, 문성현, & 박소정. (2022). 고령자의 일과 사회 활동 정책 모니터링과 과제. Han'guk Pogŏn Sahoe Yŏn'guwŏn.
- 강혜규. (1998). 한국의 공공복지전달체계 개편 실험의 성과 분석.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구 연세사회복지연구), 5, 1-36.
- 고윤순, & 이정숙. (2009). 노인대학에 참여하는 농촌노인의 도구적 일상생활 능력.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11(2), 226-235.
- 고재욱, & 이동열. (2011).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삶의 만족도와 정책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31(4), 1209-1228.
- 고호태. (2012). 비용편익분석을 통한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제적 효과성 연구. 노인복지연구, 58, 61-87.
- 권구영, & 최정민. (2007). 노인일자리 참여경험과 삶의 질 간의 관계-전라남도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38), 51-78.
- 권용식. (2009). 고령자 고용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한-미간 비교연구-미국의 SCSEP 과 한국의 노인일자리사업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46(1), 383-407.
- 권중돈. (2019). 노인복지법 개정의 동향과 전망. 한국노년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9(1), 42-55.
- 길태영, & 이진용. (2017). 베이비부머의 생산적 활동과 성공적 노화의 관계에서 성격특성과 행복감의 매개효과. 사회복지정책, 44(4), 103-126.
- 김경호, & 김지훈. (2009). 한국 노인의 성공적인 노화요인의 구조분석. 한국노년학, 29(1), 71-87.
- 김대희, 강현철, & 한상우. (2007). 국방 관련 법령의 용어와 문장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 김동배, & 박은영. (2007). 여성노인의 생산적 활동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노인복지연구, (38), 339-358.

-
- 김미곤. (2006). 노인일자리사업의 사회경제적 효과. 서울: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김미혜. (2001). 생산적 복지와 노인고용정책. 사회과학연구논총, 7, 187-213.
- 김민영, 이효주, 유정모, & 박성민. (2018). 교육훈련이 개인 및 조직 차원의 전이효과 기대감에 미치는 영향 연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신임관리자 교육훈련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7(1), 103-139.
- 김문정. (2024). 노동환경변화와 민간 취업형 노인일자리 발전 과제. 한국노인복지학회 학술대회, 257-269.
- 김복태. (2022). 남녀 고령자의 고용현황 및 취업실태 분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1-103.
- 김수린. (2021). 신노년세대를 위한 노인일자리사업 개편방향 모색. 한국노인복지학회 학술대회, 109-118.
- 김수영. (2009).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 사전교육의 효과성. 노인복지연구, 43, 331-351.
- 김용원. (2008). 고령자 고용촉진방안에 관한 연구: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경제연구, 26(2), 107-137.
- 김용탁. (2007).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정책 연구: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서울도시연구, 8(4), 211-228.
- 김정석, & 조현연. (2017). [기획논문] 인구고령화 시대, 생산적 노화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사회과학연구, 24(2), 7-28.
- 김주현, & 김지혜. (2012). 법규정상에 나타난 고연령자 명명(命名)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노년학, 32(4), 1147-1162.
- 김진욱. (2006). 한국 노인의 생활시간에 관한 연구-2004 년 생활시간조사 자료에 나타난 노인의 일, 가족, 여가생활 분석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32(1), 149-177.
- 김춘기. (2012). [우수정책사례] 강원 영월군 농기계임대은행: “부족한 일손 농기계임대로 도와드립니다~”. 월간 공공정책, 83, 69-70.
- 김현정, 고수연, 정희원, 이지선, & 임지영. (2009). 고령은퇴남성의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21, 253-280.
- 김현정, 이정은, & 한성민. (2010). 세대간 지원교환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47, 265-288.
-

-
- 김형수. (2003). 노인부양의 한계와 생산적 고령화 방안. 노인복지연구, 22, 175-192.
- 김환일. (2009). 일본 기업의 고령자 고용을 위한 인사, 임금제도 혁신전략 연구. 한일경상논집, 45, 3-43.
- 남기민, & 최화강.(2009). 취업노인의 생산적 활동요인과 성공적 노화 간의 관계: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45, 347-371.
- 남기철. (2008). 노인일자리사업 중장기 발전 전략.
- 노준희. (2014). 농촌거주 여성노인의 성공적 노화 모형.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라규원, & 이해중. (2017). 전기노인과 후기노인의 가계의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비교 분석.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구 보건경제연구), 23(2), 37-60.
- 라진구. (2009). 고령자 재취업 및 직종선택의 결정요인과 정책에 관한 연구: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류장수. (2009). 지역고용정책의 국제비교 연구: 덴마크, 프랑스, 네덜란드 사례를 중심으로: 덴마크, 프랑스, 네덜란드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 17(2), 77-97.
- 문정란. (2011). 노인의 생산적 활동에 대한 영향요인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33, 131-160.
- 박경숙. (2003). 55 세 이상 고령자의 노동시장 이탈 과정; 은퇴의 유형화에 대한 함의. 노동정책연구, 3(1), 103-140.
- 박경아, 김다혜, & 오명화. (2023). 노인의 신체능력과 자기효능감이 활동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21, 14(1), 953-965.
- 박삼옥, 진종현, & 구양미. (2008). 서울의 인구고령화와 고령자 고용의 지역적 특성. 대한지리학회지, 43(3), 337-357.
- 박선권. (2013). "생산적 노화" 개념에 대한 비판적 고찰.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3, 172-200.
- 박소정, & 한태영. (2019). 중장년 근로자의 멘토링과 사회참여 연구-고용경쟁력과 나이역전 저항성의 상호작용. 인적자원관리연구, 26(5), 39-55.
- 박정호. (2012). 취업 고령자의 특성과 생산적 활동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생산적 활동의 상호작용 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9(4), 59-81.
- 박종희. (2009). 고령자고용정책의 법적 기초 및 입법적 가능 수단에 관한 연구. 안암법학, (29), 225-264.
- 박진희. (2023). 65세 이상 고령자 고용 증가 현황과 원인 및 시사점. 고용이슈, 8-27.

-
- 배재윤, & 최보라. (2020). 초고령사회 액티브 에이징 (Active Aging) 을 위한 필수요건 탐색. 한국체육학회지, 59(4), 235-250.
- 백인경, & 우광제. (2008). 디자인의 유사 판단에 관한 소고: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49(1), 211-246.
- 백정민. (2018). 노인의 신체적 여가활동과정에서 나타난 생산적 노화 메커니즘 분석. 한국체육과학회지, 27(4), 25-35.
- 변재관. (2001). 21 세기 노인복지정책의 전망과 과제. 노인복지연구, 14, 251-274.
- 송기민, 정진욱, & 안재신. (2023). 한국· 미국노인에 있어 지역사회 AIP (Aging in place) 를 위한 물리적 고령친화도시환경 중요요인 비교연구. 장기요양연구, 11(3), 67-89.
- 송일호 · 박명호. (2012). “고령자와 준 고령자의 취업결정요인 비교분석”, 사회과학연구, 제19권 제2호.
- 송현주, 임란, & 왕승현. (2019). 중고령자의 근로욕구에 관한 연구. [NPS] 국민연금공단.
- 심익경. (2010). EU 와 한국의 노인고용정책에 관한 연구. 임상사회사업연구, 7(3), 17-32.
- 심인선. (2002). 우리나라 노인의 직업훈련 실태와 과제. Andragogy Today, 5(2), 23-41.
- 안주엽. (2005).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2005~2020).
- 윤형호, 황진수, & 임석. (2007). 서울시 고령재취업자의 직종선택의 결정요인. 한국노년학, 27(4), 721-737.
- 윤희숙. (2016). 일자리 사업 심층평가의 시사점. KDI FOCUS, 73, 1-8.
- 이민홍, & 이재정. (2012). 부산시 고령친화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19(2): 7-26.
- 이병희. (2021). 중고령자 계속고용 촉진의 필요성과 지원 방안. 한국노동연구원.
- 이삼식. (2016).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016년 1월 통권 제231호, pp.51-65
- 이상철. (2003). 정보화시대의 직업의식의 변화와 새로운 직업윤리의 특징. 국민윤리연구, 54(1), 209-238.
- 이석원. (2010).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시간활용 변화와 적극적 노년생활. 노인복지연구, 49, 51-79.
- 이영선. (2012). 지역 노인고용정책 추진체계의 특성분석.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2 (4), 1-23.

-
- 이원섭. (2007). 초광역경제권 중심의 국토발전방향. 국토정책 Brief, (163), 1-6.
- 이은석, 안찬우, & 조건상. (2017). 한국 신노년층의 회복탄력성과 생산적 노화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융합학회논문지, 8(5), 255-263.
- 이은석, 황희정, 심승구, 조건상, & 안찬우. (2017). 한국 신노년층의 생산적 노화를 위한 회복탄력형 여가 프로그램 알고리즘 검증.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5).
- 이재흥. (2010). 미국의 고령자 고용 동향과 고용정책. 국제노동브리프, 8(3), 42-56.
- 이향란. (2012). 생산적 활동, 자아존중감, 주관적 안녕감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노인의료복지연구, 4(2), 107-120.
- 장지연, 김대일, 신동균, 조준모, 조용만, & 김정한. (2004). 고령화시대의 노동시장과 고용정책 (II). 한국노동연구원.
- 전명숙, 김중섭, 임상훈, 오민홍, & 전윤구. (2009). 지역인적자원개발과 지역고용 거버넌스. 한국노동연구원.
- 전현중, 김종한, 박성익, & 류장수. (2009). 지역의 산업기술인력 공급구조 분석: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 17(1), 145-164.
- 전혜정. (2004). 한국 노인의 비공식적 지원제공과 정신건강. 노인복지연구, 26, 337-361.
- 정경희, 한경혜, 김정석, & 임정기. (2006). 노인문화의 현황과 정책적 함의: '성공적 노화' 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천후섬. (2014). 노인 평생교육의 실태와 평생학습의 효과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 최성재. (1986). 노인의 생활 만족도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 최희경. (2010). "신노년" 정책 담론에 대한 비판적 재검토: 활동적 노화, 성공적 노화, 생산적 노화를 중심으로: 활동적 노화, 성공적 노화, 생산적 노화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17(3), 41-65.
- 홍혜영. (2005). 노인의 생산적인 활동이 성공적인 노화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 함남희. (2018). 노인의 경제생활 여건과 정책 방향. 보건복지포럼, 264, 31-43.
- 황진수, 최성재, 김태현, 이가옥, 유성호, & 변재관. (2001). 고령자 취업 활성화 방안. 한국노년학, 21(1), 93-118.
-

[국외문헌]

- Abd Karim, N., & Haron, H. (2022). Conceptual Model of Productive Ageing to Support Intrinsic Value Activities through ICT Services. *International Journal of Academic Research in Progressive Education and Development*, 11(3).
- Angus, J., & Reeve, P. (2006). Ageism: A threat to “aging well” in the 21st century. *Journal of applied gerontology*, 25(2), 137–152.
- Bass, B. M., & Avolio, B. J. (1993).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nd organizational culture. *Public administration quarterly*, 112–121.
- Butler, R. N., & Schechter, M. (1995). Productive ageing. In J. L. Maddox (Ed.), *The encyclopedia of ageing. A comprehensive resource in gerontology and geriatrics*. New York: Springer.
- Caro, F. G., & Bass, S. A. (1995). Dimensions of productive engagement. *Older and active: How Americans over*, 55, 204–216.
- Dommaraju, P., & Wong, S. (2021). The concept of productive aging. In *Assessments, treatments and modeling in aging and neurological disease* (pp. 3–11). Academic Press.
- Estes, C. L., Mahakian, J. L., & Weitz, T. A. (2001). A political economy critique of ‘productive aging’. *Social Policy and Aging: A Critical Perspective*, 187–199.
- Ferreira, O. G. L., Maciel, S. C., Costa, S. M. G., Silva, A. O., & Moreira, M. A. S. P. (2012). Active aging and its relationship to functional independence. *Texto & Contexto-Enfermagem*, 21, 513–518.
- French, J. A., Williamson, P. D., Thadani, V. M., Darcey, T. M., Mattson, R. H., Spencer, S. S., & Spencer, D. D. (1993). Characteristics of medial temporal lobe epilepsy: I. Results of history and physical examination. *Annals of Neurology: Official Journal of the American Neurological Association and the Child Neurology Society*, 34(6), 774–780.
- Gladwin, M. T., Crawford, J. H., & Patel, R. P. (2004). The biochemistry of nitric oxide, nitrite, and hemoglobin: role in blood flow regulation. *Free Radical Biology and*

-
- Medicine*, 36(6), 707–717.
- Haque, M. A., & Afrin, S. (2022). Active Aging Index in Bangladesh: A comparative analysis with a European approach. *Ageing International*, 47(3), 447–464.
- Herzog, T. R. (1989). A cognitive analysis of preference for urban nature.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9(1), 27–43.
- Irshad, C. V., Lekha, P. P. S., Azeez, E. A., & Rajan, S. I. (2023). Active and productive ageing in India: evidence from the time use pattern of ageing adults. *BMC geriatrics*, 23(1), 718.
- Karim, N. A., Haron, H., Adnan, W. A. W., & Abdullah, N. (2018). Dimensions for Productive Ageing. In Recent Trends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Proceedings of the 2nd International Conference of Reliabl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RICT 2017) (pp. 781–788).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 Kaye, L. W., Butler, S. S., & Webster, N. M. (2003). Toward a productive ageing paradigm for geriatric practice. *Ageing International*, 28, 200–213.
- Kooij, D. T., Zacher, H., Wang, M., & Heckhausen, J. (2020). Successful aging at work: A process model to guide future research and practice.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13(3), 345–365.
- Mathews, G. (2023). Beyond ‘Productive Aging’: *An Argument for ‘Happy Aging’*. *Journal of Cross-Cultural Gerontology*, 1–17.
- Morrow-Howell, N., & Gonzales, E. (2024). Explicating ageism in the productive aging framework. *The Gerontologist*, 64(7), gnad156.
- Papadopoulos, M., Patria, M., & Triest, R. K. (2017). Population aging, labor demand, and the structure of wages. *The Geneva Papers on Risk and Insurance-Issues and Practice*, 42, 453–474.
- Peng, D., & Fei, W. (2013). Productive ageing in China: development of concepts and policy practice. *Ageing International*, 38, 4–14.
- Ramely, A., Ahmad, Y., & Harith, N. H. M. (2016). Productive ageing: The opportunities
-

-
- and challenges faced by the labour workforce in Malaysia. *International Journal of Business, Economics and Law*, 11(3), 27–32.
- Shaw, J. D., Park, T. Y., & Kim, E. (2013). A resource-based perspective on human capital losses, HRM investments,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34(5), 572–589.
- Simonsick, E. M., Wallace, R. B., Blazer, D. G., & Berkman, L. F. (1995). Depressive symptomatology and hypertension-associated morbidity and mortality in older adults. *Psychosomatic medicine*, 57(5), 427–435.
- Strawbridge, W. J., Wallhagen, M. I., & Cohen, R. D. (2002). Successful aging and well-being: Self-rated compared with Rowe and Kahn. *The gerontologist*, 42(6), 727–733.
- Strober, M. H. (1990). Human capital theory: Implications for HR managers. *Industrial Relations: A Journal of Economy and Society*, 29(2), 214–239.
- Uesugi, L. M. C. (2010). Productive ageing in Japan. *China Journal of Social Work*, 3(2–3), 165–180.
- Van der Meer, M. (2006). Productivity among older people in The Netherlands: variations by gender and the socio-spatial context in 2002–03. *Ageing & Society*, 26(6), 901–923.
- Visaria, A., & Dommaraju, P. (2019). Productive aging in India. *Social Science & Medicine*, 229, 14–21.
- Warburton, J., & Peel, N. M. (2008). Volunteering as a productive ageing activity: the association with fall-related hip fracture in later life. *European Journal of Ageing*, 5, 129–136.
- WHO. (2002). *Active Ageing: A Policy Framework*. World Health Organization.

[관련기사]

고용노동부. (2023.11.13.).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3년 10월 노동시장 동향.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정책브리핑 자료. <https://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56599357>

고용노동부. (2023.11.13.).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3년 10월 노동시장 동향.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보도자료. <https://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99376>

통계청. (2022).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통계청.

통계청(KOSTAT). (2020). 고령자 경제활동 현황 보고서. 통계청.

통계청(KOSTAT). (2023). 2023년 10월 고용동향. 통계청.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23). 노동환경변화에 따른 민간형 노인일자리 발전 방안: 최종결과보고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BBC NEWS 코리아. (2021년 7월 6일). 아이슬란드 주4일제 실험, 압도적 성공으로 평가. BBC NEWS 코리아.

UN 경제사회국(DESA). (2023). 세계 경제 보고서 2023: 고령 인적자본의 경제 사회적 기여 전망. 유엔 경제사회국.

부록

[부록 1] 고양특례시 고령자 대상 생산활동 관련 설문조사 결과

[부록 2] 고양특례시 기업체 대상 고령자 생산활동 설문조사 결과

부록 1 고양특례시 고령자 대상 생산활동 관련 설문조사

1. 응답자 현황

표 6-1 | 응답자 특성

(단위:%)

구분		표본수 (명)	%
전체		500	100.0
성별	남성	252	50.4
	여성	248	49.6
연령대	65-69세	180	36.0
	70-74세	160	32.0
	75-80세	160	32.0
취업 유무	취업자	174	34.8
	미취업자	326	65.2
취업 의사	하고싶지않음	299	59.8
	하고싶음	201	40.2
지역	덕양구	250	50.0
	덕양북부	125	25.0
	덕양남부	125	25.0
	일산동구	125	25.0
	일산서구	125	25.0
세대 유형	1인 가구	114	22.8
	부부세대	328	65.6
	2세대 또는 3세대 함께 거주	58	11.6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54	10.8
	중학교 졸업	129	25.8
	고등학교 졸업	292	58.4
	대학교 졸업	25	5.0

(→계속)

(단위:%)

구분		표본수 (명)	%
전체		500	100.0
기초 수급 여부	기초생활수급자	33	6.6
	자금은 아니지만, 과거에 수급자였던 적이 있음	10	2.0
	아님	457	91.4
경제 수준 평가	하	144	28.8
	중하	225	45.0
	중	119	23.8
	중상 이상	12	2.4
건강 수준 평가	나쁨 (나쁨+매우나쁨)	101	20.2
	보통	207	41.4
	좋음 (좋음+매우 좋음)	192	38.4

표 6-2 | 성별

(단위:%)

구분		표본수 (명)	남성	여성
전체		500	50.4	49.6
성별	남성	252	100.0	-
	여성	248	-	100.0
연령대	65-69세	180	51.1	48.9
	70-74세	160	50.0	50.0
	75-80세	160	50.0	50.0
취업 유무	취업자	174	65.5	34.5
	미취업자	326	42.3	57.7
취업 의사	하고싶지않음	299	39.8	60.2
	하고싶음	201	66.2	33.8
지역	덕양구	250	50.4	49.6
	덕양북부	125	50.4	49.6
	덕양남부	125	50.4	49.6
	일산동구	125	50.4	49.6
	일산서구	125	50.4	49.6
세대 유형	1인 가구	114	38.6	61.4
	부부세대	328	54.3	45.7
	2세대 또는 3세대 함께 거주	58	51.7	48.3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54	42.6	57.4
	중학교 졸업	129	34.1	65.9
	고등학교 졸업	292	57.5	42.5
	대학교 졸업	25	68.0	32.0
기초 수급 여부	기초생활수급자	33	57.6	42.4
	자금은 아니지만, 과거에 수급자였던 적이 있음	10	50.0	50.0
	아님	457	49.9	50.1
경제 수준 평가	하	144	52.1	47.9
	중하	225	41.8	58.2
	중	119	62.2	37.8
	중상 이상	12	75.0	25.0
건강 수준 평가	나쁨 (나쁨+매우나쁨)	101	48.5	51.5
	보통	207	51.7	48.3
	좋음 (좋음+매우 좋음)	192	50.0	50.0

표 6-3 | 연령

(단위:%, 세)

구분		표본수 (명)	65-69세	70-74세	75-80세	평균
전체		500	36.0	32.0	32.0	71.77
성별	남성	252	36.5	31.7	31.7	71.81
	여성	248	35.5	32.3	32.3	71.73
연령대	65-69세	180	100.0	-	-	66.81
	70-74세	160	-	100.0	-	72.09
	75-80세	160	-	-	100.0	77.04
취업 유무	취업자	174	47.1	31.6	21.3	70.47
	미취업자	326	30.1	32.2	37.7	72.47
취업 의사	하고싶지않음	299	24.4	34.4	41.1	72.92
	하고싶음	201	53.2	28.4	18.4	70.06
지역	덕양구	250	36.0	32.0	32.0	71.76
	덕양북부	125	36.0	32.0	32.0	71.74
	덕양남부	125	36.0	32.0	32.0	71.79
	일산동구	125	36.0	32.0	32.0	71.72
	일산서구	125	36.0	32.0	32.0	71.84
세대 유형	1인 가구	114	21.9	25.4	52.6	73.74
	부부세대	328	37.5	35.7	26.8	71.37
	2세대 또는 3세대 함께 거주	58	55.2	24.1	20.7	70.19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54	5.6	35.2	59.3	75.04
	중학교 졸업	129	19.4	37.2	43.4	73.19
	고등학교 졸업	292	46.2	30.8	22.9	70.70
	대학교 졸업	25	68.0	12.0	20.0	69.92
기초 수급 여부	기초생활수급자	33	24.2	33.3	42.4	73.36
	자금은 아니지만, 과거에 수급자였던 적이 있음	10	50.0	20.0	30.0	71.20
	아님	457	36.5	32.2	31.3	71.67
경제 수준 평가	하	144	22.2	30.6	47.2	73.53
	중하	225	35.1	35.1	29.8	71.75
	중	119	52.9	28.6	18.5	69.89
	중상 이상	12	50.0	25.0	25.0	69.67
건강 수준 평가	나쁨 (나쁨+매우나쁨)	101	24.8	26.7	48.5	73.43
	보통	207	29.5	36.2	34.3	72.23
	좋음 (좋음+매우 좋음)	192	49.0	30.2	20.8	70.41

표 6-4 | 소득원(복수응답)

(단위:%)

구분		표본수 (명)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	사적이전 소득	재산소득	기초연금	국민기초 생활보장
전체		500	41.6	60.4	35.2	6.4	79.0	5.4
성별	남성	252	46.8	69.0	29.4	8.7	75.0	6.0
	여성	248	36.3	51.6	41.1	4.0	83.1	4.8
연령대	65-69세	180	55.0	62.8	25.6	3.3	70.6	2.8
	70-74세	160	39.4	61.3	31.3	10.0	83.1	6.3
	75-80세	160	28.8	56.9	50.0	6.3	84.4	7.5
취업 유무	취업자	174	100.0	58.6	12.6	2.3	64.9	-
	미취업자	326	10.4	61.3	47.2	8.6	86.5	8.3
취업 의사	하고싶지않음	299	24.1	58.9	40.1	7.7	86.3	7.7
	하고싶음	201	67.7	62.7	27.9	4.5	68.2	2.0
지역	덕양구	250	39.2	55.6	46.8	9.2	79.6	8.4
	덕양북부	125	37.6	49.6	54.4	4.8	82.4	5.6
	덕양남부	125	40.8	61.6	39.2	13.6	76.8	11.2
	일산동구	125	48.0	67.2	24.0	3.2	81.6	4.0
	일산서구	125	40.0	63.2	23.2	4.0	75.2	0.8
세대 유형	1인 가구	114	25.4	48.2	43.0	7.9	86.8	16.7
	부부세대	328	44.2	64.3	34.1	4.9	80.2	1.8
	2세대 또는 3세대 함께 거주	58	58.6	62.1	25.9	12.1	56.9	3.4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54	35.2	48.1	50.0	3.7	92.6	13.0
	중학교 졸업	129	32.6	50.4	40.3	1.6	87.6	11.6
	고등학교 졸업	292	46.6	64.7	31.2	7.5	75.7	1.7
	대학교 졸업	25	44.0	88.0	24.0	24.0	44.0	-
기초 수급 여부	기초생활수급자	33	6.1	24.2	51.5	3.0	66.7	81.8
	자금은 아니지만, 과거에 수급자였던 적이 있음	10	20.0	70.0	10.0	-	100.0	-
	아님	457	44.6	62.8	34.6	6.8	79.4	-
경제 수준 평가	하	144	22.9	61.8	38.2	1.4	86.8	18.8
	중하	225	46.7	54.7	36.4	6.7	80.9	-
	중	119	52.9	67.2	31.1	10.9	64.7	-
	중상 이상	12	58.3	83.3	16.7	16.7	91.7	-
건강 수준 평가	나쁨 (나쁨+매우나쁨)	101	18.8	39.6	56.4	3.0	83.2	15.8
	보통	207	40.1	58.0	36.2	4.8	79.7	3.4
	좋음 (좋음+매우 좋음)	192	55.2	74.0	22.9	9.9	76.0	2.1

2. 일반사항

표 6-5 | 혼인상태

(단위:%)

구분		표본수 (명)	미혼	유배우	이혼	별거	사별
전체		500	0.2	74.8	4.0	1.0	20.0
성별	남성	252	-	81.3	5.6	1.6	11.5
	여성	248	0.4	68.1	2.4	0.4	28.6
연령대	65-69세	180	0.6	84.4	5.6	2.2	7.2
	70-74세	160	-	79.4	5.0	-	15.6
	75-80세	160	-	59.4	1.3	0.6	38.8
취업 유무	취업자	174	0.6	82.8	4.0	-	12.6
	미취업자	326	-	70.6	4.0	1.5	23.9
취업 의사	하고싶지않음	299	-	69.6	3.7	0.3	26.4
	하고싶음	201	0.5	82.6	4.5	2.0	10.4
지역	덕양구	250	0.4	71.6	5.2	2.0	20.8
	덕양북부	125	-	75.2	5.6	1.6	17.6
	덕양남부	125	0.8	68.0	4.8	2.4	24.0
	일산동구	125	-	79.2	2.4	-	18.4
	일산서구	125	-	76.8	3.2	-	20.0
세대 유형	1인 가구	114	0.9	-	14.0	3.5	81.6
	부부세대	328	-	100.0	-	-	-
	2세대 또는 3세대 함께 거주	58	-	79.3	6.9	1.7	12.1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54	-	51.9	7.4	-	40.7
	중학교 졸업	129	-	61.2	6.2	-	32.6
	고등학교 졸업	292	0.3	83.9	2.1	1.7	12.0
	대학교 졸업	25	-	88.0	8.0	-	4.0
기초 수급 여부	기초생활수급자	33	-	30.3	21.2	-	48.5
	자금은 아니지만, 과거에 수급자였던 적이 있음	10	-	100.0	-	-	-
	아님	457	0.2	77.5	2.8	1.1	18.4
경제 수준 평가	하	144	-	45.8	7.6	2.8	43.8
	중하	225	0.4	82.7	2.7	0.4	13.8
	중	119	-	92.4	2.5	-	5.0
	중상 이상	12	-	100.0	-	-	-
건강 수준 평가	나쁨 (나쁨+매우나쁨)	101	-	65.3	5.0	4.0	25.7
	보통	207	-	71.5	3.9	0.5	24.2
	좋음 (좋음+매우 좋음)	192	0.5	83.3	3.6	-	12.5

표 6-6 | 거주지역

(단위:%, 년)

구분		표본수 (명)	덕양 북부	덕양 남부	일산 동구	일산 서구
전체		500	25.0	25.0	25.0	25.0
성별	남성	252	25.0	25.0	25.0	25.0
	여성	248	25.0	25.0	25.0	25.0
연령대	65-69세	180	25.0	25.0	25.0	25.0
	70-74세	160	25.0	25.0	25.0	25.0
	75-80세	160	25.0	25.0	25.0	25.0
취업 유무	취업자	174	25.3	26.4	23.6	24.7
	미취업자	326	24.8	24.2	25.8	25.2
취업 의사	하고싶지않음	299	20.4	23.1	31.1	25.4
	하고싶음	201	31.8	27.9	15.9	24.4
지역	덕양구	250	50.0	50.0	-	-
	덕양북부	125	100.0	-	-	-
	덕양남부	125	-	100.0	-	-
	일산동구	125	-	-	100.0	-
	일산서구	125	-	-	-	100.0
세대 유형	1인 가구	114	22.8	31.6	21.9	23.7
	부부세대	328	27.4	20.4	27.1	25.0
	2세대 또는 3세대 함께 거주	58	15.5	37.9	19.0	27.6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54	44.4	31.5	14.8	9.3
	중학교 졸업	129	27.9	22.5	29.5	20.2
	고등학교 졸업	292	20.9	24.3	26.7	28.1
	대학교 졸업	25	16.0	32.0	4.0	48.0
기초 수급 여부	기초생활수급자	33	30.3	48.5	18.2	3.0
	자금은 아니지만, 과거에 수급자였던 적이 있음	10	-	10.0	30.0	60.0
	아님	457	25.2	23.6	25.4	25.8
경제 수준 평가	하	144	26.4	29.9	18.1	25.7
	중하	225	26.7	26.2	17.3	29.8
	중	119	22.7	19.3	41.2	16.8
	중상 이상	12	-	-	91.7	8.3
건강 수준 평가	나쁨 (나쁨+매우나쁨)	101	45.5	26.7	15.8	11.9
	보통	207	21.7	21.7	26.1	30.4
	좋음 (좋음+매우 좋음)	192	17.7	27.6	28.6	26.0

표 6-7 | 종교

(단위:%)

구분		표본수 (명)	없음	불교	개신교	천주교	한국SGI
전체		500	56.0	14.0	23.6	6.2	0.2
성별	남성	252	61.9	11.5	19.8	6.3	0.4
	여성	248	50.0	16.5	27.4	6.0	-
연령대	65-69세	180	57.8	13.3	19.4	8.9	0.6
	70-74세	160	56.9	13.1	24.4	5.6	-
	75-80세	160	53.1	15.6	27.5	3.8	-
취업 유무	취업자	174	59.2	11.5	22.4	6.3	0.6
	미취업자	326	54.3	15.3	24.2	6.1	-
취업 의사	하고싶지않음	299	52.2	15.4	26.4	6.0	-
	하고싶음	201	61.7	11.9	19.4	6.5	0.5
지역	덕양구	250	49.6	17.6	24.0	8.4	0.4
	덕양북부	125	44.8	17.6	27.2	10.4	-
	덕양남부	125	54.4	17.6	20.8	6.4	0.8
	일산동구	125	56.0	13.6	26.4	4.0	-
	일산서구	125	68.8	7.2	20.0	4.0	-
세대 유형	1인 가구	114	60.5	15.8	18.4	5.3	-
	부부세대	328	54.3	13.1	26.5	5.8	0.3
	2세대 또는 3세대 함께 거주	58	56.9	15.5	17.2	10.3	-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54	68.5	13.0	18.5	-	-
	중학교 졸업	129	51.2	22.5	23.3	3.1	-
	고등학교 졸업	292	56.5	9.9	25.3	7.9	0.3
	대학교 졸업	25	48.0	20.0	16.0	16.0	-
기초 수급 여부	기초생활수급자	33	39.4	33.3	27.3	-	-
	자금은 아니지만, 과거에 수급자였던 적이 있음	10	30.0	10.0	60.0	-	-
	아님	457	57.8	12.7	22.5	6.8	0.2
경제 수준 평가	하	144	55.6	17.4	22.9	4.2	-
	중하	225	56.9	11.1	23.6	8.0	0.4
	중	119	58.0	13.4	22.7	5.9	-
	중상 이상	12	25.0	33.3	41.7	-	-
건강 수준 평가	나쁨 (나쁨+매우나쁨)	101	42.6	22.8	32.7	2.0	-
	보통	207	62.3	9.7	23.2	4.8	-
	좋음 (좋음+매우 좋음)	192	56.3	14.1	19.3	9.9	0.5

표 6-8 | 고양시 거주기간

(단위:%, 년)

구분		표본수 (명)	5년 미만	5-9년	10-14년	15-19년	20년 이상	평균
전체		500	2.6	2.0	5.2	11.2	79.0	32.65
성별	남성	252	2.8	0.8	5.6	10.3	80.6	33.42
	여성	248	2.4	3.2	4.8	12.1	77.4	31.87
연령대	65-69세	180	3.3	2.2	5.6	13.9	75.0	29.64
	70-74세	160	1.9	2.5	6.9	11.9	76.9	31.30
	75-80세	160	2.5	1.3	3.1	7.5	85.6	37.38
취업 유무	취업자	174	2.3	1.1	4.0	10.9	81.6	34.58
	미취업자	326	2.8	2.5	5.8	11.3	77.6	31.62
취업 의사	하고싶지않음	299	2.3	2.0	5.4	13.4	76.9	31.87
	하고싶음	201	3.0	2.0	5.0	8.0	82.1	33.81
지역	덕양구	250	3.2	3.2	4.0	12.8	76.8	30.50
	덕양북부	125	2.4	2.4	4.8	9.6	80.8	32.74
	덕양남부	125	4.0	4.0	3.2	16.0	72.8	28.25
	일산동구	125	3.2	1.6	9.6	12.0	73.6	32.03
	일산서구	125	0.8	-	3.2	7.2	88.8	37.58
세대 유형	1인 가구	114	6.1	3.5	4.4	7.9	78.1	31.88
	부부세대	328	1.2	1.2	5.2	12.2	80.2	33.46
	2세대 또는 3세대 함께 거주	58	3.4	3.4	6.9	12.1	74.1	29.59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54	3.7	3.7	3.7	11.1	77.8	34.63
	중학교 졸업	129	0.8	3.1	6.2	11.6	78.3	33.33
	고등학교 졸업	292	3.4	1.4	4.8	11.3	79.1	31.98
	대학교 졸업	25	-	-	8.0	8.0	84.0	32.64
기초 수급 여부	기초생활수급자	33	3.0	9.1	18.2	12.1	57.6	24.54
	자금은 아니지만, 과거에 수급자였던 적이 있음	10	-	-	-	10.0	90.0	33.70
	아님	457	2.6	1.5	4.4	11.2	80.3	33.21
경제 수준 평가	하	144	4.2	2.8	4.2	10.4	78.5	32.11
	중하	225	1.3	1.8	3.1	13.3	80.4	33.40
	중	119	2.5	0.8	9.2	6.7	80.7	33.25
	중상 이상	12	8.3	8.3	16.7	25.0	41.7	19.16
건강 수준 평가	나쁨 (나쁨+매우나쁨)	101	5.0	3.0	3.0	6.9	82.2	35.85
	보통	207	1.9	1.0	4.3	10.1	82.6	33.74
	좋음 (좋음+매우 좋음)	192	2.1	2.6	7.3	14.6	73.4	29.79

표 6-9 | 국민기초 생활수급 여부

(단위:%)

구분		표본수 (명)	기초생활수급자임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에 수급자였던 적이 있음	아님
전체		500	6.6	2.0	91.4
성별	남성	252	7.5	2.0	90.5
	여성	248	5.6	2.0	92.3
연령대	65-69세	180	4.4	2.8	92.8
	70-74세	160	6.9	1.3	91.9
	75-80세	160	8.8	1.9	89.4
취업 유무	취업자	174	0.6	0.6	98.9
	미취업자	326	9.8	2.8	87.4
취업 의사	하고싶지않음	299	9.4	3.3	87.3
	하고싶음	201	2.5	-	97.5
지역	덕양구	250	10.4	0.4	89.2
	덕양북부	125	8.0	-	92.0
	덕양남부	125	12.8	0.8	86.4
	일산동구	125	4.8	2.4	92.8
	일산서구	125	0.8	4.8	94.4
세대 유형	1인 가구	114	18.4	-	81.6
	부부세대	328	3.0	2.7	94.2
	2세대 또는 3세대 함께 거주	58	3.4	1.7	94.8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54	13.0	-	87.0
	중학교 졸업	129	15.5	-	84.5
	고등학교 졸업	292	2.1	3.1	94.9
	대학교 졸업	25	-	4.0	96.0
기초 수급 여부	기초생활수급자	33	100.0	-	-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에 수급자였던 적이 있음	10	-	100.0	-
	아님	457	-	-	100.0
경제 수준 평가	하	144	21.5	3.5	75.0
	중하	225	0.4	1.8	97.8
	중	119	0.8	0.8	98.3
	중상 이상	12	-	-	100.0
건강 수준 평가	나쁨 (나쁨+매우나쁨)	101	18.8	-	81.2
	보통	207	4.8	2.9	92.3
	좋음 (좋음+매우 좋음)	192	2.1	2.1	95.8

표 6-10 | 주거점유형태

(단위:%)

구분		표본수 (명)	자가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전체		500	76.4	13.8	9.6	0.2
성별	남성	252	74.6	14.3	10.7	0.4
	여성	248	78.2	13.3	8.5	-
연령대	65-69세	180	82.2	10.6	6.7	0.6
	70-74세	160	77.5	13.8	8.8	-
	75-80세	160	68.8	17.5	13.8	-
취업 유무	취업자	174	82.2	15.5	1.7	0.6
	미취업자	326	73.3	12.9	13.8	-
취업 의사	하고싶지않음	299	71.2	17.1	11.7	-
	하고싶음	201	84.1	9.0	6.5	0.5
지역	덕양구	250	73.2	10.4	16.4	-
	덕양북부	125	75.2	12.8	12.0	-
	덕양남부	125	71.2	8.0	20.8	-
	일산동구	125	72.8	22.4	4.0	0.8
	일산서구	125	86.4	12.0	1.6	-
세대 유형	1인 가구	114	42.1	30.7	27.2	-
	부부세대	328	87.2	9.1	3.4	0.3
	2세대 또는 3세대 함께 거주	58	82.8	6.9	10.3	-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54	64.8	22.2	13.0	-
	중학교 졸업	129	62.0	17.1	20.9	-
	고등학교 졸업	292	83.6	11.6	4.5	0.3
	대학교 졸업	25	92.0	4.0	4.0	-
기초 수급 여부	기초생활수급자	33	6.1	3.0	90.9	-
	자금은 아니지만, 과거에 수급자였던 적이 있음	10	70.0	20.0	10.0	-
	아님	457	81.6	14.4	3.7	0.2
경제 수준 평가	하	144	55.6	16.0	28.5	-
	중하	225	82.2	14.2	3.1	0.4
	중	119	89.1	10.9	-	-
	중상 이상	12	91.7	8.3	-	-
건강 수준 평가	나쁨 (나쁨+매우나쁨)	101	67.3	8.9	23.8	-
	보통	207	76.8	16.4	6.3	0.5
	좋음 (좋음+매우 좋음)	192	80.7	13.5	5.7	-

표 6-11 | 현재 자녀수

(단위:명)

구분		표본수 (명)	여	남	총합
전체		500	1.3	1.3	2.6
성별	남성	252	1.3	1.3	2.7
	여성	248	1.3	1.3	2.6
연령대	65-69세	180	1.2	1.3	2.5
	70-74세	160	1.3	1.3	2.6
	75-80세	160	1.5	1.4	2.9
취업 유무	취업자	174	1.3	1.4	2.7
	미취업자	326	1.3	1.3	2.6
취업 의사	하고싶지않음	299	1.3	1.3	2.7
	하고싶음	201	1.3	1.3	2.6
지역	덕양구	250	1.3	1.4	2.7
	덕양북부	125	1.4	1.5	2.9
	덕양남부	125	1.3	1.3	2.6
	일산동구	125	1.4	1.2	2.6
	일산서구	125	1.2	1.3	2.6
세대 유형	1인 가구	114	1.3	1.2	2.4
	부부세대	328	1.3	1.4	2.8
	2세대 또는 3세대 함께 거주	58	1.3	1.1	2.4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54	1.4	1.6	2.9
	중학교 졸업	129	1.3	1.2	2.5
	고등학교 졸업	292	1.3	1.3	2.6
	대학교 졸업	25	1.3	1.5	2.8
기초 수급 여부	기초생활수급자	33	1.0	1.2	2.2
	자금은 아니지만, 과거에 수급자였던 적이 있음	10	0.9	1.4	2.3
	아님	457	1.3	1.3	2.7
경제 수준 평가	하	144	1.2	1.2	2.4
	중하	225	1.4	1.4	2.8
	중	119	1.4	1.4	2.7
	중상 이상	12	1.8	1.3	3.0
건강 수준 평가	나쁨 (나쁨+매우나쁨)	101	1.4	1.5	2.9
	보통	207	1.3	1.3	2.6
	좋음 (좋음+매우 좋음)	192	1.3	1.3	2.6

표 6-12 | 세대유형

(단위:%)

구분		표본수 (명)	1인가구	부부세대	2세대 또는 3세대 함께 거주
전체		500	22.8	65.6	11.6
성별	남성	252	17.5	70.6	11.9
	여성	248	28.2	60.5	11.3
연령대	65-69세	180	13.9	68.3	17.8
	70-74세	160	18.1	73.1	8.8
	75-80세	160	37.5	55.0	7.5
취업 유무	취업자	174	16.7	71.3	12.1
	미취업자	326	26.1	62.6	11.3
취업 의사	하고싶지않음	299	27.8	62.2	10.0
	하고싶음	201	15.4	70.6	13.9
지역	덕양구	250	24.8	62.8	12.4
	덕양북부	125	20.8	72.0	7.2
	덕양남부	125	28.8	53.6	17.6
	일산동구	125	20.0	71.2	8.8
	일산서구	125	21.6	65.6	12.8
세대 유형	1인 가구	114	100.0	-	-
	부부세대	328	-	100.0	-
	2세대 또는 3세대 함께 거주	58	-	-	100.0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54	44.4	48.1	7.4
	중학교 졸업	129	34.9	57.4	7.8
	고등학교 졸업	292	14.7	71.9	13.4
	대학교 졸업	25	8.0	72.0	20.0
기초 수급 여부	기초생활수급자	33	63.6	30.3	6.1
	자금은 아니지만, 과거에 수급자였던 적이 있음	10	-	90.0	10.0
	아님	457	20.4	67.6	12.0
경제 수준 평가	하	144	52.1	43.1	4.9
	중하	225	14.7	75.1	10.2
	중	119	5.0	74.8	20.2
	중상 이상	12	-	66.7	33.3
건강 수준 평가	나쁨 (나쁨+매우나쁨)	101	31.7	62.4	5.9
	보통	207	26.1	65.7	8.2
	좋음 (좋음+매우 좋음)	192	14.6	67.2	18.2

표 6-13 | 동거가족

(단위:%, 명)

구분		표본수 (명)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평균(명)
전체		500	22.8	67.4	7.8	1.4	0.4	0.2	1.90
성별	남성	252	17.5	71.8	8.7	1.6	0.4	-	1.96
	여성	248	28.2	62.9	6.9	1.2	0.4	0.4	1.84
연령대	65-69세	180	13.9	68.9	13.9	1.7	1.1	0.6	2.09
	70-74세	160	18.1	75.6	5.0	1.3	-	-	1.89
	75-80세	160	37.5	57.5	3.8	1.3	-	-	1.69
취업 유무	취업자	174	16.7	71.8	9.2	1.7	0.6	-	1.98
	미취업자	326	26.1	65.0	7.1	1.2	0.3	0.3	1.86
취업 의사	하고싶지않음	299	27.8	63.9	6.4	1.0	0.7	0.3	1.84
	하고싶음	201	15.4	72.6	10.0	2.0	-	-	1.99
지역	덕양구	250	24.8	66.0	6.8	1.6	0.4	0.4	1.88
	덕양북부	125	20.8	75.2	3.2	-	0.8	-	1.85
	덕양남부	125	28.8	56.8	10.4	3.2	-	0.8	1.91
	일산동구	125	20.0	71.2	7.2	1.6	-	-	1.90
	일산서구	125	21.6	66.4	10.4	0.8	0.8	-	1.93
세대 유형	1인 가구	114	100.0	-	-	-	-	-	1.00
	부부세대	328	-	100.0	-	-	-	-	2.00
	2세대 또는 3세대 함께 거주	58	-	15.5	67.2	12.1	3.4	1.7	3.09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54	44.4	51.9	-	3.7	-	-	1.63
	중학교 졸업	129	34.9	61.2	2.3	1.6	-	-	1.71
	고등학교 졸업	292	14.7	72.3	11.6	0.7	0.3	0.3	2.01
	대학교 졸업	25	8.0	76.0	8.0	4.0	4.0	-	2.20
기초 수급 여부	기초생활수급자	33	63.6	36.4	-	-	-	-	1.36
	자금은 아니지만, 과거에 수급자였던 적이 있음	10	-	90.0	-	-	-	10.0	2.40
	아님	457	20.4	69.1	8.5	1.5	0.4	-	1.93
경제 수준 평가	하	144	52.1	45.1	2.1	-	-	0.7	1.53
	중하	225	14.7	76.9	7.1	0.4	0.9	-	1.96
	중	119	5.0	76.5	15.1	3.4	-	-	2.17
	중상 이상	12	-	66.7	16.7	16.7	-	-	2.50
건강 수준 평가	나쁨 (나쁨+매우나쁨)	101	31.7	65.3	3.0	-	-	-	1.71
	보통	207	26.1	67.1	5.3	1.0	0.5	-	1.83
	좋음 (좋음+매우 좋음)	192	14.6	68.8	13.0	2.6	0.5	0.5	2.07

표 6-14 | 주관적 경제 수준

(단위:%)

구분		표본수 (명)	하	중하	중	중상	상
전체		500	28.8	45.0	23.8	2.2	0.2
성별	남성	252	29.8	37.3	29.4	3.2	0.4
	여성	248	27.8	52.8	18.1	1.2	-
연령대	65-69세	180	17.8	43.9	35.0	3.3	-
	70-74세	160	27.5	49.4	21.3	1.3	0.6
	75-80세	160	42.5	41.9	13.8	1.9	-
취업 유무	취업자	174	17.8	50.0	28.7	2.9	0.6
	미취업자	326	34.7	42.3	21.2	1.8	-
취업 의사	하고싶지않음	299	34.4	41.5	21.4	2.7	-
	하고싶음	201	20.4	50.2	27.4	1.5	0.5
지역	덕양구	250	32.4	47.6	20.0	-	-
	덕양북부	125	30.4	48.0	21.6	-	-
	덕양남부	125	34.4	47.2	18.4	-	-
	일산동구	125	20.8	31.2	39.2	8.0	0.8
	일산서구	125	29.6	53.6	16.0	0.8	-
세대 유형	1인 가구	114	65.8	28.9	5.3	-	-
	부부세대	328	18.9	51.5	27.1	2.4	-
	2세대 또는 3세대 함께 거주	58	12.1	39.7	41.4	5.2	1.7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54	38.9	48.1	13.0	-	-
	중학교 졸업	129	46.5	38.8	13.2	0.8	0.8
	고등학교 졸업	292	20.5	47.3	28.8	3.4	-
	대학교 졸업	25	12.0	44.0	44.0	-	-
기초 수급 여부	기초생활수급자	33	93.9	3.0	3.0	-	-
	자금은 아니지만, 과거에 수급자였던 적이 있음	10	50.0	40.0	10.0	-	-
	아님	457	23.6	48.1	25.6	2.4	0.2
경제 수준 평가	하	144	100.0	-	-	-	-
	중하	225	-	100.0	-	-	-
	중	119	-	-	100.0	-	-
	중상 이상	12	-	-	-	91.7	8.3
건강 수준 평가	나쁨 (나쁨+매우나쁨)	101	46.5	39.6	13.9	-	-
	보통	207	32.9	45.9	21.3	-	-
	좋음 (좋음+매우 좋음)	192	15.1	46.9	31.8	5.7	0.5

3. 역량

표 6-15 | 객관적 신체 건강 상태

(단위:%, 개)

구분		표본수 (명)	질환 없음	1개	2개	3개	4개	11개	12개	평균 (개)
전체		500	23.2	34.8	31.0	8.6	0.6	1.4	0.4	1.45
성별	남성	252	20.6	33.7	31.3	10.7	0.8	2.0	0.8	1.63
	여성	248	25.8	35.9	30.6	6.5	0.4	0.8	-	1.27
연령대	65-69세	180	30.0	40.6	20.6	7.8	-	-	1.1	1.18
	70-74세	160	24.4	32.5	36.9	5.0	-	1.3	-	1.35
	75-80세	160	14.4	30.6	36.9	13.1	1.9	3.1	-	1.86
취업 유무	취업자	174	26.4	43.1	27.0	2.3	-	1.1	-	1.17
	미취업자	326	21.5	30.4	33.1	12.0	0.9	1.5	0.6	1.60
취업 의사	하고싶지않음	299	19.7	33.1	32.8	11.7	0.7	1.7	0.3	1.59
	하고싶음	201	28.4	37.3	28.4	4.0	0.5	1.0	0.5	1.25
지역	덕양구	250	20.4	28.8	37.2	11.2	0.8	1.2	0.4	1.58
	덕양북부	125	20.8	26.4	43.2	8.8	-	0.8	-	1.48
	덕양남부	125	20.0	31.2	31.2	13.6	1.6	1.6	0.8	1.68
	일산동구	125	28.8	37.6	24.8	4.8	-	3.2	0.8	1.46
	일산서구	125	23.2	44.0	24.8	7.2	0.8	-	-	1.18
세대 유형	1인 가구	114	10.5	28.9	39.5	17.5	1.8	0.9	0.9	1.88
	부부세대	328	24.7	38.4	29.0	5.5	0.3	1.8	0.3	1.38
	2세대 또는 3세대 함께 거주	58	39.7	25.9	25.9	8.6	-	-	-	1.03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54	18.5	22.2	40.7	18.5	-	-	-	1.59
	중학교 졸업	129	18.6	27.1	36.4	14.7	1.6	0.8	0.8	1.68
	고등학교 졸업	292	25.3	41.1	26.7	4.5	0.3	1.7	0.3	1.32
	대학교 졸업	25	32.0	28.0	32.0	4.0	-	4.0	-	1.48
기초 수급 여부	기초생활수급자	33	3.0	24.2	33.3	36.4	3.0	-	-	2.12
	자금은 아니지만, 과거에 수급자였던 적이 있음	10	30.0	20.0	40.0	10.0	-	-	-	1.30
	아님	457	24.5	35.9	30.6	6.6	0.4	1.5	0.4	1.41
경제 수준 평가	하	144	18.1	30.6	31.9	16.7	1.4	0.7	0.7	1.66
	중하	225	20.9	40.0	31.1	6.2	0.4	1.3	-	1.37
	중	119	30.3	30.3	32.8	4.2	-	1.7	0.8	1.37
	중상 이상	12	58.3	33.3	-	-	-	8.3	-	1.25
건강 수준 평가	나쁨 (나쁨+매우나쁨)	101	2.0	9.9	52.5	32.7	2.0	-	1.0	2.33
	보통	207	9.7	43.0	43.0	2.4	0.5	1.4	-	1.54
	좋음 (좋음+매우 좋음)	192	49.0	39.1	6.8	2.6	-	2.1	0.5	0.90

표 6-16 | 인지장애 경험률

(단위:%)

구분		표본수 (명)	예	아니오
전체		500	33.8	66.2
성별	남성	252	23.8	76.2
	여성	248	44.0	56.0
연령대	65-69세	180	30.0	70.0
	70-74세	160	30.6	69.4
	75-80세	160	41.3	58.8
취업 유무	취업자	174	19.5	80.5
	미취업자	326	41.4	58.6
취업 의사	하고싶지않음	299	37.1	62.9
	하고싶음	201	28.9	71.1
지역	덕양구	250	44.0	56.0
	덕양북부	125	56.8	43.2
	덕양남부	125	31.2	68.8
	일산동구	125	16.0	84.0
	일산서구	125	31.2	68.8
세대 유형	1인 가구	114	40.4	59.6
	부부세대	328	32.9	67.1
	2세대 또는 3세대 함께 거주	58	25.9	74.1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54	35.2	64.8
	중학교 졸업	129	48.8	51.2
	고등학교 졸업	292	28.1	71.9
	대학교 졸업	25	20.0	80.0
기초 수급 여부	기초생활수급자	33	51.5	48.5
	자금은 아니지만, 과거에 수급자였던 적이 있음	10	-	100.0
	아님	457	33.3	66.7
경제 수준 평가	하	144	45.8	54.2
	중하	225	37.3	62.7
	중	119	16.0	84.0
	중상 이상	12	-	100.0
건강 수준 평가	나쁨 (나쁨+매우나쁨)	101	61.4	38.6
	보통	207	31.4	68.6
	좋음 (좋음+매우 좋음)	192	21.9	78.1

표 6-17 | 정보통신기술 활용 역량 수준

(단위:%, 점)

구분		표본수 (명)	전혀 활용 못 함	활용 못하는 편	보통	활용을 잘하는 편	매우 활용 잘함	평균(점)
전체		500	10.4	38.4	43.0	8.2	-	2.49
성별	남성	252	6.3	35.3	46.8	11.5	-	2.63
	여성	248	14.5	41.5	39.1	4.8	-	2.34
연령대	65-69세	180	2.8	30.6	52.8	13.9	-	2.78
	70-74세	160	8.8	41.9	44.4	5.0	-	2.46
	75-80세	160	20.6	43.8	30.6	5.0	-	2.20
취업 유무	취업자	174	3.4	37.9	47.1	11.5	-	2.67
	미취업자	326	14.1	38.7	40.8	6.4	-	2.40
취업 의사	하고싶지않음	299	13.4	39.1	40.8	6.7	-	2.41
	하고싶음	201	6.0	37.3	46.3	10.4	-	2.61
지역	덕양구	250	16.8	44.8	32.4	6.0	-	2.28
	덕양북부	125	20.0	47.2	28.0	4.8	-	2.18
	덕양남부	125	13.6	42.4	36.8	7.2	-	2.38
	일산동구	125	4.0	20.8	62.4	12.8	-	2.84
	일산서구	125	4.0	43.2	44.8	8.0	-	2.57
세대 유형	1인 가구	114	20.2	51.8	26.3	1.8	-	2.10
	부부세대	328	7.6	34.8	48.2	9.5	-	2.59
	2세대 또는 3세대 함께 거주	58	6.9	32.8	46.6	13.8	-	2.67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54	38.9	46.3	14.8	-	-	1.76
	중학교 졸업	129	19.4	51.2	28.7	0.8	-	2.11
	고등학교 졸업	292	2.1	33.9	54.1	9.9	-	2.72
	대학교 졸업	25	-	8.0	48.0	44.0	-	3.36
기초 수급 여부	기초생활수급자	33	39.4	42.4	18.2	-	-	1.79
	자금은 아니지만, 과거에 수급자였던 적이 있음	10	-	40.0	60.0	-	-	2.60
	아님	457	8.5	38.1	44.4	9.0	-	2.54
경제 수준 평가	하	144	22.2	55.6	21.5	0.7	-	2.01
	중하	225	7.1	40.9	47.1	4.9	-	2.50
	중	119	3.4	16.8	61.3	18.5	-	2.95
	중상 이상	12	-	-	41.7	58.3	-	3.58
건강 수준 평가	나쁨 (나쁨+매우나쁨)	101	31.7	45.5	20.8	2.0	-	1.93
	보통	207	4.3	37.2	52.2	6.3	-	2.60
	좋음 (좋음+매우 좋음)	192	5.7	35.9	44.8	13.5	-	2.66

표 6-18 | 정보통신기술활용_정보검색, 이메일, 업무 전달/보고 또는 전자결재

(단위:%, 점)

구분		표본수 (명)	전혀 못 함	잘 못하는 편	보통	잘하는 편	매우 잘하는 편	평균(점)
전체		500	13.8	41.4	32.8	12.0	-	2.43
성별	남성	252	9.5	38.9	36.1	15.5	-	2.58
	여성	248	18.1	44.0	29.4	8.5	-	2.28
연령대	65-69세	180	1.7	36.1	41.7	20.6	-	2.81
	70-74세	160	11.9	46.3	35.0	6.9	-	2.37
	75-80세	160	29.4	42.5	20.6	7.5	-	2.06
취업 유무	취업자	174	6.3	36.8	42.0	14.9	-	2.66
	미취업자	326	17.8	43.9	27.9	10.4	-	2.31
취업 의사	하고싶지않음	299	16.4	44.8	29.1	9.7	-	2.32
	하고싶음	201	10.0	36.3	38.3	15.4	-	2.59
지역	덕양구	250	22.0	35.2	31.2	11.6	-	2.32
	덕양북부	125	24.0	43.2	24.0	8.8	-	2.18
	덕양남부	125	20.0	27.2	38.4	14.4	-	2.47
	일산동구	125	4.0	37.6	40.0	18.4	-	2.73
	일산서구	125	7.2	57.6	28.8	6.4	-	2.34
세대 유형	1인 가구	114	25.4	57.0	12.3	5.3	-	1.97
	부부세대	328	10.7	36.6	38.7	14.0	-	2.56
	2세대 또는 3세대 함께 거주	58	8.6	37.9	39.7	13.8	-	2.59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54	50.0	37.0	13.0	-	-	1.63
	중학교 졸업	129	23.3	45.7	26.4	4.7	-	2.12
	고등학교 졸업	292	3.8	43.2	38.4	14.7	-	2.64
	대학교 졸업	25	4.0	8.0	44.0	44.0	-	3.28
기초 수급 여부	기초생활수급자	33	48.5	39.4	12.1	-	-	1.64
	자금은 아니지만, 과거에 수급자였던 적이 있음	10	-	80.0	20.0	-	-	2.20
	아님	457	11.6	40.7	34.6	13.1	-	2.49
경제 수준 평가	하	144	22.9	50.0	18.1	9.0	-	2.13
	중하	225	13.3	44.4	36.9	5.3	-	2.34
	중	119	5.0	29.4	42.0	23.5	-	2.84
	중상 이상	12	-	-	41.7	58.3	-	3.58
건강 수준 평가	나쁨 (나쁨+매우나쁨)	101	40.6	35.6	15.8	7.9	-	1.91
	보통	207	9.7	54.1	28.0	8.2	-	2.35
	좋음 (좋음+매우 좋음)	192	4.2	30.7	46.9	18.2	-	2.79

표 6-19 | 정보통신기술활용_오피스 프로그램을 활용해 자료 작성

(단위:%, 점)

구분		표본수 (명)	전혀 못 함	잘 못하는 편	보통	잘하는 편	매우 잘하는 편	평균(점)
전체		500	52.4	27.4	17.6	2.6	-	1.70
성별	남성	252	51.2	21.4	23.8	3.6	-	1.80
	여성	248	53.6	33.5	11.3	1.6	-	1.61
연령대	65-69세	180	47.8	27.8	21.7	2.8	-	1.79
	70-74세	160	53.8	28.1	15.0	3.1	-	1.68
	75-80세	160	56.3	26.3	15.6	1.9	-	1.63
취업 유무	취업자	174	48.3	27.6	21.3	2.9	-	1.79
	미취업자	326	54.6	27.3	15.6	2.5	-	1.66
취업 의사	하고싶지않음	299	49.8	32.4	16.7	1.0	-	1.69
	하고싶음	201	56.2	19.9	18.9	5.0	-	1.73
지역	덕양구	250	56.8	24.0	15.6	3.6	-	1.66
	덕양북부	125	66.4	22.4	9.6	1.6	-	1.46
	덕양남부	125	47.2	25.6	21.6	5.6	-	1.86
	일산동구	125	40.8	28.8	28.8	1.6	-	1.91
	일산서구	125	55.2	32.8	10.4	1.6	-	1.58
세대 유형	1인 가구	114	61.4	28.1	10.5	-	-	1.49
	부부세대	328	50.3	26.2	19.8	3.7	-	1.77
	2세대 또는 3세대 함께 거주	58	46.6	32.8	19.0	1.7	-	1.76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54	90.7	5.6	3.7	-	-	1.13
	중학교 졸업	129	62.0	26.4	11.6	-	-	1.50
	고등학교 졸업	292	43.5	31.8	21.9	2.7	-	1.84
	대학교 졸업	25	24.0	28.0	28.0	20.0	-	2.44
기초 수급 여부	기초생활수급자	33	75.8	9.1	15.2	-	-	1.39
	자금은 아니지만, 과거에 수급자였던 적이 있음	10	20.0	70.0	10.0	-	-	1.90
	아님	457	51.4	27.8	17.9	2.8	-	1.72
경제 수준 평가	하	144	57.6	27.1	10.4	4.9	-	1.63
	중하	225	48.9	31.1	19.1	0.9	-	1.72
	중	119	50.4	22.7	23.5	3.4	-	1.80
	중상 이상	12	75.0	8.3	16.7	-	-	1.42
건강 수준 평가	나쁨 (나쁨+매우나쁨)	101	74.3	15.8	9.9	-	-	1.36
	보통	207	44.9	30.0	22.2	2.9	-	1.83
	좋음 (좋음+매우 좋음)	192	49.0	30.7	16.7	3.6	-	1.75

표 6-20 | 사회적 관계 역량

(단위:%, 점)

구분		표본수 (명)	전혀 못 함	잘 못하는 편	보통	잘하는 편	매우 잘하는 편	평균(점)
전체		500	4.2	10.6	33.4	49.0	2.8	3.36
성별	남성	252	3.6	10.7	29.8	54.0	2.0	3.40
	여성	248	4.8	10.5	37.1	44.0	3.6	3.31
연령대	65-69세	180	3.3	10.0	30.0	52.8	3.9	3.44
	70-74세	160	4.4	12.5	28.8	50.6	3.8	3.37
	75-80세	160	5.0	9.4	41.9	43.1	0.6	3.25
취업 유무	취업자	174	2.3	9.8	20.7	62.1	5.2	3.58
	미취업자	326	5.2	11.0	40.2	42.0	1.5	3.24
취업 의사	하고싶지않음	299	3.3	13.0	42.1	40.1	1.3	3.23
	하고싶음	201	5.5	7.0	20.4	62.2	5.0	3.54
지역	덕양구	250	8.0	11.2	27.6	51.2	2.0	3.28
	덕양북부	125	10.4	8.8	28.0	51.2	1.6	3.25
	덕양남부	125	5.6	13.6	27.2	51.2	2.4	3.31
	일산동구	125	-	6.4	46.4	46.4	0.8	3.42
	일산서구	125	0.8	13.6	32.0	47.2	6.4	3.45
세대 유형	1인 가구	114	8.8	14.0	42.1	33.3	1.8	3.05
	부부세대	328	3.4	10.4	30.5	53.4	2.4	3.41
	2세대 또는 3세대 함께 거주	58	-	5.2	32.8	55.2	6.9	3.64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54	13.0	5.6	14.8	63.0	3.7	3.39
	중학교 졸업	129	7.0	12.4	49.6	28.7	2.3	3.07
	고등학교 졸업	292	1.7	11.3	31.2	53.8	2.1	3.43
	대학교 졸업	25	-	4.0	16.0	68.0	12.0	3.88
기초 수급 여부	기초생활수급자	33	18.2	9.1	63.6	9.1	-	2.64
	자금은 아니지만, 과거에 수급자였던 적이 있음	10	-	30.0	20.0	50.0	-	3.20
	아님	457	3.3	10.3	31.5	51.9	3.1	3.41
경제 수준 평가	하	144	11.8	20.1	39.6	28.5	-	2.85
	중하	225	1.3	8.9	33.8	51.1	4.9	3.49
	중	119	0.8	3.4	28.6	64.7	2.5	3.65
	중상 이상	12	-	-	-	100.0	-	4.00
건강 수준 평가	나쁨 (나쁨+매우나쁨)	101	6.9	17.8	38.6	35.6	1.0	3.06
	보통	207	3.9	7.7	39.1	45.9	3.4	3.37
	좋음 (좋음+매우 좋음)	192	3.1	9.9	24.5	59.4	3.1	3.49

4. 고용

표 6-21 | 일을 하는 이유-취업자

(단위:%)

구분		표본수 (명)	생계비 마련	생계비외 용돈 마련	건강 유지	사람들과 사귀기	시간 보내기	능력(경력) 발휘
전체		174	69.0	20.7	5.7	1.1	2.3	1.1
성별	남성	114	77.2	16.7	4.4	0.9	0.9	-
	여성	60	53.3	28.3	8.3	1.7	5.0	3.3
연령대	65-69세	82	65.9	24.4	4.9	1.2	2.4	1.2
	70-74세	55	69.1	20.0	7.3	1.8	-	1.8
	75-80세	37	75.7	13.5	5.4	-	5.4	-
취업 유무	취업자	174	69.0	20.7	5.7	1.1	2.3	1.1
	미취업자	-	-	-	-	-	-	-
취업 의사	하고싶지않음	44	70.5	20.5	4.5	-	2.3	2.3
	하고싶음	130	68.5	20.8	6.2	1.5	2.3	0.8
지역	덕양구	90	73.3	18.9	5.6	1.1	-	1.1
	덕양북부	44	75.0	18.2	4.5	-	-	2.3
	덕양남부	46	71.7	19.6	6.5	2.2	-	-
	일산동구	41	63.4	22.0	9.8	-	2.4	2.4
	일산서구	43	65.1	23.3	2.3	2.3	7.0	-
세대 유형	1인 가구	29	72.4	17.2	3.4	-	6.9	-
	부부세대	124	71.0	18.5	6.5	0.8	1.6	1.6
	2세대 또는 3세대 함께 거주	21	52.4	38.1	4.8	4.8	-	-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9	89.5	-	10.5	-	-	-
	중학교 졸업	33	75.8	15.2	3.0	-	6.1	-
	고등학교 졸업	112	64.3	25.0	5.4	1.8	1.8	1.8
	대학교 졸업	10	60.0	30.0	10.0	-	-	-
기초 수급 여부	기초생활수급자	1	100.0	-	-	-	-	-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에 수급자였던 적이 있음	1	100.0	-	-	-	-	-
	아님	172	68.6	20.9	5.8	1.2	2.3	1.2
경제 수준 평가	하	31	80.6	6.5	6.5	-	6.5	-
	중하	87	73.6	23.0	3.4	-	-	-
	중	50	60.0	22.0	8.0	4.0	2.0	4.0
	중상 이상	6	16.7	50.0	16.7	-	16.7	-
건강 수준 평가	나쁨 (나쁨+매우나쁨)	12	75.0	25.0	-	-	-	-
	보통	70	71.4	18.6	4.3	1.4	2.9	1.4
	좋음 (좋음+매우 좋음)	92	66.3	21.7	7.6	1.1	2.2	1.1

표 6-22 | 일자리 유형-취업자

(단위:%)

구분		표본수 (명)	공공일자리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민간 일자리 (공공일자리 외 민간업체)
전체		174	5.7	94.3
성별	남성	114	5.3	94.7
	여성	60	6.7	93.3
연령대	65-69세	82	1.2	98.8
	70-74세	55	3.6	96.4
	75-80세	37	18.9	81.1
취업 유무	취업자	174	5.7	94.3
	미취업자	-	-	-
취업 의사	하고싶지않음	44	6.8	93.2
	하고싶음	130	5.4	94.6
지역	덕양구	90	10.0	90.0
	덕양북부	44	9.1	90.9
	덕양남부	46	10.9	89.1
	일산동구	41	2.4	97.6
	일산서구	43	-	100.0
세대 유형	1인 가구	29	20.7	79.3
	부부세대	124	1.6	98.4
	2세대 또는 3세대 함께 거주	21	9.5	90.5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9	15.8	84.2
	중학교 졸업	33	15.2	84.8
	고등학교 졸업	112	1.8	98.2
	대학교 졸업	10	-	100.0
기초 수급 여부	기초생활수급자	1	100.0	-
	자금은 아니지만, 과거에 수급자였던 적이 있음	1	-	100.0
	아님	172	5.2	94.8
경제 수준 평가	하	31	16.1	83.9
	중하	87	4.6	95.4
	중	50	2.0	98.0
	중상 이상	6	-	100.0
건강 수준 평가	나쁨 (나쁨+매우나쁨)	12	16.7	83.3
	보통	70	5.7	94.3
	좋음 (좋음+매우 좋음)	92	4.3	95.7

표 6-23 | 사업체가 주로 하는 일-취업자

(단위:%)

구분		표본수 (명)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한식 일반 음식점 업	채소, 과실, 부리 작물 소매업	비주거 용 부동산 관리업	사업 시설 유지· 관리 서비스	도배, 실내장 식 및 내장 목공업	두발 미용업	벽지, 마루덮 개 및 장판류 소매업
전체		174	10.9	8.6	5.2	5.2	3.4	2.9	2.9	2.3
성별	남성	114	14.0	3.5	4.4	4.4	5.3	3.5	-	1.8
	여성	60	5.0	18.3	6.7	6.7	-	1.7	8.3	3.3
연령대	65-69세	82	8.5	11.0	7.3	2.4	2.4	2.4	4.9	-
	70-74세	55	18.2	9.1	3.6	3.6	3.6	5.5	1.8	5.5
	75-80세	37	5.4	2.7	2.7	13.5	5.4	-	-	2.7
취업 유무	취업자	174	10.9	8.6	5.2	5.2	3.4	2.9	2.9	2.3
	미취업자	-	-	-	-	-	-	-	-	-
취업 의사	하고싶지않음	44	15.9	6.8	9.1	9.1	2.3	-	2.3	4.5
	하고싶음	130	9.2	9.2	3.8	3.8	3.8	3.8	3.1	1.5
지역	덕양구	90	8.9	8.9	7.8	4.4	6.7	4.4	1.1	3.3
	덕양북부	44	6.8	15.9	4.5	-	9.1	4.5	-	4.5
	덕양남부	46	10.9	2.2	10.9	8.7	4.3	4.3	2.2	2.2
	일산동구	41	14.6	7.3	2.4	2.4	-	-	4.9	-
	일산서구	43	11.6	9.3	2.3	9.3	-	2.3	4.7	2.3
세대 유형	1인 가구	29	17.2	10.3	3.4	10.3	3.4	-	-	-
	부부세대	124	11.3	8.1	5.6	4.8	4.0	4.0	3.2	3.2
	2세대 또는 3세대 함께 거주	21	-	9.5	4.8	-	-	-	4.8	-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9	15.8	5.3	5.3	-	10.5	5.3	5.3	-
	중학교 졸업	33	9.1	6.1	3.0	3.0	-	3.0	6.1	9.1
	고등학교 졸업	112	11.6	9.8	5.4	7.1	3.6	2.7	1.8	0.9
	대학교 졸업	10	-	10.0	10.0	-	-	-	-	-
기초 수급 여부	기초생활수급자	1	-	-	-	100.0	-	-	-	-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에 수급자였던 적이 있음	1	-	100.0	-	-	-	-	-	-
	아님	172	11.0	8.1	5.2	4.7	3.5	2.9	2.9	2.3
경제 수준 평가	하	31	16.1	9.7	6.5	9.7	3.2	9.7	-	3.2
	중하	87	9.2	9.2	4.6	5.7	3.4	-	2.3	3.4
	중	50	12.0	6.0	6.0	2.0	4.0	4.0	6.0	-
	중상 이상	6	-	16.7	-	-	-	-	-	-
건강 수준 평가	나쁨 (나쁨+매우나쁨)	12	-	25.0	8.3	-	-	8.3	-	8.3
	보통	70	17.1	4.3	4.3	5.7	4.3	1.4	1.4	1.4
	좋음 (좋음+매우 좋음)	92	7.6	9.8	5.4	5.4	3.3	3.3	4.3	2.2

(→계속)

(단위:%)

구분		표본수 (명)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건설 폐기물 처리업	기타 토목 시설물 건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운송장 비용 주유소 운영업	택시 운송업	개별 화물 자동차 운송업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 업
전체		174	2.3	1.7	1.7	1.7	1.7	1.7	1.7	1.7
성별	남성	114	3.5	2.6	2.6	2.6	2.6	2.6	2.6	-
	여성	60	-	-	-	-	-	-	-	5.0
연령대	65-69세	82	1.2	2.4	3.7	1.2	1.2	1.2	2.4	2.4
	70-74세	55	-	-	-	-	3.6	1.8	1.8	1.8
	75-80세	37	8.1	2.7	-	5.4	-	2.7	-	-
취업 유무	취업자	174	2.3	1.7	1.7	1.7	1.7	1.7	1.7	1.7
	미취업자	-	-	-	-	-	-	-	-	-
취업 의사	하고싶지않음	44	2.3	2.3	2.3	4.5	-	4.5	-	2.3
	하고싶음	130	2.3	1.5	1.5	0.8	2.3	0.8	2.3	1.5
지역	덕양구	90	2.2	1.1	-	3.3	3.3	-	2.2	2.2
	덕양북부	44	-	2.3	-	4.5	2.3	-	-	2.3
	덕양남부	46	4.3	-	-	2.2	4.3	-	4.3	2.2
	일산동구	41	4.9	4.9	4.9	-	-	2.4	-	-
	일산서구	43	-	-	2.3	-	-	4.7	2.3	2.3
세대 유형	1인 가구	29	-	-	3.4	6.9	-	-	-	-
	부부세대	124	2.4	2.4	0.8	0.8	1.6	2.4	2.4	1.6
	2세대 또는 3세대 함께 거주	21	4.8	-	4.8	-	4.8	-	-	4.8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9	-	-	-	10.5	-	-	-	-
	중학교 졸업	33	-	-	-	-	-	3.0	-	-
	고등학교 졸업	112	1.8	2.7	1.8	0.9	2.7	0.9	2.7	2.7
	대학교 졸업	10	20.0	-	10.0	-	-	10.0	-	-
기초 수급 여부	기초생활수급자	1	-	-	-	-	-	-	-	-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에 수급자였던 적이 있음	1	-	-	-	-	-	-	-	-
	아님	172	2.3	1.7	1.7	1.7	1.7	1.7	1.7	1.7
경제 수준 평가	하	31	-	-	-	6.5	3.2	-	-	-
	중하	87	2.3	-	1.1	-	1.1	3.4	-	3.4
	중	50	2.0	6.0	4.0	2.0	2.0	-	6.0	-
	중상 이상	6	16.7	-	-	-	-	-	-	-
건강 수준 평가	나쁨 (나쁨+매우나쁨)	12	-	-	-	-	-	-	-	8.3
	보통	70	2.9	4.3	1.4	1.4	1.4	-	1.4	1.4
	좋음 (좋음+매우 좋음)	92	2.2	-	2.2	2.2	2.2	3.3	2.2	1.1

(→계속)

(단위:%)

구분		표본수 (명)	종합복 지관 운영업	가정용 세탁업	그 외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지정 외 폐기물 수집, 운반업	단독 주택 건설업	조경 건설업	슈퍼 마켓	체인화 편의점
전체		174	1.7	1.7	1.1	1.1	1.1	1.1	1.1	1.1
성별	남성	114	1.8	0.9	0.9	1.8	1.8	1.8	0.9	1.8
	여성	60	1.7	3.3	1.7	-	-	-	1.7	-
연령대	65-69세	82	-	2.4	1.2	-	-	-	-	1.2
	70-74세	55	1.8	1.8	1.8	3.6	1.8	1.8	-	-
	75-80세	37	5.4	-	-	-	2.7	2.7	5.4	2.7
취업 유무	취업자	174	1.7	1.7	1.1	1.1	1.1	1.1	1.1	1.1
	미취업자	-	-	-	-	-	-	-	-	-
취업 의사	하고싶지않음	44	4.5	-	-	-	2.3	-	2.3	2.3
	하고싶음	130	0.8	2.3	1.5	1.5	0.8	1.5	0.8	0.8
지역	덕양구	90	3.3	-	-	-	1.1	1.1	1.1	1.1
	덕양북부	44	2.3	-	-	-	-	2.3	2.3	-
	덕양남부	46	4.3	-	-	-	2.2	-	-	2.2
	일산동구	41	-	2.4	2.4	4.9	2.4	-	2.4	-
	일산서구	43	-	4.7	2.3	-	-	2.3	-	2.3
세대 유형	1인 가구	29	-	3.4	3.4	-	-	-	3.4	-
	부부세대	124	0.8	0.8	0.8	0.8	1.6	1.6	0.8	1.6
	2세대 또는 3세대 함께 거주	21	9.5	4.8	-	4.8	-	-	-	-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9	-	-	-	-	5.3	-	-	-
	중학교 졸업	33	9.1	3.0	3.0	3.0	3.0	3.0	3.0	-
	고등학교 졸업	112	-	1.8	0.9	0.9	-	0.9	0.9	1.8
	대학교 졸업	10	-	-	-	-	-	-	-	-
기초 수급 여부	기초생활수급자	1	-	-	-	-	-	-	-	-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에 수급자였던 적이 있음	1	-	-	-	-	-	-	-	-
	아님	172	1.7	1.7	1.2	1.2	1.2	1.2	1.2	1.2
경제 수준 평가	하	31	9.7	-	3.2	-	-	-	-	3.2
	중하	87	-	1.1	1.1	-	1.1	2.3	-	1.1
	중	50	-	4.0	-	2.0	2.0	-	4.0	-
	중상 이상	6	-	-	-	16.7	-	-	-	-
건강 수준 평가	나쁨 (나쁨+매우나쁨)	12	16.7	-	-	-	-	-	-	8.3
	보통	70	-	1.4	2.9	1.4	-	2.9	2.9	-
	좋음 (좋음+매우 좋음)	92	1.1	2.2	-	1.1	2.2	-	-	1.1

(→계속)

(단위:%)

구분		표본수 (명)	조리 반찬류 소매업	속옷 및 잠옷 소매업	철물 및 난방 용구 소매업	한식 육류 요리 전문점	지방 행정 집행 기관	노인 요양 복지시 설 운영업	그 외 기타 비거주 복지 서비스 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전체		174	1.1	1.1	1.1	1.1	1.1	1.1	1.1	1.1
성별	남성	114	0.9	0.9	1.8	-	0.9	-	0.9	1.8
	여성	60	1.7	1.7	-	3.3	1.7	3.3	1.7	-
연령대	65-69세	82	1.2	2.4	2.4	2.4	-	1.2	-	-
	70-74세	55	1.8	-	-	-	1.8	1.8	-	3.6
	75-80세	37	-	-	-	-	2.7	-	5.4	-
취업 유무	취업자	174	1.1	1.1	1.1	1.1	1.1	1.1	1.1	1.1
	미취업자	-	-	-	-	-	-	-	-	-
취업 의사	하고싶지않음	44	-	-	-	2.3	-	-	-	-
	하고싶음	130	1.5	1.5	1.5	0.8	1.5	1.5	1.5	1.5
지역	덕양구	90	2.2	1.1	1.1	-	2.2	2.2	2.2	1.1
	덕양북부	44	-	2.3	-	-	4.5	2.3	2.3	2.3
	덕양남부	46	4.3	-	2.2	-	-	2.2	2.2	-
	일산동구	41	-	-	2.4	2.4	-	-	-	-
	일산서구	43	-	2.3	-	2.3	-	-	-	2.3
세대 유형	1인 가구	29	-	-	-	-	3.4	3.4	6.9	-
	부부세대	124	0.8	1.6	0.8	1.6	0.8	-	-	1.6
	2세대 또는 3세대 함께 거주	21	4.8	-	4.8	-	-	4.8	-	-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9	-	-	-	-	10.5	5.3	5.3	-
	중학교 졸업	33	-	-	-	3.0	-	-	3.0	-
	고등학교 졸업	112	0.9	0.9	1.8	0.9	-	0.9	-	1.8
	대학교 졸업	10	10.0	10.0	-	-	-	-	-	-
기초 수급 여부	기초생활수급자	1	-	-	-	-	-	-	-	-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에 수급자였던 적이 있음	1	-	-	-	-	-	-	-	-
	아님	172	1.2	1.2	1.2	1.2	1.2	1.2	1.2	1.2
경제 수준 평가	하	31	-	-	-	-	-	-	-	-
	중하	87	1.1	2.3	-	1.1	2.3	2.3	2.3	-
	중	50	2.0	-	4.0	2.0	-	-	-	4.0
	중상 이상	6	-	-	-	-	-	-	-	-
건강 수준 평가	나쁨 (나쁨+매우나쁨)	12	-	-	-	-	-	-	-	-
	보통	70	1.4	1.4	-	-	1.4	-	2.9	2.9
	좋음 (좋음+매우 좋음)	92	1.1	1.1	2.2	2.2	1.1	2.2	-	-

(→계속)

(단위:%)

구분		표본수 (명)	자동차 세차업	떡류 제조업	기타 식용 기름채취 조리식품 제조업	건강 기능식 품 제조업	그 외 기타 식료품 제조업	기타 비알코 올 음료 제조업	플라스 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	그 외 기타 플라스 틱 제품 제조업
전체		174	1.1	0.6	0.6	0.6	0.6	0.6	0.6	0.6
성별	남성	114	1.8	0.9	0.9	-	-	-	0.9	0.9
	여성	60	-	-	-	1.7	1.7	1.7	-	-
연령대	65-69세	82	1.2	1.2	1.2	1.2	1.2	1.2	1.2	1.2
	70-74세	55	-	-	-	-	-	-	-	-
	75-80세	37	2.7	-	-	-	-	-	-	-
취업 유무	취업자	174	1.1	0.6	0.6	0.6	0.6	0.6	0.6	0.6
	미취업자	-	-	-	-	-	-	-	-	-
취업 의사	하고싶지않음	44	-	-	-	2.3	-	-	-	-
	하고싶음	130	1.5	0.8	0.8	-	0.8	0.8	0.8	0.8
지역	덕양구	90	-	-	-	1.1	-	-	-	-
	덕양북부	44	-	-	-	-	-	-	-	-
	덕양남부	46	-	-	-	2.2	-	-	-	-
	일산동구	41	2.4	-	-	-	2.4	-	2.4	2.4
	일산서구	43	2.3	2.3	2.3	-	-	2.3	-	-
세대 유형	1인 가구	29	-	-	-	-	-	3.4	-	-
	부부세대	124	1.6	-	0.8	-	0.8	-	0.8	0.8
	2세대 또는 3세대 함께 거주	21	-	4.8	-	4.8	-	-	-	-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9	-	-	-	-	-	-	-	-
	중학교 졸업	33	-	-	-	-	3.0	3.0	-	-
	고등학교 졸업	112	1.8	0.9	0.9	0.9	-	-	0.9	0.9
	대학교 졸업	10	-	-	-	-	-	-	-	-
기초 수급 여부	기초생활수급자	1	-	-	-	-	-	-	-	-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에 수급자였던 적이 있음	1	-	-	-	-	-	-	-	-
	아님	172	1.2	0.6	0.6	0.6	0.6	0.6	0.6	0.6
경제 수준 평가	하	31	-	-	-	-	-	-	-	-
	중하	87	2.3	1.1	1.1	1.1	1.1	1.1	1.1	1.1
	중	50	-	-	-	-	-	-	-	-
	중상 이상	6	-	-	-	-	-	-	-	-
건강 수준 평가	나쁨 (나쁨+매우나쁨)	12	-	-	-	-	-	-	-	-
	보통	70	-	-	-	-	-	1.4	1.4	-
	좋음 (좋음+매우 좋음)	92	2.2	1.1	1.1	1.1	1.1	-	-	1.1

(→계속)

(단위:%)

구분		표본수 (명)	금속 문 창 셔터 및 관련제품 제조업	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및 현기장치 제조업	금속 가구 제조업	건설· 광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그 외 기타 건축 마무리 공사업	과실류 도매업	주류 도매업	가전제품 및 부품 도매업
전체		174	0.6	0.6	0.6	0.6	0.6	0.6	0.6	0.6
성별	남성	114	0.9	0.9	0.9	0.9	0.9	0.9	0.9	0.9
	여성	60	-	-	-	-	-	-	-	-
연령대	65-69세	82	1.2	1.2	-	-	1.2	1.2	1.2	1.2
	70-74세	55	-	-	-	1.8	-	-	-	-
	75-80세	37	-	-	2.7	-	-	-	-	-
취업 유무	취업자	174	0.6	0.6	0.6	0.6	0.6	0.6	0.6	0.6
	미취업자	-	-	-	-	-	-	-	-	-
취업 의사	하고싶지않음	44	-	-	-	-	-	-	-	-
	하고싶음	130	0.8	0.8	0.8	0.8	0.8	0.8	0.8	0.8
지역	덕양구	90	1.1	-	1.1	-	1.1	1.1	1.1	-
	덕양북부	44	2.3	-	2.3	-	2.3	2.3	2.3	-
	덕양남부	46	-	-	-	-	-	-	-	-
	일산동구	41	-	2.4	-	2.4	-	-	-	2.4
	일산서구	43	-	-	-	-	-	-	-	-
세대 유형	1인 가구	29	-	-	-	-	3.4	-	-	-
	부부세대	124	0.8	0.8	0.8	0.8	-	0.8	-	0.8
	2세대 또는 3세대 함께 거주	21	-	-	-	-	-	-	4.8	-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9	-	-	-	-	5.3	-	-	-
	중학교 졸업	33	-	-	-	-	-	-	-	-
	고등학교 졸업	112	0.9	0.9	0.9	0.9	-	0.9	0.9	0.9
	대학교 졸업	10	-	-	-	-	-	-	-	-
기초 수급 여부	기초생활수급자	1	-	-	-	-	-	-	-	-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에 수급자였던 적이 있음	1	-	-	-	-	-	-	-	-
	아님	172	0.6	0.6	0.6	0.6	0.6	0.6	0.6	0.6
경제 수준 평가	하	31	-	-	-	-	-	-	-	-
	중하	87	1.1	1.1	1.1	-	1.1	1.1	-	-
	중	50	-	-	-	2.0	-	-	2.0	-
	중상 이상	6	-	-	-	-	-	-	-	16.7
건강 수준 평가	나쁨 (나쁨+매우나쁨)	12	-	-	-	-	-	-	-	-
	보통	70	-	1.4	1.4	1.4	-	-	1.4	-
	좋음 (좋음+매우 좋음)	92	1.1	-	-	-	1.1	1.1	-	1.1

(→계속)

(단위:%)

구분		표본수 (명)	기타 음·식 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그 외 기타 종합 소매업	육류 소매업	건어물 및 젓갈류 소매업	빵류, 과자류 및 당류 소매업	기타 식료품 소매업	섬유 원단, 실 및 기타 섬유제 품 소매업	전기용 품 및 조명장 치 소매업
전체		174	0.6	0.6	0.6	0.6	0.6	0.6	0.6	0.6
성별	남성	114	-	0.9	0.9	0.9	-	0.9	-	0.9
	여성	60	1.7	-	-	-	1.7	-	1.7	-
연령대	65-69세	82	1.2	-	-	-	-	1.2	-	1.2
	70-74세	55	-	1.8	1.8	1.8	1.8	-	1.8	-
	75-80세	37	-	-	-	-	-	-	-	-
취업 유무	취업자	174	0.6	0.6	0.6	0.6	0.6	0.6	0.6	0.6
	미취업자	-	-	-	-	-	-	-	-	-
취업 의사	하고싶지않음	44	2.3	-	-	-	2.3	-	-	-
	하고싶음	130	-	0.8	0.8	0.8	-	0.8	0.8	0.8
지역	덕양구	90	-	1.1	-	-	-	1.1	-	-
	덕양북부	44	-	-	-	-	-	-	-	-
	덕양남부	46	-	2.2	-	-	-	2.2	-	-
	일산동구	41	-	-	2.4	-	-	-	-	2.4
	일산서구	43	2.3	-	-	2.3	2.3	-	2.3	-
세대 유형	1인 가구	29	-	-	-	-	-	-	3.4	-
	부부세대	124	-	0.8	0.8	-	0.8	-	-	0.8
	2세대 또는 3세대 함께 거주	21	4.8	-	-	4.8	-	4.8	-	-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9	-	-	5.3	-	-	-	-	-
	중학교 졸업	33	-	3.0	-	-	3.0	-	-	-
	고등학교 졸업	112	0.9	-	-	0.9	-	0.9	0.9	0.9
	대학교 졸업	10	-	-	-	-	-	-	-	-
기초 수급 여부	기초생활수급자	1	-	-	-	-	-	-	-	-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에 수급자였던 적이 있음	1	-	-	-	-	-	-	-	-
	아님	172	0.6	0.6	0.6	0.6	0.6	0.6	0.6	0.6
경제 수준 평가	하	31	-	-	-	-	-	-	-	-
	중하	87	1.1	1.1	1.1	1.1	1.1	-	1.1	1.1
	중	50	-	-	-	-	-	2.0	-	-
	중상 이상	6	-	-	-	-	-	-	-	-
건강 수준 평가	나쁨 (나쁨+매우나쁨)	12	-	8.3	-	-	-	-	-	-
	보통	70	-	-	1.4	1.4	-	1.4	-	-
	좋음 (좋음+매우 좋음)	92	1.1	-	-	-	1.1	-	1.1	1.1

(→계속)

(단위:%)

구분		표본수 (명)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및 현대자동차 제조업	건설·광 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가전제품 및 부품 도매업	기타 음·식료 품 위주 종합 소매업	육류 소매업
전체		174	0.6	0.6	0.6	0.6	0.6	0.6
성별	남성	114	-	-	-	-	1.7	-
	여성	60	0.9	0.9	0.9	0.9	-	0.9
연령대	65-69세	82	1.2	1.2	-	1.2	1.2	-
	70-74세	55	-	-	1.8	-	-	1.8
	75-80세	37	-	-	-	-	-	-
취업 유무	취업자	174	0.6	0.6	0.6	0.6	0.6	0.6
	미취업자	-	-	-	-	-	-	-
취업 의사	하고싶지않음	44	-	-	-	-	2.3	-
	하고싶음	130	0.8	0.8	0.8	0.8	-	0.8
지역	덕양구	90	-	-	-	-	-	-
	덕양북부	44	-	-	-	-	-	-
	덕양남부	46	-	-	-	-	-	-
	일산동구	41	2.4	2.4	2.4	2.4	-	2.4
	일산서구	43	-	-	-	-	2.3	-
세대 유형	1인 가구	29	-	-	-	-	-	-
	부부세대	124	0.8	0.8	0.8	0.8	-	0.8
	2세대 또는 3세대 함께 거주	21	-	-	-	-	4.8	-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9	-	-	-	-	-	5.3
	중학교 졸업	33	-	-	-	-	-	-
	고등학교 졸업	112	0.9	0.9	0.9	0.9	0.9	-
	대학교 졸업	10	-	-	-	-	-	-
기초 수급 여부	기초생활수급자	1	-	-	-	-	-	-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에 수급자였던 적이 있음	1	-	-	-	-	-	-
	아님	172	0.6	0.6	0.6	0.6	0.6	0.6
경제 수준 평가	하	31	-	-	-	-	-	-
	중하	87	1.1	1.1	-	-	1.1	1.1
	중	50	-	-	2.0	-	-	-
	중상 이상	6	-	-	-	16.7	-	-
건강 수준 평가	나쁨 (나쁨+매우나쁨)	12	-	-	-	-	-	-
	보통	70	-	1.4	1.4	-	-	1.4
	좋음 (좋음+매우 좋음)	92	1.1	-	-	1.1	1.1	-

(→계속)

(단위:%)

구분		표본수 (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노점 및 유사 이동 소매업	용달 화물 자동차 운송업	한식 면 요리 전문점	중식 음식점업
전체		174	0.6	0.6	0.6	0.6	0.6	0.6
성별	남성	114	0.9	-	-	0.9	-	0.9
	여성	60	-	1.7	1.7	-	1.7	-
연령대	65-69세	82	1.2	-	-	1.2	-	1.2
	70-74세	55	-	-	-	-	-	-
	75-80세	37	-	2.7	2.7	-	2.7	-
취업 유무	취업자	174	0.6	0.6	0.6	0.6	0.6	0.6
	미취업자	-	-	-	-	-	-	-
취업 의사	하고싶지않음	44	-	-	2.3	-	2.3	-
	하고싶음	130	0.8	0.8	-	0.8	-	0.8
지역	덕양구	90	-	1.1	1.1	-	-	1.1
	덕양북부	44	-	-	-	-	-	2.3
	덕양남부	46	-	2.2	2.2	-	-	-
	일산동구	41	2.4	-	-	-	-	-
	일산서구	43	-	-	-	2.3	2.3	-
세대 유형	1인 가구	29	-	3.4	3.4	-	-	-
	부부세대	124	0.8	-	-	0.8	0.8	0.8
	2세대 또는 3세대 함께 거주	21	-	-	-	-	-	-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9	-	5.3	-	-	-	-
	중학교 졸업	33	-	-	-	-	-	3.0
	고등학교 졸업	112	0.9	-	-	0.9	0.9	-
	대학교 졸업	10	-	-	10.0	-	-	-
기초 수급 여부	기초생활수급자	1	-	-	-	-	-	-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에 수급자였던 적이 있음	1	-	-	-	-	-	-
	아님	172	0.6	0.6	0.6	0.6	0.6	0.6
경제 수준 평가	하	31	-	3.2	-	-	-	3.2
	중하	87	-	-	1.1	1.1	1.1	-
	중	50	-	-	-	-	-	-
	중상 이상	6	16.7	-	-	-	-	-
건강 수준 평가	나쁨 (나쁨+매우나쁨)	12	-	-	-	-	-	-
	보통	70	-	-	1.4	1.4	-	-
	좋음 (좋음+매우 좋음)	92	1.1	1.1	-	-	1.1	1.1

(→계속)

(단위:%)

구분		표본수 (명)	치킨 전문점	일반 서적 출판업	생명 보험업	손해 보험업	법무사업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전체		174	0.6	0.6	0.6	0.6	0.6	0.6
성별	남성	114	-	0.9	-	-	0.9	0.9
	여성	60	1.7	-	1.7	1.7	-	-
연령대	65-69세	82	1.2	1.2	1.2	-	-	-
	70-74세	55	-	-	-	1.8	1.8	1.8
	75-80세	37	-	-	-	-	-	-
취업 유무	취업자	174	0.6	0.6	0.6	0.6	0.6	0.6
	미취업자	-	-	-	-	-	-	-
취업 의사	하고싶지않음	44	-	-	-	2.3	-	-
	하고싶음	130	0.8	0.8	0.8	-	0.8	0.8
지역	덕양구	90	1.1	-	1.1	1.1	1.1	1.1
	덕양북부	44	2.3	-	2.3	-	-	2.3
	덕양남부	46	-	-	-	2.2	2.2	-
	일산동구	41	-	2.4	-	-	-	-
	일산서구	43	-	-	-	-	-	-
세대 유형	1인 가구	29	-	-	-	-	-	-
	부부세대	124	0.8	0.8	0.8	0.8	0.8	0.8
	2세대 또는 3세대 함께 거주	21	-	-	-	-	-	-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9	-	-	-	-	-	-
	중학교 졸업	33	3.0	-	-	-	-	-
	고등학교 졸업	112	-	0.9	0.9	0.9	-	0.9
	대학교 졸업	10	-	-	-	-	10.0	-
기초 수급 여부	기초생활수급자	1	-	-	-	-	-	-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에 수급자였던 적이 있음	1	-	-	-	-	-	-
	아님	172	0.6	0.6	0.6	0.6	0.6	0.6
경제 수준 평가	하	31	3.2	-	-	-	-	-
	중하	87	-	-	-	1.1	-	1.1
	중	50	-	2.0	2.0	-	2.0	-
	중상 이상	6	-	-	-	-	-	-
건강 수준 평가	나쁨 (나쁨+매우나쁨)	12	-	-	-	-	-	-
	보통	70	-	1.4	1.4	1.4	1.4	1.4
	좋음 (좋음+매우 좋음)	92	1.1	-	-	-	-	-

(→계속)

(단위:%)

구분		표본수 (명)	고용 알선업	상용 인력 공급 및 인사관리 서비스업	요양병원	노인 양로 복지시설 운영업	방문 복지서비스 제공업	이용업
전체		174	0.6	0.6	0.6	0.6	0.6	0.6
성별	남성	114	0.9	0.9	0.9	-	-	0.9
	여성	60	-	-	-	1.7	1.7	-
연령대	65-69세	82	-	-	1.2	-	1.2	-
	70-74세	55	1.8	-	-	-	-	-
	75-80세	37	-	2.7	-	2.7	-	2.7
취업 유무	취업자	174	0.6	0.6	0.6	0.6	0.6	0.6
	미취업자	-	-	-	-	-	-	-
취업 의사	하고싶지않음	44	-	-	2.3	-	2.3	-
	하고싶음	130	0.8	0.8	-	0.8	-	0.8
지역	덕양구	90	-	-	-	1.1	-	1.1
	덕양북부	44	-	-	-	-	-	2.3
	덕양남부	46	-	-	-	2.2	-	-
	일산동구	41	-	-	2.4	-	2.4	-
	일산서구	43	2.3	2.3	-	-	-	-
세대 유형	1인 가구	29	-	-	-	3.4	-	-
	부부세대	124	0.8	0.8	0.8	-	0.8	0.8
	2세대 또는 3세대 함께 거주	21	-	-	-	-	-	-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9	-	-	-	-	-	-
	중학교 졸업	33	-	-	-	3.0	-	3.0
	고등학교 졸업	112	0.9	0.9	0.9	-	0.9	-
	대학교 졸업	10	-	-	-	-	-	-
기초 수급 여부	기초생활수급자	1	-	-	-	-	-	-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에 수급자였던 적이 있음	1	-	-	-	-	-	-
	아님	172	0.6	0.6	0.6	0.6	0.6	0.6
경제 수준 평가	하	31	-	-	-	3.2	-	3.2
	중하	87	1.1	1.1	-	-	-	-
	중	50	-	-	2.0	-	-	-
	중상 이상	6	-	-	-	-	16.7	-
건강 수준 평가	나쁨 (나쁨+매우나쁨)	12	8.3	-	-	-	-	-
	보통	70	-	1.4	-	-	-	-
	좋음 (좋음+매우 좋음)	92	-	-	1.1	1.1	1.1	1.1

표 6-24 | 사업체 소재지_시도-취업자

(단위:%)

구분		표본수 (명)	서울	세종	경기
전체		174	3.4	0.6	96.0
성별	남성	114	4.4	0.9	94.7
	여성	60	1.7	-	98.3
연령대	65-69세	82	7.3	-	92.7
	70-74세	55	-	1.8	98.2
	75-80세	37	-	-	100.0
취업 유무	취업자	174	3.4	0.6	96.0
	미취업자	-	-	-	-
취업 의사	하고싶지않음	44	2.3	-	97.7
	하고싶음	130	3.8	0.8	95.4
지역	덕양구	90	2.2	1.1	96.7
	덕양북부	44	2.3	2.3	95.5
	덕양남부	46	2.2	-	97.8
	일산동구	41	7.3	-	92.7
	일산서구	43	2.3	-	97.7
세대 유형	1인 가구	29	6.9	-	93.1
	부부세대	124	2.4	0.8	96.8
	2세대 또는 3세대 함께 거주	21	4.8	-	95.2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9	-	-	100.0
	중학교 졸업	33	-	3.0	97.0
	고등학교 졸업	112	4.5	-	95.5
	대학교 졸업	10	10.0	-	90.0
기초 수급 여부	기초생활수급자	1	-	-	100.0
	자금은 아니지만, 과거에 수급자였던 적이 있음	1	-	-	100.0
	아님	172	3.5	0.6	95.9
경제 수준 평가	하	31	-	3.2	96.8
	중하	87	1.1	-	98.9
	중	50	6.0	-	94.0
	중상 이상	6	33.3	-	66.7
건강 수준 평가	나쁨 (나쁨+매우나쁨)	12	-	8.3	91.7
	보통	70	1.4	-	98.6
	좋음 (좋음+매우 좋음)	92	5.4	-	94.6

표 6-25 | 현재 직업-취업자

(단위:%)

구분		표본수 (명)	단순노무 종사자	판매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사무 종사자
전체		174	36.2	29.3	19.0	12.6	2.3	0.6
성별	남성	114	41.2	25.4	13.2	15.8	3.5	0.9
	여성	60	26.7	36.7	30.0	6.7	-	-
연령대	65-69세	82	25.6	31.7	24.4	14.6	3.7	-
	70-74세	55	41.8	25.5	14.5	14.5	1.8	1.8
	75-80세	37	51.4	29.7	13.5	5.4	-	-
취업 유무	취업자	174	36.2	29.3	19.0	12.6	2.3	0.6
	미취업자	-	-	-	-	-	-	-
취업 의사	하고싶지않음	44	36.4	36.4	13.6	11.4	2.3	-
	하고싶음	130	36.2	26.9	20.8	13.1	2.3	0.8
지역	덕양구	90	31.1	35.6	24.4	5.6	2.2	1.1
	덕양북부	44	34.1	27.3	29.5	9.1	-	-
	덕양남부	46	28.3	43.5	19.6	2.2	4.3	2.2
	일산동구	41	43.9	19.5	14.6	19.5	2.4	-
	일산서구	43	39.5	25.6	11.6	20.9	2.3	-
세대 유형	1인 가구	29	58.6	20.7	17.2	3.4	-	-
	부부세대	124	37.1	27.4	16.1	15.3	3.2	0.8
	2세대 또는 3세대 함께 거주	21	-	52.4	38.1	9.5	-	-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9	47.4	15.8	31.6	5.3	-	-
	중학교 졸업	33	36.4	27.3	24.2	12.1	-	-
	고등학교 졸업	112	37.5	29.5	16.1	13.4	3.6	-
	대학교 졸업	10	-	60.0	10.0	20.0	-	10.0
기초 수급 여부	기초생활수급자	1	100.0	-	-	-	-	-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에 수급자였던 적이 있음	1	-	-	-	100.0	-	-
	아님	172	36.0	29.7	19.2	12.2	2.3	0.6
경제 수준 평가	하	31	35.5	25.8	32.3	6.5	-	-
	중하	87	46.0	31.0	12.6	10.3	-	-
	중	50	24.0	26.0	20.0	20.0	8.0	2.0
	중상 이상	6	-	50.0	33.3	16.7	-	-
건강 수준 평가	나쁨 (나쁨+매우나쁨)	12	8.3	50.0	41.7	-	-	-
	보통	70	47.1	28.6	8.6	12.9	1.4	1.4
	좋음 (좋음+매우 좋음)	92	31.5	27.2	23.9	14.1	3.3	-

표 6-26 | 일자리 근무시간_1)근무기간-취업자

(단위:%, 년)

구분		표본수 (명)	5년 미만	5-9년	10-14년	15-19년	20년 이상	평균(년)
전체		174	30.5	24.1	17.8	8.0	19.5	11.0
성별	남성	114	28.9	28.9	20.2	7.9	14.0	9.75
	여성	60	33.3	15.0	13.3	8.3	30.0	13.45
연령대	65-69세	82	30.5	22.0	19.5	8.5	19.5	10.8
	70-74세	55	34.5	23.6	12.7	12.7	16.4	11.2
	75-80세	37	24.3	29.7	21.6	-	24.3	11.3
취업 유무	취업자	174	30.5	24.1	17.8	8.0	19.5	11.0
	미취업자	-	-	-	-	-	-	-
취업 의사	하고싶지않음	44	20.5	25.0	27.3	6.8	20.5	11.9
	하고싶음	130	33.8	23.8	14.6	8.5	19.2	10.7
지역	덕양구	90	33.3	26.7	18.9	5.6	15.6	10.1
	덕양북부	44	29.5	31.8	15.9	9.1	13.6	10.6
	덕양남부	46	37.0	21.7	21.7	2.2	17.4	9.5
	일산동구	41	24.4	22.0	14.6	12.2	26.8	12.4
	일산서구	43	30.2	20.9	18.6	9.3	20.9	11.7
세대 유형	1인 가구	29	44.8	17.2	13.8	3.4	20.7	9.8
	부부세대	124	29.0	26.6	16.9	8.9	18.5	11.1
	2세대 또는 3세대 함께 거주	21	19.0	19.0	28.6	9.5	23.8	12.3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9	63.2	10.5	10.5	10.5	5.3	5.6
	중학교 졸업	33	30.3	9.1	27.3	6.1	27.3	14.2
	고등학교 졸업	112	25.0	31.3	16.1	8.0	19.6	10.9
	대학교 졸업	10	30.0	20.0	20.0	10.0	20.0	12.1
기초 수급 여부	기초생활수급자	1	-	100.0	-	-	-	6.0
	자금은 아니지만, 과거에 수급자였던 적이 있음	1	-	-	-	100.0	-	15.0
	아님	172	30.8	23.8	18.0	7.6	19.8	11.0
경제 수준 평가	하	31	25.8	25.8	32.3	9.7	6.5	9.9
	중하	87	40.2	19.5	12.6	9.2	18.4	10.5
	중	50	20.0	32.0	20.0	4.0	24.0	11.5
	중상 이상	6	-	16.7	-	16.7	66.7	20.8
건강 수준 평가	나쁨 (나쁨+매우나쁨)	12	16.7	25.0	50.0	8.3	-	8.6
	보통	70	31.4	30.0	20.0	7.1	11.4	9.1
	좋음 (좋음+매우 좋음)	92	31.5	19.6	12.0	8.7	28.3	12.8

표 6-27 | 일자리 근무시간_2)1주 평균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취업자

(단위:일, 시간)

구분		표본수 (명)	근로일수	근로시간
전체		174	5.24	38.29
성별	남성	114	5.22	38.63
	여성	60	5.26	37.66
연령대	65-69세	82	5.32	40.13
	70-74세	55	5.23	37.97
	75-80세	37	5.07	34.69
취업 유무	취업자	174	5.24	38.29
	미취업자	-	-	-
취업 의사	하고싶지않음	44	5.32	39.23
	하고싶음	130	5.21	37.98
지역	덕양구	90	5.04	35.16
	덕양북부	44	4.93	34.64
	덕양남부	46	5.15	35.65
	일산동구	41	5.37	41.00
	일산서구	43	5.51	42.28
세대 유형	1인 가구	29	4.91	33.02
	부부세대	124	5.28	38.92
	2세대 또는 3세대 함께 거주	21	5.43	41.86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9	4.63	32.53
	중학교 졸업	33	5.09	36.82
	고등학교 졸업	112	5.32	39.42
	대학교 졸업	10	5.90	41.50
기초 수급 여부	기초생활수급자	1	3.00	9.00
	자금은 아니지만, 과거에 수급자였던 적이 있음	1	6.00	48.00
	아님	172	5.24	38.41
경제 수준 평가	하	31	4.87	33.48
	중하	87	5.21	37.55
	중	50	5.48	41.88
	중상 이상	6	5.50	44.00
건강 수준 평가	나쁨 (나쁨+매우나쁨)	12	4.83	33.17
	보통	70	5.12	37.26
	좋음 (좋음+매우 좋음)	92	5.38	39.74

표 6-28 | 종사자 지위-취업자

(단위:%)

구분		표본수 (명)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전체		174	20.1	29.9	8.6	4.6	35.6	1.1
성별	남성	114	23.7	31.6	8.8	4.4	31.6	-
	여성	60	13.3	26.7	8.3	5.0	43.3	3.3
연령대	65-69세	82	15.9	28.0	11.0	7.3	36.6	1.2
	70-74세	55	23.6	32.7	7.3	-	34.5	1.8
	75-80세	37	24.3	29.7	5.4	5.4	35.1	-
취업 유무	취업자	174	20.1	29.9	8.6	4.6	35.6	1.1
	미취업자	-	-	-	-	-	-	-
취업 의사	하고싶지않음	44	22.7	31.8	2.3	4.5	38.6	-
	하고싶음	130	19.2	29.2	10.8	4.6	34.6	1.5
지역	덕양구	90	12.2	35.6	10.0	-	41.1	1.1
	덕양북부	44	20.5	34.1	9.1	-	34.1	2.3
	덕양남부	46	4.3	37.0	10.9	-	47.8	-
	일산동구	41	36.6	22.0	9.8	2.4	29.3	-
	일산서구	43	20.9	25.6	4.7	16.3	30.2	2.3
세대 유형	1인 가구	29	6.9	44.8	13.8	3.4	31.0	-
	부부세대	124	25.0	25.8	8.9	2.4	36.3	1.6
	2세대 또는 3세대 함께 거주	21	9.5	33.3	-	19.0	38.1	-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9	-	47.4	21.1	-	31.6	-
	중학교 졸업	33	15.2	39.4	3.0	-	39.4	3.0
	고등학교 졸업	112	25.9	25.0	8.9	7.1	32.1	0.9
	대학교 졸업	10	10.0	20.0	-	-	70.0	-
기초 수급 여부	기초생활수급자	1	-	100.0	-	-	-	-
	자금은 아니지만, 과거에 수급자였던 적이 있음	1	100.0	-	-	-	-	-
	아님	172	19.8	29.7	8.7	4.7	36.0	1.2
경제 수준 평가	하	31	6.5	45.2	12.9	-	32.3	3.2
	중하	87	18.4	31.0	11.5	5.7	32.2	1.1
	중	50	30.0	22.0	2.0	4.0	42.0	-
	중상 이상	6	33.3	-	-	16.7	50.0	-
건강 수준 평가	나쁨 (나쁨+매우나쁨)	12	8.3	25.0	16.7	-	50.0	-
	보통	70	28.6	31.4	5.7	2.9	31.4	-
	좋음 (좋음+매우 좋음)	92	15.2	29.3	9.8	6.5	37.0	2.2

표 6-29 | 생애 총 노동기간-취업자

(단위:%, 년)

구분		표본수 (명)	10년 미만	10-19년	20-29년	30-39년	40년 이상	평균(년)
전체		174	1.1	2.9	9.8	28.7	57.5	38.6
성별	남성	114	1.8	-	2.6	21.9	73.7	42.46
	여성	60	-	8.3	23.3	41.7	26.7	31.37
연령대	65-69세	82	1.2	3.7	12.2	36.6	46.3	35.1
	70-74세	55	-	3.6	7.3	25.5	63.6	40.5
	75-80세	37	2.7	-	8.1	16.2	73.0	43.7
취업 유무	취업자	174	1.1	2.9	9.8	28.7	57.5	38.6
	미취업자	-	-	-	-	-	-	-
취업 의사	하고싶지않음	44	2.3	9.1	13.6	29.5	45.5	36.6
	하고싶음	130	0.8	0.8	8.5	28.5	61.5	39.3
지역	덕양구	90	1.1	4.4	11.1	16.7	66.7	39.4
	덕양북부	44	-	2.3	13.6	11.4	72.7	41.1
	덕양남부	46	2.2	6.5	8.7	21.7	60.9	37.7
	일산동구	41	-	2.4	9.8	48.8	39.0	36.4
	일산서구	43	2.3	-	7.0	34.9	55.8	39.2
세대 유형	1인 가구	29	3.4	3.4	10.3	31.0	51.7	37.1
	부부세대	124	0.8	2.4	8.9	29.0	58.9	38.7
	2세대 또는 3세대 함께 거주	21	-	4.8	14.3	23.8	57.1	40.2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9	-	-	5.3	15.8	78.9	47.4
	중학교 졸업	33	-	3.0	15.2	27.3	54.5	39.4
	고등학교 졸업	112	1.8	3.6	9.8	30.4	54.5	36.9
	대학교 졸업	10	-	-	-	40.0	60.0	39.1
기초 수급 여부	기초생활수급자	1	100.0	-	-	-	-	5.0
	자금은 아니지만, 과거에 수급자였던 적이 있음	1	-	-	-	100.0	-	35.0
	아님	172	0.6	2.9	9.9	28.5	58.1	38.9
경제 수준 평가	하	31	3.2	3.2	3.2	12.9	77.4	42.8
	중하	87	1.1	3.4	13.8	35.6	46.0	36.6
	중	50	-	2.0	6.0	26.0	66.0	39.4
	중상 이상	6	-	-	16.7	33.3	50.0	39.8
건강 수준 평가	나쁨 (나쁨+매우나쁨)	12	-	-	8.3	16.7	75.0	42.8
	보통	70	1.4	5.7	5.7	22.9	64.3	39.3
	좋음 (좋음+매우 좋음)	92	1.1	1.1	13.0	34.8	50.0	37.6

표 6-30 | 일자리 종사자 수-취업자

(단위:%)

구분		표본수 (명)	1-4명	5-49명	50-99명
전체		174	60.9	37.9	1.1
성별	남성	114	54.4	43.9	1.8
	여성	60	73.3	26.7	-
연령대	65-69세	82	69.5	29.3	1.2
	70-74세	55	50.9	47.3	1.8
	75-80세	37	56.8	43.2	-
취업 유무	취업자	174	60.9	37.9	1.1
	미취업자	-	-	-	-
취업 의사	하고싶지않음	44	61.4	36.4	2.3
	하고싶음	130	60.8	38.5	0.8
지역	덕양구	90	58.9	41.1	-
	덕양북부	44	50.0	50.0	-
	덕양남부	46	67.4	32.6	-
	일산동구	41	58.5	36.6	4.9
	일산서구	43	67.4	32.6	-
세대 유형	1인 가구	29	48.3	51.7	-
	부부세대	124	61.3	37.1	1.6
	2세대 또는 3세대 함께 거주	21	76.2	23.8	-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9	36.8	63.2	-
	중학교 졸업	33	66.7	30.3	3.0
	고등학교 졸업	112	60.7	38.4	0.9
	대학교 졸업	10	90.0	10.0	-
기초 수급 여부	기초생활수급자	1	-	100.0	-
	자금은 아니지만, 과거에 수급자였던 적이 있음	1	100.0	-	-
	아님	172	61.0	37.8	1.2
경제 수준 평가	하	31	54.8	45.2	-
	중하	87	63.2	35.6	1.1
	중	50	58.0	40.0	2.0
	중상 이상	6	83.3	16.7	-
건강 수준 평가	나쁨 (나쁨+매우나쁨)	12	66.7	33.3	-
	보통	70	45.7	52.9	1.4
	좋음 (좋음+매우 좋음)	92	71.7	27.2	1.1

표 6-31 | 현 일자리 계속 근로 기대 시간-취업자

(단위:%, 년)

구분		표본수 (명)	5년 미만	5-9년	10-14년	15-19년	20년 이상	평균(년)
전체		174	58.6	35.1	5.2	0.6	0.6	4.0
성별	남성	114	55.3	37.7	6.1	-	0.9	4.2
	여성	60	65.0	30.0	3.3	1.7	-	3.8
연령대	65-69세	82	37.8	50.0	9.8	1.2	1.2	5.1
	70-74세	55	80.0	18.2	1.8	-	-	3.1
	75-80세	37	73.0	27.0	-	-	-	3.0
취업 유무	취업자	174	58.6	35.1	5.2	0.6	0.6	4.0
	미취업자	-	-	-	-	-	-	-
취업 의사	하고싶지않음	44	81.8	18.2	-	-	-	3.0
	하고싶음	130	50.8	40.8	6.9	0.8	0.8	4.4
지역	덕양구	90	58.9	34.4	5.6	1.1	-	4.1
	덕양북부	44	61.4	34.1	2.3	2.3	-	4.0
	덕양남부	46	56.5	34.8	8.7	-	-	4.1
	일산동구	41	58.5	36.6	4.9	-	-	3.5
	일산서구	43	58.1	34.9	4.7	-	2.3	4.5
세대 유형	1인 가구	29	75.9	20.7	3.4	-	-	2.9
	부부세대	124	55.6	38.7	4.8	0.8	-	4.0
	2세대 또는 3세대 함께 거주	21	52.4	33.3	9.5	-	4.8	5.6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9	68.4	31.6	-	-	-	3.2
	중학교 졸업	33	60.6	30.3	6.1	3.0	-	3.9
	고등학교 졸업	112	56.3	36.6	6.3	-	0.9	4.3
	대학교 졸업	10	60.0	40.0	-	-	-	3.7
기초 수급 여부	기초생활수급자	1	100.0	-	-	-	-	3.0
	자금은 아니지만, 과거에 수급자였던 적이 있음	1	100.0	-	-	-	-	3.0
	아님	172	58.1	35.5	5.2	0.6	0.6	4.0
경제 수준 평가	하	31	61.3	32.3	3.2	3.2	-	4.2
	중하	87	62.1	35.6	2.3	-	-	3.5
	중	50	50.0	36.0	12.0	-	2.0	4.9
	중상 이상	6	66.7	33.3	-	-	-	2.8
건강 수준 평가	나쁨 (나쁨+매우나쁨)	12	75.0	25.0	-	-	-	3.3
	보통	70	62.9	34.3	2.9	-	-	3.6
	좋음 (좋음+매우 좋음)	92	53.3	37.0	7.6	1.1	1.1	4.5

표 6-32 | 직장 내 연령차별 경험-취업자

(단위:%)

구분		표본수 (명)	네, 있습니다	아니오, 없습니다
전체		174	21.3	78.7
성별	남성	114	24.6	75.4
	여성	60	15.0	85.0
연령대	65-69세	82	20.7	79.3
	70-74세	55	21.8	78.2
	75-80세	37	21.6	78.4
취업 유무	취업자	174	21.3	78.7
	미취업자	-	-	-
취업 의사	하고싶지않음	44	22.7	77.3
	하고싶음	130	20.8	79.2
지역	덕양구	90	28.9	71.1
	덕양북부	44	27.3	72.7
	덕양남부	46	30.4	69.6
	일산동구	41	19.5	80.5
	일산서구	43	7.0	93.0
세대 유형	1인 가구	29	20.7	79.3
	부부세대	124	22.6	77.4
	2세대 또는 3세대 함께 거주	21	14.3	85.7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9	10.5	89.5
	중학교 졸업	33	30.3	69.7
	고등학교 졸업	112	19.6	80.4
	대학교 졸업	10	30.0	70.0
기초 수급 여부	기초생활수급자	1	100.0	-
	자금은 아니지만, 과거에 수급자였던 적이 있음	1	-	100.0
	아님	172	20.9	79.1
경제 수준 평가	하	31	29.0	71.0
	중하	87	20.7	79.3
	중	50	18.0	82.0
	중상 이상	6	16.7	83.3
건강 수준 평가	나쁨 (나쁨+매우나쁨)	12	25.0	75.0
	보통	70	28.6	71.4
	좋음 (좋음+매우 좋음)	92	15.2	84.8

표 6-33 | 직장 내 연령차별 경험-차별 경험있는 취업자

(단위:%)

구분		표본수 (명)	일하기에 너무 나이가 많다는 말을 들은 적 있음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리는 기회에서 제외된 적 있음	나이로 인한 특정 업무 배제	나이로 인한 업무 능력 평가 절하 및 업무배제
전체		37	51.4	16.2	10.8	21.6
성별	남성	28	64.3	7.1	7.1	21.4
	여성	9	11.1	44.4	22.2	22.2
연령대	65-69세	17	64.7	11.8	5.9	17.6
	70-74세	12	33.3	25.0	8.3	33.3
	75-80세	8	50.0	12.5	25.0	12.5
취업 유무	취업자	37	51.4	16.2	10.8	21.6
	미취업자	-	-	-	-	-
취업 의사	하고싶지않음	10	50.0	20.0	10.0	20.0
	하고싶음	27	51.9	14.8	11.1	22.2
지역	덕양구	26	53.8	23.1	3.8	19.2
	덕양북부	12	58.3	16.7	-	25.0
	덕양남부	14	50.0	28.6	7.1	14.3
	일산동구	8	62.5	-	12.5	25.0
	일산서구	3	-	-	66.7	33.3
세대 유형	1인 가구	6	50.0	-	33.3	16.7
	부부세대	28	53.6	17.9	7.1	21.4
	2세대 또는 3세대 함께 거주	3	33.3	33.3	-	33.3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2	50.0	-	-	50.0
	중학교 졸업	10	20.0	20.0	30.0	30.0
	고등학교 졸업	22	68.2	9.1	4.5	18.2
	대학교 졸업	3	33.3	66.7	-	-
기초 수급 여부	기초생활수급자	1	100.0	-	-	-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에 수급자였던 적이 있음	-	-	-	-	-
	아님	36	50.0	16.7	11.1	22.2
경제 수준 평가	하	9	33.3	22.2	22.2	22.2
	중하	18	61.1	16.7	-	22.2
	중	9	55.6	11.1	22.2	11.1
	중상 이상	1	-	-	-	100.0
건강 수준 평가	나쁨 (나쁨+매우나쁨)	3	-	66.7	-	33.3
	보통	20	55.0	10.0	15.0	20.0
	좋음 (좋음+매우 좋음)	14	57.1	14.3	7.1	21.4

표 6-34 | 물리적 친화 노동환경 구축-취업자

(단위:%, 점)

구분		표본수 (명)	전혀 구축 되지 않음	구축되지 않음	보통	어느 정도 구축됨	매우 잘 구축됨	평균(점)
전체		174	2.3	32.8	48.3	16.7	-	2.79
성별	남성	114	1.8	28.9	55.3	14.0	-	2.82
	여성	60	3.3	40.0	35.0	21.7	-	2.75
연령대	65-69세	82	3.7	32.9	46.3	17.1	-	2.77
	70-74세	55	1.8	30.9	50.9	16.4	-	2.82
	75-80세	37	-	35.1	48.6	16.2	-	2.81
취업 유무	취업자	174	2.3	32.8	48.3	16.7	-	2.79
	미취업자	-	-	-	-	-	-	-
취업 의사	하고싶지않음	44	4.5	27.3	59.1	9.1	-	2.73
	하고싶음	130	1.5	34.6	44.6	19.2	-	2.82
지역	덕양구	90	-	34.4	46.7	18.9	-	2.84
	덕양북부	44	-	31.8	50.0	18.2	-	2.86
	덕양남부	46	-	37.0	43.5	19.6	-	2.83
	일산동구	41	4.9	9.8	65.9	19.5	-	3.00
	일산서구	43	4.7	51.2	34.9	9.3	-	2.49
세대 유형	1인 가구	29	6.9	37.9	31.0	24.1	-	2.72
	부부세대	124	0.8	29.0	54.0	16.1	-	2.85
	2세대 또는 3세대 함께 거주	21	4.8	47.6	38.1	9.5	-	2.52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9	-	47.4	36.8	15.8	-	2.68
	중학교 졸업	33	6.1	36.4	48.5	9.1	-	2.61
	고등학교 졸업	112	0.9	28.6	51.8	18.8	-	2.88
	대학교 졸업	10	10.0	40.0	30.0	20.0	-	2.60
기초 수급 여부	기초생활수급자	1	-	-	100.0	-	-	3.00
	자금은 아니지만, 과거에 수급자였던 적이 있음	1	-	100.0	-	-	-	2.00
	아님	172	2.3	32.6	48.3	16.9	-	2.80
경제 수준 평가	하	31	-	41.9	41.9	16.1	-	2.74
	중하	87	3.4	32.2	55.2	9.2	-	2.70
	중	50	2.0	32.0	42.0	24.0	-	2.88
	중상 이상	6	-	-	33.3	66.7	-	3.67
건강 수준 평가	나쁨 (나쁨+매우나쁨)	12	-	33.3	66.7	-	-	2.67
	보통	70	2.9	30.0	52.9	14.3	-	2.79
	좋음 (좋음+매우 좋음)	92	2.2	34.8	42.4	20.7	-	2.82

표 6-35 | 필요한 물리적 고령친화 노동환경-취업자

(단위:%)

구분		표본수 (명)	편리한 화장실	쾌적한 휴식공간	안전한 작업장	장애물 없는 평평한 복도	고령 친화적인 시청각적 정보제공	저소음, 저진동, 쾌적한 공기	채광 및 온도 (냉난방)
전체		174	6.9	30.5	31.6	6.9	9.8	7.5	6.9
성별	남성	114	7.0	27.2	34.2	5.3	10.5	9.6	6.1
	여성	60	6.7	36.7	26.7	10.0	8.3	3.3	8.3
연령대	65-69세	82	9.8	30.5	30.5	7.3	8.5	7.3	6.1
	70-74세	55	5.5	21.8	41.8	7.3	5.5	10.9	7.3
	75-80세	37	2.7	43.2	18.9	5.4	18.9	2.7	8.1
취업 유무	취업자	174	6.9	30.5	31.6	6.9	9.8	7.5	6.9
	미취업자	-	-	-	-	-	-	-	-
취업 의사	하고싶지않음	44	4.5	25.0	29.5	15.9	13.6	-	11.4
	하고싶음	130	7.7	32.3	32.3	3.8	8.5	10.0	5.4
지역	덕양구	90	3.3	33.3	21.1	11.1	12.2	11.1	7.8
	덕양북부	44	2.3	25.0	22.7	11.4	18.2	11.4	9.1
	덕양남부	46	4.3	41.3	19.6	10.9	6.5	10.9	6.5
	일산동구	41	12.2	14.6	56.1	2.4	4.9	2.4	7.3
	일산서구	43	9.3	39.5	30.2	2.3	9.3	4.7	4.7
세대 유형	1인 가구	29	-	41.4	34.5	6.9	3.4	-	13.8
	부부세대	124	6.5	28.2	32.3	6.5	11.3	8.9	6.5
	2세대 또는 3세대 함께 거주	21	19.0	28.6	23.8	9.5	9.5	9.5	-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9	-	31.6	26.3	15.8	10.5	5.3	10.5
	중학교 졸업	33	3.0	15.2	36.4	6.1	21.2	9.1	9.1
	고등학교 졸업	112	6.3	34.8	33.9	5.4	6.3	7.1	6.3
	대학교 졸업	10	40.0	30.0	-	10.0	10.0	10.0	-
기초 수급 여부	기초생활수급자	1	-	100.0	-	-	-	-	-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에 수급자였던 적이 있음	1	-	100.0	-	-	-	-	-
	아님	172	7.0	29.7	32.0	7.0	9.9	7.6	7.0
경제 수준 평가	하	31	-	12.9	16.1	16.1	32.3	9.7	12.9
	중하	87	6.9	37.9	28.7	6.9	6.9	6.9	5.7
	중	50	8.0	30.0	46.0	-	2.0	8.0	6.0
	중상 이상	6	33.3	16.7	33.3	16.7	-	-	-
건강 수준 평가	나쁨 (나쁨+매우나쁨)	12	-	8.3	16.7	16.7	16.7	25.0	16.7
	보통	70	5.7	37.1	35.7	2.9	2.9	5.7	10.0
	좋음 (좋음+매우 좋음)	92	8.7	28.3	30.4	8.7	14.1	6.5	3.3

표 6-36 | 취업의사

(단위:%)

구분		표본수 (명)	하고 싶지 않음	현재 직종의 일을 계속하고 싶음	현재 직종과 다른 일을 하고 싶음	지금은 일하지 않지만 앞으로 하고 싶음
전체		500	59.8	22.0	4.0	14.2
성별	남성	252	47.2	31.7	6.0	15.1
	여성	248	72.6	12.1	2.0	13.3
연령대	65-69세	180	40.6	32.8	5.6	21.1
	70-74세	160	64.4	21.3	3.8	10.6
	75-80세	160	76.9	10.6	2.5	10.0
취업 유무	취업자	174	25.3	63.2	11.5	-
	미취업자	326	78.2	-	-	21.8
취업 의사	하고싶지않음	299	100.0	-	-	-
	하고싶음	201	-	54.7	10.0	35.3
지역	덕양구	250	52.0	23.2	5.6	19.2
	덕양북부	125	48.8	24.8	6.4	20.0
	덕양남부	125	55.2	21.6	4.8	18.4
	일산동구	125	74.4	18.4	2.4	4.8
	일산서구	125	60.8	23.2	2.4	13.6
세대 유형	1인 가구	114	72.8	14.0	0.9	12.3
	부부세대	328	56.7	24.4	5.2	13.7
	2세대 또는 3세대 함께 거주	58	51.7	24.1	3.4	20.7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54	57.4	29.6	1.9	11.1
	중학교 졸업	129	72.9	9.3	6.2	11.6
	고등학교 졸업	292	56.5	25.7	3.4	14.4
	대학교 졸업	25	36.0	28.0	4.0	32.0
기초 수급 여부	기초생활수급자	33	84.8	-	-	15.2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에 수급자였던 적이 있음	10	100.0	-	-	-
	아님	457	57.1	24.1	4.4	14.4
경제 수준 평가	하	144	71.5	7.6	5.6	15.3
	중하	225	55.1	26.2	2.2	16.4
	중	119	53.8	30.3	5.9	10.1
	중상 이상	12	66.7	33.3	-	-
건강 수준 평가	나쁨 (나쁨+매우나쁨)	101	77.2	3.0	5.0	14.9
	보통	207	60.4	25.6	1.0	13.0
	좋음 (좋음+매우 좋음)	192	50.0	28.1	6.8	15.1

표 6-37 | 구직활동 경험율-미취업자 중 취업희망자

(단위:%)

구분		표본수 (명)	구직활동을 한 적이 있음	구직활동을 한 적이 없음
전체		71	38.0	62.0
성별	남성	38	39.5	60.5
	여성	33	36.4	63.6
연령대	65-69세	38	50.0	50.0
	70-74세	17	35.3	64.7
	75-80세	16	12.5	87.5
취업 유무	취업자	-	-	-
	미취업자	71	38.0	62.0
취업 의사	하고싶지않음	-	-	-
	하고싶음	71	38.0	62.0
지역	덕양구	48	41.7	58.3
	덕양북부	25	36.0	64.0
	덕양남부	23	47.8	52.2
	일산동구	6	50.0	50.0
	일산서구	17	23.5	76.5
세대 유형	1인 가구	14	14.3	85.7
	부부세대	45	46.7	53.3
	2세대 또는 3세대 함께 거주	12	33.3	66.7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6	33.3	66.7
	중학교 졸업	15	20.0	80.0
	고등학교 졸업	42	40.5	59.5
	대학교 졸업	8	62.5	37.5
기초 수급 여부	기초생활수급자	5	60.0	40.0
	자금은 아니지만, 과거에 수급자였던 적이 있음	-	-	-
	아님	66	36.4	63.6
경제 수준 평가	하	22	27.3	72.7
	중하	37	32.4	67.6
	중	12	75.0	25.0
	중상 이상	.	.	.
건강 수준 평가	나쁨 (나쁨+매우나쁨)	15	40.0	60.0
	보통	27	22.2	77.8
	좋음 (좋음+매우 좋음)	29	51.7	48.3

표 6-38 | 구직방법(복수응답)-미취업자 중 구직경험 있는 취업희망자

(단위:%)

구분		표본수 (명)	공공 취업알선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기타 공공 알선기관)	친구, 친지 소개 및 부탁	복지관, 행정동주민센터 직원의 소개
전체		27	33.3	59.3	11.1
성별	남성	15	53.3	46.7	-
	여성	12	8.3	75.0	25.0
연령대	65-69세	19	36.8	63.2	-
	70-74세	6	33.3	66.7	16.7
	75-80세	2	-	-	100.0
취업 유무	취업자	-	-	-	-
	미취업자	27	33.3	59.3	11.1
취업 의사	하고싶지않음	-	-	-	-
	하고싶음	27	33.3	59.3	11.1
지역	덕양구	20	30.0	60.0	15.0
	덕양북부	9	11.1	88.9	11.1
	덕양남부	11	45.5	36.4	18.2
	일산동구	3	-	100.0	-
	일산서구	4	75.0	25.0	-
세대 유형	1인 가구	2	-	100.0	-
	부부세대	21	23.8	66.7	14.3
	2세대 또는 3세대 함께 거주	4	100.0	-	-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2	50.0	50.0	-
	중학교 졸업	3	33.3	66.7	33.3
	고등학교 졸업	17	23.5	76.5	-
	대학교 졸업	5	60.0	-	40.0
기초 수급 여부	기초생활수급자	3	66.7	33.3	-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에 수급자였던 적이 있음	-	-	-	-
	아님	24	29.2	62.5	12.5
경제 수준 평가	하	6	16.7	50.0	50.0
	중하	12	25.0	75.0	-
	중	9	55.6	44.4	-
	중상 이상	-	-	-	-
건강 수준 평가	나쁨 (나쁨+매우나쁨)	6	-	100.0	-
	보통	6	50.0	50.0	16.7
	좋음 (좋음+매우 좋음)	15	40.0	46.7	13.3

표 6-39 | 구직사유-향후 일을 계속하고 싶은 취업자, 미취업자 중 취업희망자

(단위:%)

구분		표본수 (명)	생계비 마련	용돈 마련	건강 유지	사람들과 사귀기	시간 보내기	능력(경력) 발휘
전체		201	65.2	13.9	10.9	3.0	5.0	2.0
성별	남성	133	71.4	10.5	9.0	2.3	3.8	3.0
	여성	68	52.9	20.6	14.7	4.4	7.4	-
연령대	65-69세	107	68.2	13.1	9.3	2.8	3.7	2.8
	70-74세	57	64.9	12.3	10.5	5.3	5.3	1.8
	75-80세	37	56.8	18.9	16.2	-	8.1	-
취업 유무	취업자	130	73.1	9.2	8.5	2.3	6.2	0.8
	미취업자	71	50.7	22.5	15.5	4.2	2.8	4.2
취업 의사	하고싶지않음	-	-	-	-	-	-	-
	하고싶음	201	65.2	13.9	10.9	3.0	5.0	2.0
지역	덕양구	120	73.3	5.8	10.8	5.0	3.3	1.7
	덕양북부	64	67.2	6.3	10.9	7.8	4.7	3.1
	덕양남부	56	80.4	5.4	10.7	1.8	1.8	-
	일산동구	32	59.4	21.9	12.5	-	3.1	3.1
	일산서구	49	49.0	28.6	10.2	-	10.2	2.0
세대 유형	1인 가구	31	67.7	9.7	16.1	-	6.5	-
	부부세대	142	67.6	14.1	8.5	3.5	4.2	2.1
	2세대 또는 3세대 함께 거주	28	50.0	17.9	17.9	3.6	7.1	3.6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23	87.0	4.3	4.3	-	4.3	-
	중학교 졸업	35	60.0	20.0	11.4	5.7	2.9	-
	고등학교 졸업	127	63.8	14.2	10.2	3.1	6.3	2.4
	대학교 졸업	16	56.3	12.5	25.0	-	-	6.3
기초 수급 여부	기초생활수급자	5	80.0	-	-	20.0	-	-
	자금은 아니지만, 과거에 수급자였던 적이 있음	-	-	-	-	-	-	-
	아님	196	64.8	14.3	11.2	2.6	5.1	2.0
경제 수준 평가	하	41	65.9	9.8	17.1	4.9	2.4	-
	중하	101	74.3	16.8	5.0	1.0	3.0	-
	중	55	50.9	10.9	16.4	5.5	9.1	7.3
	중상 이상	4	25.0	25.0	25.0	-	25.0	-
건강 수준 평가	나쁨 (나쁨+매우나쁨)	23	65.2	13.0	4.3	4.3	4.3	8.7
	보통	82	62.2	14.6	11.0	4.9	4.9	2.4
	좋음 (좋음+매우 좋음)	96	67.7	13.5	12.5	1.0	5.2	-

Abstract

Application of Production Indicators for Senior citizens of Goyang Special City and Measures to Strengthen Production Activities

Junghwa Moon¹⁾, Jin-Soo Hwang ²⁾ Bongeun Choi, ³⁾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tatus and level of production activities of senior citizens by applying the production indicators for senior citizens of Goyang Special City and based on this, propose a plan to strengthen the production activities of the elderly in Goyang City.

The study was conducted as follows.

First, theories on production activities of the elderly and policy trends related to production activities were reviewed. Second, the production indicators for senior citizens of Goyang Special City were analyzed using administrative statistics and survey data.. Third, The level of production activities for senior citizens of Goyang City and other local governments was analyzed using the outcome indicator among the senior citizen production indicators.. Fourth, The current status of production activities of senior citizens in Goyang City was diagnosed, and based on this, a plan to strengthen production activities of senior citizens in the areas of senior citizens, private companies, local governments, and socio-cultural environment was presented.

Goyang City's plan to strengthen senior citizen production activities derived from

1) Senior Research Fellow, Goyang Research Institute, Korea

2) Director of Research Institute, Korea Senior Citizens Association Policy Research Institute

3) Assistant Researcher, Goyang Research Institute, Korea

the research results is as follows.

(1) Creating customized jobs that meet the needs of the elderly (2) Improving awareness of senior citizens' productive activities (3) Strengthening the capacity of senior citizens (4) Support policies to expand employment of senior citizens in private companies (5) Establishing a customized job delivery system at the regional level (6) Strengthening the provision of job information and accessibility to employment services (7) Systematic management and policy linkage of production indicators for the elderly (8) Creating an senior citizens-friendly employment environment

This study also presented the significance of the research project and follow-up research

정책 24-07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지표 적용 및 생산활동 강화방안

발행일	2024년 09월 30일
저자	문정화, 황진수, 최봉은
발행인	김현호
발행처	고양연구원
주소	1039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태극로 60 빛마루방송지원센터 11층
전화	031-8073-8341
홈페이지	www.goyang.re.kr
S N S	https://www.facebook.com/goyangre/
I S B N	000-00-00000-00-0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고양연구원의 공식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KoPubWorld서체를 사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고양특례시 고령자 생산지표 적용 및 생산활동 강화방안

Application of Production Indicators for Senior Citizens of Goyang Special City and Measures to Strengthen Production Activities